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학위논문

## 한성부 내 연지(蓮池) 연구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를 중심으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길 지 혜

## 한성부 내 연지(蓮池) 연구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손 용 훈

이 논문을 공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길 지 혜

길지혜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위 원 장

成鍾祥



부 위 원 장

양병이



위 원

박희성

(인)

위 원

박희우

(인)

위 원

孫鍾勉



## 국문초록

조선시대 한성부 고지도를 보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5개소의 못이 있다. 이들은 동지(東池), 서지(西池), 남지(南池), 어의동지(於義洞池), 경모궁지(景慕宮池)로, 공통으로 연지(蓮池)라 부를 수 있는 못이다. 이 연지들은 과거 지도나 지리지와 같은 자료에서 중요하게 기록되었는데, 그에 비해 현재 알려진 내용은 일부 명칭과 조성 배경, 그림에 나타난 경관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연지는 소멸되었고, 연지와 관련해 직접 남아있는 역사기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지를 역사적 도시환경 관점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는 사라진 연지의 과거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한성부에서 5개 연지의 환경 특성, 역사적 조성 배경과 이후의 관리, 도시적 이용과 실제 이용자에게 인지된 경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연지라는 장소를 역사적 원형에 가깝게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입지 및 환경 특성에서는 연지 일대의 공간환경과 연지 자체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현재 도시 현황을 함께 고찰하였다. 연지들은 모두 길과 인접하도록 계획하였고, 이는 연지의 관리나 수계의 연결, 영역의 경계 구분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토지 자체는 국가 소유의 공유지로 운영되었다. 5개 연지는 입지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서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산자락 계곡부에, 동지는 습지로 범람이 잦은 곳에 있었다. 남지는 지형이 낮아지는 지점에 있었으나 수계와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었다. 연지의 위치와 규모는 동지를 제외한 다른 연지들은 지적원도에 비교적 정확한 필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지 형태는 서지, 남지, 경모궁지는 방죽이 있어 뚜렷했지만, 동지와 어의동지는 지정한 부지 범위 안에서 수위 변화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했다. 현재는 서지, 어의동지, 경모궁지의 필지 형태가 보존되거나 확장된 상태였으며, 그중 어의동지가 지역에 장소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다.

둘째, 연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나타난 특성을 고찰하고, 소멸 원인을 파악하였다. 5개 연지 중 동지와 남지가 국초 성곽과 함께 먼저 만들어졌다. 이후 태종대 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서지가 조성되고 어의동지가 정비되었다. 경모궁지는 정조대 조영되었다. 조성 목적에서 동지와 남지는 도성의 형세를 비보 하는 목적이 컸으며, 서지는 사신을 영접하는 목적으로, 어의동지는 물을 저류하는 유수지로, 경모궁지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모든 연지는 매몰과 수축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며 운영되었다. 매몰되더라도 연지 터는 공유지로 보존되어 언제라도 공사를 하면 다시 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축 공사에서는 주변 다른 구역 사업과 연계하여 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시했다. 연지 공사는 기본적으로 공역 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주변에 민가가 많이 들어서면 거주민이 공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각 연지는 연의 수확물을 궁, 승정원, 내의원 등 여러 기관에 진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오랫동안 지속해 온 연지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모두 소멸하였다. 서지와 남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연지를 매립하였고, 동지와 어의동지는 매몰된 연지를 다시 수축하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소멸하였다. 경모궁지는 위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셋째, 연지의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지 경관을 감상한 내용을 고찰하여 실제로 연지에 대해 인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지 이용에서 서지와 남지는 국가와 개인의 이용이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국가에서는 사신 영접 연회, 사대례 의식, 상연 의식, 기우제 의식, 관 주관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개인에게는 송별 모임의 상징적 장소이자 연꽃 감상을 위한 문화, 시회와 같은 모임, 친교 모임 등 다양한 여가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반면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개인이 완상하며 잠시 들리거나, 멀리서 조망하거나, 이동할 때 거쳐 가며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연지를 이용해 향유하기보다는 자연경관의 일부로 연지를 감상하였다. 연지 경관에서는 연과 연못물에 대해 인상적으로 묘사했다. 연지 주변 경관으로는 서지와 남지는 길, 성곽, 밀집한 민가와 같은 도시적 경관요소가, 다른 연지들은 농지, 산과 같은 자연적 경관요소가 주로 언급되어 각기 다른 성격을 보였다.

한성부에서 다섯 곳 연지의 기능은 자리 잡은 환경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다. 먼저 성문 앞에 위치한 동지, 서지, 남지는 도성을 진입하거나 출입할 때 접하는 랜드마크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읍치의 못과 구분되는 한양도성 연지의 고유한 입지 특성이었다. 이러한 배치는 연지를 도성의 진·출입 경관으로 의미 있게 해, 성문 앞 만남과 송별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게 했다.

또한,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 지물로 역할을 했다. 주로 가로나 수계가 행정구역의 경계가 되었다고 알려져 왔는데, 연지도 영역을 구분하는 요소로 기능했다. 연지는 한성부에서 동(洞), 궁(宮), 토지이용 등 도시 내 다양한 요소와 영역을 구분해주는 복합적 경계 지물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연지는 서지와 남지였다. 연지 옆 넓은 공터는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았다. 도성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국가적 기능을 도성 인근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성의 수체계 측면에서는 동지가 개천으로 합류하는 지류의 물을 가두는 유수지로의

기능이 강했다. 동지는 저지대 범람이 잦은 곳에서 쉽게 매몰되어 적극적인 연지 조영과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동지 터는 계속 보존되었기 때문에, 습지와 같은 땅을 필요에 따라 못을 파 연못을 수축하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형 못에 가까운 형태였다.

또한, 한성부 연지는 도성의 행락공간으로서 의미 있었다. 여름철 멀리 가지 않아도 도성 가까이에서 연꽃 경관을 즐길 수 있었다. 그중 서지와 남지는 연꽃 감상으로 유명한 행락공간으로 전해진다. 그 과정에서 사대부들이 남긴 시문과 서화는 당대 좋은 장소를 알리는 매체로 작용해, 연지 관련 글과 그림은 이들을 명승으로 더욱 유명해지게 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통해 한성부에서 이들 연지가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조선 초기에는 연지가 비보풍수나 성지로의 역할, 사신 영접 기능 등이 중요시되었다면, 이후의 관리에서는 국용 연 수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원(果園)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국가에서 필요한 연 수확물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연지의 실용적 가치도 높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지는 도시환경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평적 랜드마크로서 기능하였다. 넓은 면적으로 도시 경계부에서 전이공간의 기능을 하였다. 시각적으로 잘 인지되었으며, 물이라는 자원이 주는 청각적 환기와 연꽃 향을 통한 후각적 자극이 있어 공간 전이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도시구성요소였다.

그리고 한성부 지역민에게는 공공적 가치가 높은 장소였다. 한성부에서 민간 저택 내 연지나 궁궐이나 관아 내 연지와 다르게 공공에 개방되어 있었다. 국가적 행사로 이용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연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장소였다. 입지 특성상 접근성도 높았다. 특히 도성 밖 연지들은 밤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성부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연지라는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일반 건조물과 다르게 연지는 그 속성상 주변 공간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적인 도시환경의 한 장소였다. 도시와의 연결이 좋으면서 경관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었고, 도시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경관이었기 때문에, 과거 한성부에서 연지만의 장소적 가치가 높았다.

주요어 : 고지도, 공역 사업, 문화경관, 비보풍수, 수공간, 전통 도시, 한양도성  
학 번 : 2005-31246

## 목 차

국문초록 .....	i
목차 .....	iv
표 목차 .....	vii
그림 목차 .....	vii
<b>1장 서론 .....</b>	<b>1</b>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2
2절 연구 대상과 범위 .....	5
3절 연구 방법과 과정 .....	11
1. 연구 방법 .....	11
2. 연구 과정 .....	16
<b>2장 한성부 환경 고찰 및 연구 방향 .....</b>	<b>19</b>
1절 한성부의 인문·자연환경과 수환경 .....	20
1. 인문·자연환경 .....	20
2. 수환경 .....	30
2절 연구 동향과 분석 방향 .....	38
1. 기존 연구 동향 .....	38
2. 분석 방향과 분석의 틀 .....	43
<b>3장 연지의 입지 및 환경 특성 .....</b>	<b>47</b>
1절 동지(東池) .....	48
1. 동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	48
2. 동지의 위치와 형태 .....	51
3. 동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	57
2절 서지(西池) .....	58
1. 서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	58
2. 서지의 위치와 형태 .....	64
3. 서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	69
3절 남지(南池) .....	70

1. 남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70
2. 남지의 위치와 형태	73
3. 남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78
4절 어의동지(於義洞池)	79
1. 어의동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79
2. 어의동지의 위치와 형태	84
3. 어의동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88
5절 경모궁지(景慕宮池)	92
1. 경모궁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92
2. 경모궁지의 위치와 형태	96
3. 경모궁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102
6절 소결	104
<b>4장 연지의 조성 및 관리와 소멸</b>	<b>109</b>
1절 동지	110
1. 동지의 조성과 관리	110
2. 동지의 소멸과정	115
2절 서지	116
1. 서지의 조성과 관리	116
2. 서지의 소멸과정	121
3절 남지	123
1. 남지의 조성과 관리	123
2. 남지의 소멸과정	128
4절 어의동지	129
1. 어의동지의 조성과 관리	129
2. 어의동지의 소멸과정	131
5절 경모궁지	132
1. 경모궁지의 조성과 관리	132
2. 경모궁지의 소멸과정	134
6절 소결	136
<b>5장 연지의 이용과 경관 감상</b>	<b>141</b>
1절 동지	142

1. 동지의 이용 양상 .....	142
2. 동지 경관 감상의 방식 .....	144
2절 서지 .....	147
1. 서지의 이용 양상 .....	147
2. 서지 경관 감상의 방식 .....	153
3절 남지 .....	159
1. 남지의 이용 양상 .....	159
2. 남지 경관 감상의 방식 .....	164
4절 어의동지 .....	167
1. 어의동지의 이용 양상 .....	167
2. 어의동지 경관 감상의 방식 .....	169
5절 경모궁지 .....	171
1. 경모궁지의 이용 양상 .....	171
2. 경모궁지 경관 감상의 방식 .....	173
6절 소결 .....	175
 <b>6장 결론</b> .....	 <b>179</b>
 참고문헌 .....	 186
Abstract .....	198

## 표 목차

표 1-1. 지도종류별 못 표기 현황 .....	6
표 1-2. 지도별 연지 표기 비교 .....	8
표 1-3. 문헌별 못 기록 현황 .....	9
표 1-4. 연지별 옛글 .....	13
표 1-5. 회화자료와 근대도면자료 .....	15
표 2-1. 연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호구수와 인구수 .....	27
표 2-2. 한성부 행락공간의 유형별 특성 .....	29
표 2-3. 분석의 틀 .....	44
표 3-1. 연지별 입지 및 환경 특성 비교 .....	105
표 4-1. 연지별 조성 및 관리와 소멸과정 비교 .....	138
표 5-1. 동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	146
표 5-2. 서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	157
표 5-3. 남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	166
표 5-4. 어의동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	171
표 5-5. 경모궁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	174
표 5-6. 연지별 이용과 감상방식 비교 .....	176

## 그림 목차

그림 1-1. 「수선전도」에 표기된 한성부 내 연지 위치 .....	5
그림 1-2. 연구흐름도 .....	18
그림 2-1. 한성부의 지형 .....	21
그림 2-2. 한성부의 지질 분포 .....	23
그림 2-3. 「수선전도」에 표기한 한성부 행정구역과 연지 위치 .....	25
그림 2-4. 「수선전도」에 표기한 한성부의 행락공간 분포 .....	30
그림 2-5. 경복궁 내 수공간과 우물 .....	34
그림 2-6. 1908년 「한성부 지적도」의 창선방 양사동 지역 공동 우물 .....	34

그림 2-7. 동궐 내 수공간과 우물 .....	35
그림 2-8. 육조거리 관아와 관아 내 못 .....	36
그림 2-9. 분석의 방향 .....	43
그림 3-1. 「동문송별도」에 나타난 관왕묘 모임(1682년) .....	51
그림 3-2. 「수선전도」에서의 동지 .....	52
그림 3-3. 동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	53
그림 3-4.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동지 위치(추정)와 주변 환경 .....	55
그림 3-5. 동지 일대의 현재 현황 .....	55
그림 3-6. 「동문조도」에서의 동지 .....	57
그림 3-7. 랜도우가 그린 의주로 .....	60
그림 3-8.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서지 일대 지역 .....	62
그림 3-9. 1882년 『朝鮮國珍景』으로 촬영된 천연정과 서지 .....	62
그림 3-10. 「수선전도」에서의 서지 .....	64
그림 3-11. 서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	65
그림 3-12.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서지와 의주로의 연결 .....	65
그림 3-13.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서지와 주변 환경 .....	66
그림 3-14. 서지 일대의 현재 현황 .....	67
그림 3-15. 과거 서지가 위치했던 부지 .....	70
그림 3-16. 학교 앞 경기중영과 천연정 표석 .....	70
그림 3-17. 「수선전도」에서의 남지 .....	73
그림 3-18. 「남지기회도」에 나타난 남지 .....	73
그림 3-19. 1899년 이전 승례문 앞 남지 .....	73
그림 3-20. 남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	75
그림 3-21.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남지와 주변 환경 .....	76
그림 3-22. 1908년 승례문 앞 공지 .....	76
그림 3-23. 남지의 형태 추정 .....	76
그림 3-24. 남지 일대의 현재 현황 .....	77
그림 3-25. 승례문 앞에서 촬영한 남지 일대 현황 .....	78
그림 3-26. 「수선전도」에서의 동촌의 길과 수계 .....	82
그림 3-27. 「수선전도」에서의 어의동지 .....	84
그림 3-28. 1908년 토지허차 첨부도면 10 .....	86
그림 3-29. 1908년 토지불허차 첨부도면 35 .....	86
그림 3-30. 어의동지의 형태 추정 .....	86
그림 3-31. 어의동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	87
그림 3-32. 어의동지 일대의 공간 변화 .....	87

그림 3-33. 과거 어의동지가 있었던 부지 .....	89
그림 3-34. 어의동지 남측 복개 가로 .....	89
그림 3-35.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어의동지와 주변 환경 .....	90
그림 3-36. 어의동지 일대의 현재 현황 .....	91
그림 3-37. 「수선전도」에서의 경모궁지 .....	97
그림 3-38. 경모궁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	98
그림 3-39. 『경모궁의궤』의 경모궁지 도설 .....	98
그림 3-40.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경모궁지와 주변 환경 .....	100
그림 3-41. 경모궁지 일대의 현재 현황 .....	101
그림 3-42. 경모궁지 발굴 부지 .....	102
그림 3-43. 발굴된 경모궁지 원도 유구 .....	102
그림 3-44. 과거 경모궁지가 있었던 부지 .....	103
그림 3-45. 경모궁지 터 인근에 재현한 원도 .....	104
그림 3-46. 캠퍼스 내 경모궁 복원 공사 현장 .....	104
그림 4-1. 1908년 수구문 밖 일대 지역 .....	115
그림 4-2. 1921년 동지 터 일대 지역 .....	116
그림 4-3. 1927년에 촬영한 서지의 연꽃 .....	120
그림 4-4. 1918년 서지 연꽃 관련 기사 .....	121
그림 4-5. 매몰 전 서지 연꽃 관련 기사 .....	121
그림 4-6. 1920년대 서대문 밖 일대 지역 .....	123
그림 4-7. 식민지기 숭례문에서 남지 터 방향으로 조망 .....	129
그림 4-8. 병원 입지로 인한 경모궁과 경모궁지 일대의 변화 .....	135
그림 4-9. 5개 연지의 주요 변화 .....	137
그림 5-1. 동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143
그림 5-2. 동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	144
그림 5-3. 동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	146
그림 5-4. 서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	152
그림 5-5. 서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152
그림 5-6. 서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	155
그림 5-7. 남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	163
그림 5-8. 남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164
그림 5-9. 남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	165
그림 5-10. 「인평대군방전도」에 나타난 조양루와 석양루 .....	168
그림 5-11. 어의동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	169



그림 5-12. 어의동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169
그림 5-13. 어의동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	170
그림 5-14. 경모궁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	172
그림 5-15. 경모궁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173
그림 5-16. 경모궁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	174

\* 본 논문의 동지, 서지, 남지에 관한 내용은 길지혜·손용훈·황기원, “조선시대 한양도성 연지의 입지 및 공간적 특성 고찰”(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4), 2015), 38-51 ; 길지혜·손용훈·황기원, “조선시대 옛길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1), 2016), 1-17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역사적으로 수공간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조성되고 관리되면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중 바다, 강, 개울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공간으로 이들 공간에서는 재해가 오지 않도록 치수에 신경을 쓰고 필요한 경우 빨래, 목욕, 관개, 양어, 낚시, 감상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곤 했다. 그에 비해 못, 우물, 개천, 저수지 등은 생활환경 가까이 물을 끌어와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종의 장치적 공간이다.<sup>1)</sup> 정주에 필수적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계속 이용하려면 계속해서 수리하며 운영해야 했다.

그중 못은 “물의 흐르고 고이고 넘치고 떨어지는 순리 중 물의 고이는 성질을 이용한 것”<sup>2)</sup>이다. 과거부터 정주환경 가까이에 성곽, 궁궐, 관아, 민가저택 등 다양한 장소에 못을 조성해 왔는데, 이들 못은 주로 ‘지(池)’로 표기됐다. 못을 지칭하는 명칭은 지, 당(塘), 담(潭), 소(沼), 연(淵), 택(澤) 등 여러 가지가 있다.<sup>3)</sup> 그 중 담, 소, 연, 택은 주로 자연적으로 패여 생긴 늪과 같은 웅덩이를 의미한다. 반면 지, 당은 목적을 갖고 땅을 파서 인공적으로 만든 못을 뜻한다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 지와 당은 문헌에서는 지는 둥글고 수생태 여건이 갖추어진 정원과 같은 연못 성격이고, 당은 네모이고 독을 쌓아 호안처리가 된 못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실제 용례에서 지와 당은 혼재되어 사용되어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둘 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고, 물을 저수하면서도[停水] 물을 흐르게 하는데[通水] 목적을 두는 공통점이 있다.<sup>4)</sup>

도성도나 군현 지도를 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중 지(池)도 지도에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궁궐이나 관아, 민가저택, 사찰 내에 조성한 못은 도

1) Sarah Allen,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오만종 역(예문서원, 2005), 97.

2) 정재훈, 『한국전통의 원』(도서출판 조경, 2005), 478.

3) 이상필·강철현·이재근, “한국 전통 원지 조영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3), 2006), 64-65.

4) 『中文大辭典』은 지당(池塘)에 대해 “땅을 파서 물을 통하게 한다, 둥근 것은 지, 네모난 것은 당이다[穿地蓄水, 圓者曰池, 方者曰塘]”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編, 『中文大辭典』(臺北: 中國文化大學, 1982), 5: 917, 919 참조.

「문화원형백과 창덕궁」을 참조하면, 당은 옛 문헌에 “땅을 파서 물이 통하는 연못[鑿池注水]”, “독을 쌓아 방죽이 있는 연못[陂池堤岸]”, “떼를 입힌 긴 방죽을 가진 못[長莎謂堤爲塘]” 등으로 기록된다. 방죽 조성이 당으로 구분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 2016.4.20.) 참조.

담, 소, 연은 모두 물웅덩이를 이르는 말이다. 다만 다른 것은 그 깊이감과 수면의 결이다. 강영조, 『풍경의 발견』(서울: 효형출판, 2005), 74-75.

작은 것을 지소라 하고 큰 것을 호택이라 한다. 小曰池沼 大曰湖澤. 정약용, 『목민심서』, 박일봉 역(서울: 육문사, 2012), 704.

읍이나 읍치 차원의 지도에 잘 표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 지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못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방된 공간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도성이나 읍치의 외부 공간에 못을 조성한 목적은 무엇이고, 과거 이들 못을 어떻게 이용하였을까? 본 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는 이들 못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였다.

한성부에 한정하여 고지도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지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못들이 있다. 지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나타나는 못은 6개소 정도이다. 여섯 곳 못 중 하나는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지로 익히 알려져 있다. 나머지 다섯 곳은 현재 모두 사라진 상태이고, 명칭, 위치, 형태, 기능, 이용 등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이들은 경회루지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특정한 시설 내에 입지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위치에 있고, 길과 가깝고, 규모도 꽤 크게 나타난다. 현대 도시의 시각에서 보면 공적 공간에 위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에 가까워 보인다.

이들 다섯 곳의 못은 고지도에 함께 표시된 빈도가 높다. 지도에서는 주로 ‘지(池)’나 ‘연지(蓮池)’로 기록되며, 일부는 고유 명칭으로, 일부는 관지(官池)나 궁지(宮池)로 쓰여 있다. 지도와 지리지에서 이들 못은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성부 내 5개 못을 동지(東池), 서지(西池), 남지(南池), 어의동지(於義洞池), 경모궁지(景慕宮池)로 정리해 부르려 한다. 그리고 이들 못을 공통으로 연지로 지칭한다. 대부분의 고지도에서 이들은 이름보다 연지로 기록된 경우가 많았고, 지리지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못에는 “오래 연을 심기도”<sup>5)</sup> 했지만, 이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연지로 명명하고 못에서 얻은 연 수확물을 국가로 진상하는 ‘연지’로서 정체성이 강한 못이다.

고지도에 연지가 표기되었다는 점은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연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지도에 표기된 요소들은 행정구역, 지명, 성곽 문루, 교량, 궁궐, 관아, 길, 수계 정도로 제한된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거 한성부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많은 지류가 흘러내리는 분지 지형이어서 상당히 많은 못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도에서 5개 연지가 주로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도의 작성 목적이 국가가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 통치를 효율화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sup>6)</sup> 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못이었을 것이다. 고지도에 표기된 요소들이 민간과 구분하여 관이 담당하는 시설이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못에 비해 규모가 크고 개방된 장소에 있어 눈에 잘 띄는 지물이었을 수도 있다. 지도가

5) 이육, “18, 19세기 조선유학자의 정원 조영과 성격”(남도문화연구 26, 2014), 259-260.

6) 양보경, “18세기 지리서·지도의 제작과 국가의 지방지배”(응용지리 20, 1997), 40.

한성부 전체를 다루어 비교적 넓은 범위를 압축하여 표기하기에, 당시 해당 지역에서 인지가 잘 되었던 대상일 수 있다. 또한, 국가 소유의 부지로 왕실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못을 기록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단순히 연지 존재를 기록하기 보다는, 연지가 특정한 기능이 있어 이용할 일이 많아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즉 여러 이유에서 고지도에 표시되었다는 점은 과거 한성부에서 이들 못을 유의미하게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지리지나 실록 등 여러 사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못에 대한 언급은 미비하고 주로 이들 연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많이 전해진다. 이 또한 한성부에서 이들 연지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여러 고지도나 지리지와 같은 자료에서 5개 연지를 중요하게 다루어왔는데도, 현재 한성부 내 연지에 대해서는 명칭과 일부 조성 배경이나 회화작품에 그려진 경관 정도만 연구되어 왔다. 현재 연지는 소멸되었고, 연지와 관련해 직접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성부 연지에 대해 역사적 도시환경이라는 관점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는 사라진 연지의 장소적 특성을 탐색할 수 있다 보았다. 연지는 지형과 수계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주변 공간환경과 연결하여 조성되며, 오랜 기간 해당 장소에 자리 잡으면서 도시환경에서 특정한 의미나 성격이 부여되는, 조성에서부터 관리와 소멸에 이르기까지 장소적 특수성이 강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환경 차원의 연구를 통해 연지를 단일 시설로 보는 것을 넘어,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연지 장소로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았다. 연구에서는 한성부 내 5개 연지의 환경 특성, 역사적 관리와 변화, 도시적 이용과 실제 이용자에게 인지된 경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도시환경 차원에서 연지의 장소 특성을 역사적 원형에 가깝게 파악하고자 했다. 도시환경 측면으로 한성부 내 연지를 고찰하여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지의 정확한 입지와 형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연지가 갖고 있었던 장소적 특수성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연지 자체 뿐 아니라 일대의 공간환경과 함께 장소로서 연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적으로 연지는 조성되고 매몰과 수축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 소멸한 대상이다. 한성부 내 연지는 관의 관리 대상이었다. 국가에서는 왜 연지를 조성하고 왜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연지가 소멸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셋째, 한성부 도시환경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연지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지를 감상하며 당대의 사람들이 감흥을 느꼈던 경관은 무엇인가? 과거 한성부에서 연지를 이용하고 감상한 내용을 고찰하여 연지가 존재하던 당시의 시각으로 연

지 장소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 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연구 대상은 고지도에 표기된 연못 중에서 한성부의 5개 연지, 즉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로 한정한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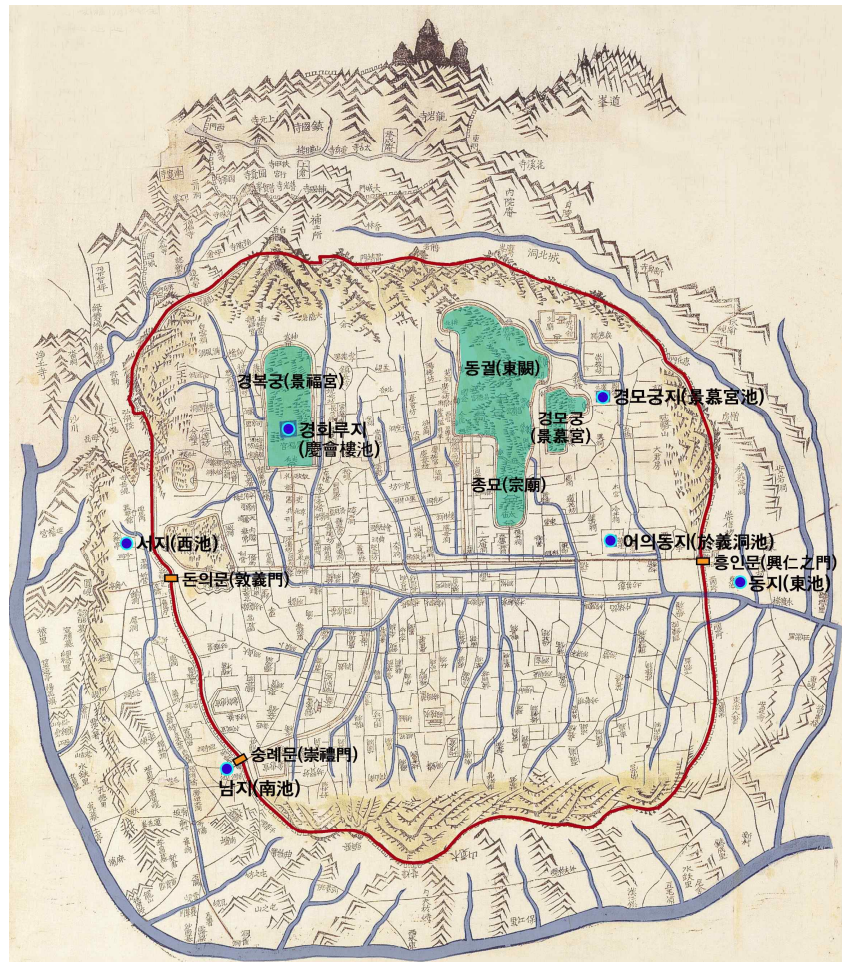


그림 1-1. 「수선전도」에 표기된 한성부 내 연지 위치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성부는 행정 단위에 따른 영역으로, 성내(城內)와 성저십리(城底十里)를 포함하는 범위이다. 성저십리는 도성에서 도성 밖 10리까지의 지역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거리에 따라 영역을 정확히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하천이나 산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다.<sup>7)</sup> 고지도

에는 대부분 성내와 성저 지역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은 이원화된 축적으로 그려져, 성내 지역보다 성저 지역은 압축하여 표시되었다. 고지도에서 성내에 위치한 연지는 어의동지와 경모궁지이고, 성저 지역에 위치한 연지는 동지, 서지, 남지이다. 넓은 면적을 축약하여 표기한 성저 지역에도 연지가 대부분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성부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못으로 기록된 내용이 많고, 열린 장소에 자리 잡아 도시에서 다양한 이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5개 연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성부에는 많은 연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들 연지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국가 기록에 꾸준히 언급되어 대표성이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지 중에서 비교적 공공적 성격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 연지는 조성 배경과 조성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조선 후기에는 한성부의 수공간이라는 비슷한 위계로 관리되고 기록되었다. 또한, 도시환경에서 부지 소유가 국가로 지속하였기에 공역 사업으로 공사가 계속 이루어졌다.

여러 고지도들을 조사하였을 때, 지도 중 5개 연지가 모두 표기된 지도는 10개 정도 있었다. 서지와 남지는 대부분의 고지도에 표시됐지만,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지도에 따라 생략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것이 그 시기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유사한 시기에도 표기 여부가 다른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지도제작과정에서 작성자에 따라 연지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sup>(표 1-1 참조)

표 1-1. 지도종류별 못 표기 현황

지도종류	제작 년대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기타 못	소장처	출처
도성도(都城圖)	1720 년대	○ 글씨	○ 원형	○ 원형	-	조성 전	-	성신여자대 학교	허 p15
도성도	1750 년대	-	○ 원형	○ 원형	-	조성 전	-	서울대학교 규장각	허 p16
도성도	1750 년대	○ 원형	○ 방형	○ 방형	○ 원형	조성 전	경회루지, 경복궁 앞 못, 부용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허 pp26-27
도성대지도 (都城大地圖)	1753~ 1759	○ 글씨	○ 방형	○ 원형	○ 방형	조성 전	경회루지	서울역사박 물관	서2
한양도(漢陽圖)	1760 년대	-	○ 원형	○ 원형	○ 원형	조성 전	경회루지	서울역사박 물관	서1 p10
사산금표도(四山 禁標圖)	1765	○ 글씨	○ 글씨	○ 글씨	-	조성 전	-	서울역사박 물관	서1 p11

7) 성저십리는 동쪽은 양주 송계원(松溪院) 및 대현(大峴)에 이르고, 서쪽은 양화도(楊花渡) 및 고양 덕수원(德水院), 남쪽은 한강 및 노도(露渡)에 이르는 범위로 기록된다.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도 한성부.

조선장안도형도 (朝鮮長安圖形圖)	18세기 중반	○ 방향	○ 원형	○ 원형	○ 방향	○ 방향	경회루지	서울시 종합 자료실	허 pp36-37
한양도성도 (漢陽都城圖)	1770 년대	-	○ 원형	○ 원형	○ 원형	○ 원형	경회루지	호암미술관	허 p41
한양전도 (漢陽全圖)	1780 년대	○ 글씨	○ 글씨	○ 원형	○ 원형	○ 방향	경회루지	서울역사박 물관	서1 pp12-13
도성도	1788	○ 글씨	○ 원형	○ 원형	○ 원형	○ 방향	경회루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이 pp30-31
성시전도 (城市全圖)	1789	○ 글씨	○ 기호	○ 기호	○ 기호	○ 기호	경회루지	개인 소장	허 pp52-53
도성도	18세기 후반	○ 글씨	○ 원형	○ 원형	○ 방향	○ 방향	경회루지	국립중앙박 물관	국 pp20-21
동국여도(東國輿 圖) 도성도	1801~ 1822	○ 방향	○ 방향	○ 방향	-	-	-	고려대학교 박물관	이 p22
도성도	19세기 초	○ 글씨	○ 방향	○ 원형	○ 원형	-	경회루지	영남대학교 박물관	이 pp20-21
도성전도 (都城全圖)	1834	○ 원형	○ 원형	○ 원형	○ 원형	-	경회루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이 pp60-61
동여도(東輿圖) 도성도	1856~ 1872	-	○ 원형	○ 방향	-	-	-	서울역사박 물관	서1 p20
대동여지도(大東 輿地圖) 도성도	1861	-	○ 원형	○ 방향	-	-	-	서울역사박 물관	서1 p21
수선전도 (首善全圖)	1861	○ 원형	○ 방향	○ 원형	○ 방향	○ 방향	경회루지	서울역사박 물관	서1 p22
경조전강도 (京兆全疆圖)	1860 년대	○ 원형	○ 방향	○ 원형	-	-	-	윤형두	허 p63
경조오부도 (京兆五部圖)	1860 년대	-	○ 방향	○ 원형	-	-	-	서울대학교 규장각	허 p68
도성도	1860 년대	-	○ 방향	○ 원형	-	-	-	서울대학교 규장각	허 p69
수선총도 (首善總圖)	19세기 중반	경계밖	경계 밖	경계 밖	○ 방향	-	경회루지	윤형두	허 p70-71
수선전도	1892	○ 원형	○ 방향	○ 원형	○ 원형	○ 원형	경회루지	연세대학교 박물관	허 p81
경조도(京兆圖)	19세기	○ 방향	○ 원형	○ 원형	○ 원형	○ 방향	경회루지	개인 소장	이 pp32-33
도성도	19세기	○ 원형	○ 원형	○ 원형	○ 방향	○ 방향	경회루지	파리국립도 서관	이 p43
한양경성도(漢陽 京城圖)	1900	-	○ 방향	○ 원형	-	○ 원형	-	성신여자대 학교	허 p83
Map of Seoul	1900	○ 기호	○ 기호	○ 기호	-	○ 기호	경회루지	영국 왕립아 세아협회	허 pp78-79
도성도	20세기 초	○ 글씨	○ 원형	○ 원형	○ 원형	○ 원형	경회루지	국립중앙박 물관	국 pp10-19
경기도 신정분도 대한제국지도(新 訂分道大韓帝國 地圖)	1908	-	-	○ 자유형	-	○ 자유형	-	서울역사박 물관	서1 p29
경성도(京城圖)	1908	-	-	○	-	○	-	윤형두	허 p87



				자유형		자유형			
경성용산시가도	1910	-	○ 실측	-	-	○ 실측	춘당지	윤형두	허 p99
경성부시가도	1911	-	○ 실측	-	-	○ 실측	춘당지	국립중앙도서관	허 pp96-97
경성부명세신지도 (京城府明細新地圖)	1914	-	○ 실측	-	-	○ 실측	춘당지	윤형두	허 p101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1927	-	○ 실측	-	-	-	경회루지, 향원지, 춘당지, 종묘 지당(2) 등	서울역사박물관	서1 p50

\* 음영은 다섯 곳 연지가 모두 표기된 고지도에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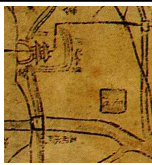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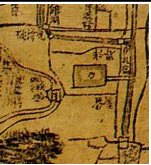
\*\* 소장처가 다르지만 같은 지도인 경우 한 개만 표기하였다.

\*\*\* ‘국’은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지도와 회화』(국립중앙박물관, 2013), ‘서1’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서울역사박물관, 2006), ‘서2’는 서울역사박물관, 『도성대지도』(서울역사박물관, 2004), ‘이’는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지도』(서울학연구소, 1995), ‘허’는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범우사, 2004)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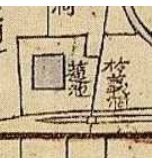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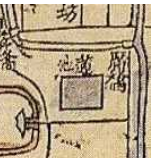





고지도에서 동지는 다른 연지들에 비해 연못 형태 보다 글씨로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형태로 그려진 일부 지도에서는 방형보다는 둥근 형태로 나타났다.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대부분 도형으로 표시되었는데, 남지는 원형, 경모궁지는 방형으로 표기된 비율이 높았다. 서지와 어의동지는 원형, 방형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도에 따라 연지의 형태나 규모가 다 다르게 그려지기에 지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연지의 형태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지도에서 각 연지의 위치는 길, 수계, 주요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표시되었다.(표 1-2 참조) 그렇기에 연지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고지도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표 1-2. 지도별 연지 표기 비교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조선장안도 형도 (18c 중반)					
	방형	원형	원형	방형	방형

- 8) 고지도는 지도제작과 관련된 사람 개개인의 개별적 정보 수집 능력이나 기존 정보의 검토 및 실증 과정, 개인적 열정, 지침의 명확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권선정, “한국의 전통지리 풍수의 재현물로서 고지도”(문화역사지리 23(3), 2011), 38.

한양전도 (1780년대)					
	글씨	원형	원형	원형	방형
수선전도 (1861)					
	원형	방형	원형	방형	방형
도성도 (20세기 초)					
	글씨	원형	원형	원형	원형

지리지나 등록과 같은 문헌에서 5개 연지가 모두 기록된 자료는 없었다. 그중 서지와 남지는 모든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기록이 안 된 문헌도 있고 명칭도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리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문헌 자료에서 5개 연지 외에 나타난 다른 못들을 정리해보자면, 실록에서는 도성 내 동지가 언급되었다. 도성 내 동지<sup>9)</sup>는 지도나 문헌 자료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아 실체를 규정하기 어렵지만, 도성 밖 동지와 연계하여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2편 정지(井池) 항목에서는 동지, 서지, 남지, 경모궁지와 함께 잠룡지(潛龍池)란 말이 함께 기술되었다. 잠룡지는 유래가 있는 못이어서 함께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는 사저(私邸)의 연못이기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3. 문헌별 못 기록 현황

문헌명	부문	편찬연대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山川)	중종25 (1530)		○ 서지	○ 남지, 연지		
장원서 등록	연지[四處 蓮池]	정조18 (1794)	○ 동대문외지	○ 반송지	○ 남대문외지	○ 어의동지	
한경지략	산천(山川)	순조30 (1830)		○ 서지	○ 남지	○ 동지	○ 경모궁 앞 대지(大池)

9) 水口門內、外池.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1470) 2월 12일 신유 5번째 기사 ; 水口門內東池.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1546) 8월 23일 정미 3번째 기사.

대동지지	산수(山水)	1860년대		○ 서연지	○ 남연지	○ 동연지	
동국여지 비고	정지(井池)	1870년대	○ 동지	○ 서지	○ 남지		○ 동지

연지의 명칭은 고지도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통 ‘연지’나 ‘지’와 같은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문헌에서는 다르게 표기되기도 했다. 동지의 경우 ‘동(대)문외지’, ‘수구문외지’, ‘동편 연못’으로, 서지는 ‘서연지’, ‘반송지(盤松池)’, ‘반지(盤池)’, ‘천연지(天然池)’, ‘천연정 연지’, ‘서편 연못’으로, 남지는 ‘남연지’, ‘남(대)문외지’, ‘승례문외지’, ‘관지(官池)’, ‘남편 연못’으로, 어의동지는 ‘동지’, ‘동연지’, ‘연지동 연지’, ‘연못골 연못’으로, 경모궁지는 ‘경모궁 앞 대지(大池)’, ‘경모궁 북지(北池)’, ‘동지’, ‘신지(新池)’, ‘궁지(宮池)’로도 표기되었다. 주로 지리적 방위나 주변의 주요 지물을 따라 명칭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을 연지별로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공통 용어로는 연지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도성 밖에 위치한 동지, 서지, 남지는 세 곳 연지를 함께 묶어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록에서도 조성 목적을 같게 기술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지, 서지, 남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연지동에 위치한 어의동지는 지도에서 연지나 지로 표기되어 연못의 정확한 명칭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문헌에서 나온 명칭들을 살펴보면, 첫째, 어의동지는 『장원서등록』에서 언급된 명칭이다. 장원서에서 관리하는 네 곳의 연못 중 하나로 어의동지를 기록했다. 고지도에서 연못이 연지동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되고 있음에도 어의동지라 불린 것은 1631년(인조 9) 건립된 어의궁이 약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왕실의 가례 장소로 사용되면서<sup>11)</sup> 중요성이 주목받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어의궁을 별궁으로 격상하면서 인근에 있는 연못도 국가에서 어의동지라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기 연못과 인접한 학교 이름도 어의동보통공립학교라고 정해져 이 지역이 연지동에서 어의동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는 동지가 도성 동쪽 연동(蓮洞)에 있다고 기록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도 연화방에 동연지(東蓮池)가 있음을 언급하였

10) 『동국여지비고』에서는 “이문(里門) 안에 인조의 잠저 당(堂) 안에 영종(英宗)의 어필 사액(賜額)을 걸어 잠룡지(潛龍池)라고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잠룡지는 인조가 어린 시절 보냈던 연못으로 유래가 전해졌고 이후 영조가 행행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1765) 12월 18일 기미 1번째 기사 ; 『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1773) 2월 15일 갑술 4번째 기사.

11) 어의궁이 가례 장소로 사용되는 별궁으로 바뀐 것은 도성 동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하였다. 송인호·조은주, “조선 별궁 어의궁(용흥궁)의 도시 위상과 영조의 친영”(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5), 2011), 146.

다.<sup>12)</sup> 앞의 문헌의 연동은 연지동을 의미하며, 연화방은 연지동이 속한 더 넓은 단위의 지역 경계를 의미한다. 인근의 교량도 연지동 동교(東橋)라 명하는 등 도성 동쪽에 있기에 동지, 동연지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동지’라는 명칭은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서 흥인문 밖 연지와 경모궁 앞 연지도 동지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동지는 흥인문 밖 동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는 지리적 위치를 따라 연지동 또는 연못골 연못이라 부를 수 있다. 1936년 동아일보 기사 중 「경성동명점고(京城洞名點考)」에서는 연지동의 유래를 “연못이 하도 좋아 연못골이라 이르는 곳”<sup>13)</sup>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의 여러 자료<sup>14)</sup>에서도 연지동은 큰 연지가 있었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얘기한다. 대한제국기 일부 지도에서 연지동 연지로 표기하고 있으며, 연지동이나 연못골을 언급하면서 연못이 있었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못의 명칭을 국가 공식기록과 지리적 명칭을 따라 어의동지(於義洞池)로 사용한다. 다만 이 연못이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만큼 동지, 동연지, 연지동 연지 또는 연못골 연못 등의 이름도 연구에서 함께 포괄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경모궁지는 조선 초기에는 궁지(宮池)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후 위치적으로 경모궁 밖으로 궁과 분리되어 있어 경모궁 앞 연지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모궁지로 지칭하여 사용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지의 조영부터 소멸에 이르는 시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연지별로 조영과 소멸 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연구대상시기도 다르게 적용한다. 동지는 1394년~1908년, 서지는 1408년~1928년, 남지는 1394년~1907년, 어의동지는 1394년(1631년)~1908년, 경모궁지는 1782년~1927년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소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연지의 경우 변화된 필지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멸 이후의 시기까지 포함해 함께 고찰한다.

### 3절 연구 방법과 과정

#### 1. 연구 방법

12) 김정호, 『대동지지』, 임승표 역(서울: 이회문화사, 2004), 1: 74-77.

13) 『동아일보』 1936년 3월 21일 자 2면 5~6단 참조.

14) 종로구, 『종로구지』(서울: 종로구, 1994), 下: 1109-1110 ; 강병수 외, 『서울지명사전』(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618 ; 이재근, 『서울의 전래동명』(서울: 백산출판사, 1994), 438.

본 연구는 현재 소멸한 한성부 연지 공간을 연구하기에 기본적으로 여러 문헌과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역사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연지에 대해 기록한 여러 문헌 자료를 폭넓게 고찰하며, 공간 차원에서 문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자료 사용에서도 공간과 당시에 공간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문헌 자료로는 왕실의 연대기 자료, 연지 조성과 관리 주체의 기록, 한성부 관련 지리지를 활용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연대기 자료, 『장원서등록』,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의 기관 관련 기록, 『한경지략』, 『동국여지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지리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연지와 직접 연관된 자료는 아니지만, 『만기요람(萬機要覽)』, 『준천사실(濬川事實)』을 통해 구거나 개천 등 수공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여지도서(輿地圖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통해 다른 읍치의 못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한다. 근대기 자료로는 신문자료와 대한제국기 관련 공문서, 식민지기 한성부 역사를 편찬한 자료, 연지 일대에 설립된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참고한다. 고신문은 데이터베이스 검색<sup>15)</sup>을 통해 관련 기사를 선별하고, 공문서 자료로는 「청의서(請議書)」, 『토지불허차에 관한 문서(土地不許借에 關한 文書)』, 『토지허차에 관한 문서(土地許借=關スル文書)』를 확인한다. 식민지기 자료로는 『경성부사(京城府史)』, 『경성사화(京城史話)』, 『경성편람(京城便覽)』을 활용한다. 또한, 관련 기관의 문서로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와 인근 지역에 설립된 학교나 교회의 자료집을 참고한다. 연지가 길게는 500년 이상 유지되었던 만큼 여러 자료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조영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역사적 변화 내용을 고찰한다. 또한, 현대에 조사된 해당 지역의 발굴 기록도 함께 고찰하여 과거의 형태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적 공적 문서자료의 성격을 가진 위의 문헌 자료 외에도 시문과 일기문, 기문 등 개인이 남긴 옛글을 통해 과거 개인이 연지를 이용한 내용을 파악한다. 연지 관련 옛글은 여러 데이터베이스 검색<sup>16)</sup>을 통해 확보한다. 검색할 때 주요어로는 연지 명칭과 주변 주요 지물의 명칭을 활용한다. 공통으로 연지, 궁지를 사용하고, ‘동지’는 동지, 흥인문, 동문, 청문, 관왕묘, 오간수문, 수구문을, ‘서지’는 서지, 반송지, 반지, 모화지, 천연지, 천연정, 돈의문, 서문, 신문, 모화관, 경기감영, 기영, 중군영을, ‘남지’는 남지, 송례문, 남문, 석문,

15)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서서비스 DB,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한다.

16) 한국고전번역원의 종합 DB,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한다.

삼남대로를, ‘어의동지’는 어의동, 연지동, 연동, 동지, 용흥궁, 어의궁, 조양루, 석양루를, ‘경모궁지’는 경모궁, 경침, 반촌, 성균관, 함춘원, 마등산을 이용한다. 동지, 서지, 남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연못을 지칭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문헌고찰 후 해당하지 않는 텍스트는 제외한다. 검색한 옛글 중 경관을 묘사한 글들을 위주로 분석대상으로 선별한다. 또한, 추가로 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 인물의 작품집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관련 옛글을 추출한다. 국역문은 원문과 비교하여 연구하고, 국역본이 없는 경우 주요어를 중심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선별한 옛글은 표 1-4와 같다.

지도와 지적자료, 회화, 사진 자료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고지도, 각종 도설과 회화 작품, 토지불허차·허차 문서의 첨부도면, 1913년 지적원도, 1912년 토지조사부, 1921년 1:10000 경성지형도, 『경성부관내지적목록(京城府管內地籍目錄): 1917년, 1927년』, 일부 지역의 폐쇄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과거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한다.(표 1-5 참조)

특히 도면 자료는 지적원도와 지형도를 중첩하고, 이를 캐드로 디지털화하여 기본 도면으로 사용한다. 지적원도는 1913년 국가기록원에서 발행한 원도 사본을 이용하고, 동지 38매, 서지 26매, 남지 13매, 어의동지 34매, 경모궁지 19매의 도면을 사용한다. 지적원도는 여러 도면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하기에 지형도와의 중첩과정에서 일부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같은 경우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도면을 일치시켜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지형도는 19세기 말 측량·제작된 구한말 한반도지형도가 있으나 도시지역에서 등고선이 생략된 부분이 많고 축척이 1:50000으로 지형의 흐름을 읽기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1921년에 제작된 축척 1:10000의 지형도를 사용한다.<sup>17)</sup> 1921년도 지형도는 1907년 제작된 「최신경성전도」의 개략적 등고선 형태와 비교했을 때 서울역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어 20세기 초 지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형도는 도시지역에서 일부 등고선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경우 주변 지형의 흐름에 맞춰 같은 표고점을 연결하여 바로잡도록 한다.

표 1-4. 연지별 옛글

연지	지은이	수록문헌	제목	유형	작성시기	국역본 출처
동지	박상(朴祥, 1474~1530)	눌재집(訥齋集) 속집(續集) 2	동지인한취고 (중략) [東池因旱就枯. 若萑葦之類. 族盛不已. 及雨下水漲. 先茂者日長. 蓮則稍稍. 乃叱官奴廿夫. 持鎌芟盡. 而後紅綠全露 <sup>18)</sup> ]	시	1525년경	없음

17) 柏書房 編, 『(朝鮮總督府作製)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日本: 柏書房株式會社, 1985), 42-43, 48-49.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지봉집(芝奉集) 1	비우당팔영(庇雨堂八詠)	시	말년 추정	정민·이홍식, 2013
	허목(許穆, 1595~1682)	기언(記言) 15	오사구동교별업기(吳司寇東郊別業記)	기문	1669~1670	(한)김민선 역, 2006
	오도일(吳道一, 1645~1703)	서파집(西坡集) 7	동교상산(東郊商山)	시	1699	이민수, 1992
서지	강석(姜檉, 1669~1718)	삼명시화(三溟詩話)	한도팔경시(漢都八景詩) 중 반송송객(盤松送客)	시	미상	민족문화사연구회 한문본과 역
	이윤영(李胤永, 1714~1759)	단릉유고(丹陵遺稿) 12	서지상하기(西池賞荷記)	기문	1739	김지현, 2016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6	관독일기(觀讀日記)	일기	1764	(한)이재수 역, 1978
		청장관전서 20	성시전도(城市全圖)	시	1792	(한)이식 역, 1979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연암집(燕巖集) 1	해인사창수시서(海印寺唱酬詩序)	서문	1795	(한)신호열·김명호 역, 2004
	윤기(尹愔, 1741~1826)	무명자집(無名子集) 문고(文稿) 5	만경재기(萬景齋記)	기문	1802	(한)강민정 역, 2013
		무명자집 시고(詩稿) 4	천연정상련 (중략) [天然亭賞蓮, 時花已盡]	시	1806	(한)이규필, 2014
	정조(正祖, 1752~1800)	홍재전서(弘齋全書) 2	국도팔영(國都八詠)	시	1765~1775	(한)임정기 역, 1998
	서영보(徐榮輔, 1759~1816)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1	묘군이 옥류·자하·소음과 천연정에서 모일 적에 (중략) [卯君與玉流紫霞篠飲會天然亭余以公事未與而諸君分韻以竹字屬余]	시	1803	(한)이상현 역, 2013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2	서지에서 노닐며[游西池]	시	1794	(한)송기재 역, 1994
		다산시문집 2	서지에서 다시 노닐며[重游西池]	시	1794	(한)송기재 역, 1994
		다산시문집 4	여름날 흥풀이[夏日遣興]	시	1800~1801	(한)양홍렬 역, 1994
		다산시문집 6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일[消暑八事]	시	1824	(한)임정기 역, 1994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완당전집(阮堂全集) 6	천연정중수기(天然亭重修記)	기문	1836	(한)신호열 역, 1988
	황오(黃五, 1816~?)	녹자집(綠此集) 1	천연정(天然亭)	시	미상	이숙희, 2007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운양집(雲養集) 2	7월 14일 관찰사 민표정이 천연정으로 초청해 술 마시며 연꽃 구경을 하다 (중략) [七月十四日閔杓庭觀察邀飲天然亭賞荷花北村詩友會者二十餘人]	시	1875	(한)기태완 역, 2013
	이기(李沂, 1848~1909)	이해학유서(李海鶴遺書) 12	천연정상련(天然亭賞蓮)	시	190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남지	성현(成俔, 1439~1504)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2	남지의 연을 읊다[南池蓮]	시	1470	(한)임정기 역, 2008
		허백당보집(虛白堂補集) 3	여회, 유본과 함께 달밤에 연못가에서 술을 마시다[與如晦有本月夜]	시	1498	(한)조순희 역, 2011

	임억령(林億齡, 1496~1568)	석천시집(石川詩集) 4	臨蓮池飲] 송례문연지에서 이백필을 전별하다 [崇禮門蓮池上. 饒李伯弼]	시	1535 이후	없음
	이유간(李惟侃, 1550~1634)	동추공관계자료(同樞公關係資料) 동추공관계자료	연지회시종사실(蓮池會始終事實) 1629년 6월 5일 연지회시종사실 1629년 6월 8일	일기 일기	1629 1629	윤진영, 2002 윤진영, 2002
	이항복(李恒福, 1556~1618)	백사집(白沙集) 1	남문연정 (중략) [南門蓮亭. 步月賞蓮. 聞城上歌聲寥亮]	시	1589~1591	임정기, 1998
	이경직(李景稷, 1577~1640)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서문(序文)	서문	1629	윤진영, 2002
	장유(張維, 1587~1638)	계곡집(谿谷集) 31	남지기로회도 제화시[題耆老諸公南池賞蓮會圖]	서문	1629	(한)이상현 역, 1997
	송준길(宋浚吉, 1606~1672)	동춘당집(同春堂集) 속집(續集) 10	연보(年譜)	일기	1670	(한)정태현 역, 2007
	김주신(金柱臣, 1661~1721)	수곡집(壽谷集) 1	불살경우변(不殺耕牛辨)	서	1690	없음
	강준흠(姜浚欽, 1768~?)	삼명시집(三溟詩集) 6	한경잡영(漢京雜詠)	서	미상	없음
어의 동지	조현명(趙顯命, 1691~1752)	귀록집(歸鹿集) 1	상화연지동 (중략) [賞花蓮池洞. 歸路口占]	시	1715년경	없음
	유만주(俞萬柱, 1755~1788)	흠영(欽英) 21 흠영 23	1786년 4월 5일 1787년 2월 21일	일기 일기	1786 1787	김하라, 2015b
	남고(南阜, 1807~1879)	시암집(時庵集) 2	연지동(蓮池洞)	시	미상	없음
	윤기(尹愔, 1741~1826)	무명자집 시고 2	경모궁 앞 연못에 연꽃이 만발하여 [景慕宮池蓮花盛開] 잠깐 쉬며[小題] 반중잡영(泮中雜詠) 138수	시 시 시	1789 여름 1789 가을 1787	(한)강민정 역, 2014
경모 궁지	유만주(俞萬柱, 1755~1788)	흠영 2	1776년 9월 27일	일기	1776	김하라, 2015b
		흠영 17	1784년 윤삼월 1일	일기	1784	김하라, 2015b
		흠영 19	1785년 4월 14일	일기	1785	김하라, 2013
		흠영 21	1786년 4월 5일	일기	1786	김하라, 2015b
		흠영 23	1787년 2월 21일	일기	1787	김하라, 2015b
	박시원(朴時源, 1764~1842)	일포집(逸圃集) 1	경모궁연지운(景慕宮蓮池韻)	시	미상	안정, 2004

\* (한)은 한국고전종합 DB에서 국역된 글을 의미

표 1-5. 회화자료와 근대도면자료

분류	사료명	출처/소장처	제작연대
회화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규장각	1629
자료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12곡병	삼성미술관 리움	19세기경

- 18) 놀재집 속집 권2에 수록된 이 시문은 제작연대가 확실치 않아 시문에서 언급하는 ‘동지’가 본 연구의 동지에 해당하는지 확실치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시문 바로 앞에 수록된 글은 ‘기몽(記夢)’인데 여기서 을유년(1525) 6월 12일로 날짜가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시기로 본다면, 박상은 그 당시 사도시 부정(司導寺 副正)이 되었던 때이고 이듬해에는 새문동으로 이사했다는 기록도 있다. 박상이 한양에 거주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문에서 이 연못을 관노가 관리했다고 언급했기에 관에서 운영하는 연지라 파악하였다. 이에 근거해 본 동지를 한양의 동지라고 파악했다.



근대 도면 자료	동문조도(東門祖道)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8세기경
	동문송별도(東門送別圖)	규장각	1682
	인평대군방전도(麟坪大君坊全圖)	규장각	1792
	지적원도 -동지: 경성부 동부 창신동 25매, 종로6정목 5매, 송인동 8매 /총 38매 -서지: 경성부 서부 죽점정2정목외 7정 13매, 교북동외5정 8매, 서대문2정목외2정 5매 /총 26매 -남지: 경성부 남부 삼각정외8정 2매, 서부 고시정외4정 5매, 서부 서계동외3정 4매, 서부 화천정외3정 2매 /총 13매 -어의동지: 경성부 동부 종로4정목외 5정 11매, 동부 송사동 연건동원남동 6매, 동부 창신동 4매, 동부 종로6정목(이화동, 충신동) 13매 /총 34매 -경모궁지: 경성부 동부 송사동연건동원남동 8매, 동부 동송 동해화동 8매, 동부 송1동송2동송3동 3매 /총 19매	국가기록원	1913
	경성 일만분일조선지형도	서울대학교	1921
	토지불허차-허차에 관한 문서의 첨부도면 -동지: 토지불허차에 관한 문서 76 -서지: 토지불허차에 관한 문서 29-1, 29-3 -남지: 토지불허차에 관한 문서 48 -어의동지: 토지불허차에 관한 문서 35, 67, 토지허차에 관한 문서 10, 29-1	규장각	1908
	경성부 토지조사부	국가기록원	1912
	경성부 관내 지적목록	대림도서출판사	1917, 1927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총독부의원부지 평면도(1916~1917)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증축계획도(1926~1928) -경성제국대학 배치도(1924~1925) -경성제국대학 배치도(1931)	국가기록원	1916-1931
	서울대학교 병원자료 -경성제대 평면도 중 부속의원(1940)	서울대학교 병원	1940

## 2. 연구 과정

논문은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에 앞서 기본사항을 정리한다. 1절에서는 한성부의 환경을 자연환경, 인문환경, 수환경 측면에서 고찰한다. 2절에서는 연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연지의 입지 및 환경 특성을 분석한다. 연지의 지형과 공간환경 특성을 수치화된 도면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연지 일대의 지형, 수계, 지역 특성, 길, 주요 지물을 파악하고, 연지의 정확한 위치를 토대로 지리적 특성을 살핀다. 다음으로 연지의 규모, 형태, 관련 시설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과거 연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 수계, 가로, 지역 특성 등 여러 요소의 변화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현재 연지와 관련해 남아있는 장소 요소들을 파악한다. 연지별로 분석한 내용을 통해 각 연지의 환경 특

성을 밝히고 환경 차원에서 나타나는 연지의 공통 성격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연지별로 조영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관리 내용을 여러 사료를 통해 고찰한다. 연못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문헌학적 고찰이 어려운 연지의 경우 환경 특성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조영경위에 대해 추론해본다. 연지의 관리 측면에서는 연지가 잘 유지되었던 시기와 매몰되었던 시기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고, 이후 수축 공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여 연지 관리의 목적을 살핀다. 또한,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경향을 살펴 운영주체의 시대별 변화 여부도 알아본다. 이를 통해 한성부에서 연지가 필요했던 이유와 연지 운영의 시대적 변화, 장소 특성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밝힌다. 또한, 연지의 소멸과정과 소멸원인을 분석한다. 일련의 연지 공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공시적·통시적 특성을 고찰한다.

5장에서는 연지를 이용하고 연지 경관을 감상한 내용을 파악한다. 연지 이용은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을 통합하여 확인한다. 국가적으로 연지를 이용한 사료를 분석하고, 연지 인근에 거주한 또는 연지 일대를 방문한 선인들의 옛글을 통해 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연지를 이용하는 주요 행태를 분석하고 과거의 이용 경로를 공간 차원으로 파악해본다. 그 가운데 이용 상황의 변화를 살펴 연지가 가장 잘 운영되고 이용되었던 시기를 확인한다. 또한, 연지 경관을 감상할 때 감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경관요소로 도출한다. 경관 감상은 연지 자체뿐 아니라 일대의 공간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연지와 주변 환경,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연지를 이용하고 감상한 내용과 연지의 환경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 과거 연지의 실제 경관을 추론한다.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한성부에서 연지가 담당했던 특성과 기능을 도출한다. 또한, 한성부 도시환경에서 연지가 갖는 의미를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갈무리하고, 향후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 2장 한성부 환경 고찰 및 연구 방향

## 1절 한성부의 인문·자연환경과 수환경

### 1. 인문·자연환경

#### 1) 지형과 지질

도시의 수체계는 지형이나 토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도시를 조영하면서 자연적 수 체계에 변형을 가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의 형성에서 흐름, 배수에 이르는 과정은 지형과 지질 두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성부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은 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도시를 조영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기봉은 세계 대다수의 전통 수도들이 산을 되도록 멀리하여 조성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sup>1)</sup> 한양을 둘러싼 산으로는 북쪽의 북악산(342m), 동쪽의 낙산(120m), 남쪽의 남산(262m), 서쪽의 인왕산(338m)이 있다. 네 곳의 산은 사산(四山)으로 표현되며, 금산(禁山)으로도 분류된다. 금산은 한성부에서 중추적으로 관리하고 의정부, 병조, 공조 등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함께 정비하였다. 도성 안팎의 금산은 조선 전기에는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산에서 나무와 흙, 돌의 채취도 금지하고 경작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건축물의 설치도 단속하였다. 수목 중에서는 소나무를 주로 조림하였는데, 40~50년 정도 벌채를 금지하여 향후 국가에서 재목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목 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산줄기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었다. 수목을 육성하고 주변 흙과 돌을 보호하는 관리정책은 분지인 도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2)</sup>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수목을 개인이 벌목하고 땅을 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과거 송림대였던 부지를 밤나무밭[栗園]으로 조영하는 등<sup>3)</sup> 조선 전기와 같이 금산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을 보면 북악산과 인왕산이 상대적으로 높고 낙산은 낮은 편이다. 객관적인 산의 높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산의 경사는 사산이 비슷하게 가파르다. 특히 표고 50m 이하 지대를 보면 낙산의 경사가 굉장히 급해, 낙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1) 이기봉, “수도 한양의 조선적 국도숲 이해”(문화역사지리 21(1), 2009), 236.

2) 한동환, “조선전기 한양 금산의 범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지리학논총 20, 1992), 25-28.

3) 의창군이 집수리를 위해 크고 작은 소나무 3백여 그루를 벌목하여 사용하였다. 『선조실록』 163권, 선조 36년(1603) 6월 1일 병술 2번째 기사 ; 동대문 밖 5리쯤에 있는 금산의 소나무 수백 그루를 벌채하였다.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1664) 9월 9일 정유 3번째 기사 ; 장원 서에서 읍원(栗園)을 새로 정하였고, 연령 군방과 창의궁에서 사표(私標)로 금산 영역을 포함하여 벌목이 잦고 건축물(尼舍) 또한 입지했다. 『경종실록』 6권, 경종 2년(1722) 3월 26일 신해 2번째 기사.

있다. 도성 안은 전체적으로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도성 서남쪽과 동쪽 지역은 지형이 낮아 열린 형세를 보인다.(그림 2-1 참조) 성곽 내부는 분지 형태로 동서 방향으로 평탄하게 가용지가 형성되어, 가로와 시가지가 중심부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자리 잡았다. 사산의 지형도 성곽을 중심으로 도성 내 중심부로 점차 낮아지는 형태여서, 자연히 수계도 도성의 저지대인 중앙으로 모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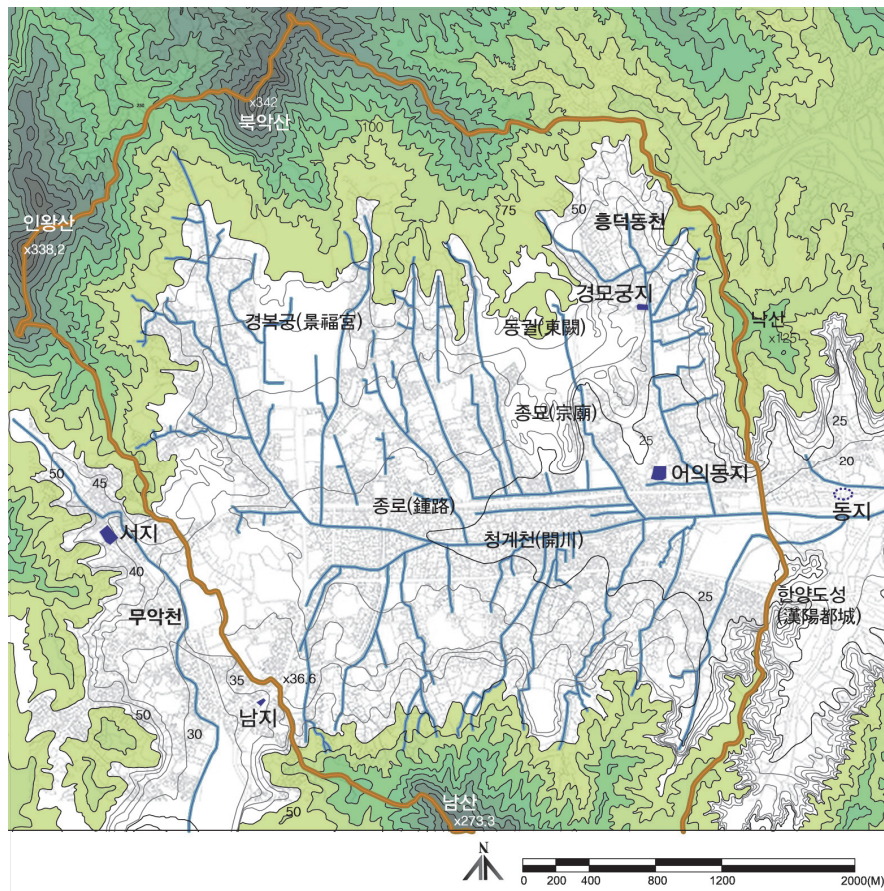


그림 2-1. 한성부의 지형

\* 지적원도(1913년)를 바탕으로 사용하고, 수계, 등고선(1921년 도면) 자료를 중첩하여 필자 재작성

\*\* 등고선은 표고 50m 이상은 25m 간격으로, 50m 이하는 5m 간격으로 표기함

자료: 지적원도와 수계는 <http://www.culturecontent.com>의 「디지털 한양」; 등고선은 카시와쇼보[柏書房] 편, 『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 42-43, 48-49의 자료 참조: 필자 재작성

산과 도시의 상호작용 속에서 궁궐과 상류저택 등 주요 시설들은 되도록 산에 가까이 자리 잡도록 배치했다. 또한, 이들은 배치에 있어 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궁궐은 모두 산줄기 끝이 꺾인 후원으로 어우러지도록 조영하였으며, 지

배층들도 저택 입지에 있어 산자락을 선호했다.

연지들의 위치를 지형으로 살펴보면, 모두 표고 45m 이하의 저지대에 있었다. 그중 동지 지대가 가장 낮아 표고 15~20m의 범위에 있었고, 어의동지도 표고 20~25m로 지대가 낮았다. 경모궁지와 남지는 표고 30~35m 사이에, 서지는 표고 40~45m의 지역에 위치했다. 전체적 지형과 수계를 보면, 서지와 어의동지는 산자락 및 수계와 매우 가까이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지와 경모궁지는 수계와 가깝다. 반면 남지는 산과 수계와 다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지적으로 다른 연지들과는 차이를 보여 일대의 미세지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성부의 토질은 대부분 지역이 중생대 쥐라기의 흑운모 화강암으로 주로 되어 있으며, 도성 밖 남산 남사면과 송례문 밖 지역만 선캄브리아기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으로 되어 있다.<sup>4)</sup>(그림 2-2 참조) 다섯 곳의 연지가 위치한 지역은 모두 화강암 지반에 해당한다.

화강암 지질의 특성으로 도성 주변의 산에서는 바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묘한 형상의 바위가 많고, 넓고 평편한 바위는 ‘대(臺)’가 되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화강암은 풍화도 잘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래 입자가 많이 생성된다. 화강암 작은 입자는 쉽게 와해하지 않고 오랫동안 모래알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강가에는 모래사장이 생기기 쉽다.<sup>5)</sup> 실제로 한성부 개천이나 주변의 다른 천변에는 모래밭이 형성되었다고 기록되어,<sup>6)</sup> 화강암으로 인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반 환경 측면에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지는 토양 투수성이 높아 배수가 잘된다. 반면 투수가 잘 되기에 물을 저류하기 힘든 성질을 갖고 있다.<sup>7)</sup> 화강암반 또는 화강암반 아래 지층을 흐르는 지하수는 석회암이나 그 밖의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보다 맑고 깨끗하다고 한다.<sup>8)</sup> 그래서 곳곳에 약수가 형성되고 지하수 자체도 맑아 물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하수는 풍부하지만 투수가 잘 되는 지반환경으로 인해, 연지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이 쉽게 배출되지 않도록 특정한 공법이 필요

4) 조영훈·이찬희, “한양도성 석재공급지 추정을 위한 고문헌 분석 및 암석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암석학회지 24(3), 2015), 196-197.

5) 오경섭 외 2인, “한국 하천 모래톱의 지형학적 의미와 효능”(한국지형학회지 18(2), 2011), 2-3.

6) 그림 4-1에서는 개천 주변이 모래[砂山地]로 표기되었고, 동교 일대를 묘사한 「오사구동교별업기(吳司寇東郊別業記)」에서는 안암천을 묘사하며 “잔잔히 흐르는 시내와 백사장[前有平川白沙]”이라고 언급했다.

7) 다나카유키야·Yukinori Matsukura·김태호, “화강암 및 편마암 유역의 토양구조와 강우유출 특성”(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3), 90-91.

8) 전우용, 『서울은 깊다』(파주: 돌베개, 2008), 309.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1412년(태종 12) 경회루지 공사과정에서 물이 새서 못에 물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공사를 담당한 박자청(朴子靑, 1357~1423)은 물 흐름이 다한 곳을 트고, 물이 새는 곳은 다시 검은 진흙으로 메워 물이 고이도록 했다고 한다.<sup>9)</sup> 박자청은 경회루지 공사 전에 서지의 공사를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서지에도 비슷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투수가 잘되는 속성으로 못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한성부에서 일반적으로 수자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못을 조성하기보다는 지하수를 직접 이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며, 실제로 도성에는 많은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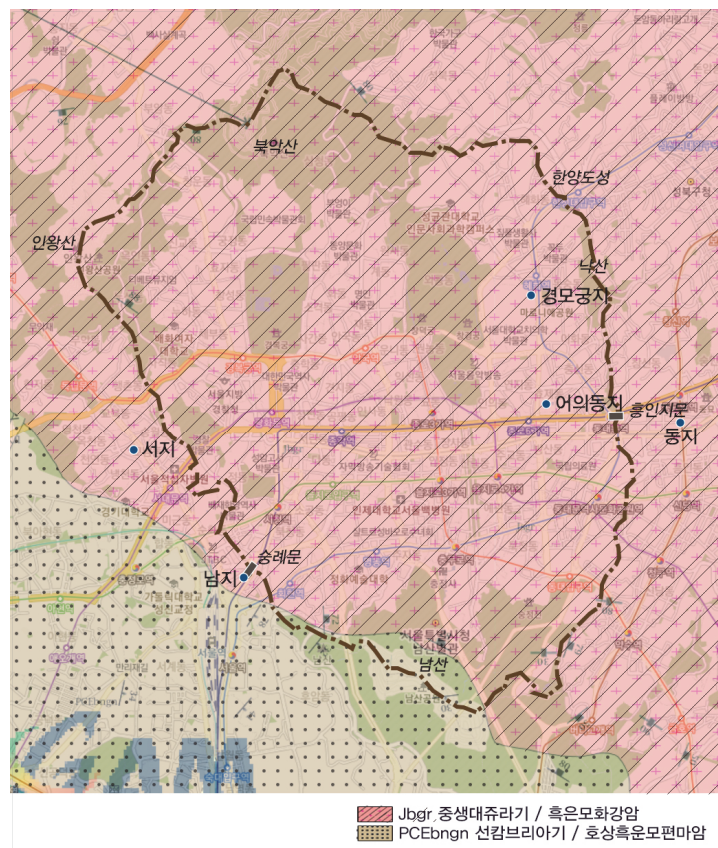


그림 2-2. 한성부의 지질 분포

자료: <http://map.vworld.kr>의 「1:50000 지질도」; 필자 재작성

## 2) 공간구조와 인구

9)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1412) 7월 19일 임인 3번째 기사.



한성부의 도시공간이 형성된 순서를 보면, 1394년(태조 3)에 먼저 궁궐, 종묘, 사직, 시장, 도로의 터를 정하였다.<sup>10)</sup> 그 이후 경복궁을 1395년(태조 4)에 창건하고, 경복궁 남쪽 대로에 육조와 중요한 관청을, 그리고 종묘와 사직단도 건설했다. 성곽은 1396년(태조 5)에 돌로 쌓아 완공했고,<sup>11)</sup> 이때 사대문과 사소문의 명칭도 함께 지정했다.<sup>12)</sup>

연지와 관련한 성문은 사대문 중 흥인문, 숭례문, 돈의문으로, 축성 이후 성문 공사는 계속되어 흥인문과 옹성은 1397년(태조 6),<sup>13)</sup> 숭례문은 1398년(태조 7)<sup>14)</sup>에 준공되었다. 돈의문의 완공 시기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국초 계획한 돈의문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신 영접 시설인 모화루(慕華樓)를 서문 밖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sup>15)</sup> 국초의 성문은 모화루와 보다 가까운 위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 풍수를 고려할 때 경복궁 서쪽으로는 길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도성 서쪽으로 새롭게 문을 설치하였다.<sup>16)</sup> 그 문은 서전문(西箭門)이라 불렸고, 기존 성문보다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정종이 거쳐하던 인덕궁(仁德宮) 앞을 지났다고 기록되었다. 이후 1422년(세종 4)에는 도성에서 흠이 일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을 보수했는데, 이때 서전문을 막고 돈의문을 새로 조성하였다.<sup>17)</sup> 이 시기 조성된 돈의문의 위치가 현재 기억하는 돈의문 터에 해당하며, 서전문보다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도성이 만들어지며 한성부 지역은 오부(五部)와 도성 밖 성저십리(城底十里)로 구분되었다. 행정적 관리 단위로 국초에는 5부(部) 52방(坊)으로 구획되었고, 이후 거주 인구에 맞추어 '방'의 수가 조절되어 시기별 증감이 있었다.<sup>18)</sup>(그림 2-3 참조) 국초에는 오부와 성저십리가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 1461년(세조 7) 성저십리를 지역에 따라 오부로 나누면서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sup>19)</sup> 그렇기에 세종대와 조선 후기 인구 통계에서 지표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10) 定廟社宮闕朝市道路之基.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1394) 9월 9일 병오 2번째 기사.

11) 『신증동국여지승람』 2, 비고편-동국여지비고 1 © 한국고전번역원 김규성 역, 1969.

12)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1396) 9월 24일 기묘 2번째 기사.

13) 幸東大門, 觀甕城之基.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1397) 1월 27일 경진 2번째 기사 ; 幸興仁門, 觀甕城, 巡城至東小門乃還.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1397) 4월 28일 경술 1번째 기사.

14) 都城南門成, 上往觀之.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1398) 2월 8일 을유 1번째 기사.

15)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1407) 8월 22일 계묘 1번째 기사.

16)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1413) 6월 19일 병인 2번째 기사.

17)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1422) 2월 23일 경술 2번째 기사.

18) 세종대에 49방으로 축소되어 임란 시기까지 유지되었고, 17세기 후반 43방으로 축소되었다. 인구가 적은 도성 내 11방이 폐지되고 한강 연안 5개 방이 신설되었다. 1788년에는 4개 방이 창설되면서 47방 체제로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3쇄 (파주: 태학사, 2013), 350.

19)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1461) 2월 27일 무술 2번째 기사.

‘방’의 하위체계로는 이(里), 동(洞), 계(契)가 있다. ‘이’는 한성부에서 조선 전기 호구수를 묶는 단위로 사용하다가 사라지게 되었고, ‘동’은 지역공동체가 잘 형성된 일부 유래가 있는 마을에만 붙는 행정단위였다. ‘계’는 조선 후기 발생한 것으로,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동계와 동질한 주민 집단을 묶어주는 계가 존재했다. 계가 주민들의 자치적 기구로 안정화되면서 행정명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부-방-계로 체계화되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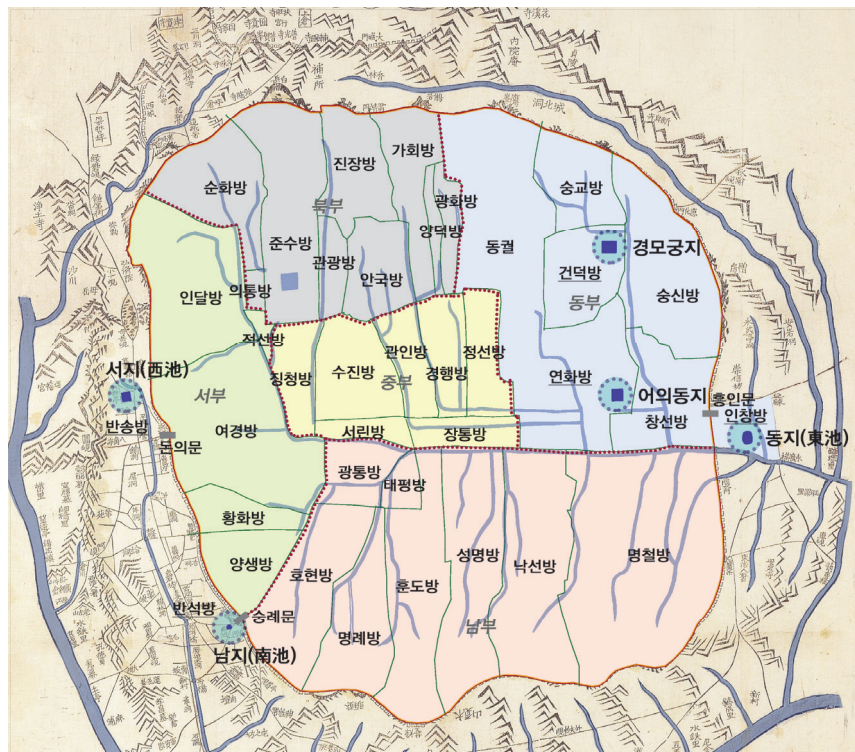


그림 2-3. 「수선전도」에 표기한 한성부 행정구역과 연지 위치

\* 1751년 43방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나, 중부 건평방과 북부 명통방은 수선전도에 나와 있지 않아 표기에 누락됨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고동환, 앞의 책 참조: 필자 재작성

연지가 위치한 지역을 조선 후기 부-방-계의 행정단위로 정리하면, 동지는 동부 인창방 인창동계, 서지는 서부 반송방 지하계, 남지는 서부 반석방 연지계, 어의동지는 동부 연화방 연지동계, 경모궁지는 동부 건덕방 건덕방계에 해당한다.

세종대 한성부의 호수(戶數)는 오부 17,015호, 성저십리 1,779호로 기록된다.<sup>21)</sup> 1426년

20) 고동환, 앞의 책, 303-352의 내용을 정리함.

21)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도 한성부.

(세종 8) 호적에서도 오부의 인구는 103,328명, 호수는 16,921호, 성저십리는 인구가 6,044명, 호수가 1,601호로 기록되었다.<sup>22)</sup> 국초에는 한성부에서의 주거지가 도성 인근 오부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 밖으로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1789년(정조 13)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는 성안 인구가 112,371명, 호수 22,094호, 성 밖이 76,782명, 호수 21,835호로 나타났다.<sup>23)</sup> 성 내 인구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지만, 성 밖 인구는 국초 6천 명 정도였던 데서 8만 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특히 다른 부 지역에서는 성안과 밖의 인구비율에서 여전히 성 내부가 높지만, 서부 지역은 호구에서 성 밖이 성 내부보다 3.3배나 높은 비율을 보인다.<sup>24)</sup> 서부의 성 밖 지역은 반석방, 반송방, 용산방, 서강방에 해당한다.

연지가 위치한 방별 인구와 호구를 비교해 보면, 도성 밖에 위치한 인창방, 반석방, 반송방의 인구수와 호구수가 많은 편이다.<sup>25)</sup> 그중 반석방과 반송방은 한성부에서 용산방과 함께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서지와 남지가 위치한 반석방과 반송방은 국초부터 인가가 많이 형성되어 성저십리 중 가장 먼저 한성부 행정편제에 속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숭례문에서 서대문까지 있다 하여 삼문(三門) 밖 지역으로도 불렸다.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유명하다.<sup>26)</sup> 정약용은 반석방 약현(藥峴) 지역을 “곡물을 운반하는 수레가 서로 부딪치는 것은 물론 사람들도 어깨를 서로 스치며 통행하는 곳”<sup>27)</sup>이라 말할 정도로 거주민 수도 많고 시장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수도 많았던 지역이었다. 반대로 동지가 위치한 인창방은 조선 전기에 인구가 적어 도성 안에 집터가 부족할 경우 나누어 주던 곳이었다.<sup>28)</sup>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거주민이 많아지게 된다. 어의동지가 위치한 연화방은 반석방, 반송방보다 인구수는 적지만, 도성 내 다른 지역보다는 거주민이 많은 편이다. 반면

22)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1428) 윤4월 8일 기축 6번째 기사.

23) 조성윤, “조선 후기 서울의 주민 구성과 성곽의 의미”(향토서울 83, 2013), 120-121.

24) 서부의 경우 성안은 인구 3,830명, 호구수 20,187호이지만 성 밖은 인구 12,541명, 호구수 48,007호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다. 조성윤, 위의 논문, 121을 참조하여 정리함.

25) 고동환, 앞의 책, 299.

26)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삼문(三門) 밖 지역의 특성”(서울학연구 59, 2015), 169-175.

27) 제5조 「도로(道路)」, 『목민심서』 공전(工典) 6조.

28)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도성 안에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대체로 집터를 받고자 하는 자는, 판 사람이 일찍이 받은 땅을 혹 빈 터라 하며 혹 집 짓고 남은 땅이라 하여, 백단(百端)으로 다투어서 송사가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동대문 쪽 수구문 바깥에 있는 집 짓기에 적당한 곳을 남대문 바깥 반석방·반송방의 예에 의거하여, 본부에서 호조와 함께 살펴, 한계와 동리 이름을 정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떼어 주기를 청합니다.” 漢城府啓: “都城內人多地窄, 凡欲受家基者, 以他人曾受之地, 或稱空基, 或稱造家餘地, 多端爭望, 斷訟無日. 請東大門、水口門外造家可當處, 依南大門外盤石坊, 盤松坊例, 府與戶曹共審, 定限域坊名, 折給無家人.”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1424) 4월 18일 계해 5번째 기사.

경모궁지가 위치한 건덕방은 도성 내에서도 인구수, 호구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표 2-1 참조)

표 2-1. 연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호구수와 인구수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행정구역	동부 인창방	서부 반송방	서부 반석방	동부 연화방	동부 건덕방
호구수(1789)	2,511	2,791	2,956	1,175	472
인구수(1789)	7,683	12,971	13,882	5,545	1,868

자료: 고동환, 앞의 책, 299를 참고하여 작성함

### 3) 행락공간

기존의 연구에서 한성부 연지는 대부분 행락공간으로 이해됐다. 행락공간으로서 연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한성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공간을 살펴보았다. 선인들이 찾아간 기록이 많은 곳을 추출하기 위해, 한양과 관련한 「팔경시」, 진경산수화, 「성시전도시」, 『한경지략』, 『경도잡지』, 『한양가』, 『세시풍요』에 묘사된 공간을 정리하여 행락공간을 분류하였다.

한성부에서 행락공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공역 사업으로 조성한 공간이 행락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자연 속 공간을 행락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역 사업으로 조성한 공간 중 가로, 못, 교량, 성곽, 수계, 시전, 시장, 공공시설 앞 공터는 행락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초기에 행락 기능을 염두에 두고 조성한 공간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행락 기능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 이들은 일종의 공유지[公處, 公地, 公基]로 관[官地]이나 민간[私基]의 대지와 구분되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한 기능을 충족하면 그 외 별도의 이용상 제한은 없었다. 두 번째 자연 속 대(臺), 암(岩), 동(洞), 골짜기[谷], 계(溪), 봉(峰) 등의 공간들도 행락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주로 산림에 위치한 이들 공간도 사점(私占)할 수 없는 공유지였다. 경관이 수려해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고, 국가나 마을에서 수립한 규율을 따르는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 공간을 정리하였고, 형성과정, 물리적 공간 특성, 주요 활동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표 2-2 참조) 위치를 표기한 지도는 그림 2-4와 같다.

공역 사업으로 조성한 가로 중 육조거리, 종로, 운종가는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공간이었다. 관아, 시전을 구경할 수 있으며, 초파일 관등을 설치한 경관을 ‘종가관등(鍾街觀燈)’으로, 관아가 늘어선 경관을 ‘열서성공(列署星拱)’으로 꼽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공간이었다. 못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지가 연꽃으로 유명한 곳으로 일컬어졌다. 광동교, 수표교와 같은 교량은 보통 때는 통행공간이지만, 정월 대보름에는 달 감상, 답교놀이, 가곡

연주, 단가, 돌싸움, 연날리기 등 다양한 풍속이 행해졌다. 이 시기에는 인파가 인산인해라고 기록된다. 도성은 삼영(三營)에서 수시로 순찰하는 곳이지만, 봄, 여름철에는 성곽을 한 바퀴 돌며 도성 내·외를 조망하는 순성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개천은 도성 내에서 배수로 기능을 하며, 동시에 빨래터, 놀이터 등으로도 사용되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시전행랑, 배오개, 칠패와 같은 시전과 시장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특히 칠패에서는 마당놀이, 줄타기, 물장구놀이 등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다. 공공 시설 앞의 공터로는 종루 앞, 남산의 산단(山壇) 앞, 광희문 앞 공터가 있어 많은 사람이 모여 놀이를 하였다. 종루는 보통 때에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정월 대보름에는 통행금지가 해제되어 함께 모여 저녁 종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남산의 산단 앞 공간은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공간으로 기술되며, 단옷날 씨름놀이를 유명하다. 광희문 앞에서도 씨름, 택견이 이루어졌다.

자연 속에 있는 대, 암 형태의 장소는 넓은 바위가 자연스럽게 조망하기 좋은 모임 공간이 된 예이다. 화강암 바위가 많은 편인 한성부에는 경관이 수려하고 넓적하고 평편한 바위가 많았다. 그곳에서는 여러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름이 지어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경치 감상과 음주, 시 짓기 등을 위한 다양한 모임이 있었고, 상춘(賞春), 상화(賞花)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그중 필운대는 특히 살구나무와 버드나무로 유명했다고 전해진다. 동, 골짜기의 공간은 “산속 이상적 공간이자 원림의 장소”<sup>29)</sup>로 인식되어 동에서의 모임과 유람에는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수성동은 여름철 유상처로, 옥인동은 아회공간, 옥류동은 시회공간, 세검동은 폭포와 물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유명했다. 도화동과 성북동은 생업으로 키운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가 봄철에 아름다웠고, 이 문화경관으로 지역 명소가 되었다. 탑동은 원각사 백담으로 유명한 탑골로, 인근에 거주한 선비, 장수들이 모여 계회를 가지고는 했다. 그 외 청풍계나 남산에 위치한 잠두봉도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여럿이 행락공간으로 찾아가는 곳이었다.

한성부에서 행락공간 분포를 볼 때 자연 속 행락공간은 산림지역에, 공역 사업으로 조성한 공간은 주로 도시지역에 위치했다. 그중 못은 산림과 도시 중간 지대에서, 두 곳의 성격을 모두 갖춘 공간이다. 분포도 도성 밖 동쪽, 서쪽, 남쪽과 도성 내 동쪽 2곳으로 비교적 고르게 되어 있다. 또한, 물리적 공간 측면에서는 면적 성격의 공간이고, 규모도 큰 편이었다. 못은 활동 측면에서도 일상 활동과 여가 활동, 사회적 활동이 모두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길목이면서 전이 공간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활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경관을 즐기

29) 유가현, “조선시대 사대부 원림으로서 洞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5-16.

면서 휴식도 취하고, 연못가에서 놀이도 하고, 특별한 경우 행사를 벌이기도 하는 등 여가 장소로도 활발히 이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남과 모임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 역할도 했다. 다른 행락공간들이 비교적 작은 규모에 한정된 행위를 지원한다면, 못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즉 한성부의 연지는 한양 도시 지역에서 자연을 가깝게 체감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특수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성 동쪽, 서쪽, 남쪽으로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으로 넓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도시 전체에서 행락공간으로서 가치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표 2-2. 한성부 행락공간의 유형별 특성

공간 유형	형성과정	물리적 공간	주요 활동			사례
			일상활동	여가활동	사회적활동	
가로	공역조성	선형	보행, 상거래	감상, 행사/축제	만남, 정보교환	육조거리, 종로, 운종가
못	공역조성	면형, 대형	보행, 전이	감상, 놀이, 휴식, 행사/축제	만남, 모임, 집회	서지, 남지,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교량	공역조성	선형	보행, 전이	감상, 놀이, 행사/축제	만남	광통교, 수포교
성곽	공역조성	선형	보행	감상, 놀이		도성
수계	공역조성	선형+면형, 소형	일과	놀이	만남, 정보교환	개천
시전, 시장	공역조성	선형+면형, 소형	일과, 상거래	놀이	만남, 정보교환	시전행랑, 배오개, 칠패
공공시설 앞 마당	공역조성	면형, 소형	보행	놀이, 행사/축제	만남, 정보교환	종루 앞 공터, 산단(山壇) 앞 잔디밭, 광희문 앞 공터
대(臺), 암(岩)	자연형성	면형, 소형		감상, 휴식	만남, 모임	대은암(大隱岩), 세심대(洗心臺), 필운대(弼雲臺), 취미대(翠微臺), 탕춘대(蕩春臺), 상선대(上仙臺), 동악시단(東岳詩壇)
동(洞), 골짜기[谷]	자연형성	선형+면형, 소형	보행	감상, 휴식	만남, 모임	삼청동, 자하골, 세검정, 백운동, 수성동, 청운동, 옥인동, 도화동, 성북동, 청학동, 유란동, 화개동, 옥류동, 송동, 탑동
계(溪)	자연형성	선형+면형, 소형		감상, 휴식	만남, 모임	청풍계
봉(峰)	자연형성	면형, 소형	보행(등고)	감상, 휴식	만남	잠두봉

\* 박수지·김한배·이승희,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 분포와 인식의 비교연구” ; 이덕무 외, 『성시전도시로 읽는 18세기 서울』 ; 유득공, 「경도잡지」, 『조선대세시기』 5 ; 임형택 편, 「세시풍요」, 『(이조후기)여향문학총서』 ; 강명관, 『한양가』의 내용에서 분류할 수 있는 장소를 추출해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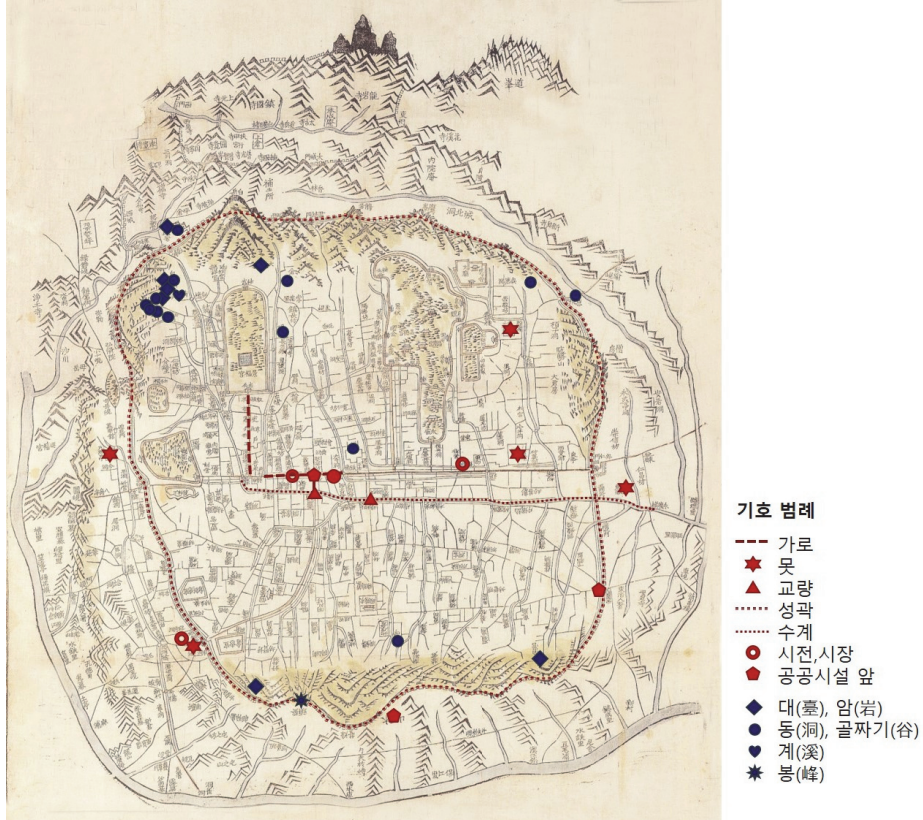


그림 2-4. 「수선전도」에 표기한 한성부의 행락공간 분포

\* 위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공간은 동이나 방과 같은 명칭 자리에 표시하였다.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필자 재작성

## 2. 수환경

### 1) 수계

한성부 도성 내부는 분지 지형이어서 사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많았다. 도읍이 들어서기 전에는 산에서 흘러내린 여러 물길이 자연 그대로 어지럽게 흐르는 모습이었겠지만, 도성이 건립되고 시설이 들어서며 도시가 형성되고는 치수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시 내 우수(雨水)와 사용한 오수(污水)를 함께 배출해야 해서 유로 정비가 필수적이었다.

도성의 수체계는 태종대와 세종대에 형성되게 된다. 치수 공사는 1406년(태종 6)부터 시작했다. 소규모 하천과 구거 공사를 시행했지만, 그 이후로도 홍수 피해는 계속되었다. 1410년(태종 10)에는 도성에 물이 넘쳐 종루 동쪽에서부터 흥인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통행하지 못했고,<sup>30)</sup> 큰비로 백성 가운데 사망자도 발생하기도 했다.<sup>31)</sup> 이런 연유로 1412년(태종 12) 2월 52,8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대규모 개천공사를 시행했다.<sup>32)</sup> 공사에서 수로를 넓고 깊게 뚫은 후 개천(開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개천은 배수가 잘되도록 어느 정도 인공이 가해진 하천을 뜻하며, 구거보다는 큰 규모의 천을 의미한다.

세종대에는 개천으로 연결되는 지류(支流)와 세천(細川)을 정비하고 수문을 개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종로 행랑 양편에 구거를 조성하여 종로로 직접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sup>33)</sup>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세종대 개천을 쳐내어 여러 물길이 마을[異閭]과 골목[街衢] 사이를 지나 흘러들어 수문으로 빠지게 했다고 기록했다.<sup>34)</sup> 길 사이사이로 구거가 얹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 양쪽에는 측구를 두고 도로 중앙부를 볼록하게 조성하여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sup>35)</sup> 도성 내 물을 지류, 구거, 도로 옆 구거로 나누어 개천으로 흘러들게 해, 개천에 도달하는 시간을 분산하여 각 지역의 배수를 돕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각 연지 중에서 동지는 흥인문 밖 영미정동천(永美亭洞川)과 개천에 인접해 있다. 서지는 도성 밖 무악천(毋嶽川)<sup>36)</sup>과 가깝고, 남지는 수계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여러 수계 중에서는 무악천과 가깝다. 어의동지와 경모궁지는 흥덕동천(興德洞川)<sup>37)</sup>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흥덕동천은 도성 동쪽 지역에서 낙산과 북악 자락에서 내려오는 물의 배수 기능을 하며, 두 곳의 연지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동지는 도성 밖에 있지만, 도성의 수체계상 함께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천의 준천 공사 내용을 보면, 공사 범위를 송기교(松杞橋)부터 동지 일대 영도교(永渡橋)까지로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sup>38)</sup> 도성의 배수 체계를 효

30) 壬午/暴風大雨. 前月久旱, 及是月陰雨連日, 至是日太甚, 都城水溢, 自鍾樓以東至興仁門, 人不能通.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1410) 7월 17일 임오 1번째 기사.

31) 壬寅/大雨水溢, 民有溺死者.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1410) 8월 8일 임인 1번째 기사.

32)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1412) 2월 15일 경오 1번째 기사.

33) 류경희, “서울의 하계변화과정 연구-도성지역을 중심으로”(향토서울 49, 1990), 153-155.

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역, 『국역 만기요람』(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1), 재용편 1: 504.

35) 국립문화재연구소, 『승례문: 승례문 발굴조사 보고서』(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439-441.

36) 만초천(蔓草川), 만천, 덩쿨내 등으로 불렸다.

37) 『준천사실』에서는 초교수(初橋水)로, 『한경지략』에서는 성균관제천수(成均館諸川水)와 흥덕동제수(興德洞諸水)로, 『동국여지비고』에서는 흥덕동수(興德洞水)로 명명했다. 박현욱, 『서울의 옛물길 옛다리』(서울: 시월, 2006), 41 참조; 본 논문에서는 흥덕동천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38) 준천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의 경과를 기록한 『준천사실』에서는 한양의 개천을 크게 대천과 세천으로 구분했다. 그중 대천은 송기교에서부터 하류인 영도교까지의 범위로 정하였다. 홍계희, 『국역 준천사실·주교지남』, 원영환 역(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 47-52; 『준천사



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구문 밖 인접 지역까지 같이 관리한 것이다.

개천 준천은 조선 후기에 자주 일어났다. 1760년(영조 36) 대규모 준천 공사를 시행했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준천사실(濬川事實)』이다. 준천의 공사 주체는 대천(大川)은 삼군영에서, 세천(細川)은 군문이나 군영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대천이나 세천 모두 민가 앞이면 민간이 수리·보수를 담당하도록 했다.<sup>39)</sup>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역 사업을 일대 지역주민이 맡아 공사를 함께 진행한 것이다. 영조대 대규모 준천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로도 준천은 지속해서 행해야 하는 공사였다. 영조대 공사 이후 1780년(정조 4)부터 준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1789년(정조 13)에 공사를 다시 시행했다. 그 뒤로 실록에 기록된 준천 공사의 내용만 살펴도, 1794년(정조 18)에도 도성 안 크고 작은 개울과 도랑의 오물을 제거하라는 명이 있었다. 1797년(정조 21)에는 날씨가 가물어 준천사에서 도랑을 판다고 하였고, 1818년(순조 18)에도 개천을 뚫다는 기록이 있다. 1833년(순조 33)에는 작년에 수재로 고생하여 준천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1842년(헌종 8)에도 준천 공사를 했고, 1865년(고종 2)에는 도성 안 개천을 정비한지 8년이나 되어 모래흙이 쌓였고 물이 막혀 개천가 집들이 걸뒹하면 차고 넘친다고 했다. 준천사업 이후 8년 정도만 지나도 개천에 토사가 많이 쌓였던 당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70년(고종 7)에는 큰 시내에 준천과 석축 공사를 작년과 이번 해에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1873년(고종 10), 1880년(고종 17), 1893년(고종 30)에도 준천 공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sup>40)</sup>

위의 잦은 준천 공사 관련 기록에서 도성의 수계는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토사로 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 같은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류경희는 이 원인을 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산림이 황폐해졌고, 지역민이 개천 유지 관리에 소홀할 수 있었으며, 이 시기 폭우가 잦았다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했다.<sup>41)</sup>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조선 전기보다 후기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더 자주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천과 마찬가지로 연못도 자연환경의 변화나 관리의 문제, 기후여건의 영향 아래 있어 조선 후기에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

실(濬川事實)』, 이왕가도서지장.

39) 홍계희, 위의 책, 47-52 ; 『준천사실』, 위의 책.

40)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1789) 4월 13일 기해 2번째 기사 ;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1794) 7월 20일 을사 6번째 기사 ;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5월 2일 신축 1번째 기사 ; 『순조실록』 21권, 순조 18년(1818) 5월 19일 병진 1번째 기사 ;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1833) 3월 11일 임오 3번째 기사 ; 『헌종실록』 9권, 헌종 8년(1842) 5월 27일 을해 3번째 기사 ;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1865) 3월 2일 정유 3번째 기사 ;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3월 1일 정묘 2번째 기사 참조.

41) 류경희, 앞의 논문, 156.

그렇기에 조선 후기의 수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연지의 운영과 관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우물

전통사회에서 우물은 식수 공급과 화재 방비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졌다.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 일부는 하천수가 되고 일부는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는데, 지하수 일부가 낮은 쪽에서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은 천(泉)이라 하고, 인위적으로 땅 밑을 파서 물을 퍼 올리면 우물[井]이 된다.<sup>42)</sup> 즉 우물은 자연 상태의 지하수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물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도 우물 유적이 발굴될 정도로 오랜 기간 선조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주요 장치로 사용됐다.

한성부에서는 국초부터 도성 내 우물을 많이 만들고자 했다. 1415년(태종 15) 도성에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해지자 도성 안 5가구[家]마다 우물 하나씩을 공동으로 파게 했다.<sup>43)</sup> 또한, 1426년(세종 8)에는 화재방비책으로 행랑은 10간(間), 개인 집은 5간마다 우물 하나씩 파고, 각 관청 안에는 우물 두 개씩 파 물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고 했다.<sup>44)</sup> 궁궐 내에도 많은 수의 우물을 만들어, 경복궁 내 밝혀진 우물의 개수만 21개소(그림 2-5 참조<sup>45)</sup>), 동궐도에 나타난 우물의 개수가 12개소(그림 2-7 참조)에 이른다.

조선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주거환경은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자택 내 우물을 갖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공동우물을 많이 사용하였다. 우물을 함께 사용한 이유는 우물 만들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우물은 많이 사용할수록 깨끗해진다는 지하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sup>46)</sup> 동네[洞]라는 용어가 “물[井]을 같이[同] 사용하는 공간 단위”를 의미하며, 함께 물을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 영역권이 결정되었다고 볼 정도로<sup>47)</sup> 우물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한성부에서도 실록에서 주로 공동우물 조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도성 내에서 이들 공동우물은 물리적으로 필지들 사이 가로변 공터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조성된다.(그림 2-6 참조)

다섯 가구마다 우물을 조성하게끔 한 정책은 식수 확보뿐 아니라 화재에 대비한 방재 기능에도 유효했다. 1482년(성종 13) 도성에 화재가 계속되자 서지와 남지가 잘 운영되도

42) 김추윤, “무형의 전통문화 속에서 찾아본 물문화”(하천과 문화 4(2), 2008), 68.

43)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1415) 3월 4일 임인 1번째 기사.

44)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1426) 2월 20일 갑신 6번째 기사.

45) 그림 2-5에는 경복궁 후원 부분 도면이 빠져있어 후원에 있는 연못 1개소가 빠졌다.

46) 김재호, “식수문화의 변화과정-우물에서 상수도까지”(한국민속학 47, 2008), 239.

47) 황기원, 『책같은도시 도시같은책』(서울: 열화당, 1995), 137.

록 연못을 다시 수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보다는 실제로 다섯 집마다 한 통(統)으로 정하여 불을 끄게 하는 법령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sup>48)</sup> 즉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 단위의 조직은, 평상시에는 함께 식수를 이용하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조직적으로 방재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

한성부에서 별도의 상수도 시설 없이 우물만으로 물의 필요량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화강암으로 지반이 이루어진 지질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지하 수질이 깨끗하고 물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어 우물을 많이 조성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반면 화강암의 특성상 배수가 잘되고 투수성이 높아, 가뭄이 오면 우물과 샘의 물이 빠르게 말랐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걸쳐 홍수로 인한 치수문제와 더불어 가뭄으로 우물과 샘의 물이 마르는 것도 또 다른 재해 문제로 자주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한성부에서 식수와 방화용수와 같은 실용적 기능의 물은 우물이 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못의 경우 식수로는 이용되지 않았고, 일부 방화용수를 지원하는 기능으로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례: ■ 못, (井) 우물, — 수계  
 그림 2-5. 경복궁 내 수공간과 우물  
 자료: 『북경도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필자 재작성



그림 2-6. 1908년 「한성부 지적도」의 창선방 양사동 지역 공동 우물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편, 『한성부 지적도』, 56.

48)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1482) 11월 9일 계묘 2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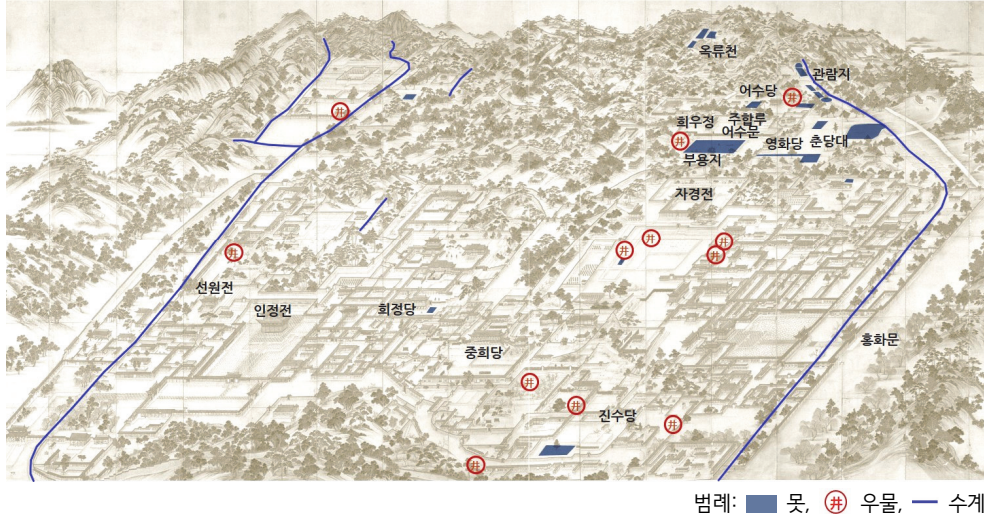


그림 2-7. 동궐 내 수공간과 우물  
자료: 「동궐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자 재작성

### 3) 못

한성부에는 “각처의 산지에 못이 있었다”<sup>49)</sup>고 기술될 정도로 많은 못이 존재했다. 그중에서 관에서 조영해 관리하는 못으로는 궁지(宮池)와 관지(官池)를 들 수 있다.

궁지는 보통 궁궐 안에 조영한 못을 일컫는다.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등 궁궐에는 못을 여러 개 설치했다. 궁궐 내부에는 대부분 산자락과 연결된 후원에 못을 조성해 자연적 여건을 활용했다. 경복궁의 향원정지, 창덕궁의 부용지, 애련지, 반월지 등이 후원의 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그 외 경복궁에서는 후원과는 거리가 있지만, 명당수가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궁궐 내부로 개천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어 경회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sup>50)</sup> 또한, 창덕궁에서는 경복전[대비전], 희정당[침전, 편전]과 같은 전각 내에도 못을 만들었다.

연구대상 중 하나인 경모궁지도 궁지로 분류되는 못이다.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서 「궁지도설(宮池圖說)」에 기록되었고, 일부 고지도에서 ‘궁지’로 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궁과의 관계에서 경모궁지는 다른 궁지와 차이를 보인다. 한성부에서 다른 궁지가 궁궐 안에 조성됐지만, 경모궁지는 궁 밖에 위치하며 개방적으로 운영된다.

49) 由來京城には自然にたまった水を受け入れる爲に各所に澤山の池がありました. 岡田貢, 『京城史話』(서울: 景仁文化社, 1989(2000 printing)), 71.

50) 정우진,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체제와 운용 양상”(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논, 201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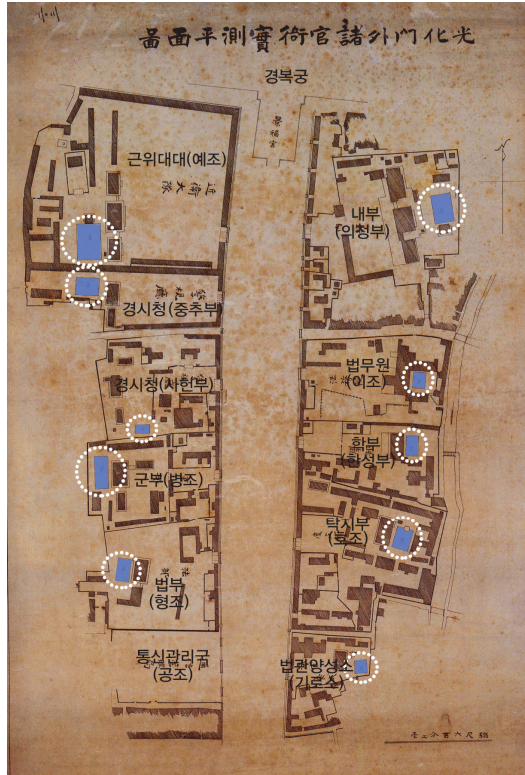


그림 2-8. 육조거리 관아와 관아 내 못

자료: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 52.

물 속에 세우니, 그림자가 물결에 비치는 경관과 주변 가옥들과 뾰뾰한 수목들의 풍경, 멀리 서쪽으로 보이는 산세가 어우러져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 남쪽에 있는 사헌부와 병조, 형조, 공조, 장예원에도 모두 못이 있어서 연꽃을 심었다고 하며, 경복궁 동쪽 가에 있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에도 못을 조성했다.<sup>51)</sup>

관아 내 조성한 관지 중에서 관아 후원에 위치한 못은 누정과 함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대문 가까이 특별한 장식 없이 조성한 못은 방화용수로 기능적으로 활용되었다.<sup>52)</sup> 즉 집무자의 휴식과 여가 용도로 활용된 못이 있었고, 관아 내 못은 우물과 함께 방재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장원서(掌苑署)에서 관리하는 네 곳의 연지도 관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동

관지로는 먼저 관아 내에 조성된 못이 있다. 「숙천제야도(宿踐諸衙圖)」나 「본아전도(本衙全圖)」, 「본영도형(本營圖形)」 등 관청을 기록한 도설을 보면, 관아 내에 모두 못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1909년 당시 육조거리에 있었던 관아를 실측한 평면도에서도 관아 후면에 못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8 참조) 관아 내 못은 성현(成俔, 1439 ~ 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도 기록되기도 했다. 육조거리 서쪽으로 수맥이 많아, 첫 번째 관아인 예조가 우물도 맑고 깨끗하며 마르지 않고 흘러서 큰 못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몹시 가물어도 못이 한결같다고 했다. 그 아래 위치한 중추부도 예조 남쪽 땅이 낮아 물이 고였는데, 이 땅을 파서 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청을 개축하고 서헌(西軒)을 만들어 돌기둥을

51) 성현, 『용재총화』, 홍순석 역(서울: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4), 528.

52) 신상섭·김현욱·박영관, “「숙천제야도(宿踐諸衙圖)」를 통해 본 조선시대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문화재 47(3), 2014), 49.



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장원서에서 관리하고 연지의 수확물을 왕실에 진상한다. 이들은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입지적으로 외부에 개방되어 있다. 다른 읍치에서는 관에서 운영하면서 개방된 장소에 위치한, 이와 유사한 특성의 못을 성지(城池)로 묶어 관리해왔다.<sup>53)</sup> 성지는 축성과 함께 조성된 못을 의미하지만, 조선 후기 편찬된 읍별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 「성지」 항목에서는 성곽과 인접한 못뿐 아니라, 읍성 내 공공시설 앞에 조성한 못이나 수계와 인접한 못도 성지 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하기도 했다. 이는 성지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각 읍치의 관아에서 관리하는 못을 모두 포괄하여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곽을 조성할 때 성지라는 의미로 조성되었다더라도, 이후에는 읍성 내 다른 못들과 함께 읍치의 수공간으로 함께 관리한 것이다. 한성부에서도 국초에는 동지, 서지, 남지가 도읍의 지형·지세를 비보(裨補) 해주는 성지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동지, 서지, 남지는 어의동지와 함께 네 곳의 연지(蓮池)라 일컬으며 함께 관리되었고, 지리지에서도 한성부의 못으로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기록되었다. 오히려 조선 후기에는 어의동지를 동지로 부르기도 했다. 성지로 의미가 지속되기도 하는 방위에 따라 각각의 못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 저택에도 못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해, 한성부에서 물을 끌어오기 좋은 계류 인근 저택에는 못을 조성하였고 그 기록은 여러 서화를 통해 전해진다. 개인 저택에 조성한 못은 생활 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활용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이운지(怡雲志)」에서는 연못에는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하였다. 물고기를 키울 수 있고, 밭에 물을 댈 수 있으며, 흙금을 상쾌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54)</sup> 또한, 수원(水源)이 부족할 경우 향아리를 땅에 묻어 연못처럼 보이게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sup>55)</sup> 그만큼 못을 저택 가까이 배치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못은 여러 실용적 기능도 있었지만, 인근에 누정을 설치하여 각종 시회, 문회 등의 모임 장소가 되기도 했다. 또한, 개인이 못을 감상하며 마음 수양과 명상을 취할 수도 있었다.

여러 유형의 못을 살펴보았을 때, 저택 내 못과 궁이나 관아 내부에 위치한 못은 이용 주체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못의 성격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인 담장 밖에 조성한 관지나 궁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못인 동시에, 관리 주체인 관의 목적도 충족

53) 『여지도서(輿地圖書)』 「성지(城池)」 항목에는 성곽 자체와 성곽 운영에 이용 가능한 못과 우물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1765년(영조 41)에 편찬되었다.

54) 서유구, 『산수간에 집을 짓고』 5쇄, 안대희 엮어옮김(파주: 돌베개, 2013), 44.

55) 서유구, 위의 책, 45-46.

할 수 있어야 했기에 더욱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2절 연구 동향과 분석 방향

### 1. 기존 연구 동향

#### 1) 못[池]에 대한 연구

못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연구의 주제는 크게 물리적 특성, 향유방식, 기능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못의 물리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현존하는 정원의 지당을 대상으로 하며, 그 물리적 형태를 유형화하는 연구가 많았다. 정동오는 지당(池塘)의 형태를 정형지(직선형 또는 곡선형), 비정형지, 형태불명지로 구분하였고, 지당 내 섬의 수, 다리 유무를 통해 지당의 구성을 분석하였다.<sup>56)</sup> 또한 이후 정동오는 정원에 있어 지당이 중심시설이고 양식특징을 잘 반영하기에 지당정원(池園)이라 일컫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지당정원을 고찰하여 사상적 배경, 입지 선정, 공간처리기법, 기능, 소유 면에서 일본 정원과의 차이를 밝혔다.<sup>57)</sup> 유병림·황기원·박종화는 조선조 정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형에 접근하고자 하였고, 지당의 시기별 양식의 변천에 주목하였다.<sup>58)</sup> 권차경·강영조는 조선시대의 민간정원 중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73개소 지당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당 형태, 섬의 수, 계류와의 배치 항목의 시기별 변화유형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sup>59)</sup> 오수미는 조선 상류주택의 수공간에 존재하는 연못의 위치 및 크기와 연못 주위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를 분석하였다.<sup>60)</sup> 이상필·강철현·이재근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통 원지(園池) 중 발굴조사된 원지를 중심으로 평면 형태, 지안 처리, 입·배수시설, 바닥 처리, 경관석, 다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sup>61)</sup> 정운익 외 4인은 조선시대 민간 전통연못

56) 정동오, “한국정원의 지당형태 및 구성에 대하여”(한국조경학회지 6(1), 1978), 1-16.

57) 정동오, “한·일 전통정원양식의 비교연구-지당정원을 중심으로”(한국정원학회지 1(1), 1982), 41-62.

58) 유병림·황기원·박종화, 『조선조 정원의 원형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1989).

59) 권차경·강영조, “조선시대 민간정원 지당형태의 통시적 분석”(한국조경학회지 28(3), 2000), 61-71.

60) 오수미, “조선 상류주택의 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61) 이상필·강철현·이재근, “한국 전통 원지 조영에 관한 연구-발굴조사된 원지(園池)를 중심으로”(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3), 2006), 51-66.

의 입수와 배수, 물의 흐름을 분석하여 향후 연못의 수질을 보전하는 안을 제안하였다.<sup>62)</sup> 연못의 형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주로 평면형태, 원도(圓島), 입수와 배수, 계류와의 관계, 지안과 바닥처리, 교량 등을 주요 분석요소로 고찰하고 있다. 이들 못은 현존하거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이기에 세부 조성원리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소멸한 못을 대상으로 하기에 분석항목에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연지의 시설보다는 현재까지 비정되지 않은 연지의 정확한 위치나 규모, 수원 등 연지의 전체적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 선비들이 못을 향유한 방식에 중점을 둔 연구가 있다. 누정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가 있지만, 그중 특히 연못에 더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았다. 윤호진은 영남의 선비가 연못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방식을 시문으로 분석하여, 연못의 전경, 연꽃, 물고기를 주요 감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못이 실용적 기능보다 형이상학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개인의 정원에 조성되었고, 이를 마음 수양의 본보기로 삼았다고 분석했다.<sup>63)</sup> 송희경도 사대부 저택이나 별서정원 내 인공적으로 조성한 원지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주거문화와 조경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아회와 풍류의 유상처가 된다고 고찰했다.<sup>64)</sup> 원지의 향유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못을 정원이라는 공간 내부에 있다고 한정하고 원지 내에서의 행태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구분하여 본 연구는 공간을 연지 내부로 한정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연지를 향유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지를 방문한 경로에 주목하여 못에 당도하기까지의 전체적 이용행태가 연지 이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고, 연지에서 조망하는 주변 경관도 연지 경관의 일부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못을 수체계나 생태적 순환의 일환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최원석은 비보의 유형 중 하나로 ‘비보못’을 꼽으며, 지기를 머물게 하고[留氣] 장풍적 조건을 보완하며 화기를 방어한다고 했다.<sup>65)</sup> 이도원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웅덩이가 실질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여 경관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sup>66)</sup> 성종상은 고산 윤선도 원림의 수경연

62) 정운익 외 4인, “조선시대 민간 전통연못의 입·배수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2004), 49-60.

63) 윤호진, “정원을 통해 본 영남선비의 사유양식과 가치지향-연못을 중심으로”(영남학 18, 2010), 159-211.

64) 송희경, “연못이 있는 정원-조선후기 원지·원림화의 유형과 그 함의”(논지논총 22, 2009), 389-426.

65) 최원석, “한국의 전통적 경관 보완론”, 『한국의 전통생태학』, 이도원 편(서울: 사이언스북스, 2004).

66) 이도원, “생태학은 옛 사람의 삶 안에 있었다”, 위의 책, 이도원 편.



출 기법을 고찰하여, 조성입지, 복수의 연못체계, 자연암반의 활용, 수로와 돌출수제를 통한 물흐름 조절, 보와 회수담의 과학적 수처리, 폭포 연출 측면에서 생태적 기법이 내재해 있음을 밝혔다.<sup>67)</sup> 전영옥·이상문은 수원 화성의 수로와 원지 조영에 나타난 생태계획적 원리를 분석했다. 수로와 원지를 성역 공사에서 먼저 축조했으며, 치수와 이수 외에 친수와 환경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했다. 수리학적 접근을 넘어 생태계 연결, 미기후 조절, 수질 정화, 수자원 보전 등 환경계획적 원리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sup>68)</sup> 강인애도 수원 화성의 수체계를 분석하였는데, 물길의 주요 결절부에 연못을 설치해 치수에 이롭고 수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논했다.<sup>69)</sup> 위와 같은 수체계의 일환으로서 연지가 가진 기능에 대한 논의는 한성부 연지 연구 관련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연지의 수체계로의 기능을 추론하는데 근거할 수 있도록 지형과 수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못과 관련한 연구들은 물리적 형태와 경관 향유, 도시적 기능 중 연못의 한 단면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개방된 장소에 자리 잡은 한성부 연지들의 경우 한 가지 관점으로만 고찰하면 과거의 실제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에서 조영하고 관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공공이 이용할 수 있었던 연지는 기본적 존재 양상에서도 복합성을 띠고 있다. 연지의 형태와 이용, 기능을 통합적 시각으로 고찰해야 연지가 과거 한성부 도시에서 작용해온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 한성부 연지 관련 연구

한성부의 연지 중에서는 주로 동지, 서지, 남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지, 서지, 남지에 대해 조경사나 서울사에서 항상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를 별도의 학술연구 대상으로 고찰한 것은 전영옥·양병이의 연구<sup>70)</sup>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동지, 서지, 남지를 ‘관영 연지(官營 蓮池)’로 구분하였고, 관련 역사 기록을 정리하고 회화작품을 통해 연지의 형태를 유추하였다. 공간 규모와 총체적인 연지의 이용 상황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여러 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67) 성종상, “고산 윤선도 원림의 생태적 수경연출기법”(환경논총 43, 2005), 269-280.

68) 전영옥·이상문, “전통도시 화성이 수로 조영에 나타난 생태적 계획원리 연구”(국토계획 43(5), 2008), 123-135.

69) 강인애, “수체계로 본 수원화성 건설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2011), 137-146.

70) 전영옥·양병이,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관영 연지에 관한 연구-동지, 서지, 남지를 중심으로”(한국조경학회지 22(2), 1994), 53-63.

그 외에 이들 연지를 별개의 대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도성의 비보풍수의 방안으로 연못 조성의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많았다. 김현옥·김두규·김용기는 동지, 서지, 남지는 명당수 확보를 위해 조성 하였으며, 조성 이후에는 방화수이자 저수지이고 연꽃을 감상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연못의 기능을 추정하였다.<sup>71)</sup> 김현옥은 한양의 조경공사에서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도성의 결절점에 조산, 수림대, 연못 등을 조성해 도성의 형국을 보완하려는 계획에 따라 못이 조성되었음을 고찰하였다.<sup>72)</sup> 장동수도 비보풍수의 목적으로 도성에 조산과 연못을 조성한 것이고, 한양도성 동·서·남·북에 연못을 조성했다고 언급했다.<sup>73)</sup>

비보풍수와 관련해 연지를 해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지의 조성경위를 문헌을 통해 파악했다. 그렇지만 연지는 대규모의 땅을 파 수계를 연결하는 공역 사업이었기에 지형 특성, 주변 환경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 외에도 환경 측면으로 조성경위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지, 서지, 남지를 같은 조성 목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엮어 고찰하는 것은 개별 연지의 특성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국초 도성 동·서·남·북에 연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제 실현되지 못한 점, 그리고 연지 조성에서도 시기적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이들 연지를 별도의 대상으로 고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연지의 조성경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연지를 하나하나의 개별 대상으로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그 외 이들 연지가 행락공간으로 가치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 황기원은 이들 연못이 연꽃으로 유명했으며, 조선시대 한양의 행락공간의 한 유형으로 동지, 서지, 남지를 꼽으며 연꽃이 유명했다고 기술했다.<sup>74)</sup> 김명희·홍형순은 연(蓮)의 활용과 애호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동지, 서지, 남지에 연이 대규모로 집단 식재되었으며, 거기서 연이 중요한 경관 요소로 행락의 장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sup>75)</sup> 이들 연구는 동지, 서지, 남지가 연이 많이 식재되었기에 행락공간으로 유명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는 당연한 인과관계로 여겨진 연

71) 김현옥·김두규·김용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양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3), 2002), 68-77.

72) Hyun-wuk Kim, “Hanyang’s Forest Composition by the Annals of Joseon Dynasty”(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 2005), 75-82.

73) Dong-su Jang, “A Study on BiBo Fengshui Techniques of Traditional Urban Landscape in the case of the Grove of Chosan and Pool Bank”(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 2005), 41-49.

74) 황기원,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75) 김명희·홍형순, “고전 시문과 회화를 통해 본 연(Nelumbonucifera)의 활용과 애호 행태”(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2011), 1-13.

지의 행락공간으로의 이용을, 연지를 이용하고 감상한 여러 옛글을 통해 객관적 시각으로 연지별 실제 이용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건축사나 미술사에서도 연지 중 일부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있었다. 남지가 기록된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와 서지가 위치한 돈의문 밖 지역이 그려진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와 같이 주로 도설이나 회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윤진영은 남지기로회 모임에 참여한 12명 인사들의 교우관계와 회합의 형태, 모임의 성격에 주목하여 기로회가 일회적 만남이 아닌 친교 관계로 결성된 계회라고 밝히며, 12본(本)의 그림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를 분석했다.<sup>76)</sup> 위순선은 3점의 「남지기로회도」 소장본을 비교해 화면구성과 그림을 묘사한 화풍을 분석하였고, 지문(識文)과 서문(序文)을 통해 제작 경위와 참석자의 좌목(座目)을 연구했다.<sup>77)</sup> 송희경은 「남지기로회도」를 바탕으로 남지를 조선 후기 사대부의 사적 원림문화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였다.<sup>78)</sup> 「경기감영도」와 관련해서는 주영재는 감영도와 1913년 지적원도를 비교분석하여 조선 후기 돈의문 밖 도시조직의 형태를 유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지의 위치도 함께 연구되었다.<sup>79)</sup> 강서연은 「경기감영도」의 도법 특징을 연구했다.<sup>80)</sup>

회화작품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연지를 가장 잘 운영되었던 시기에 한정해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정 시기의 연지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길게는 5백 년이 넘게 지속한 연지의 전체적 상황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회화에 나타난 연지의 경관을 연지의 역사적 변천에서 특정 시기의 한 모습으로 전체 하여, 시기적으로 더욱 확장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연지를 조성과 운영과 관리,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고찰하여, 시기별로 부침이 있으며, 주변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지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사료들도 지도, 도면 등의 실증적 자료들과 함께 공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비교해 세밀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는 동지, 서지, 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들을 조성경위에 따라 비보풍수 차원의 연지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과거 한성부 전체 도시

76) 윤진영, “李惟侃(1550~1634)의 「蓮池會始終事實」과 南池耆老會圖의 傳承來歷”(장서각 8, 2002), 55-91.

77) 위순선, “朝鮮時代 南池耆老會圖 研究”(문물연구 7, 2003), 103-140.

78) 송희경, 앞의 논문, 412-413.

79) 주영재,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조선후기 돈의문 밖 도시조직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석논, 2003).

80) 강서연, “경기감영도로 본 한국건축도법의 특징”(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논, 2006).

환경에서 주요 연지로 표기되었던 5개 연지를 연구 대상으로 확장하고, 역사적 도시환경이라는 관점으로 개별 연지를 연구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으로 연지의 실제 기능과 목적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 2. 분석 방향과 분석의 틀

### 1) 분석 방향의 모색

역사적 장소에 대한 연구는 관점에 따라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계획학, 건축학, 조경학 등은 물리적 형상에, 지리학, 사회학은 경관과 개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역사학, 문학, 미술사학 등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81)</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고동환은 역사적 장소를 연구할 때 도시형태와 도시경관, 도시민을 함께 연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고,<sup>82)</sup> 이규목·김한배는 조성 주체의 관념, 물리적 형태, 주민이 인지하던 경관 이미지를 포괄하여 종합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sup>83)</sup> 최병두도 역사적 경관을 물리적 형상, 사회적 활용과 기능, 상징적 이미지의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sup>84)</sup> 즉 과거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모든 부분이 통합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림 2-9. 분석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성부의 연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그림 2-9 참조) 첫째, 연지의 입지 및 환경 특성이다. 이는 객관적 시각으로 당대의 연지와 그 주변 도시환경에 대해 실증적 항목으로 분석한다. 둘째, 연지의 조성과 관리, 소

81) 최병두,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공간과 사회 42, 2012), 95-96.

82) 고동환, “한국 도시사 연구동향-고려 개경과 조선 한양을 중심으로”(역사학보 207, 2010), 373.

83) 이규목·김한배, “서울 도시경관의 변천과정 연구”(서울학연구 2, 1994), 2-3.

84) 최병두, 위의 논문, 95.

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연지의 시기적 운영상황을 이해하여 시기별 변화와 원인을 고찰한다. 또한, 관이 관리하였던 만큼 관에서 연지에 기대하는 기능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실제 연지를 방문한 선인들의 이용양상과 경관 감상방식이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연지를 이용했으며, 그들에게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경관은 무엇인지 미시적인 접근을 한다.

## 2) 분석의 틀

분석의 세부요소들은 항목별로 한성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표 2-3 참조)

첫째, 입지 및 환경 특성 항목에서는 연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을 고찰하고, 연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를 확인한다. 또한, 현재 도시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도출하고 도시형태의 변화를 비교한다. 지형은 수계와 함께 고찰하고, 공간환경은 주변 지역의 특성, 길, 주요 지물에 대해 분석한다. 연지의 위치는 고지도와 지적원도 도면을 비교하여 정확한 필지형태로 도출한다. 도출한 위치를 토대로 위치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지의 규모, 형태, 관련 시설을 고찰한다. 또한, 현재 연지 필지의 위치와 상황을 살피고, 주변 가로, 수계, 지형의 변화를 본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연지와 관련해 남아있는 요소를 파악한다.

둘째, 조성 및 관리와 소멸 항목에서는 연지의 조성배경, 시대별 운영과 관리상황, 소멸 시기와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조성 시기와 조성 목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문헌의 내용을 환경 특성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지 관리상황은 매물과 수축에 대한 관련 사료를 자세히 살피고, 다른 회화나 문학 자료들과도 교차 확인한다. 소멸 시기와 원인은 사료와 신문자료, 환경 특성 등을 통해 검토한다.

셋째, 이용과 경관 감상의 항목에서는 이용행태, 이용주체, 경관 감상의 특성을 살핀다. 이용행태와 이용주체에서는 연지 방문 경로와 연지에서 나타나는 주요 활동을 살핀다. 내용을 앞의 연구내용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시기적으로 이용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경관 감상에서는 주변 경관요소와 연지의 경관요소를 구분하여 확인하고 요소별로 인상 깊게 느꼈던 경관이 무엇인지 묘사내용을 분석한다.

표 2-3. 분석의 틀

분석 항목	구분	구성요소	분석 방법
입지 및 환경 특성	지형과 공간환경	-지형/수계 -주변 지역 -길 -주변 주요시설	지도/도면분석, 문헌고찰, 옛글분석, 회화자료고찰

	위치와 형태	-고지도/지적원도 위치 -지리적 특성 -규모/형태 -관련 시설	지도/도면분석, 문헌고찰, 옛글분석, 회화자료고찰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연지 터의 위치와 필지 변화 -주변 가로, 수계, 지형 변화 -남아있는 요소	도면분석, 문헌고찰, 현지실사
조성 및 관리와 소멸	조성 배경	-조성 시기 -조성 목적 -조성 공사 내용	문헌고찰 또는 문헌에 의거한 추론, 환경특성고찰
	운영과 관리	-매물 상황 -수축 공사 내용 -관리 주체 -운영 목적 -공사 주체	문헌고찰, 옛글분석, 회화자료고찰
	소멸 과정	-소멸 시기 -소멸 원인	문헌고찰, 환경특성고찰
이용과 경관 감상	이용 양상	-주요 활동 -이동 경로 -시대적 변화	옛글분석, 문헌고찰, 지도/도면분석
	경관 감상의 방식	-주변 경관요소 -연지의 경관요소	옛글분석, 지도/도면분석



### 3장 연지의 입지 및 환경 특성



## 1절 동지(東池)

### 1. 동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동지의 환경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과 주변의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조성배경에서부터 운영과 이용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 공간환경이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지 일대는 표고 20m 이하의 저지대로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보인다. 흥인문로와 개천을 따라 동쪽으로 아차산에 이르기까지 넓게 평지가 이어졌다. 지형은 개천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고, 수구문을 통해 배출되는 개천에 낙산(타락산)과 안암에서 내려오는 개천 북쪽의 물줄기와 이간수문, 남산에서 나오는 개천 남쪽 물줄기가 모두 합류하기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한 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형 특성이 있다.

흥인문 바깥 지역은 도성 가까이에서 시골 정취와 전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권근(權近, 1352~1409)은 “동문 밖 깊은 곳에 전원이 좋다”<sup>1)</sup>고 하였다. 동교 지인의 집을 방문한 유만주(兪晩柱, 1755~1788)도 “동쪽 성 밖에는 유독 볼만한 경치가 갖춰져 있다. 산도 빼어나지 않고 물도 빼어나지 않으며 서울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데, 긴 독길을 따라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멀리 봄날의 발두둑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 한적하게 탁 트이고 아스라한 느낌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머물러 배회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며, 정신을 심원하고도 기쁘게 만든다”<sup>2)</sup>고 하였다. 밭이 넓게 펼쳐지고 길가와 천변에 버드나무가 우거진 정경을 연상할 수 있다. 일대의 버드나무 경관은 유명해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청문 밖의 연류 산뜻하여 고운데”<sup>3)</sup>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흥인문 밖 동지 주변 지역은 전원적 정취가 있으며, 특히 봄철이면 버드나무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다.<sup>4)</sup>

동문 밖 정취에 대해서는 버드나무 경관에 대한 묘사가 많으며, 동지 일대는 채소와 과수 농업으로 유명한 농지이기도 했다. 미나리, 마늘, 파, 호박, 수박, 연초 등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진다.<sup>5)</sup>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동문의 수박이 크기가 커 유명하다고 했고,<sup>6)</sup>

1) 東門僻處好園田. 「유영공 반(柳令公潘)을 조상한다」, 『양촌집(陽村集)』 8 © 한국고전번역원 오양 역, 1978.

2) 유만주, 『일기를 쓰다』, 김하라 편역(파주: 돌베개, 2015), 2: 176.

3) 靑門煙柳媚新晴. 「부친을 모시고 소내로 돌아오며[陪家君還苕川]」,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1 © 한국고전번역원 송기채 역, 1994.

4) 유득공, 「경도잡지(京都雜志)」, 『조선대세시기』, 이창희·최순권 역(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III: 155 ; 홍석모,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위의 책, 이창희·최순권 역, 220.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흥인문 인근 집 근처에 좋은 밭이 있어 좋은 수박이 있다고<sup>7)</sup> 했다. 도성 인근에서 채소밭으로 유명했고, 조선시대에 걸쳐 이 같은 속성이 지속하였다. 이희(李憲, 1532~1592)는 “영제교[영도교] 다리 끝은 무릎까지 진펄에 빠지고, 우쥘 자란 미나리 밭으로 버들은 그늘을 드리웠네”<sup>8)</sup>라고 했는데, 흥인문 바깥 지역 중 동지와 인접한 곳은 묘사된 것처럼 습지이고 미나리밭처럼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흥인문을 나와 연결되는 흥인문로는 가까이 연천, 양주, 여주부터 관동(關東) 지방, 함경도에 이르는 길이었다. 귀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 사람을 송별하기도 했지만, 귀양이나 좌천되어 지방으로 나가는 이들이 흥인문으로 많이 나가, 안타까워하며 송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만사(輓詞)도 많이 쓰였다. “동문 밖에서 길 제사를 지내노라니”<sup>9)</sup>, “서울의 동문을 영원히 떠나니”<sup>10)</sup>, “상여 실은 흰 수레 성 동문을 나서니”<sup>11)</sup>, “동문 밖 전송하며 부르는 슬픈 만가”<sup>12)</sup> 등 흥인문을 나와 장지로 가는 길에 의미를 부여해 많은 글이 남겨졌다. 정선의 「동문조도(東門祖道)」에서도 송별하는 모임이 아닌 헤어지는 길에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흥인문 밖에서의 송별은 다소 쓸쓸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또한, 흥인문로는 도성을 떠나 휴가를 가거나 가까이에서 유람을 떠날 수 있는 길이었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동쪽으로 흥인문을 나서는데 가을 하늘이 드높고 공기가 맑은 데다 들판이 행하게 펼쳐져, 내 마음은 벌써 표연히 산과 바다에 가 있었다”고 기술했다.<sup>13)</sup>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도성문을 나서면 언제나 좋아, 활짝 트인 들판을 접할 수 있네. 걸리거나 막힌 게 절로 없거니 어찌 굳이 속세를 멀리 떠나랴”<sup>14)</sup>고 했다.

5)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3쇄(파주: 태학사, 2013), 175-176.

6) 「서과행. 병중에 짓다[西瓜行. 病中作]」, 『사가시집(四佳詩集)』 29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2006.

7) 「차운하여 최상이 수박을 보내 준 데 대해 사례하다[次韻謝崔相惠西瓜]」, 『청음집(淸陰集)』 13 © 한국고전번역원 정선용 역, 2012.

8) 永濟橋頭泥沒膝. 水荈薺葉柳陰晴. 안대회, “가슴으로 읽는 한시: 흥인문에 오르다[登興仁門樓]”, 『조선닷컴』 2015년 7월 18일.

9) 東門供祖輓. 「경기 관찰사 이공 길보에 대한 만사를 남을 대신하여 짓다[挽京畿觀察使李公吉甫代作]」, 『점필재집(佔畢齋集)』 시집 18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1996.

10) 靑門永隔. 「정희왕후의 애책문[貞熹王后哀冊文]」, 『점필재집(佔畢齋集)』 문집 1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1997.

11) 素車城東門. 「안자정에 대한 만사[挽安子挺]」, 『추강집(秋江集)』 2 © 한국고전번역원 박대현 역, 2007.

12) 靑門送哀挽. 「박 지사의 부인에 대한 만사[朴知事夫人挽]」, 『계곡집(谿谷集)』 29 ©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1996.

13) 東出興仁門. 秋高氣淸. 原野寥曠. 此心已飄然在海山間矣. 「동유기(東游記)」, 『농암집(農巖集)』 23 © 한국고전번역원 송기채 역, 2004.

또한, 유만주는 동대문 큰 문을 벗어나 ‘인지동천(仁智洞天)’이라는 상상 속의 원림으로 간다고<sup>15)</sup> 기문(記文)을 작성할 정도로, 흥인문을 나온다는 것은 번잡한 도성과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었다. 즉 흥인문을 나선다는 것은 도성 안과 구분해 도성 밖 이상적 길지를 찾아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흥인문 외에 주요 지물로는 오간수문과 관왕묘, 영도교가 있다. 오간수문은 도성에서 가장 큰 수구문이었다. 세종대 문을 5칸으로 증설하였으나,<sup>16)</sup> 집중호우가 오면 배수가 원활치 않아 범람이 자주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개천에 여러 토사가 쌓이며 수문이 메워지기도 할 정도로 도성 내 물과 생활하수의 배출이 집중되었다.

관왕묘는 동지 일대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지물이었다. 사료에서는 관왕묘의 조성 위치에 대해 흥인문 밖 조산(造山) 근처에 설립한 점을 강조하였다.<sup>17)</sup> 이는 명나라 관료 유황상(劉黃裳)의 “도성 동편이 허하니 건물을 세우고 못을 깊이 파 지맥(地脈)을 진압해야 한다”는 조언을 따른 것으로,<sup>18)</sup> 관왕묘는 1601년(선조 34) 흥인문 밖 영도교 근처에<sup>19)</sup> 창건되었다. 부지 면적 2,823평으로<sup>20)</sup> 면적이 넓고 흥인문로와 영도교 사이의 교통 결절점에 위치하였다.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기에 병자호란 당시에는 청나라군이 주둔하기도 했다. 이후 청(淸) 사신들은 조선에 올 때마다 관왕묘를 방문하여 호란을 기념하였다.<sup>21)</sup> 또한, 관왕묘는 흥인문 밖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러 전별모임도

14) 每出都門好。歡然見野開。自能無罣礙。何必遠煙埃。「겨울 오교로 가던 길에 동문을 나와 있다[冬日赴午橋出東門作] 23일이었다」, 『다산시문집』 2 © 한국고전번역원 송기채 역, 1994.

15) 유만주, 「인지동천기(仁智洞天記)」, 『고전산문산책』, 안대회 편역(서울: 휴머니스트, 2008), 338-346.

16) “도성의 수문이 수효가 적으므로, 전해의 장맛비에 냇물이 불어 넘쳐서 냇가의 인가는 혹은 물에 잠긴 것도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북쪽의 수문 세 칸에 한 칸을 더 만들고, 남쪽 수문 두 칸에 한 칸을 더 만들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사람의 힘이 여유가 있으면 내의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돌을 쌓아 빗물을 통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都城水門數少, 前年霖雨, 川水漲溢, 川邊人家, 或有沈溺. 在前北邊水門三間加一間, 南邊水門二間加一間造築.” 上從之, 仍命人力有餘, 則川之左右皆築石開川.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1422) 1월 16일 갑술 3번째 기사.

도성의 역사를 마쳤다. ... 수문 2칸을 더 설치하여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중략) 都城之役畢. ... 增置水門二間, 以通壅滯. (중략)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1422) 2월 23일 경술 2번째 기사.

17) 『선조실록』 111권, 선조 32년(1599) 4월 29일 무인 3번째 기사.

18) 前見劉黃裳, 則我國都城, 東邊似虛, 建立屋宇, 深鑿池溝, 以鎮地脈云. 『선조실록』 112권, 선조 32년(1599) 윤4월 7일 을유 1번째 기사.

19) 關王廟已定於東大門外永渡橋傍. 『선조실록』 114권, 선조 32년(1599) 6월 22일 기해 3번째 기사.

2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국역 경성부사』(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1: 388.

21) 장지연, “권력관계 변화에 따른 동교 관묘의 의미 변화”(서울학연구 36, 2009), 51.

이루어졌다. 허목(許穆, 1595~1682)은 1678년(숙종 4) 관악산으로 유람을 떠나기 전 관왕묘에서 송별모임을 가졌다고 했고,<sup>22)</sup> 「동문송별도(東門送別圖)」(그림 3-1 참조)에서도 관왕묘 모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1. 「동문송별도」에 나타난 관왕묘 모임(1682년)

자료: 규장각 소장 원본을 방위에 맞추어 수평 전환

관왕묘와 인접한 영도교는 흥인문을 나와 왕십리, 한강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였다. 그만큼 통행량이 많고 영도교 관련 시문도 많아 당대의 유명한 교량이었다.

주변 환경을 통해 본 흥인문 밖 지형과 공간환경 특성은 먼저 지리적으로 저지대로 범람에 쉽게 노출된 지역이었다. 조선 후기 인창방의 인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동지 일대는 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이었고 주거지가 자리 잡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 여건은 오히려 흥인문 밖 지역을 도성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전원을 즐길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남겨지게 하였다.

또한, 관왕묘가 조성된 뒤에는 관묘에서 송별모임이나 사신들을 위한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흥인문에서는 도성을 나와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망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빠르게 거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 경로에서 관왕묘와 동지는 도성과 구분되는 흥인문 밖 고유의 전원적 경관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2. 동지의 위치와 형태

고지도에서 동지의 위치를 보면 흥인문 밖 흥인문로와 개천 사이에 있으며, 영미정동천 서쪽에 위치한다.(그림 3-2 참조) 1913년 지적원도에서 이 일대의 부지를 살펴보면 지목이 못[池沼]으로 표기된 필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3-4 참조) 그리고 고지도와 달리 개천

22) 「무오기행(戊午記行)」, 『기언별집(記言別集)』 15 © 한국고전번역원 최채기 역, 2008.

으로 연결되는 지류가 두 개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고지도에 표시된 위치와 일대의 지형 특성에 주목했다. 고지도 상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고지도에 표기된 수계가 지적원도에서 두 갈래로 표기된 지류 중 어떤 지류를 표현한 것인지 명확해져야 동지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3-2. 「수선전도」에서의 동지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네 가지 측면으로 고지도와 지적원도를 비교할 수 있다. 첫째, 고지도에 나타난 수계의 형태로 살펴보면, 그림 3-3의 A와 B 중에서 B에 더 가까워 보인다. 고지도를 흥인문로의 방향에 맞추어 회전하고 가로 세로의 비율을 조정하면 수계의 형태는 B와 유사하다. 그러나 고지도는 정확히 측량해 제작한 지도가 아니므로 형태만으로 같은 수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지적원도에 표기된 지류의 지목을 살펴보면, A는 낙산에서 흥인문로 인접한 부분까지는 구거[溝]로, 다음 구간에 천(川)으로 기록되다가, 다시 구거로 지목 표기가 바뀌며 개천과 연결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B는 전 구간이 구거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A는 지적원도에서 하천과 구거 지목이 혼재되어 표기되었다. 지적원도 도각을 살펴보면, A 지류가 표시된 원도는 모두 7장이었다. 그중 경성부 동부 창신동 원도 제13호에만 하천 지목과 수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같이 기재되고 나머지 6매의 도각에서는 모두 구거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천 표시는 기록과정에서의 오류이거나 화살표와 함께 하천의 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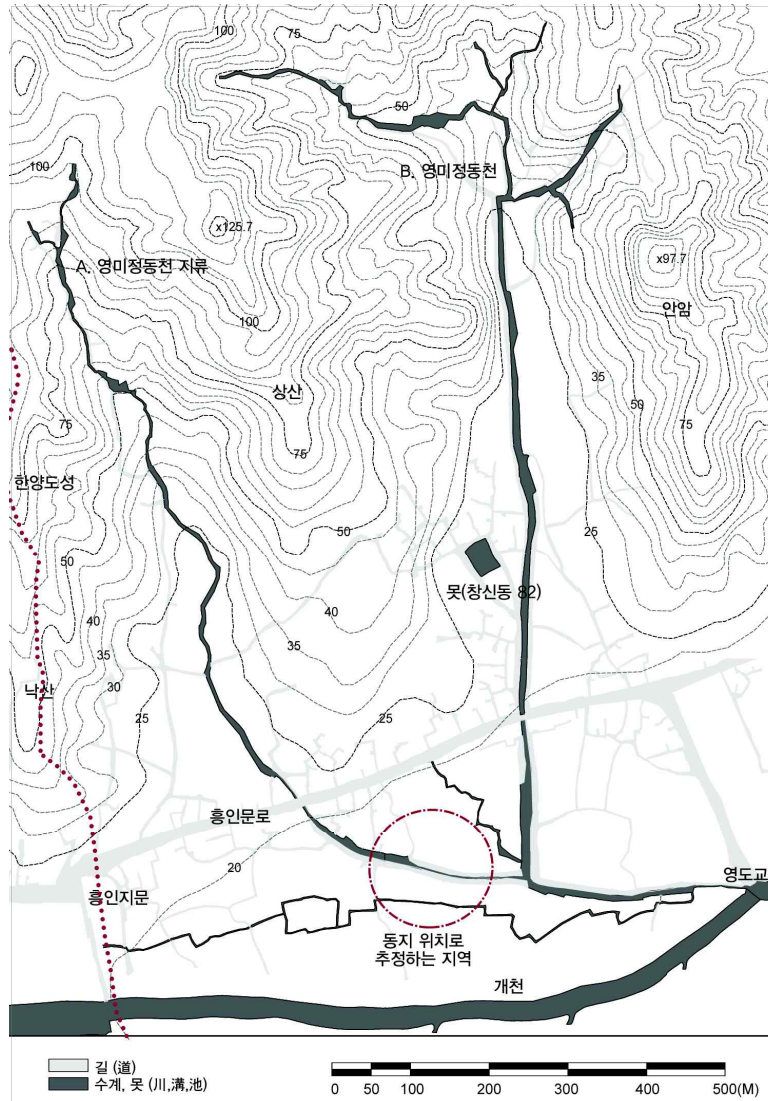


그림 3-3. 동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름을 표시하기 위해 써진 것으로 보이며, A 지류 역시 지목이 구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세 번째로는 수계의 발원지를 비교해보았다. 고지도에 표기된 수계는 대부분 낙산과 안암 사이로 기록되고, 일부 고지도에서는 안암에서 발원한 것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지적 원도의 수계 중 A는 낙산에서 시작되는 지류이고, B는 낙산 자락인 상산과 안암 사이에서 나오는 지류이다. 지류의 발원지를 비교해보면 B가 고지도에 표기된 수계에 더 가깝다. 네 번째로 지명을 통해 하천을 짐작해보는 것이다. 영미정동천은 복거천 또는 복차천(伏車川)

으로 불렸는데, 『서울지명사전』<sup>23)</sup>에서 영미정동천으로 기술한 지류는 A이다.

수계를 확정하는데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고지도의 조성 의도를 살펴본다면 수원의 시작점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인 규모나 형태는 차이가 있더라도, 고지도를 작성할 때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요하게 여기므로,<sup>24)</sup> 지류가 시작한 계곡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지류의 표기에서도 산과 물의 관계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수선전도」와 여러 고지도에서도 개천으로 합류하는 개천 북쪽의 지류는 낙산과 안암 사이의 분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일부 고지도에서는 낙산보다 오히려 안암 방향에 더 가깝게 표기되기도 했다.<sup>25)</sup> 반면 유래된 지명의 경우 하천의 복개 순서에 따라 전승되는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고지도에서 영미정동천으로 기록한 수계를 수원의 위치에 따라 B라고 판단했다.

영미정동천 본류로 볼 수 있는 B의 수계에는 1913년 당시 흥인문로 북쪽으로 못이 하나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못은 소유가 ‘동(洞)’으로 마을 공동 소유이고 면적은 354평이었다.<sup>26)</sup> 『서울지명사전』에서는 이 못을 동지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sup>27)</sup> 고지도의 동지 위치나 못의 소유자를 볼 때 마을 입구에 위치한 마을 단위의 못으로 볼 수 있다. 영미정동천 가까이에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동지가 사라지고도 이 못은 1930년대까지 유지되었다고 하여 못의 수량이 비교적 풍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적원도에서 동지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주요 가로와 B의 수계와 개천의 수계에 따라 고지도를 지적원도에 중첩해보았다. 동지와 가로, 하천 등이 뚜렷이 표기된 「도성대지도」, 「조선장안도형도」, 「수선전도」, 「도성전도」를 비율과 각도를 조정해 대입해보면, 그림 3-4와 같이 영미정동천 지류에 해당하는 A 수계와 가까운 영역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일대의 필지의 지목과 소유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밭 지목이고 민간 소유의 필지가 많았다. 그중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그림 3-4 ‘#’표기 참조)로 되어 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08년 설립되어 국유지를 불하받아온 점을 생각하면,<sup>28)</sup> 이곳 소유로 되어 있

23) 영미정동천과 흥인문로가 만나는 지점의 ‘복차교(伏車橋)’ 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종로구 창신 제1동 525와 393번지 사이 청계천의 지류인 복차천(伏車川)에 있던 옛 다리이다. 하천의 이름을 따서 복차다리라고 하였고, 한자명으로 복차교라고 하였으며, 음이 변하여 복초다리라고도 불렀다.” 위치상 A를 영미정동천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병수 외, 『서울지명사전』(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1376.

24) 역사지리연구모임 안팎너머, 『역사지리학 강의』(서울: 사회평론, 2011), 96-97.

25) 「도성대지도」, 「도성도」(19세기 초,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수선전도」, 「Map of Seoul」에서 안암에서 지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기되었다.

26) 경성부 동부 창신동 토지조사부(1912년 발행)에서 창신동 82번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토지 소유가 ‘정자동(亭子洞)’으로 되어있다.

27) 창신동 82번지 못을 동지라고 기록하며, 서지와 비교하였다. 강병수 외, 위의 책,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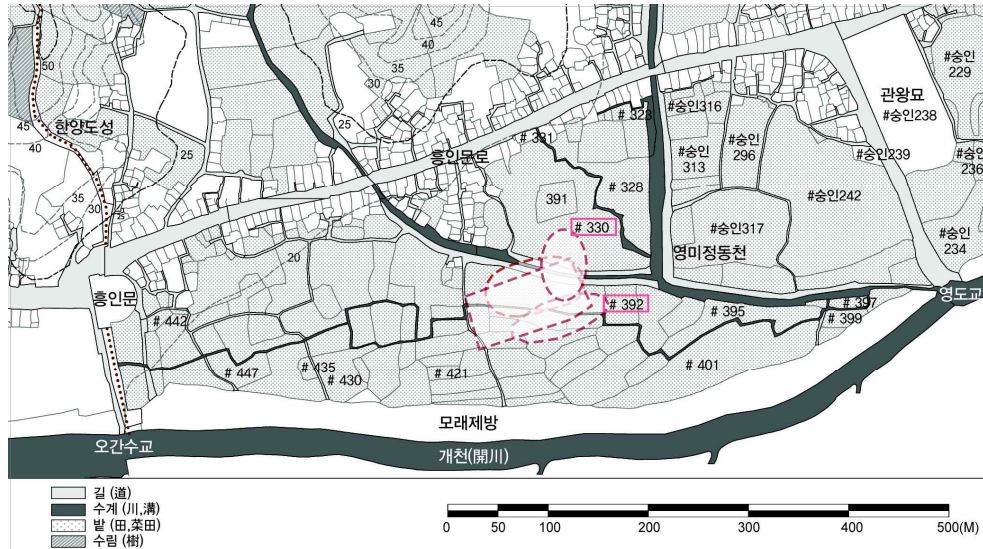


그림 3-4.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동지 위치(추정)와 주변 환경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에 근거하여 필자, 하재영 작성

\* #으로 표기한 필지는 토지조사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국가 소유로 기록된 것임.

\*\* 점선은 「도성대지도」, 「조선장안도형도」, 「수선전도」, 「도성전도」에 표기된 동지를 중첩하여 나온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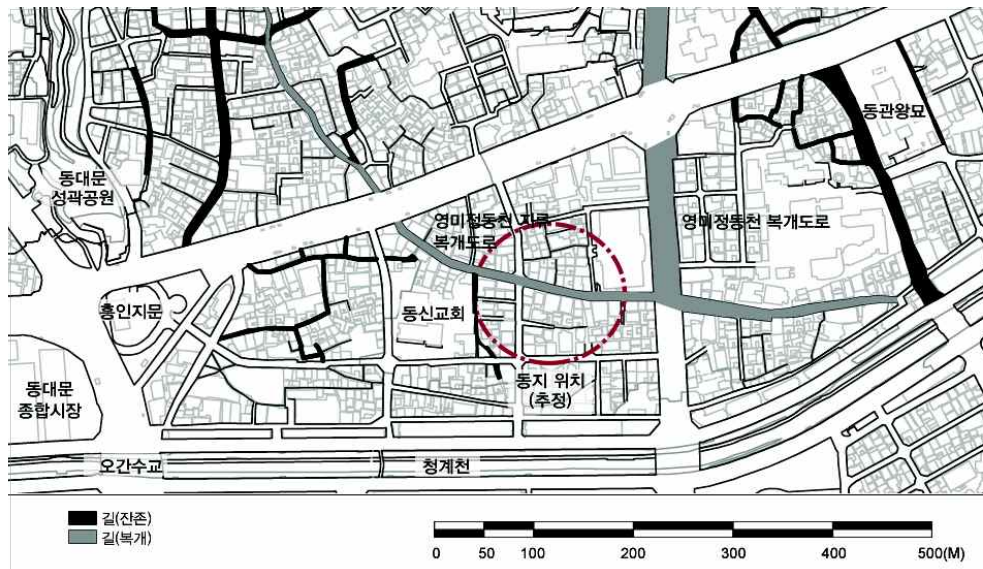


그림 3-5. 동지 일대의 현재 현황

자료: 2015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8) “동양척식주식회사”, <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 2016.10.31.)



는 부지는 과거 국유지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필지 중 영미정동천 서쪽에 있고 필지가 분할되지 않고 크게 남아있는 부지를 꼽으면, 창신동 328, 330, 392번지<sup>29)</sup>가 있다. 고지도에 표기된 영역과 비교하면 392번지가 동지 영역일 가능성이 높으나, 흥인문로와 연지로 접근하는 가로와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330번지가 관에서 다른 연지들을 조성한 기본 맥락과 유사해 보인다. 330번지 일대 주변 필지들은 영미정동천 지류 북쪽으로 대부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지로 되어 있다. 과거 민간에 소유한 부지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이 지역 범람이 잦아 민간저택이 입지하기 어려웠으며, 과거 수계와 함께 일대 지역 부지를 국가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곳이 동지 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종합했을 때, 동지는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단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고지도에서 다른 연지들이 명확한 형태로 표기된 데 비해, 동지는 글씨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과 비슷한 속성을 보인다. 공간환경 측면에서 동지 일대는 습지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진펄과 같은 땅이었다. 습지가 모두 국가 소유의 필지였고, 그 가운데 동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지 터 내에서 수축 공사나 비 온 뒤 수위 변화에 따라 연못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지도나 지적원도에서 명확히 동지 경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동지는 개천과는 모래 제방으로 분리되어 있어 개천과 연결된 못이 아니었다. 고지도나 지적원도에서 정확한 필지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영미정동천 지류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지는 흥인문로 북쪽의 낙산, 상산, 안암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과 개천이 합류하는 습한 부지에 조성하였다. 이는 수원을 확보하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수계 옆에서 범람에 대비해 우수지 기능을 할 수도 있었다. 국초 축성과정에서 동지를 계획할 때 흥인문로 북쪽이 산자락이어서 수원을 확보하기 좋은데도 가로 남쪽으로 연지 부지를 택한 이유는 관활한 지세를 비보하는 목적이 컸겠지만, 그 가운데 실제 연지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찾다 보니 개천으로 합류하는 수계 사이로 정하였고, 그 결과 범람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지는 습하고 범람이 잦은 위치여서 토사가 쉽게 퇴적하여 매몰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런 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매몰되는 특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지의 형태도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18세기 그려진 「동문조도」에 나타난 동지의 모습은 연못이 잘 운영되고 물로 가득 차 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주변 흥인문이

29) 창신동 328번지는 1,323평, 330번지는 3,180평(가운데 329번지는 민간 소유로 제외), 392번지는 379평이다.

나 관왕묘의 크기와 비교해볼 때 동지를 상당히 크게 묘사하고 있다.(그림 3-6 참조) 이를 통해 동지의 실제 크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흥인문 밖 지역에서 동지에 대한 인지(認知) 정도가 높았다는 점을 의미하며, 그런 만큼 면적도 비교적 넓은 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지는 위치적으로 흥인문로와 바로 인접한 것이 아니라 대로 후면에 있다. 그렇지만 지형을 살펴보면 흥인문로보다 동지 일대의 표고가 낮아 조망하기에 좋았을 것이다. 연지가 잘 관리되었을 때는 그 규모도 커서, 멀리서도 잘 조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루어볼 때 동지는 흥인문로 진·출입 시 조망하는 경관으로 의미가 컸다고 판단된다.



그림 3-6. 「동문조도」에서의 동지  
자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 3. 동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변화

지적원도와 중첩해 동지의 현 위치를 살펴보면 영미정동천 지류가 복개되고<sup>30)</sup> 현재는 창신동 문구완구거리로 사용되는 길에 인접한 곳이다.(그림 3-5 참조) 지명이 전래하는 과정에서 이 길을 과거 영미정동천이었던 곳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행정구역상 종로구 창신1동에 해당한다.

창신동 지역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저지대여서 집중호우시 쉽게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지역 중 한 곳으로 분류됐다. 식민지기 개천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져, 1920년에는 동대문 동남쪽 창신동 지역에 홍수로 붉은 흙탕물이 육지에 바다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sup>31)</sup> 1926년에도 침수가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흥인문

30) 영미정동천 지류를 대부분 영미정동천 또는 복거천[복차천, 伏車川]으로 지칭하였다. 복거천은 1966년 개천과 일대 지류의 복개 공사과정에서 함께 복개되었다. “필동천·복거천복개”, 『매일경제』 1966년 4월 14일 4면.

31) 종로록명목과 그 부근에는 침수된 가옥이 일백륙십오호인데 길우에는 삼척오촌가량이나 물이 덮히었으며 창신동과 그 부근에는 육십호가 침수되었는데 사십오호는 방안에까지 물이 채이었으며 이십오호는 뜰 아래에만 물이 들었고, (중략). “일개월간 삼차대홍수”, 『동아일보』 1920년 8월 3일 3면.

로 모래가 밀려들어 전차도 불통되었다고 한다.<sup>32)</sup> 1936년에도 동대문 밖 북거천(영미정 동천) 물이 넘쳐 인근 가옥이 침수되었다.<sup>33)</sup>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침수가옥이 발생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후 하수도 설비가 설치되었는데도 창신동 지역은 상습침수 피해가 반복되었다.<sup>34)</sup> 지형 특성에 따라 물이 저지대에 집중되면서 하수도에도 물이 한 번에 몰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수계는 모두 복개되었지만 지표수의 흐름이 지형을 따르기에 현대 도시에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지 일대 지역은 지형은 예전처럼 표고 20m의 저지대이고 전체적으로 평편한 지형이다. 과거 넓은 밭이었던 지역에 주거지들이 자생적으로 발달하고 필지가 작게 나누어졌다. 반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옛 가로형태와 수계의 복개된 형태가 잘 보존되고 있다. 관왕묘 앞길과 블록 내 이면 가로들이 과거의 도시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며, 영미정동천과 그 지류의 수계도 복개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명칭은 창신동 이름이 그대로 전해졌지만 동지와 관계된 명칭이 아니고, 동지에 대한 장소적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흥인지문, 동관왕묘, 청계천과 같은 과거 흥인문 밖에서 동지와 함께 조망되던 요소들은 현재까지 남아있다.

## 2절 서지(西池)

### 1. 서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서지는 가까이에 안산과 둥그재가 있고, 동쪽으로 인왕산이 있어 산으로 위요된 경관을 보였다. 안산은 고지도에서 안현, 모악, 무악, 기봉, 길마재, 화현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었다. 둥그재는 안산의 한 봉우리로 주로 원현(圓峴), 원교, 금화산으로도 불렸다. 서지는 안산에서 둥그재로 이어지는 산줄기 아래 위치하며, 봉우리의 표고는 171m, 곡지(谷地)의 최고 표고점은 110m 정도이고, 서지가 위치한 지역의 표고는 40~45m 범위에 있어 일

32) 동부침수이십삼. 재작이십일밤부터 다시 나리는 비로 말미암아 시내 창신동에는 침수가옥이 이십삼호에 달하였으며 작이십일일오전여덟시에 복차교 동대문 사이 도로에는 모래가 밀려드러 한동안 전차가 불통되었더라. “침수오백여호”, 『동아일보』 1926년 7월 22일 2면.

33) “昨夜市內에 水亂種種”, 『동아일보』 1936년 7월 27일 2면.

34) 저지대 물론 도심지도 비만 나리면 물난리. 시내 곳곳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구가 막혀 물이 거리로 넘쳐 흘러 물난리를 겪고 침수소동을 벌이고 있어 하수도 관리가 시급하다. ... 시내 창신동 일부 지역은 길이 3백미터의 복자천 40평방미터의 암거가 넘어 송인 동산 밑에서 흐르는 물이 넘쳐흘러 창신동큰길까지 물바다를 이루었다. “배수못하는 하수구”, 『경향신문』 1965년 8월 6일 4면 ; “종로구, 창신동 일부 지역 하수관로 전면교체”,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3년 11월 1일.

대 지역에서 저지대에 속한다.(그림 3-11 참조) 안산 일대 지역은 태조와 태종대 무악산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풍수적으로 좋게 여겨지는 땅이었다. 안산과 인왕산 사이로 넓게 평탄지가 있으며, 가로망도 발달했고, 안산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는 무악천도 흘러 수원도 충분했다.

서지 일대의 산은 행락공간으로도 유명했다. 그중 동그재는 도성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은 행락객이 방문하는 곳이었다.<sup>35)</sup> 또한, 서지 가까이 있는 냉동(冷洞) 연암(烟巖)은 계곡가에 있어 삼문 밖 거주하는 사대부들이 모여 친교를 나누는 장소로도 유명했다.<sup>36)</sup>

서지가 위치한 반송방 지역은 거주하기 좋아 그만큼 거주민도 많았다. 한성부 지역에서 반송방은 국초에도 도성의 다른 성저 지역보다 거주인구가 많았고, 조선 후기에는 거주민이 더욱 증가했다. 1913년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지적원도에서도 산자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지[垸] 지목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필지들이 좁고 조밀하게 이어져 있다.(그림 3-13 참조)

또한, 조선 후기 승례문부터 돈의문 밖 지역은 삼문 밖 지역으로 불렸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서소문 일대에 장시가 발달했다면, 돈의문 일대는 점포상업으로 변화했다. 쌀과 고추 등의 식재료, 딸감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었고, 약방도 있었다. 의주로를 지나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장사꾼들을 위한 상업시설도 운영되어, 신발가게, 짚신장수, 엿장수 등과 간이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다.<sup>37)</sup> 즉 돈의문 밖 반송방 지역은 여행 시작점이자 각종 교역 물품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점포들이 많은 유통 장소로,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었다.

서지 일대의 도시환경에서 의주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주로는 돈의문을 나와 북쪽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로, 제1로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간선도로였다. 사행로(使行路)로 이용되어 사신 영접과 관련한 여러 시설이 자리 잡았고,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했다. 형태적으로 이 길은 양쪽으로 산이 둘러싼 사이 공간을 지나게 된다. 1890년 서울을 방문했던 랜도우(A.H. Savage Landor)는 의주로를 “바위를 뚫어 북쪽으로 길을 냈다”고 설명할 정도로 화강암 바위벽이 길옆을 가파르게 둘러싸는 것처럼 느꼈다. 또한, 이곳을 서울에서 반드시 둘러보아야 하는 곳으로 손꼽았다.<sup>38)</sup>(그림

35) 동그재에 오르면 사방이 다 보이니, 온 도성 행락객들 약속하지 않고도 다 모였네[圓嶠登臨四望通。傾城遊客不謀同]。『만경재십경(萬景齋十景)』, 『무명자집(無名子集)』 시고(詩稿) 4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규필 역, 2014.

36) 『백사동인야유회도(白社同人野遊會圖)』 회화가 전해진다.

37) 강서연, “경기감영도로 본 한국건축도법의 특징”(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논, 2006), 42-43.



그림 3-7. 랜도우가 그린 의주로

자료: [http://www.gutenberg.org/files/13128/13128-h/13128-h.htm#LIST\\_OF\\_PLATES](http://www.gutenberg.org/files/13128/13128-h/13128-h.htm#LIST_OF_PLATES)  
(검색일: 2016.10.20.)

3-7 참조) 그리고 의주로 가로변에는 수십 보에 걸쳐 울창한 송림대가 있었다.<sup>39)</sup> 성현도 이 일대의 특성을 작은 언덕에 소나무가 가득하고, 모화관 앞 의주로 부분에는 좌우로 소나무와 밤나무가 뻗뻗해 그늘이 생겼다고 묘사했다.<sup>40)</sup> 의주로는 경관 그 자체로도 독특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지 일대에 가장 먼저 있었던 시설은 반송정(盤松亭)이었다. 반송정은 “소나무가 서리고 굽으며 둘러 그늘져서 수십 보(步)를 덮었는데, 고려 왕이 일찍이 남경(南京)에 거둥하다가 이곳에서 비를 피하고서 그렇게 이름 지었다”<sup>41)</sup>는 유래가 있다. 반송정은 모화관(慕華館) 북쪽에 있었고 국초까지 있다 소멸하였다.

그러나 ‘반송’이라는 이름이 지역명으로 연결되었고, 서지의 명칭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송정은 국초 국가적 행사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다. 조종조에는 반송정에서 기로회(耆老會)를 열어주었고,<sup>42)</sup> 군대를 사열(查閱)하거나 진 치는 법을 연습하는 등<sup>43)</sup> 훈련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도성에서 시행하기 힘든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데 도성 밖 서쪽 지역이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궁에서 이동 거리도 가깝고, 당시에는 넓은 공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1407년(태종 7)에는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모화루(慕華樓)를 설치하고,<sup>44)</sup> 1413년(태종 13) 기존의 서문을 닫는 대신 도성 서쪽 지역으로의 왕래를 편하게 하려고 서전문(西箭門)을 여는 등 반송방 지역을 계속 잘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1430

38) A.H. Savage 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신복룡·장우영 역(서울: 집문당, 1999), 125-127.

39)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조선의 임수』,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역(서울: 지오북, 2007), 829.

40) 홍제원 남쪽에는 조그만 언덕이 있어 큰 소나무가 가득하다. 옛적에는 이곳에 정자가 있어 중국 사신이 옷을 갈아입던 곳이었는데, 정자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사헌 남쪽 모화관 사이에는 좌우에 큰 소나무와 밤나무 숲이 서로 짙은 그늘을 이루었으므로 사회(射會)하러 오는 도인(都人)이 여기에 많이 모여들었으나 흐르는 시내가 맑지 못하다. 『용재총화』 1 © 한국고전번역원 권오돈·김용국·이지형 공역, 1971.

41) 「한성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 © 한국고전번역원 김용국 역, 1969.

42) 기로소(耆老所)는 연령이 70세 이상 관작이 2품 이상이어야 참여 가능하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잔치를 열었다. 『견한잡록(遣閑雜錄)』 © 한국고전번역원 김재두 역, 1971.

43) 「반송정에서 친히 군대를 사열하는 데 호종하다[扈從盤松亭親閱]」, 『사가집(四佳集)』 21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2006 ; 「연보(年譜)」, 『용헌집(容軒集)』 © 한국고전번역원 정재훈 역, 2013.

44) 癸卯/新構慕華樓于西門之外。倣松都 延賓館也.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1407) 8월 22일 계묘 1번째 기사.

년(세종 12)에는 모화루를 개축한 뒤 모화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모화관은 의주로와 가깝고, 무악천 바로 앞에 조성되었다. 모화관과 서지는 약 150여 보(187m)<sup>45)</sup>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하나의 영역처럼 연결된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는 국초 모화관과 서지 사이에 민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모화관은 중국 사신의 입출국 때 큰 연회를 베풀고 그 외에는 왕이 참관하는 활쏘기 시험[試射], 총쏘기 시험[試放]이나 군사 사열, 임시 과거시험 등을 시행하는 장소로 조선시대 내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1894~1896) 당시 사신 접대 기능의 모화관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1897년 독립협회에서 개수해 독립관으로 부르고 독립협회 사무소 및 집회장으로 사용했다. 독립협회는 독립관 주변 도성 밖 서쪽 지역에 독립문과 독립공원도 함께 조성하였고, 당시 서지 옆 천연정까지 수리하는데 협회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sup>46)</sup> 독립협회가 지속하였다면 천연정과 서지는 독립공원 영역에 자연스럽게 편승하여 다른 성격의 공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이듬해 협회가 바로 해산되면서 계획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서지 인근에는 경기감영과 경기중군영의 관아도 조성되었다.(그림 3-8 참조) 국초 수원과 광주에 위치했던 경기감영은 세조대 반송방으로 옮겨졌고, 병자호란으로 감영이 불타버렸지만 1641년(인조 19) 원래 자리에 재건했다. 경기감영은 1895년(고종 32) 도제를 변경하면서 수원으로 이주했고, 그 자리에는 한성부가 들어가게 되었다.<sup>47)</sup> 한성부는 1908년 9월까지 이곳에 머물렀으며, 이후로 경기감옥본감(1908~1912), 고양군청(1914~1928), 서대문우편국(1917~1934), 서대문경찰서(1920~1938),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진료소(1923~)가 잇달아 들어섰다.<sup>48)</sup>

45) 1보를 주척 6척으로 환산하면 약 187m 거리가 된다. 주척은 1430년(세종 12) 교정된 자를 기준으로, 주척 1척을 20.8cm로 환산하였다.("영조척", 『조선왕조실록사전』 참조) 그러나 지적원도에서 서지와 모화관 필지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약 275m 정도로 나온다. 주척으로 환산한 거리와 큰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조선 전기에는 학교까지를 서지의 영역으로 생각해 학교부터 모화관까지의 거리를 기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원도에서 학교부터 모화관까지의 거리는 약 200m 정도로 나타난다.

46) 총 5,900원의 예산 중 독립관 부대시설 공사 450원, 천연정 수리 136원, 공원지 조성 348원 등을 사용했다. 원 단위에서 전, 리는 절사했다. "본회 보조금과 회보가수입표[本會 補助金 及 會報價收入表]",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6호 1897년 7월 15일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함.

47) 이선희, "조선 후기 한성부 내 경기감영의 입지 연구"(서울학연구 45, 2011), 149-150, 158, 161.

48) 경기도박물관, 『경기관찰사』(경기도: 경기도박물관, 201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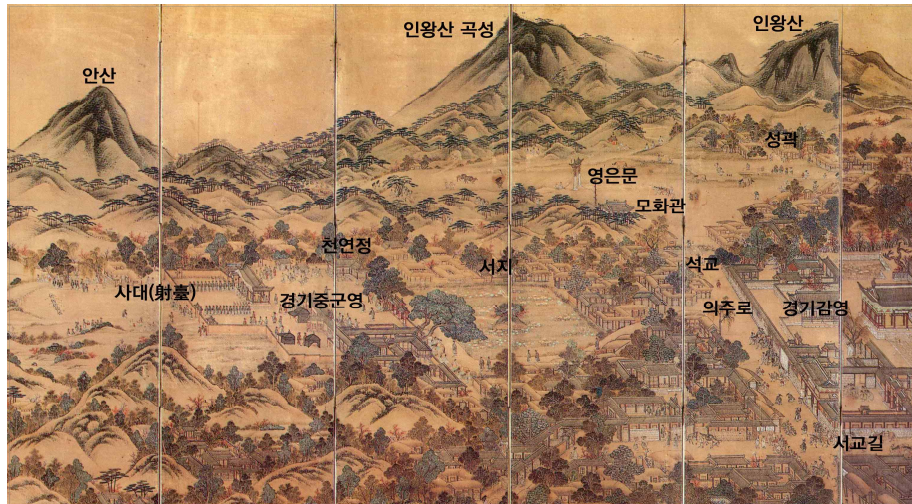


그림 3-8.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서지 일대 지역  
자료: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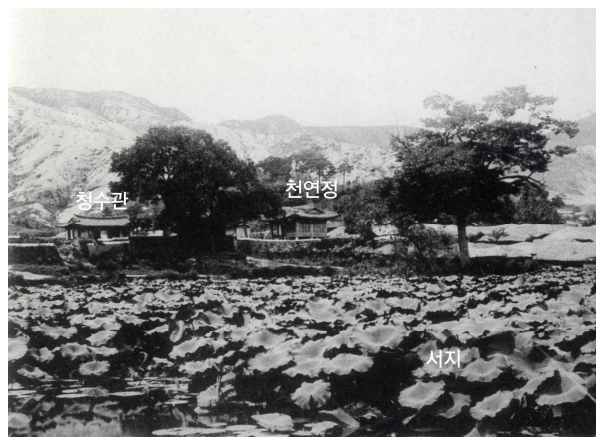


그림 3-9. 1882년 『朝鮮國珍景』으로 촬영된 천연정과 서지  
자료: 안동대학교 박물관, 『(사진으로 보는)조선 1982년』, 59.

경기중군영은 서지와 바로 인접한 산자락에 자리 잡았다. 이해중(李海重, 1727~?)의 서재(書齋)이었던 곳에 조성되었다고 전해진다.<sup>49)</sup> 1793년(정조 17)에는 서지를 조망할 수 있는 천연정 누각이 군영 내 창건되었다.<sup>50)</sup> 천연정은 서지의 연을 감상하기 최적의 위치였다. 군영 내에는 청수관(淸水館)이 있었는데, (그림 3-9 참조) 1880년 일본공사관으로 사용되다가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불타게 되었다. 1900년에는 궁내부에서 천연정 부

49) 유본예, 『한경지략(漢京識略)』 1쇄, 권태익 역(서울: 탐구당, 2016), 205.

50) 「천연정중수기(天然亭重修記)」, 『완당전집(阮堂全集)』 6 © 한국고전번역원 신호열 역, 1988.

지 내에 2층 양옥을 건축하였고,<sup>51)</sup> 1905년에는 보성학교를 설립하면서<sup>52)</sup> 학교용지로 사용했다. 1922년에는 본원사(本願寺)에서 사회사업의 목적으로 향상회관(向上會館)을 설립해 운영했다.<sup>53)</sup> 천연정 부지에 여러 시설이 변화하며 자리 잡았지만, 천연정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5년 향상회관으로 사용될 당시에 도 천연정에 가서 매몰된 서지 부지를 조망한 내용이 있었다.<sup>54)</sup> 대한제국기 천연정은 연(蓮) 감상, 연설, 복권 추첨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1931년에는 고적으로 등록되며 관리되기도 했다.<sup>55)</sup>

또한, 서지 남서쪽은 안산에서 연결되는 산줄기로 조선시대에는 산기슭이었던 지역이다. 1910년 미국남북감리교회 한국 선교부에서 신학교 부지를 사들이면서 산자락을 개발해 협성신학교를 조성했다. 부지면적은 4.832평으로 넓은 면적의 부지를 매입해 자리 잡았다.

서지 일대 지역은 도성 밖에 나와 산, 계곡, 하천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자연 환경이 수려해 행락공간으로서 가치가 높았다. 조선 전기에는 모화관과 반송정, 서지가 주요 시설이었고, 조선 후기에는 천연정, 각종 관아, 상업시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역의 특성은 변화하였지만, 서지 일대 지역은 국가적으로 중요시 여겨지고 조선시대 동안 사신

51) “천연정의 양제옥”, 『황성신문』 1900년 4월 9일 2면.

52) 러시아 어학을 가르치던 학교로, 조계사 뒤쪽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http://blog.daum.net/savatthi/34> (검색일: 2016.9.16.)

53) “新裝된 향상회관”, 『동아일보』 1923년 11월 23일 3면.

54) 監營네거리로하야 冷洞으로 발발 하다가 길스가 움물을 마시었다 문득 물에 잠겨 넘어가는 거침이 잇스니 드러보매 곳 天然亭 그림자이다 天然亭! 果然 반가운 亭子이다 얼른 눈을 들어 휘- 돌아보았다 이것은 每事에 泛然한 내가 蓮꽃을 구경코저 함이다 天然亭이 서울 遊賞地의 하나요 天然亭못가 蓮꽃이 더욱 觀賞의 하나로 天然亭을 꾸미어 주든 것이었다 그런데 蓮꽃이 있어야할 그 자리에 蓮꽃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뚝한 洋屋이 들어서고 그 아래 너른 마당에는 아이들이 우글하얏다. 아차 잇것구나 蓮꽃을 메이고 普通學校를 세운지가 벌써 몇 해인데 이런 수작을하나 못이 메였거니 꽃을 어이 어어보라 대체 天然亭蓮꽃이란 어떠한 것이었든가.

京城에 蓮池가 서호로 東大門 안 只今 蓮建洞의 것과 南大門 박바루 나서며 南池라는 것과 이 天然亭 못 곳 兩池 이엇섯는데 이 兩池가 가장 壽命을 오래 지내고 또한 그 位置가 兩쪽 인만큼 아는 이는 아는 바로 넷날 東西南北의 四色이 떠들때에 西人이 京畿監司를 하면 더욱 登揚을 하든 못이였다 그리고 저리고間에 이 天然亭이 더욱 큰 歷史를 짊어지고 잇는 것은 淸水館으로이니 淸水館은 간丙子以後壬年까지에 일본공사관으로 李朝末 歷史에 끼어 그에 못차단이는 것이다 (중략) 늪흔나무그늘 미테서 나흔자 답답한 속을 그야말로 玉井샘으로 찢쳐 나리고 夕陽을 띄어 돌아가는 것이 어찌 그림으로 보면 그럴 상도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날이 마춤 八月로 그믐이요 石翁潭蓮의 詩 그것을 다시 吟味하야 내가 보든 天然亭蓮꽃도 찢어지고 꺾겨지고 문들어져 저-속에 파묻혔는가 한다. 권덕규, “천연정을 지나며”, 『매일신보』 1935년 10월 4일 1면.

55) “종교과에서 초안완료, 고적과 보물보존령”, 『동아일보』 1931년 6월 9일 2면 ; “등록법실시 수리될 고적”, 『동아일보』 1931년 8월 30일 2면.



연(使臣宴), 군사연습, 과거시험, 기로회 등 다양한 용도로 지속해서 활용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거지와 상업지가 발달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높은 지역이었다. 국가적 이용이 높으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가게끔 하는 장소적 매력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 2. 서지의 위치와 형태

고지도에서 서지의 위치를 보면 돈의문을 나와 영은문 방향으로 올라오는 남북 가로에 인접해 있다. 그 가로는 의주로이고, 의주로 동쪽으로는 무악천이 흘러내려 간다.(그림 3-10 참조)

서지는 지적원도에 연못 지목으로 필지가 표시되어 있어, 과거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경성부 서부 천연동 13번지가 지목이 연못[池(蓮)]으로 되어 있고, 토지조사부에도 이 지역은 국유지 연못[國, 池沼]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3-13 참조)

서지 일대의 등고선을 보면, 서지는 안산 산기슭의 계곡부에 자리한다. 등고선이 송의묘 설치(1902년 건립) 후 이미 개발된 상태여서 서지의 옛 지형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 물이 흘러내려 와 모이는 장소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형은 서지 서쪽에서 무악천 쪽으로 표고가 점차 낮아져 의주로와 무악천 일대의 지대가 표고 40m 이하로 가장 낮다.(그림 3-11 참조) 그러나 「경기감영도」를 보면 의주로에서 서지로 내려가는 길이 표현되어 있어, 실제 지형은 서지가 의주로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3-12 참조)

서지의 수원에 대해, 대한제국기 청수관에 방문했던 일본인은 “서지 앞에는 맑은 샘도 있었는데, 이 샘물이 흘러 연못을 이루었다”<sup>56)</sup>고 말했다. 1732년(영조 8) 기록에서도 서지의 물이 마른 것은 우물물이 마른데서 비롯되었다고,<sup>57)</sup> 서로 연관해 설명하였다. 서지 일



그림 3-10. 「수선전도」에서의 서지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56) 이시바타 사다[石幡貞]가 1877년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수행하며 일본 공사관에 묵었을 때의 기록이다. “이곳의 지명은 반송동이라 하며, 문밖에는 맑은 샘물이 있는데 이것이 흘러 연못을 이루었다[門外有清泉, 噴流爲池]” 石幡貞, 『朝鮮歸好餘錄』(東京: 日就社, 1878);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국역 경성부사』(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2: 458-459 재인용.

57) 金在魯曰, 盤松池水盡涸云矣. 致中曰, 井泉皆涸矣. 『승정원일기』 41책, 영조 8년(1732)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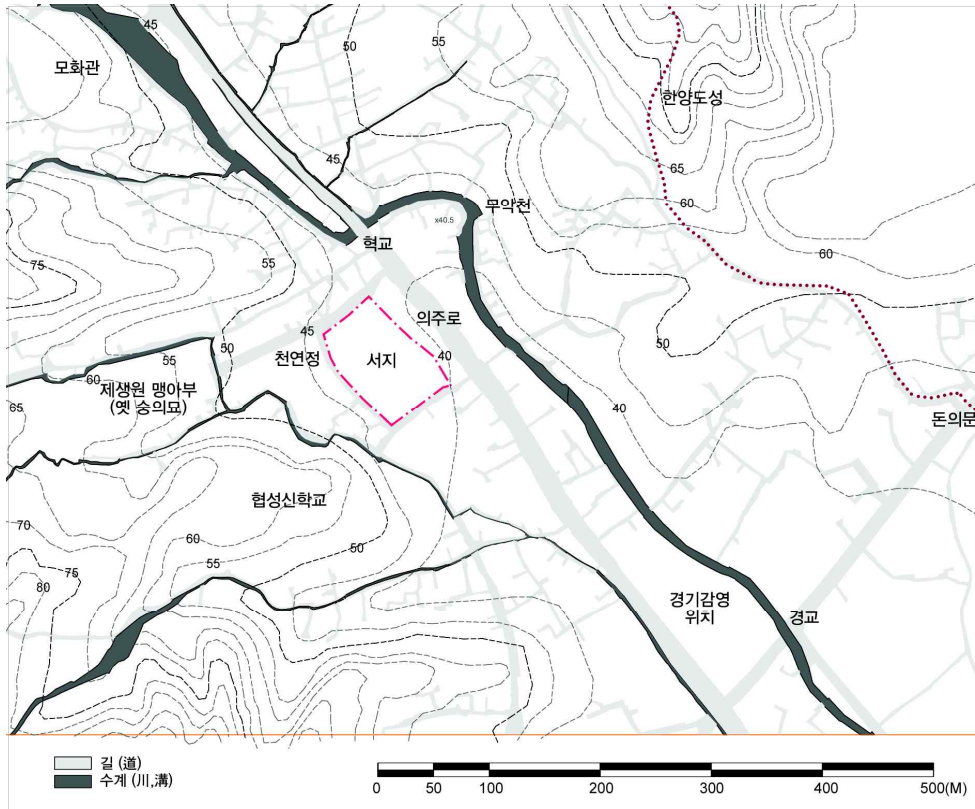


그림 3-11. 서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를 참고하여 필자, 하재영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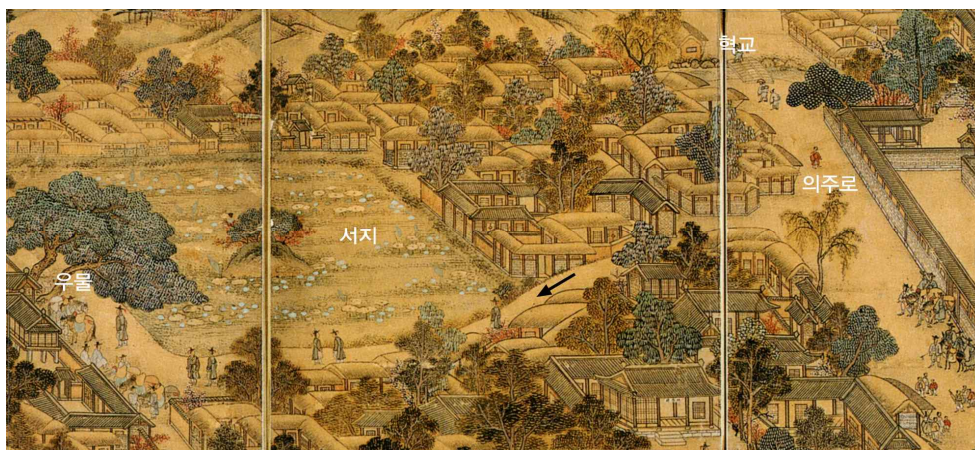


그림 3-12.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서지와 의주로의 연결

자료: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22일 기묘 19/19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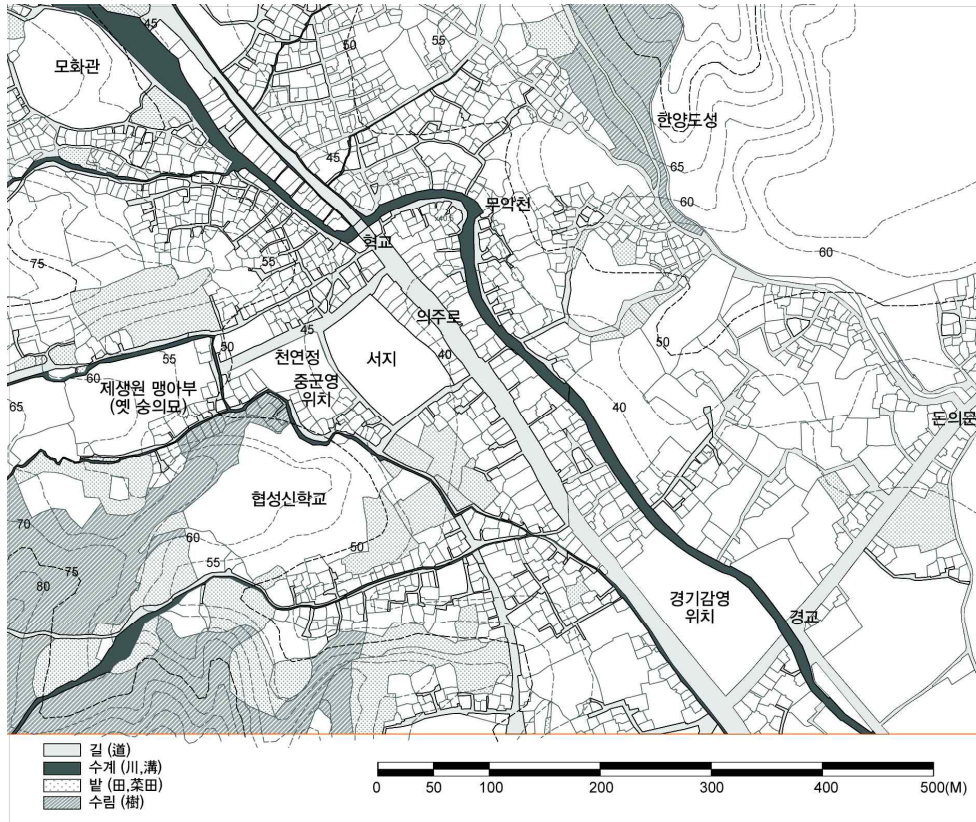


그림 3-13.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서지와 주변 환경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에 근거하여 필자, 하재영 작성

대 지역은 좋은 우물과 샘이 많아 명성이 높은 지역으로,<sup>58)</sup> 중군영은 맑은 물을 뜻하는 청수관으로 그리고 군영 남쪽 지역은 냉천동(冷泉洞)으로 불릴 정도로 찬 샘물, 맑은 물로 유명했다.<sup>59)</sup> 즉 서지의 수원은 「경기감영도」에 나타나는 반송 아래 중군영 앞 우물물이 입수한 것으로, 물이 비교적 맑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1907년 당시에는 우물이 혼탁하다고 해,<sup>60)</sup> 산자락이 점차 개발되면서 수질 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지의 규모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08년 당시 길이가 380척(115~118.6m), 너비 300척(91.4~93.6m)<sup>61)</sup>의 직사각형 형태로 기술되었다. 깊이는 2장(6~6.2m)~3장(9.1~9.3m)

58) 서유구, 『산수간에 집을 짓고』, 5쇄, 안대희 엮어옮김(파주: 돌베개, 2013), 139.

59) 마을 여기저기서 찬 샘물이 솟아난데서 유래하였다. 경기중군영 앞 찬 샘물은 인근 주민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강병수 외, 앞의 책, 134.

60) 『매천야록(梅泉野錄)』 6, 위의 책.

61) 서지가 조성된 시기는 척(尺)이 교정되기 전이어서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길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환산하였다. 첫째, 1396년(태조 5)에 기술된 한양도성의 규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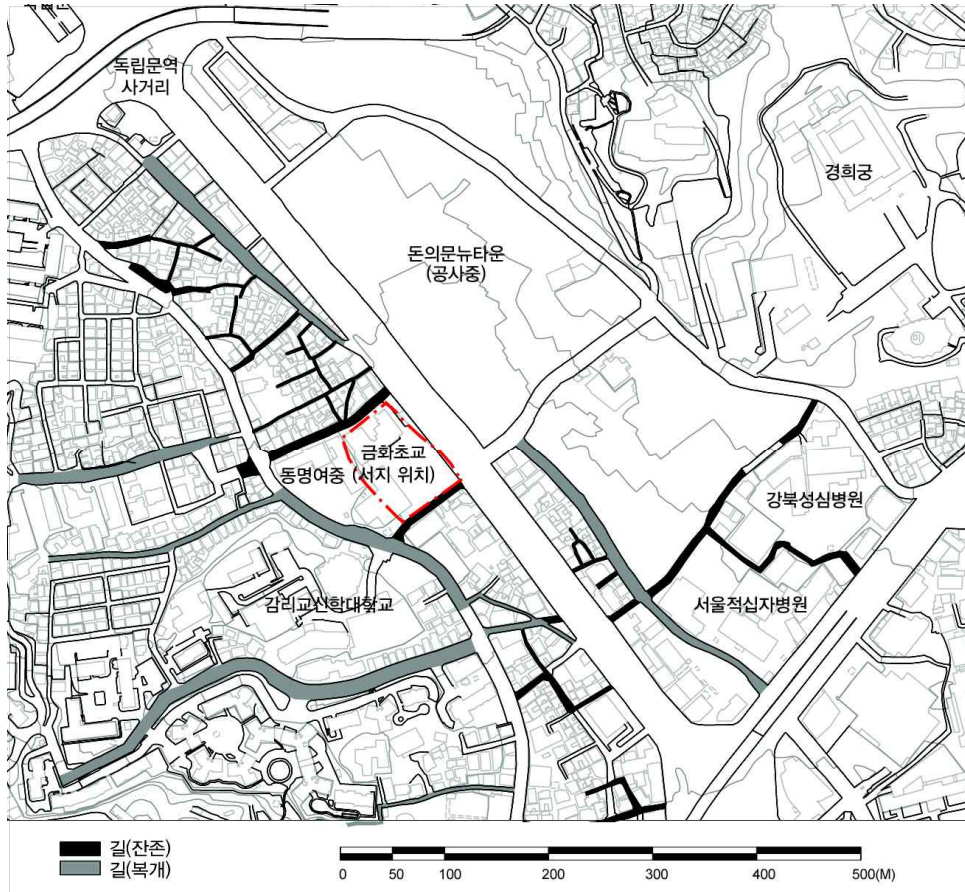


그림 3-14. 서지 일대의 현재 현황

자료: 2015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상이었던 네모난 형태였다.<sup>62)</sup> 이를 환산하면 면적은 3,185~3,363평 정도이다. 지적원도와 1912년 토지조사부의 자료에서는 서지 면적이 2,180평 정도로 기록된다. 지적원도에서 서지는 길이 110~120m, 너비 53~66m의 범위로 측정된다.<sup>63)</sup> 지적원도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비교하면, 연못의 남북 길이는 그 크기가 거의 변화가 없다. 조영 당시와 남북 길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동서쪽으로 너비가 25~40m 정도 짧아진 것을 알 수

척의 단위를 계산하였다. 도성 둘레가 59,500척인 한양도성을 실측하면 18.127km이므로 1척을 30.46cm에 해당한다. 둘째, 1430년(세종 12) 교정된 영조척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31.22cm이라고 기준을 둔다. “영조척”, 『조선왕조실록사전』 참조.

62) 못이 모하루까지 1백 50여 보이고, 길이는 3백 80척, 넓이는 3백 척, 깊이는 두세 길이고, 수맥의 유무는 자네가 보는 바대로이다. 池距樓一百五十餘步, 長三百八十尺, 廣三百尺, 深二三丈. 水之有無, 則在汝所見.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5월 7일 1번째 기사.

63) 서지의 경계 형태가 정형적인 방향이 아니기에 긴 변과 짧은 변 길이를 함께 기록했다.

있다. 서지 동쪽의 의주로와 인접한 필지들의 너비가 16~24m로, 과거에는 이 필지들까지 서지 영역이었을 것이다. 서지는 과거 의주로변에 인접해 있었으나 연못이 일부 메워지고 반송방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메워진 필지가 대지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형태에서 미루어볼 때, 국초 서지는 의주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연못 주위로 방죽 가로가 둘러싸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의주로에서 조망하기도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의주로변이 개발되고 서지는 가로 이면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런 데도 「경기감영도」를 보면 의주로에서 경사로를 통해 서지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려져, 의주로에서의 접근성은 여전히 좋았던 것 같다.

서지 관련 시설로는 먼저 담을 들 수 있다. 1430년(세종 12) 서지에 낮은 담을 쌓았다는 기록<sup>64)</sup>이 있어 국초 완전히 폐쇄된 형식은 아니더라도 낮은 담을 설치해 경계를 설정하고자 했던 것 같다. 여기에 연산군 시절에는 서지 담 밑부터 언덕 위까지 싸리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했다.<sup>65)</sup> 모화관과 분리하고, 일종의 금지 구역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sup>66)</sup> 연산 이후 모화관과 구분 짓는 울타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더라도 목책이어서 쉽게 철거할 수 있기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지의 기존 낮은 담에 대해서는 명종대 기록에서도 서지[盤松池]의 담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sup>67)</sup>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감영도」나 이후의 사진에서는 담장이 보이지 않아, 서지 인근에 경기중군영과 민가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감영도」를 보면 서지 가운데에는 원도가 있고 초화목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도 조성에 대한 문헌 자료는 없었지만 1927년 「경성시가도」에도 원도가 표시되어

64) 돈의문 밖 서북쪽에 있다. 본이름은 모화루이니,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금상 12년(1430) 경술에 고쳐 짓고 관(館)으로 하였다. 남쪽에 네모진 못이 있는데, 낮은 담을 쌓고 버들을 심었다. 在敦義門外西北, 本名慕華樓. 以爲朝廷使臣迎接之所. 今上十二年庚戌, 改創爲館, 南有方池, 築垣種柳. 『세종실록』 지리지 경도 한성부편.

65) 반송지 담 밑부터 건천 언덕 위까지 싸리 울타리를 높이 설치하라. 自盤松池牆底至乾川岸上, 高設柵籬.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1505) 3월 30일 1번째 기사.

66) 한성부·공조 당상과 이계동, 경기 감사 안윤덕을 명소하여, 서금표 도면을 보이고, 전교하기를, "금지 구역의 한계를 더 멀리해야 하겠다. 그 안에 비록 전토와 가옥이 있다 할지라도 임금의 땅 아님이 없는데, 누가 감히 자기의 것으로 알겠는가. 창경릉의 수호군도 또한 한계 밖으로 나가 살도록 하고, 또 목책을 모화관의 아래 담 모퉁이에 설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고 오직 행행할 때에만 임시로 철거하도록 하라."하였다. 命召漢城府, 工曹堂上與李季全, 京畿監司安潤德, 以西禁標圖示之, 傳曰: "禁限當更遠. 其中雖有土田, 家舍, 莫非王土, 誰敢認爲己物? 昌, 敬陵守護軍亦使出居於限外. 且設木柵於慕華館下牆隅, 禁人通行, 唯行幸時則權撤." 『연산군일기』 55권, 연산 10년(1504) 8월 7일 갑자 2번째 기사.

67) 모화관의 반송지 담 밑에 두꺼비가 새끼를 업고 두세 마리씩 연달아 담장을 따라 어디론지 갔는데. 慕華館 盤松池牆底蟾蜍負子, 或二或三, 而累累然循牆而去.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1556) 2월 21일 2번째 기사.

있다. 「경성시가도」는 측량 도면이기에 당시 원도가 있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즉 적어도 조선 후기부터 서지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원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지 일대는 도성 밖 지역 중 행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소였다. 그만큼 연못의 크기도 경회루지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조성하였고, 지역적으로 수원이 풍부해 물이 맑고 연지를 운영하기도 좋았다. 조선 전기에는 입지적으로 길과 연결되고 연지 주변으로 넓은 공터가 있어 국가나 일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여겨졌다. 반면 후기에는 서지 주변이 개발되면서 길 이면이 되어버리고 주변 공터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도 서지는 도시와 근접하면서 수려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연지 자체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명소가 되었다.

### 3. 서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서지의 현재 위치는 서대문구 천연동 13번지 금화초등학교와 천연동 31-3번지 동명여자중학교 부지 일부이다. 학교 부지로 계속 사용되어 필지 자체가 넓게 유지되었다.(그림 3-14,15 참조)

현재 돈의문 밖으로는 많은 주거지가 개발되고 성벽도 사라져 과거처럼 도성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지 않는다. 가로나 수계, 지형의 형태를 보았을 때, 가로는 통일로(옛 의주로) 서쪽 이면 가로는 옛길로 많은 부분 보존되고 있었다. 길 동쪽으로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과거의 필지 형태는 대부분 사라졌다. 무악천 수계는 독립문 북쪽으로는 수계의 흐름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아래쪽으로는 길로 복개되어 그 형태를 일부 보존하고 있다. 서지 서쪽으로 연지까지 연결되던 안산 산줄기도 개발되어 현재는 표고 100m 정도 되는 지대까지 건물이 자리 잡았다. 무악천과 산에서 무악천으로 연결되는 구거는 복개되었으나 그 형태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지는 주변 도시환경이 개발되어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서지 자체의 필지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 과거 서지의 규모나 형태를 연상해볼 수 있다.

서지 일대 천연동, 냉동과 같은 지명은 현재도 동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지가 과거 있었다는 기억을 상기시킬 요소들은 초등학교 앞에 천연정과 경기중영과 관련한 표석을 설치한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그림 3-16 참조) 표석은 천연정 터에 관한 내용으로 “천연정은 도성 밖 서지 서쪽 가에 있던 정자로, 18세기 중엽에 세워져 경기감영 중영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천연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서지는 한성부에서 식민지기까지도 남아 있었던 넓은 면적의 연못이었고, 천연정은 서지를 감상하기 위해 조성

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서지에 대해 공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3-15. 과거 서지가 위치했던 부지  
자료: 동명여중 주차장 부지에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9.22.)



그림 3-16. 학교 앞 경기중영과 천연정 표석  
자료: 독립로 금화초교 앞에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9.22.)

### 3절 남지(南池)

#### 1. 남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남지는 동남쪽으로 산세가 이어진다. 남지 동쪽으로 남산이 있고, 그에 연결해 우수현(牛首峴)<sup>68)</sup>으로 불리던 도동(桃洞, 도저동) 언덕이, 그리고 우수현 남쪽으로는 청파(靑坡)가 이어진다.<sup>69)</sup> 남산부터 청파까지는 소나무를 심어 잘 가꾸고 산세를 보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은 승례문 일대의 지형이 낮다고 평가하였던 데서 기인한다.

승례문 일대는 지대가 낮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종은 1433년(세종 15) 승례문의 지대를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승례문을 설치해 산맥이 연결되는 것처럼 지형 공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sup>70)</sup> 부역의 어려움으로, 계획했던 승례문 개축공사는 1447년(세종 29)이 돼서야 실행된다.<sup>71)</sup> 이 당시 승례문 일대의 지형을 성토했는지 기록한

68) 우수현을 ‘右水峴’, ‘雨水峴’, ‘禹壽峴’으로 표기하기도 했는데, 도성도(20세기 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서도 ‘牛首峴’으로 기록되어 이를 따르기로 한다.

69) 경복궁의 오른팔은 대체로 모두 산세가 낮고 미약하여 널리 헤벌여지게 트이어 품에 안는 판국이 없으므로, 남대문 밖에다 못을 파고 문안에다가 지천사(支天寺)를 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남대문이 이렇게 낮고 평평한 것은 필시 당초에 땅을 파서 평평하게 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높이 쌓아 올려서 그 산맥과 연하게 하고 그 위에다 문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청파역(靑坡驛)에서부터 남산에까지 잇닿은 산맥의 여러 산봉우리들과 흥천사(興天寺) 북쪽 봉우리 등처에 소나무를 심어 가꿔서 무성하게 우거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7월 21일 임신 2번째 기사.

70) 『세종실록』 61권, 위의 기사.

71)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1447) 8월 30일 기축 2번째 기사.

내용은 없지만, 1921년 지형도의 등고선을 보면 송례문을 중심으로 지형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송례문 지대를 높이고자 한 방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송례문에서 남지 남서쪽 무악천 방향으로 지형이 점점 낮아지는 형상을 보인다. 무악천은 남지와는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남산에서 발원한 물은 일부는 도성 내 개천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남산 서쪽에서 내려와 무악천으로 합류하여 두 수계가 구분된다. 한 글에서는 남산 서쪽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흘러 무악천으로 흐르는 지역을 도동이라 설명하기도 했다.<sup>72)</sup> 남지도 남산 서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연관되었을 수 있지만, 지형이 남서쪽 방향으로 낮아져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림 3-20 참조)

송례문을 나오면 바로 앞에서 여러 길을 만나게 된다. 길은 세 갈래로 나뉘어, 서쪽부터 시흥간로(始興間路), 삼남대로(三南大路, 제6로, 제7로, 제8로로 분리), 제4로(第四路, 부산로)에 해당한다. 시흥간로는 시흥, 수원 방향의 길이고, 삼남대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로 내려가는 길, 제4로는 충주, 대구, 부산으로 가는 길이다.<sup>73)</sup> 송례문을 나오면 한성부 북쪽 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었던 셈이다. 그렇기에 송례문을 지나가는 통과인구는 상당히 많았다. 이학규(李學逵, 1770~1835)는 「성시전도(城市全圖)」에서 “삼남대로 모두 이곳으로 모여 드는데, 사람과 말의 행렬은 개미 떼 가는 것 같다”<sup>74)</sup>고 묘사해 도성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송례문 앞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다.

송례문 밖 지역은 거주민도 많은 지역이었다. 반석방 지역은 반송방과 함께 도성 밖에서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조선 전기 성현이 송례문 밖 지역에 집을 얻으며 이 지역을 “민가가 다닥다닥 들어차 있어 조석으로 밥 짓는 연기가 오른다[魚鱗千萬落, 煙火暗晨昏]”고 묘사했고, “한 치 땅이 금처럼 비싼 동네[一寸如金地]”<sup>75)</sup>라고 할 정도로, 주변이 가옥들로 조밀한 도시환경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16세기 중반 송례문에서 돈의문에 이르는 삼문 밖 지역은 성 밖이지만 사대부가 많이 거주한 곳으로 언급되었다.<sup>76)</sup> 이후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인, 수공업자, 군병, 지방에서 역을 피해 올라온 사람들, 외부에서 몰려든 유민들

72) 남산 서쪽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최씨의 정원을 지나 섬암(蟾巖)에 이르면 몇 길 높이의 폭포가 되어 도도하게 곧바로 떨어진다. 이후 북으로 꺾어져서 만천의 왼쪽 지류가 되어 흐르는데, 이곳을 도저동이라 한다. 「유복촌 임시 숙소에 대한 기록[柳北僑居記]」, 『하려집(下廬集)』 © 이종목 역, 고전의 향기 76.

73) 「여지고(輿地考)」 12,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24.

74) 이덕무 외, 『성시전도시로 읽는 18세기 서울』, 박현욱 역(서울: 보고사, 2015), 255-269.

75) 「집을 얻다 3수[得屋 三首]」, 『허백당보집(虛白堂補集)』 1 © 한국고전번역원 조순희 역, 2011.

76) 蓋國都三門外舊多名士. 「진사채공묘갈명(進士蔡公墓碣銘)」, 『동주집(東州集)』 9.



이 집단 거주하게 되었다.<sup>77)</sup> 거주민의 특성이 조선 전기나 중기와 다르게 계층도 다양해지고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었다.

남지 일대의 주요 시설로는 송례문과 남관왕묘를 들 수 있다. 송례문은 한양의 여러 문 중 도성의 정문처럼 여겨지는 문이었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송례문을 “주상을 뵈는 정문”이라 말했고, 송례문을 들어가면 한양이고 아직 들어가지 않으면 지방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한양의 주요 대문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높았다.<sup>78)</sup> 남관왕묘(南關王廟)는 송례문 밖 도저동 산기슭에 있고, 1598년(선조 31)에 창건되었다.<sup>79)</sup> 동관왕묘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치제(致祭)가 이루어졌고, 사신연, 양반들의 송별모임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남지 일대의 주요 장소로 칠패시장이 있다. 조선 후기 송례문 밖 지역은 상업이 발달하였고, 칠패시장은 한성부에서 큰 시장 중 하나로 꼽혔다. 시전으로 염전(鹽廩, 소금), 자기전(磁器廩, 그릇), 고초전(藁草廩, 벼짚), 죽물전(竹物廩, 대나무 생활용품), 남문외해전(南門外醢廩, 젓갈) 등이 있었고,<sup>80)</sup>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어물유통량도 많았다. 『한경사(漢京詞)』에서는 시장은 새벽 4시경 파루(罷漏)가 치면 말과 수레가 몰려오며 시장이 열려 생선, 소금, 채소가 활발히 거래되다가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시장이 모두 파한다고 묘사하기도 해,<sup>81)</sup>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장이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송례문 밖 남지 일대는 남산부터 무악천까지 지대가 낮아지는 지형이었고, 하천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남지 옆 가로들은 도성에 진입하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그렇기에 항상 드나드는 사람과 말로 이동이 많은 장소였다. 그리고 유동인구뿐 아니라 거주민도 많았다. 송례문 밖에서 돈의문 방향으로 양반층이 많이 거주했기에 가까이 사는 양반들 간의 교류모임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시지역으로의 남지 일대 공간환경의 특성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시장이 설치되고 장시도 열리며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77)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삼문(三門) 밖 지역의 특성”(서울학연구 60, 2015), 180-182.

78) 「독서차의(讀書筴義) 전(傳) 6장(章)」, 『존재집(存齋集)』 5.

79)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 © 한국고전번역원 김규성 역, 1969.

80)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 © 한국고전번역원 김용국 역, 1969.

81) 五更三點四門開, 馬載車輸一簇來. 無數魚鹽無數菜, 紛紛買趁巳前回. 『한경사(漢京詞)』

## 2. 남지의 위치와 형태

고지도에서 남지는 도성 밖 송례문 바로 앞에 있으며, 삼남대로와 시흥간로, 두 가로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7 참조) 남지가 송례문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은 「남지기로회도」(그림 3-18 참조)나 대한제국기 사진(그림 3-19 참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 「수선전도」에서의 남지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3-18. 「남지기로회도」에 나타난 남지  
자료: 한국지역진흥재단 소장



그림 3-19. 1899년 이전 송례문 앞 남지  
자료: 도쿄 한국연구원 소장

지적원도에 송례문 앞 두 가로 사이의 필지 중에서 연못으로 표기된 곳은 없었다. 그렇지만 경성부 서부 남대문통 5정목 1번지가 국가 소유의 필지로 되어 있어 남지가 있었던 필지로 보인다. 다른 수기로 그려진 1908년 도면자료에서는 송례문 바로 앞에 공지(空地)가 있었다고 나타난다.(그림 3-22 참조) 그 당시 남대문 밖에 전차가 들어서고 대부분 지역이 상업시설로 개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송례문 바로 앞 부지가 공터로 비어있기는 어

려워 보인다. 남지가 소멸되고 매립된 땅이 일시적으로 공터로 남아있던 것이며, 공터 부지는 남대문통 5정목 1번지 필지도 포함하고 있다.

남지는 송례문 앞 가로변에 바로 입지하여 도성으로 이동하는 사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주변 지역민이나 많은 방문객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된다.

남지는 무악천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적원도에 나타난 남지에 가까운 수계로는 남산 서쪽 자락에서 흘러내린 구거가 있다. 이 수계는 도동 언덕에서 내려오는 구거와 합류하여 무악천으로 연결된다. 반면 남산에서 직접 남지 방향으로 흐르는 수계는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세종대 남지 지대를 돌우며 송례문이 남산 자락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데서 수계의 흐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송례문 발굴조사에서 송례문 밖으로 홍예 서쪽에는 너비 85cm, 깊이 15cm의 측구가 있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도로는 중앙부를 약간 볼록하게 하고 양쪽에는 측구를 두어 배수를 쉽게 했다고 한다.<sup>82)</sup> 즉 남지 일대는 산자락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지형 자체에 높이차가 있어 지표수가 빠르게 흘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성문과 가로 조영에서 배수를 중요하게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 남지는 송례문 일대의 미세지형을 볼 때, 남북 방향으로 무악천 쪽으로 지대가 낮아지는 가운데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남지 옆 삼남대로나 시흥간로의 가로보다 표고가 1.5~2.5m 정도 낮다.(그림 3-20 참조) 지형도가 1921년 측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면에 나타난 남지 지대는 매립된 이후이므로, 원래는 표고가 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남지는 「남지기로회도」에 표시된 수구처럼, 가로변 측구와 수계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례문 앞 가로 옆에서 물을 저류함으로써 지대가 낮은 도성 남서쪽 지역의 배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지의 규모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송례문 앞 공지를 표기한 도면을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1908년에 공지로 남아있던 부지 전체를 남지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계선을 지적원도에 표기한 내용은 Alt 1과 같다. 남대문통 5정목 1번지와 봉래정 1정목 104, 105번지, 가로 부지 일부에 해당한다. Alt 1의 경우 사방 [方] 둘레는 약 240m, 면적은 700평이다. 두 번째 Alt 2는 1908년 공지의 경계선 중 세모 모양으로 뾰족한 윗부분을 제외하는 것이다. 뾰족한 부분은 남지 앞 공터로 보고 연지 영역은 아랫부분으로 한정된 경우이다. 남대문통 5정목 1번지와 가로 부지 일부이다. Alt 2는 사방 170m, 면적 460평 정도이다. 세 번째 Alt 3은 Alt 2의 면적에서 가로에 인접한 필지들을 포함한 것이다. 남대문통 5정목 1번지와 봉래정 1정목 104~109번지, 가로 부지

82) 국립문화재연구소, 『송례문: 송례문 발굴조사 보고서』(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38-138, 439-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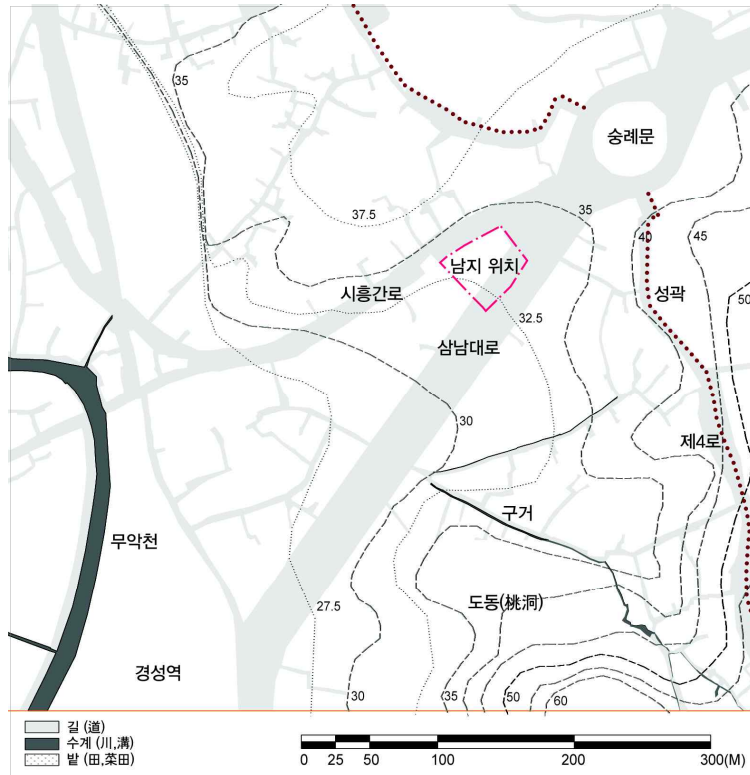


그림 3-20. 남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에 근거하여 필자, 하재영 작성

일부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Alt 3은 사방 186m, 면적 650평이다.(그림 3-23 참조) 남지는 「남지기로회도」나 고지도에서 양옆으로 가로가 바로 지나가는 것으로 그려지기에, 1913년 당시의 가로변 필지들이 과거에는 연지 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1692년(숙종18) 기록에도 물이 얹아지면 연못 부지 일부에 민가가 들어섰다고 되어 있어,<sup>83)</sup> 연지 부지는 매몰되면 경쟁적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지적원도에 남지 필지 옆에 있었던 작은 필지들은 남지가 일부 매몰되어 다른 시설들이 들어선 경우로 보인다. 또한, 공지의 뾰족한 부지 부분은 가로 조성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고, 과거 연지의 형태는 필지를 보면 기다란 형태이지만 뾰족한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미루어볼 때 연지의 영역은 Alt 3에 가깝거나, Alt 3보다 일부 북쪽으로 더 확장된 범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83) 『승정원일기』 18책, 숙종 18년(1692) 7월 3일 경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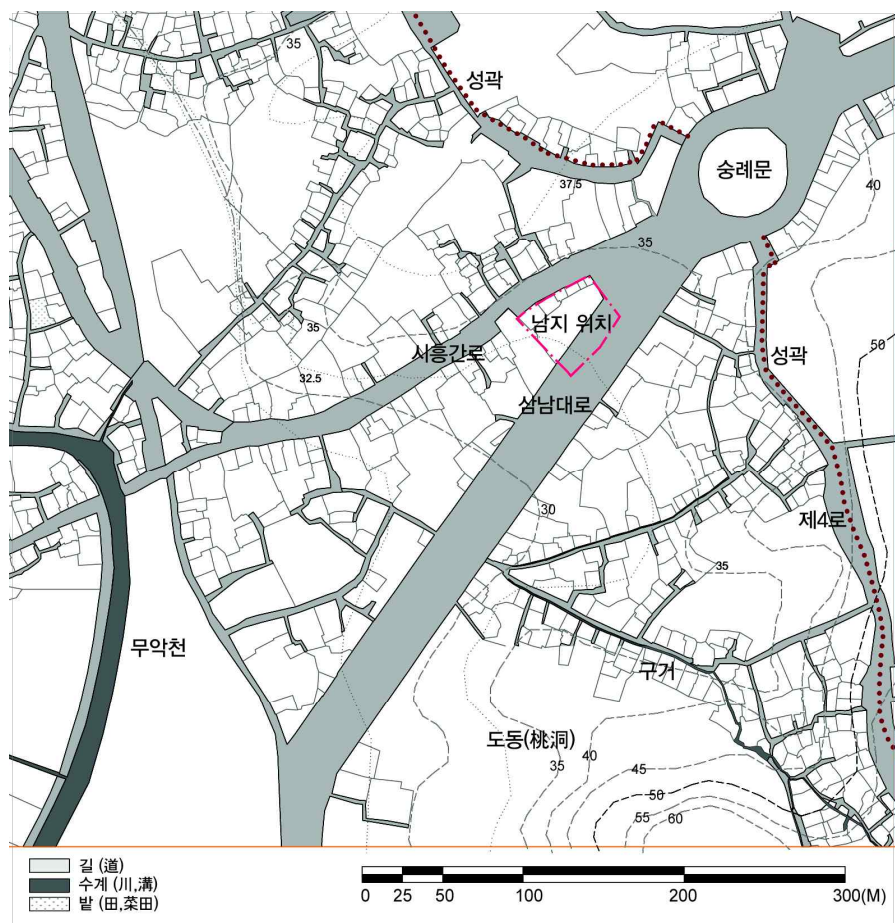


그림 3-21.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남지와 주변 환경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에 근거하여 필자, 하재영 작성



그림 3-22. 1908년 승례문 앞 공지  
자료: 전봉희 외 2인,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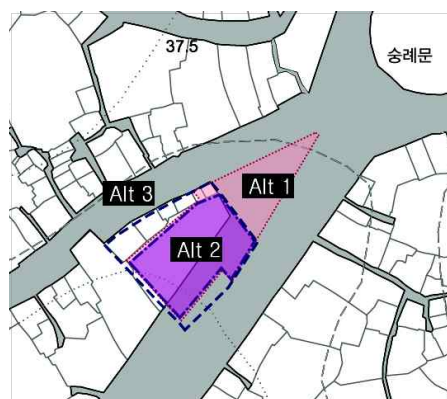


그림 3-23. 남지의 형태 추정  
자료: 1913년 지적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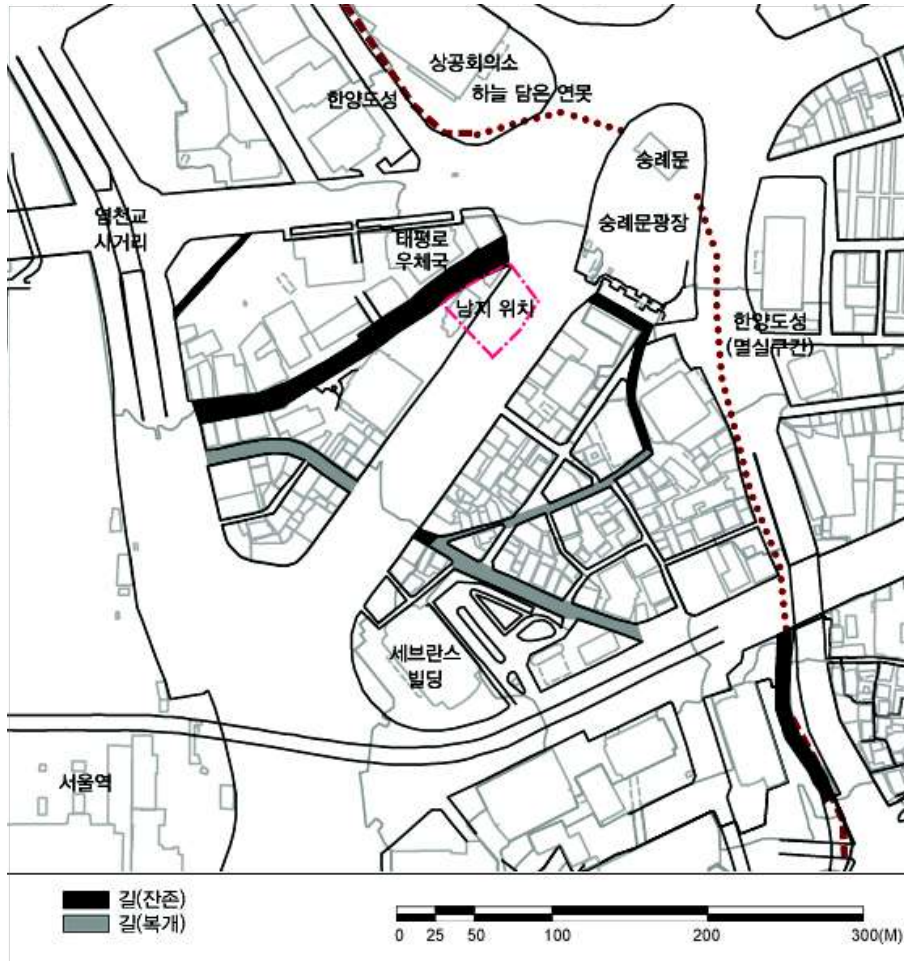


그림 3-24. 남지 일대의 현재 현황

자료: 2015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남지 인근에 누정을 조성하였다는 사료는 없었지만, 남지 주변에 누각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글도 있다.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시문에 “남문의 연정(蓮亭)”<sup>84)</sup>이란 문구가 나오고 유만주의 1776년 7월 12일 자 일기에도 “밤에 남루(南樓)<sup>85)</sup>에서 노니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있어, 과거 남지에 누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짐작하게 한다. 또한, 남지의 방죽은 세종대 석축으로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남지기로회도」에서도 자연석에 가까운 돌로 그려져 있다.

원도의 경우도 지도나 회화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940년대 과거 50년간 남촌 지

84) 이항복, 『국역 백사집』, 임정기 역(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1: 23.

85) 역자는 남루(南樓)를 남대문 근방의 누각으로 해석하였다. 유만주, 앞의 책, 1: 280.

역에 거주한 추억과 관련한 글에서 “칠패장 오른쪽, 오늘(1940년대) 일화(日華) 빌딩<sup>86)</sup>이  
 서 있는 곳에는 큰 못이 있어서 연지라고 하였다. 조그만 섬이 있었고 섬 위에는 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나는 동무들과 함께 여름이면 그곳에 가서 많이 놀았다”<sup>87)</sup>는 내용을 찾  
 아볼 수 있다. 1629년 그려진 「남지기로회도」에는 남지 내 원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1800  
 년대 후반 또는 1900년대 초반에 남지를 방문한 글에서 원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후대  
 에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없었던 원도가 그 이후 남지를 수축하는 과  
 정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 3. 남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남지가 위치했던 부지는 현재의 중구 남대문로 5가 1-1, 1-2번지와 중구 봉래동 1가  
 104-1, 108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는 필지가 나뉘고 업무·상업용 빌딩이 들어서 있다.



그림 3-25. 승례문 앞에서 촬영한 남지 일대 현황  
 자료: 승례문 앞 광장에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9.22.)

도시환경 측면에서 승례문 밖 지역의 가로와 필지 형태는 대부분 변화하였다.(그림  
 3-24 참조) 과거의 삼남대로는 도로가 더 확장되어 1913년보다 남지 영역은 더욱 좁게 남  
 게 되었다. 지적원도와 비교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남지 서쪽 도로인 옛 시흥

86) 남지 매몰 후 일부 부지에 야치요[八千代] 생명보험주식회사가 들어섰다. 이는 1930년 일화  
 만세생명(日華萬歲生命)으로 변경되었다. 백관수, 『경성편람(京城便覽)』(경성: 홍문사, 1929),  
 89.

87) “경성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영근의 남경성변천사 인터뷰 내용”, 『매일신보』 1940년 1월 3일  
 12면.

간로가 있다. 상공회의소 앞으로 간선도로가 설치되었기에 옛 가로가 보존되었고, 그로 인해 삼각형 블록 형태도 남아있게 되었다.(그림 3-25 참조) 또한, 수계도 복개되어 일부 그 형태가 남아있다.

지역명으로 조선시대 남지 일대는 연지를 중심으로 명칭이 정해져 ‘반석방 연지동’으로 불렸다. 그러나 식민지기 ‘남대문동’으로 행정구역이 정리되고 현재도 ‘남대문로’로 이름이 이어져, 지금 연지와 관련한 지명이 남아있지 않다.

현재 송례문은 복구되었고, 2005년 송례문 광장 조성으로 송례문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송례문과 관련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남지와 관련한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남지를 기억하는 요소로는 남지가 위치했던 블록 인도 변에 “서울 도성 송례문 밖에 있던 연못으로 장원서에서 관리하였음”이라 적힌 표석을 설치한 것이 전부이다. 오히려 남지 위치는 아니지만, 상공회의소 앞에 휴게광장을 조성하면서 연못을 설치하기도 했다. 송례문과 남지는 조성할 때 상보적 관계로 이루어졌고, 남지가 연지로 안정화되면서 이용가치가 더욱 높아져 송례문과 함께 도성의 진입경관으로서 높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송례문과 관련한 여러 계획에서 남지를 배제하고 있다.

## 4절 어의동지(於義洞池)

### 1. 어의동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어의동지 일대는 동쪽은 낙산, 서쪽은 낮은 언덕이 둘러싸고, 그 사이로 대지가 넓게 펼쳐진 지형이다. 서쪽의 낮은 언덕은 경모궁의 안산인 마등산부터 종로 인접한 곳까지 길게 내려온 산줄기로, 표고 최고점이 35m 정도 되는 낮은 구릉이었다. 이 언덕은 어의동지와 매우 인접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의동지 서쪽의 구릉은 19세기 말 미국 장로교회에서 매입했고 총 18,521평의 면적이었다. 서쪽 구릉은 “동산이라기보다 작은 산에 가깝고”, “노송과 느티나무로 숲이 우거져 천 년 묵은 깊은 숲”이라고 일컬어졌다. 1895년 개발될 당시에도 수령 500년이 넘는 큰 회나무와 일부 숲이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었다.<sup>88)</sup> 다른 자료에서는 이 구릉을 “선교 언덕

88) 정동에 1887년 설립된 정동여학당은 1895년 연지동 교사로 이전하였다. 연동여학교, 정신여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1978년 현재 위치인 잠실동 교사로 이동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정신여자중학교가 연지동에 위치하였을 때 기록된 글이다. 정신여자중학교, 『정신 75년 사』(계문출판사, 1962), 81-83.



(missionary ridge)”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며, “길고 기복을 이룬 언덕으로 과거 주민들이 그 안에 용이 있다 했으며 언덕 남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우물을 두고 용의 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건물을 지으며 언덕 정지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잠자는 용의 등뼈를 다친다”고 염려했다고도 한다.<sup>89)</sup> 또한, 인접한 다른 학교 기록에서도 “주변보다 조금 높은 언덕이며 효종이 손수 심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남아있다”고 한다.<sup>90)</sup> 이러한 생각은 서쪽 구릉이 낮은 언덕이지만 숲으로 잘 보전됐으며, 이 숲을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어의동지 동쪽으로는 흥덕동천이 흐르고, 어의동지 서쪽 구릉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연지 남쪽을 지나 구거를 통해 흥덕동천에 합류하게 된다. 이 구거는 동서 방향 수평으로 길 옆 측구 형태로 나 있는데, 길옆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수로로 보인다. 1421년(세종 3) 종루 동쪽에서부터 흥인문에 이르는 구간이 지세가 낮아 범람하는 경우가 많으니 좌우 행랑 뒤에 큰 도랑[大渠]을 만들어 홍수에 대비하자는 한성부사의 제언이 있었는데,<sup>91)</sup> 이 시기 조성한 행랑 뒤 도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 북측 북악산 등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시전 뒤 북쪽 도랑이 한 차례 걸러주는 역할을 구상한 것이다. 고지도에도 행랑 뒤 구거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물길로 그려진다.

한성부의 ‘동촌(東村)’이라는 말은 “동쪽 성내에 있는 지역[東城內]”<sup>92)</sup>을 의미하며, 여러 연대기 자료나 옛글에서도 많이 사용되던 명칭이었다. 여러 글에서 동촌이 지칭하는 범위는 낙산 아래 지역으로 종묘와 창덕궁 동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동촌은 도성에서 “구석진 곳[東村僻隅]”<sup>93)</sup>으로 인식되었고, 도성 내에서 비교적 전원적 분위기를 가진 지역이었다.

과거 사람들이 동촌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여러 개인적 글에서도 나타난다. 동촌의 연화방 연화동(蓮花洞) 초가집에 거처를 정한 윤기(尹愔, 1741~1826)는 “사람들은 서울 동쪽 고을에 질푸른 초목의 기운이 울창하다고들 한다. 또한, 먼 산이 궁궐 북쪽의 산록과 함께 새가 날며 춤추는 듯한 기상을 뽐내고 있다”<sup>94)</sup>고 했다. 낙산에 거주한 이정구(李廷龜,

89) 연동교회는 1894년 연지동에 설립되었다. 연동교회, 『연동교회 120년사』(한국장로교회, 2015), 140-142.

90) 경신학교와 관련한 기록으로, 경신학교는 1886년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했다. 『매일신보』 1916년 3월 14일 4면 9단 참조.

91)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1421) 7월 3일 계해 3번째 기사.

92)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1680) 윤8월 8일 갑오 2번째 기사.

93)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1775) 9월 6일 신해 2번째 기사.

94) 「화와상량문(和窩上樑文)」, 『무명자집(無名子集)』 문고(文稿) 1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강민정 역, 2013.

1564~1635)도 자택에서 동촌을 내려다보며 “산으로 둘러싸인 4, 5리에 숲과 골짜기가 깊으며, 시내가 북쪽으로부터 마을을 감싸고 남쪽으로 졸졸 흘러 끊이지 않는 것은 반수(泮水)의 물줄기이다. 시내를 따라 좌우로 옛날에는 명원(名園)이 많았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시내 서쪽에 작은 구릉이 있고 구릉 위에는 좋은 수목이 많이 자라 멀리서 바라보면 울창하다”<sup>95)</sup>고 했다. 어의동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봉림대군(효종) 저택<sup>96)</sup>의 상량문에도 이 일대의 분위기를 “툭 터진 대지를 보건대 정말 집짓기에 합당하기만 한데, 기수(琪樹)라 이름 붙여진 동산은 일찍부터 도성 동쪽의 절경으로 손꼽혀 왔고”<sup>97)</sup>라고 묘사했다. 1930년대 이 지역을 묘사한 수필에서도 연지동 분위기를 “벽국새가 안개끼인 川꼴 작이에 夜冥을 끼트리고 각금 들니는 피꼬리의 노래”<sup>98)</sup>라고 쓰는 등 여전히 산골짜기 같다고 묘사하였다.

이 글들에서도 어의동지 서쪽 구릉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연못 서쪽 구릉은 ‘기수(琪樹)’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구릉에는 좋은 수목이 많아 동촌의 명승으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촌은 농사짓는 논밭이 많은 지역으로 일컬어졌다.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서는 농사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는 법제상의 원칙일 뿐 실제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았고 그중 도성 동북 지역이 논밭이 많은 곳이었다. 지적원도를 통해 1913년 동촌 지역을 봐도 지목이 밭[田]이나 채소밭[菜田]으로 표기된 필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35 참조) 특히 영조대 자료에서는 어의궁 남쪽 지역, 위치상 어의동지 북쪽 일대에 대해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에 인가가 조밀했으나 조선 후기 사대부들 소유의 채소밭으로 변해, 이에 사전(私田)을 금지하고 인가를 유입하고자 했다. 영조는 어의궁 일대가 마치 시골 촌락(野村) 같다며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sup>99)</sup>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95) 「송월헌기(松月軒記)」, 『월사집(月沙集)』 37 ©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하 역, 2003.

96) 중부 경행방에 위치한 상어의궁과 구분해 하어의궁으로 불렸다. 이후 본궁, 용흥궁으로도 기록된다.

97) 「봉림대군의 새 저택에 대한 상량문[鳳林大君新第上樑文]」, 『계곡집(谿谷集)』 3 ©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1994.

98) 홍경모, “연지동의 추억”(사해공론 2(7), 1936), 238-240.

99) 鳳漢曰, 臣有區區所懷敢奏矣. 於矣洞本宮南牆外, 全爲菜田, 此可寒心. 城中片土, 似不得起耕, 然後當有益於水道, 而且以事體言之, 城裏起田, 事甚如何? 臣意則東村菜田, 若給價本, 全屬於濬川所, 其他起耕處, 一竝嚴禁, 似好矣. 上曰, 龍興舊宮近處, 皆爲士夫家菜田, 寒心矣. 戶判所奏, 是矣. 鳳漢曰, 東村若出廬, 則小民必有依賴, 人家多入矣. 上曰, 何廬出之乎? 鳳漢曰, 此則姑未有料量, 而當從民願, 移廬, 好矣. 上曰, 所奏是矣. 命書傳教曰, 今聞舊闕南水口下越川造家, 令濬川所, 準給其價, 聞其家空撤可惜. 噫, 本宮南牆, 古則人家稠密, 今則便成菜田, 龍興舊宮, 若在野村, 尋常寒心. 大抵東村士夫, 嫌其隱僻, 更得要處於其地, 菜田爲業, 此莫重都城之地, 爲士夫者, 一舉兩得也. 其習不是, 固此時勸入人家, 則其亦體昔年本宮東牆之

같은 논의가 계속되고 식민지기 도면에서도 연지 일대가 밭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인가 유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촌 지역은 민가 유입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왕실 가족이나 주요 관료들은 선호하는 거주지였다. 특히 연화방은 창덕궁, 창경궁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왕실과 밀접하게



그림 3-26. 「수선전도」에서의 동촌의 길과 수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필자 재작성

연관되었다.<sup>100)</sup> 상왕(태종)의 연화방 신궁(新宮), 세종의 형 효령대군의 저택,<sup>101)</sup> 성종대 왕자의 저택,<sup>102)</sup> 봉림대군 저택, 인평대군 저택이 조성되는 등, 궁과 가까우면서도 구릉을 중심으로 궁궐과는 구분되기에 입지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대부들은 낙산 자락이나 흥덕동천과 인접해 거주지를 정하였다. 흥덕동천 주변에 좋은 저택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고,<sup>103)</sup> 낙산 자락의 저택들이 동촌의 명승지로 손꼽히는<sup>104)</sup> 등 입지환경이 좋은 곳에 사대부들이 주거지를 선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의동지 일대의 주요 가로로는 종로가 있고, 연지동과 어의동의 경계가 되는 남북 가로가 있다. 후자의 가로 명칭은 확인할 수 없

外漢村之義, 亦令濬川所買田後, 令此民, 更建於此地, 鮒魚橋下民村, 亦依此例舉行, 而大抵賣其村於塵人, 因其地而興利, 亦非士夫美習. 『승정원일기』 66책, 영조 36년(1760) 4월 1일 을해 28/29 기사.

“(중략) 본궁(本宮)의 남쪽 담장 바깥은 지금 채전(菜田)으로 되어버려 임금이 탄생한 옛 궁궐이 마치 들판에 있는 것처럼 쓸쓸하다. 이러한 때에 인가(人家)를 권유하여 들여보내며, 성안의 빈 집터를 사전(私田)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준천소에 소속시킨 다음, 한 점포를 동촌(東村)에 권유해 들여보내어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이라.”하였는데, 대개 흥봉한의 아뢰을 받아 아들인 것이었다. 『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1760) 4월 1일 을해 2번째 기사.

100) 오세현, “조선 후기 한양 동부 관동의 인문지리와 연안이씨 관동파”(서울학연구 61, 2015), 41.

101)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1446) 3월 7일 갑술 2번째 기사.

102)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1493) 10월 7일 무진 2번째 기사.

103) 「송월헌기(松月軒記)」, 앞의 책 ;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은 흥덕동천의 물을 끌어들이어 후원에 계일정(戒湓亭)을 설치하고 못을 조성하였다. 「계일정기(戒湓亭記)」, 『식우집(拭疣集)』 2.

104)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의 신대(申臺), 박은(朴崧, 1370~1422)의 백동에 위치한 백림정(栢林亭), 낙산 폭포 아래 협간정(夾澗亭) 등 낙산 저택의 누정들이 동부의 명승지로 유명했다고 기술하였다. 오세현, 위의 논문, 38-39.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길을 어의동로로 지칭하기로 한다. 어의동로는 종로에서 도성 동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다.(그림 3-26 참조) 어의궁이나 성균관, 대군방 그리고 흥덕동천 건너 낙산에 이르기까지 어의동지 북쪽의 주요 장소들로 가는 길이었기에 동촌에 거주했던 왕실 가족이나 사대부들이 많이 지나는 길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어의동지 일대에는 왕실과 관련한 여러 시설이 자리 잡았다. 그중 기록이 남아 있는 시설로는 효종(孝宗, 1619~1659)의 봉림대군 시절 제택(第宅)이었던 어의궁(본궁, 용흥궁, 하어의궁)과 효종 동생의 인평대군방(麟平大君房)이 있다. 어의궁은 1631년(인조 9) 봉림대군의 집으로 영건되었고 조양루(朝陽樓)가 중심이 되는 시설이었다. 대군방은 1641년(인조 19)에 조성된 인평대군의 궁집으로 석양루(夕陽樓)가 유명하다. 조양루와 석양루는 양쪽 제택에서 상징적 의미가 커 그 집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sup>105)</sup> 어의궁과 대군방은 조선 당시에는 서로 연관되어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후 어의궁이 왕실의 가례 장소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대군방은 후손이 역모로 몰려 쇠락하게 되는 차이가 나타났다.

어의궁은 1638년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를 치른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약 200여 년의 시간 동안 가례소로 이용되었다. 총 16차례의 왕실 가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sup>106)</sup> 가례 시에는 궁이 수리되기도 하고 왕의 친영이 계속 있었기에 어의궁은 관리가 잘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석양루는 후손이 역모를 꾀어 저택도 방치되다가 18세기 후반 왕실의 관곽을 만들어 공급하는 장생전(長生殿)으로 재사용되었다.<sup>107)</sup> 어의동지에서 조양루까지는 300m, 석양루까지는 700m로 가까운 거리이다.

대한제국기에는 이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겨 관립학교, 국립병원, 교회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적원도에서도 이들 시설은 큰 규모의 필지로 확인된다. 어의동지 서쪽 구릉에 위치한 연지동 136번지는 1895년 선교사들이 숲속에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연동여학교로 사용했다. 1896년에는 연동교회도 짓고 이후 산등성이 위에 선교사들 사택을 건축하는 등<sup>108)</sup> 기독교 관련 부지로 개발되었다. 어의동지 북측 효제동 290번지는 관립어의동보통학교로 1907년에 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연건동 28번지에는 대한의원이, 동송동 199번지에는 공업전습소가 자리 잡았다.(그림 3-35 참조) 동촌의 넓은 부지를 개발해 근대

105) 김종태, “『인평대군방전도』와 어제제문을 통해 본 조선왕실의 우애 선양”(민족문화 45, 2015), 316.

106) 송인호·조은주, “조선 별궁 어의궁(용흥궁)의 도시 위상과 영조의 친영”(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5), 2011), 146.

107) 『동국여지비고』 2, 앞의 책.

108) 연동교회, 앞의 책, 140-141.

적 기능을 갖춘 여러 대형 시설들이 위치하면서 전원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었다.

동촌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도성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용하던 지역이었다. 자연환경이 좋아 조선 전기에는 궁이나 왕실, 사대부의 거주지가 입지했다. 이후 어의궁이 왕의 가례 장소로 이용되고 지역에 사전(私田)을 없애고 모민(募民)하면서 동촌 일대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동촌 지역은 주로 농경지로 남아있었다. 결과적으로 동촌의 개발 지연으로 넓은 면적의 부지들이 대한제국기 많이 남아있었기에, 이 시기 많은 근대적 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 특성이 변하게 되었다.

## 2. 어의동지의 위치와 형태



그림 3-27. 「수선전도」에서의 어의동지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고지도에서 어의동지는 종로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가로인 어의동로에 인접해 있으며, 연지 사면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홍덕동천으로 합류하는 수계 가까이에 있다.(그림 3-27 참조)

고지도에 드러난 위치적 특성에 기초하여 지적원도를 보면 이 일대에 지목이 못[池]으로 표기된 필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1908년에 제출된 토지불허차·허차

문서 중 한성 동서 연화방 연지동 구연지기지(漢城東署蓮花坊蓮池洞舊蓮池基地), 한성 동서 정선방 연지동 오예장(전연지)(漢城東署貞善坊蓮池洞汚穢場(前蓮池)), 한성 동서 창선방 연지동(漢城東署昌善坊蓮池洞) 관련 첨부도면<sup>109)</sup>에서 ‘구 연지터[舊蓮池基址]’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연지의 위치가 확인된다.(그림 3-28, 29 참조) 행정구역이 법제화되기 전이어서 문서마다 연화방, 정선방, 창선방으로 방(坊) 명칭이 다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지역이다. 다만 연지의 정확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 불허차·허차의 도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연지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불허차·허차 문서 첨부도면의 표기를 살펴보면 연못의 모습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8은 어의동지를 949평 정도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옛 농포(前農圃田)와 옛 경모궁 농지(前景慕宮田)를 연지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109) 전봉희 외 2인, 앞의 책, 296, 322, 347, 364.

주변 농지까지 포함한 연지의 영역은 2,071평에 이른다. 그림 3-29는 연지를 1,427평으로 표기하고 있다. 옆의 그림 3-28과 같이 농포로 표기한 부분을 연지 영역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토지이용은 옆의 도면과 같이 정리국 화전, 경모궁 화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이 두 도면에서 연지는 949~1,427평의 범위에 있고, 농포나 화전으로 표기된 것은 연지 주변의 습지로 볼 수 있다. 연지 영역은 주변 습지를 포함해 모두 2,071평에 이르는 범위로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연못 수위가 변화하며 못의 경계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지적원도 필지를 통해 살펴보면, 1913년 당시 효제동 252번지는 732평 정도의 면적으로 국가 소유 잡종지[雜(市)]였고, 255번지는 1,260평으로 국가 소유의 채소밭[田(菜)]이었다. 251번지, 254번지는 과거 경모궁 농지가 있던 필지이다. 251번지는 57평으로 국가 소유의 채소밭이고, 254번지도 36평의 채소밭이고 소유는 망엄비 상속미정(亡嚴妃 相續未定)으로 되어 있었다. 왕비 소유의 토지였던 만큼 이 또한 사유 농지와는 다른 성격의 필지로 보인다. 지적원도의 내용은 1908년 도면에 나타난 상황과 일치한다. 그렇기에 효제동 252, 255번지가 연지가 위치했던 필지이며, 연지 형태는 수량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1786년 이 일대를 방문한 유만주는 일기문에서 “어의동지[東池]가 (경모궁 밖) 새 연못의 몇 배나 될 정도로 광활하다[池之闊幾倍於新池]”<sup>110)</sup>고 언급하고 있다. 어의동지의 면적이 경모궁지보다 훨씬 넓다는 내용이다. 경모궁지의 면적은 『경모궁의궤』에 의거 동서 길이 62m(52보), 남북 너비가 33m(28보)<sup>111)</sup>로 약 620평으로 기록되었다. 어의동지 부지가 2천 평 정도이고 수량에 따라 크기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는 수위가 높아 연지가 잘 운영되던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어의동지는 고지도에서는 어의동로에 바로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원도의 필지를 볼 때 어의동로 변으로는 여러 시설이 있었고, 어의동로에서 서쪽으로 꺾어 들어와야 진입할 수 있었다. 그래도 어의동지는 종로와도 매우 가까운 편이어서 도성 내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못이었다.

그리고 어의동지 서쪽에는 기수 언덕이 바로 인접해 있다. 기수에서 흥덕동천까지 표고

110) 『흙영(欽英)』 21.

111) 『경모궁의궤』 「척도도설(尺度圖說)」의 ‘주척전도(周尺全圖)’를 측량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주척 19.93cm로 척도본이 표기되었다. 주척 6척을 1보로 환산하여 1보를 1.1958m로 계산하였다. 경모궁지의 주척 1척과 1보 척도는 서지에서 세종대 영조척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 양상현 외 3인, “조선시대의 척도 변천 연구: 규장각 소장 문헌의 실측을 통한 척도 비교를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5(4), 1999), 15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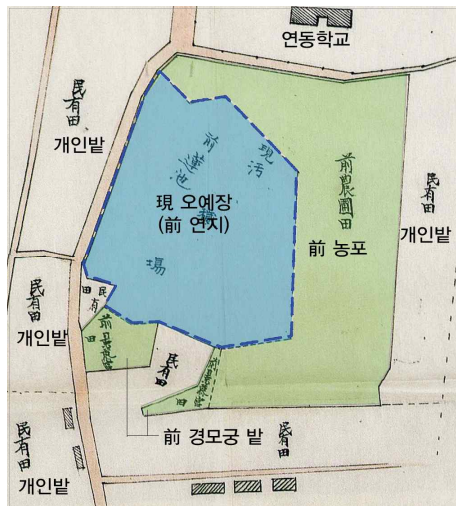


그림 3-28. 1908년 토지허차 첨부도면 10  
자료: 전봉희 외 2인, 앞의 책, 347.



그림 3-29. 1908년 토지불허차 첨부도면 35  
자료: 전봉희 외 2인, 앞의 책,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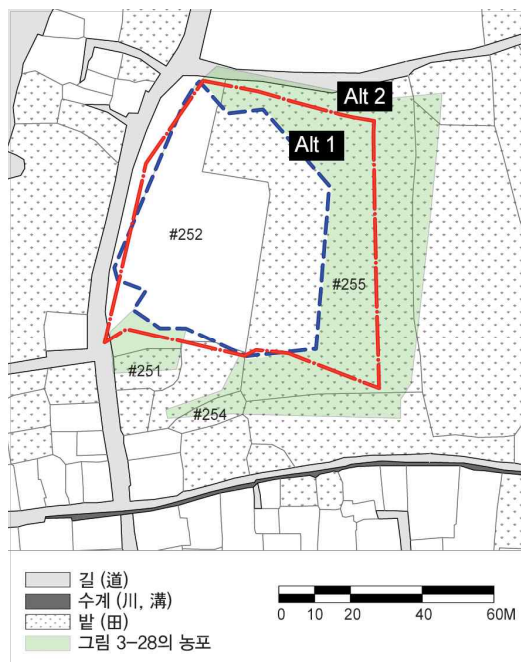


그림 3-30. 어의동지의 형태 추정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토지허차·불허차문  
서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 #는 효제동 필지 지번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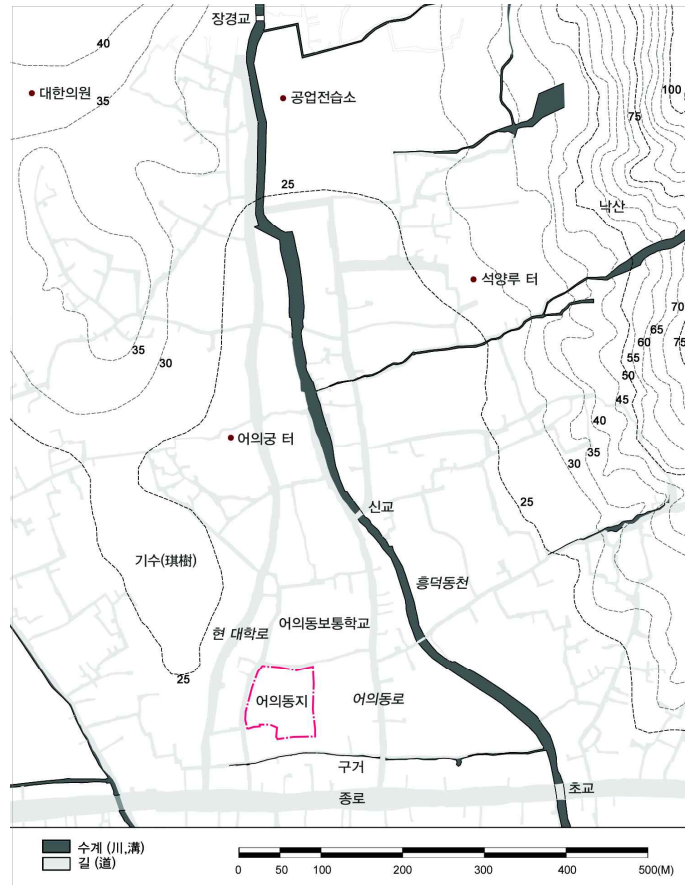


그림 3-31. 어의동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에 근거해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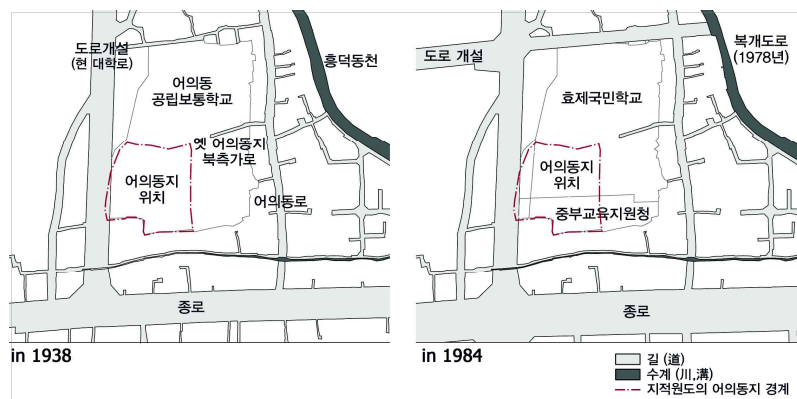


그림 3-32. 어의동지 일대의 공간 변화

자료: 종로구청 폐쇄지적도 1938년, 1984년 자료 참조



가 점차 낮아지는 형상이었다.(그림 3-31 참조) 지적원도에는 어의동지와 기수 사이에 큰 도로(현 대학로)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연지동이 여러 근대 시설로 개발되면서 형성된 가로이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에는 기수 구릉이 연지까지 이어져 내려왔을 것으로 본다. 기수 남쪽 끝에 2개소 우물이 있었다고도 해<sup>112)</sup> 지하수도 풍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의동지는 기수의 경사를 따라 흘러내린 물을 저류하는 기능을 하고, 어의동지에서 배출된 물은 연지 남쪽 구거를 통해 흥덕동천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 같은 산과 길, 하천과의 연관관계를 볼 때 어의동지의 입지 특성은 서지의 경우와 유사하다. 산자락 아래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큰 길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산과 하천, 길 사이에서 길로 바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 3. 어의동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어의동지 터는 현재 종로구 효제동 255-4 효제초등학교 운동장과 효제동 255-22 중부교육지원청 부지 일부분에 해당한다.(그림 3-33, 36 참조) 도면의 어의동지 경계선은 지적원도의 효제동 252, 255번지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1913년 어의동지 필지 북쪽에 공립 학교가 있었는데, 1938년 도면을 보면 연지 필지와 학교 필지가 합쳐진 것을 볼 수 있다. 학교가 남쪽으로 확장되며 연지 필지가 학교로 편입되었고, 과거 연지의 북쪽 가로는 사라지고 일부 흔적만 남게 되었다. 학교 부지는 모두 5,909평의 면적이었다. 1927년 「경성시가도」에도 연지 북쪽 가로가 사라지고 1938년 지적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 부지는 이미 1920년대 어의동지 영역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지적도에서는 학교 부지가 나뉘어, 부지 일부가 중부교육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학교 부지는 4,821평, 교육청 부지는 1,088평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3-32 참조)

일대 도시환경의 변화를 보면, 등고선 상으로는 골짜기 분지 형태가 많은 부분 보존되고 있다. 어의동지 터는 표고 21m 정도로 여전히 저지대이고, 연못 서쪽 언덕 부분이 현재도 높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 서쪽 언덕은 개발되면서 절성토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실제로 방문하면 지형적 특성을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지형차를 반영한 건축물들을 통해 옛 지형을 유추하게 한다. 기수 언덕의 울창한 숲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건물 사이에 수령이 5백년 이상 된 회화나무와 은행나무가 남아있기도 하다.<sup>113)</sup>

112) 연동교회, 앞의 책, 140-142.

113) 회화나무와 은행나무는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다. 회화나무는 대호빌딩(옛 정신여고 자리)

길의 변화를 살펴보면 새로운 길들이 기존의 가로와 별도로 조성되어 도로체계는 변화했지만, 블록 내 이면도로에는 과거의 길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중간중간 길의 흐름은 끊겼지만, 옛길의 형태를 따라 건물들이 자리 잡은 곳이 많다. 특히 어의동로는 그 형태가 많은 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수계 중 흥덕동천은 1978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개되었다.<sup>114)</sup> 복개도로는 하천의 굽은 형태와 폭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면도로 중 넓은 편이다. 지적도에는 현재도 천(川) 지목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도로이며, 도로 중간에 복개박스가 곳곳에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의동지 남쪽 구거도 현재 지적도에 지목이 구거로 표기되어 청계천 쪽으로 향하는 구거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환경은 길로만 남아있지만, 길의 형태와 좁은 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3-34 참조)



그림 3-33. 과거 어의동지가 있었던 부지  
자료: 효계초교 운동장 동남쪽 경계에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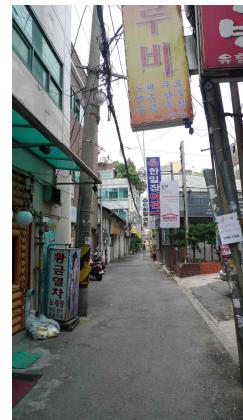


그림 3-34. 어의동지 남측 복개 가로  
자료: 복개 가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6.22.)

또한, 어의동지와 관련해 현재의 장소에 남아있는 요소는 지명이다. 가로명 주소로 변환되기 전까지 연지동 지명이 사용되었고, 현재도 주변에서 연지동, 연동, 연지, 연못골이 쓰인 명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옆에 위치하고, 수령이 515년 되었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삼양사 본사 건물 앞에 있으며, 수령은 465년 되었다. 서울특별시, 『사연있는 나무이야기』(서울: 서울특별시, 2014), 66-71.  
114) 종로구 이화동~혜화동 사이 대학천 복개공사가 12일 끝나 주차장으로 쓰이게 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3천7백만 원을 들여 지난 5월 6일 이 공사를 착공, 구 서울대학교 앞 폭 30m 길이 7백m의 하천을 복개, 승용차 2백3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했다. 『동아일보』 1978년 6월 13일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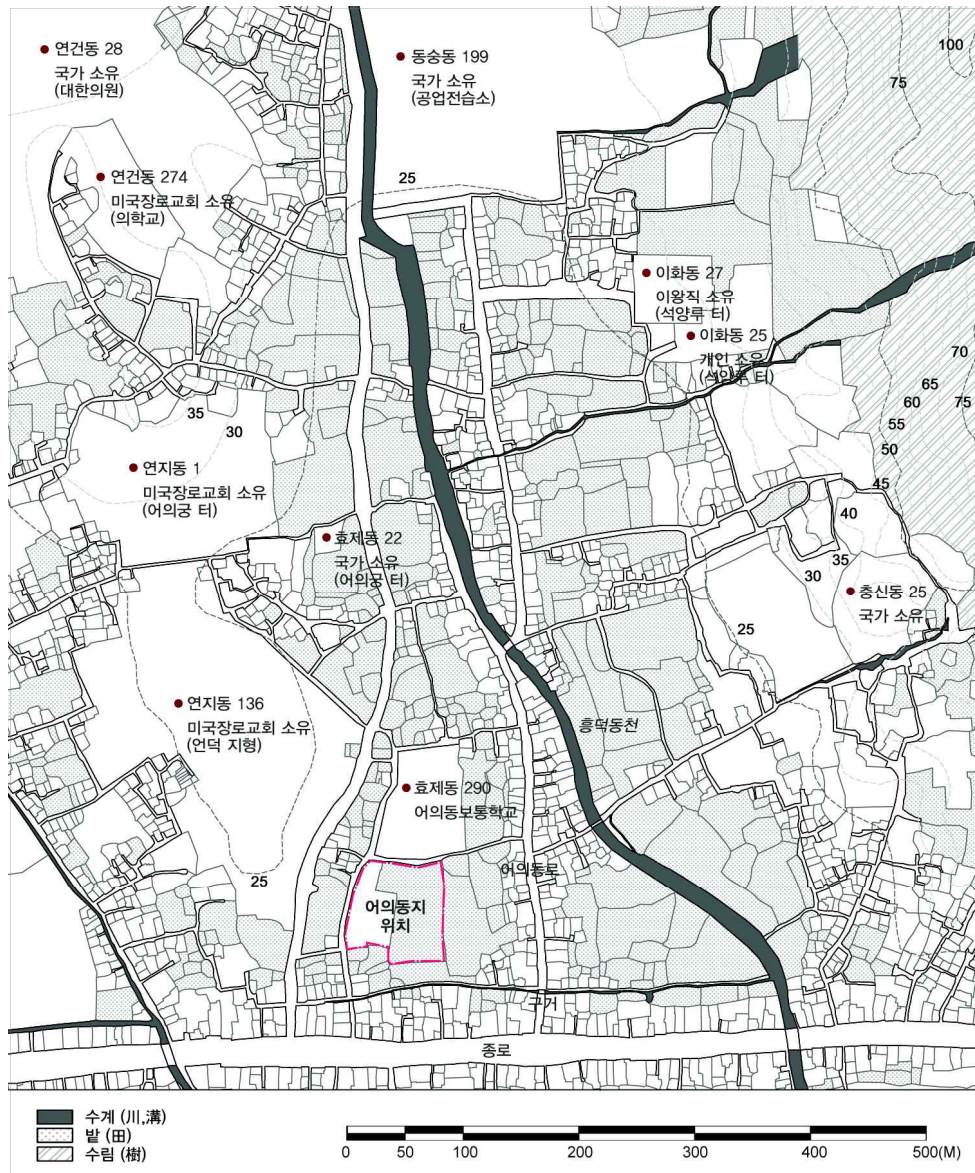


그림 3-35.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어의동지와 주변 환경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1912년 토지조사부에 근거 필자 작성

이 지역에 설립된 대한제국기 시설 중 연동교회는 지역 명칭을 현재까지 교회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지동의 역사를 많은 기록에서 남기고 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질 때마다 “1894년 이곳 연못골에 교회를 세우다”라는 내용의 머릿돌을 남기고 있으며, 매달 『연못골』 제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성가대의 이름에서도 ‘부용(芙蓉)’이라는 명칭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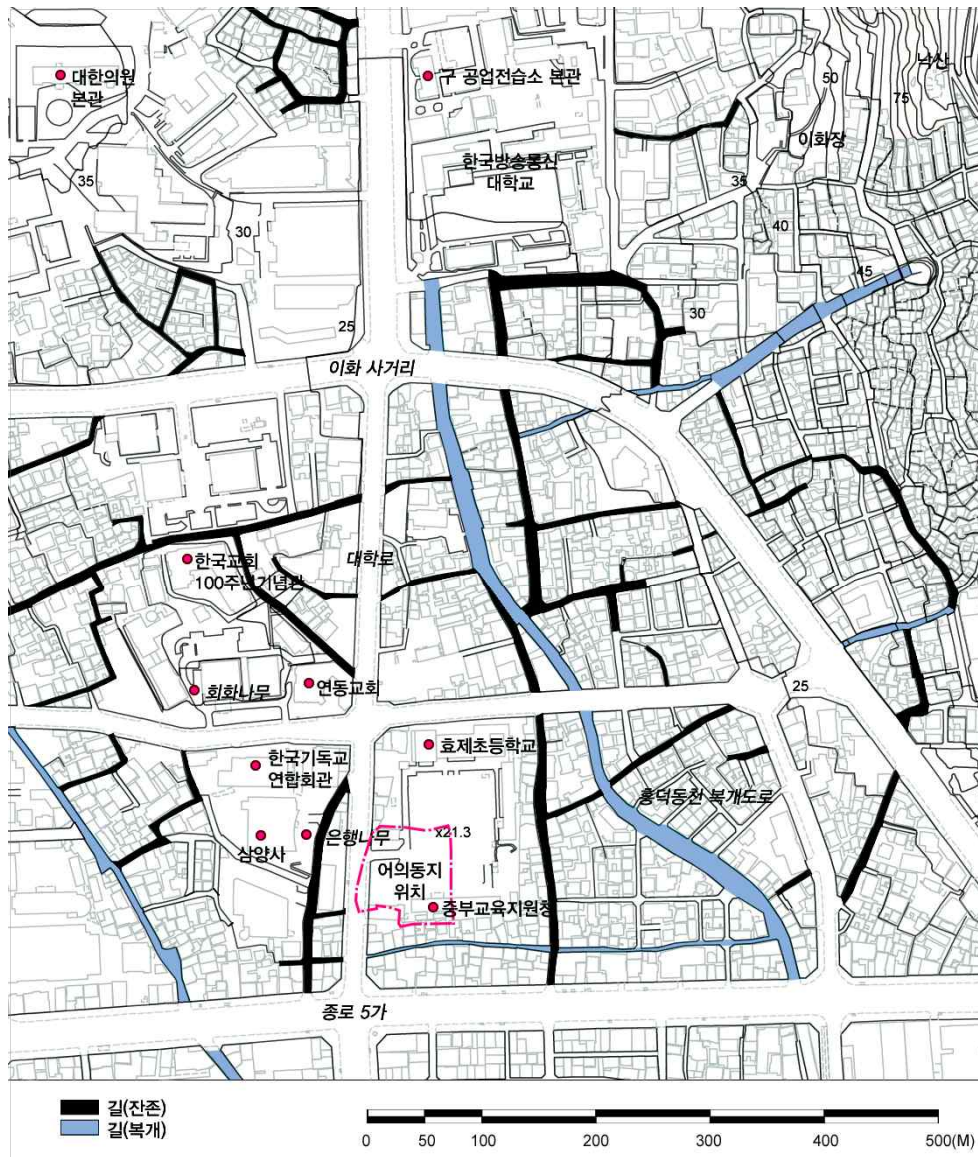


그림 3-36. 어의동지 일대의 현재 현황

자료: 2015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까지 사용하고 있다. 120년사와 같은 역사서에서도 연못골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는 등 과거의 지역 환경을 함께 기억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에 있었던 정신여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연못골에 있었던 시기를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의 명칭은 연못골이라는 이름이 일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고종의 주

치의였던 애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은 연동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the lotus pond district'로 표현하며 아름다운 연꽃이 있는 못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설명했다.<sup>115)</sup> 선교사였던 로즈(Harry A. Rhodes, 1875~1965)도 이 지역을 'east gate compound'에 위치한 'Yun Mot Kol'이라고 표기했다.<sup>116)</sup> 고신문에서도 1924년 '내 동네 명물'중 하나로 연지동의 개구리 소리를 꼽으며, 이가 연못골의 명물이며 예전에는 연못골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때는 소리가 합창소리 같았을 것<sup>117)</sup>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36년 연지동의 유래에 대한 기사에서도 연못이 있어 연못골이라고 전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과거 어의동지 자리로 이전한 효제초등학교에서는 이 지역의 명칭을 '느릿골'로 사용하고 있다. 교가에서도 '동대문 안 느릿골에 만간들이집, 서울 안에 역사 깊은 효제학골 세'라고 기록되고 교내 소식지의 명칭도 『느릿골』로 불린다. 느릿골은 종로구 이화동에 있던 마을로 널을 만드는 장생전(옛 석양루 위치)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sup>118)</sup> 과거 어의동지 주변 지역에서는 연못을 조망하며 연못골이라 인식했지만, 연못 자리에 조성된 학교는 오히려 조양루나 장생전, 낙산을 주요 요소로 인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못 자체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느릿골 지역에서 학교를 통학하면서 느릿골의 장소적 외연이 확대되며 장소성이 병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의동지는 현재 학교와 교육지원청 부지 내 서쪽 일부에 위치했다. 어의동지 일대의 도시환경 중 과거의 주요 가로가 현대 도시의 이면 가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수계도 복개되었으나 그 형태가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추정케 한다. 또한, 지명이 현재까지 의미 있게 사용되어 주변의 다양한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연지동에 큰 연못이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인식이 잠재된 지역이다.

## 5절 경모궁지(景慕宮池)

### 1. 경모궁지 일대의 지형과 공간환경

115) Oliver R. Avison,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황용수 역, 장의식 편(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6), 504.

116)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서울: 경인문화사, 2004), 120.

117) 연못골하면 명물이 나무신이 될줄 아시지요 아닙니다 좀더 좌편 명물입니다 동네 일음에 꼭 드러맞는 명물입니다 명물이 무엇이나 개구리 소리라는 명물입니다 요새 가튼 여름철 비 지낸 저녁이나 달밝은 밤에 한번만 연못골 오서서 노란한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시면 나무신 가튼 것을 제치고 명물노릇 할만한 갑을 대강 짐작하시리다 그전에는 이 연못골에 큰 연못이 잇섯더라니 그때쯤은 “과귀낙귀” 합창소리에 귀가 따거웠을 것입니다. 연지동 임봉수, “내 동네 명물: 연지동 개구리소리”, 『동아일보』 1924년 8월 9일 3면.

118) 강병수 외, 『서울지명사전』(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151.

경모궁지는 경모궁의 궁지(宮池)로 조영되었다. 경모궁과 경모궁지는 조선 후기인 정조 대에 만들어졌기에, 먼저 이들 부지가 경모궁 조성 전에 어떤 공간 특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모궁 부지는 본래 창경궁 동쪽 마등산(馬登山)에 해당했다. 마등산에 성종은 1484년(성종 15) 수림을 식재하여 함춘원(含春苑) 원림을 조성하였다. 함춘원은 초기에는 산림으로 유지되었으나, 1493년(성종 24)에 둘레에 담을 구축하면서[周垣] 금원(禁園)이 되었다. 이는 궁궐의 산세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며, 일반에게는 이용이 제한된, 왕이 자연 속에서 청유(淸遊)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sup>119)</sup> 함춘원은 연산군 때는 담장 밖 높은 지대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고 기화이초(奇花異草)를 심어 깊은 숲속 원림처럼 조성하고자 했다.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며, 함춘원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방마(放馬)의 장소 정도로 사용하게 된다.<sup>120)</sup> 1725년(영조 1) 종묘 보수 공사 때 이곳의 흙을 가져와 사용하자고 할 정도로<sup>121)</sup>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부지에 영조는 1764년(영조 40) 사도세자의 사묘(祠廟)인 수은묘(垂恩廟)를 조성하였다. 수은묘는 작고 간소한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후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바로인 1776년에 수은묘를 세자의 위상에 맞게 궁원 가운데 격식을 가장 높이하고자 했다. 수은묘를 개축하여 규모와 외관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만들고 명칭도 경모궁으로 격상하였다.<sup>122)</sup> 이렇게 경모궁을 조성하는 가운데 경모궁지도 조영되었다.

경모궁지는 서쪽으로 마등산, 동쪽으로 낙산이 가까이에 둘러싸고 있으며, 북쪽 성균관 뒤편으로 응봉(鷹峰)이 있다. 직접 연결된 산은 마등산으로, 창경궁과 경모궁 사이에 있는 산이다. 마등산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배경을 이루어 미관이 아름다울뿐더러 토지가 높고 건조하고 그 물이 맑아서 자연과 인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sup>123)</sup>고 묘사되는 산이다. 최고점이 표고 65m 정도인 낮은 구릉으로 창경궁이 조망되었다. 분지 지형으로 된 경모궁

119) 김원모, “함춘원고(含春苑考)”(향토서울, 1964), 51, 58-59.

120) 김원모, 위의 논문, 69, 71.

121) 上曰, 宗廟之內, 山脈多餘地, 少若或取土, 則易犯山脈, 宗廟之內取土, 終爲重難, 近處有可取土處耶? 申思喆曰, 城內近地, 無取土處, 而只涵春·上林苑, 多空曠地, 且近於太廟役處, 掘土取用之後, 以他雜土石填塞之, 則似甚便好矣. 『승정원일기』 32책, 영조 1년(1725) 10월 19일 계미 16/16 기사.

122) 최성환, “사도세자 추모 공간의 위상 변화와 영우원(永祐園) 천장”(조선시대사학보 60, 2012), 162-163.

123) 1908년 경모궁 남쪽의 함춘원과 마등산 위치에 개원한 대한의원 부지에 대해, 개원기념식에 초대받은 일본인 기자가 일대의 경관을 묘사한 내용이다.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답 265호 2001년 6월 15일 7면.

부지는 『홍재전서』에 의하면 “국세가 천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밝게 툇 트여 길하고 복 받은 터”<sup>124)</sup>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옛 지형도에서 경모궁지 일대의 등고선을 보면 동서 방향으로 지형차가 있다. 표고 25~30m인 경모궁지에서 서쪽 동궐 방향으로 65m까지 경사가 점차 높아지고, 동쪽으로 낙산 자락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 유지된다. 경모궁지 동쪽 가까이에는 흥덕동천이 흐르는데, 이는 성균관 쪽 지류인 동반수(東泮水), 서반수(西泮水)와 응봉 자락의 흥덕동 쪽 지류가 합류한 것이다. 흥덕동천은 개천 방향으로 흘러내려 가면서 마등산 지류, 낙산 지류 등이 계속 합류하여 물이 계속하여 많이 모이는 수계였다.

경모궁 일대는 정조대 민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용지를 마련했다고 하지만,<sup>125)</sup> 지적원도를 보면 큰길가나 천변을 제외하고는 주로 밭 지목이고 필지 크기도 큰 편이다. 1913년까지도 일대 지역이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로를 보면, 지적원도에 경모궁지 일대에서 중요하게 표기된 것은 성균관 방향의 남북 가로(현 대학로)와 경모궁 북쪽에서 혜화문으로 연결되는 이현대로(梨峴大路)가 있다. 성균관 방향의 남북 가로는 지적원도에는 종로 5가부터 북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지도에서 남북 가로로 주로 나타나던 길은 종로(5가와 6가 사이) - 어의동지 동쪽 - 어의궁 - 경모궁으로 연결되는 어의동로였다. 대한제국기 동촌 일대가 근대 시설들로 개발되면서 그 입지에 맞게 가로 경로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경로가 바뀐 남북 가로(현 대학로)는 1913년 당시 종로 5가 - 연동교회, 연동학교(1895년 이전), 어의동보통학교(1907년 이전) - 공업전습소(1908년 완공) - 경모궁을 지나게 된다.

이현대로<sup>126)</sup>는 종로, 육조거리, 돈화문로와 함께 도성 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간선 가로였다. 19세기 초 「도성도」<sup>127)</sup>를 보면 도성 내 다른 가로와는 구분되어 종로, 육조거리 등과 함께 굵게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다. 이 길은 종로(4가) - 이현동교(梨峴洞橋) - 동궐 동쪽 - 경모궁 후면 - 관기교 - 혜화문으로 연결되는, 궁궐과 도성 북쪽 성문인 혜화문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경모궁 조성 전까지 이현대로는 반촌(泮村)의 경계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경모궁을 조성하면서 동궐에서 왕이 행차할 때 이동하는 가로가 되었고, 창경궁에 월근문(月觀門)을 새로 설치하면서 경모궁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다.<sup>128)</sup>

124) 「일득록」 16, 『홍재전서』 176 © 한국고전번역원 김상환 역, 1998.

125) 김동철, “18세기 말 경모궁 모민과 그들의 상업활동”(지역과 역사 8, 2001), 8.

126) 館峴路通景慕宮. 경모궁 북쪽으로는 ‘관현로’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윤기, 「반중잡영」, 『무명자집』, 강민정 역(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2: 370.

127)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19세기 초 도성도이다.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지도』(서울학연구소, 1995), 20-21.

가로와 함께 경모궁 일대 흥덕동천에는 5개의 교량이 새로 설치되었다. 『경모궁의궤』에 의하면, 가장 먼저 설치된 교량은 1776년(정조 즉위년)에 조성된 장경교(長慶橋)이다. 다리 길이가 34척으로 여러 교량 중에서 가장 길어 하천 폭이 넓고 이동량도 많았던 지역으로 짐작된다. 조양교(朝陽橋)는 장경교 남쪽 어의궁 앞 다리이다. 조성연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신교(新橋)로 불러 이 또한 새로 조성된 교량일 것이다. 그리고 1782년(정조 6)에는 경모궁 주변으로 관기교(觀旂橋), 광례교(廣禮橋), 응란교(凝鑾橋) 세 다리가 설치되었다.<sup>129)</sup> 다리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통행이 활발하였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왕이 경모궁에 행차하는 궁로(宮路)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모궁은 중사(中祀)에 해당해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친영하여 제사를 지냈고, 정조대에는 경모궁과 가까이 동궐 동쪽에 문을 설치하면서 더 자주 방문하였다. 그만큼 궁로로의 기능이 중요했다. 궁로로서 어의동 입구를 거치면 조양교, 장경교를 지났고, 관현(館峴)을 경유하면 관기교, 광례교, 응란교를 지나 경모궁에 이르렀다.<sup>130)</sup>

경모궁 북쪽으로는 관동(館洞)이 위치한다. ‘관(館)’은 성균관과 가까이 있기에 명명된 지명이다. 경모궁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종묘 동쪽까지도 관동으로 표시된다. 경모궁이 조성되면서부터 경모궁 북쪽으로 관동의 영역이 제한되게 된다.<sup>131)</sup> 관동은 성균관과도, 그리고 동궐과도 가까워 많은 사대부가 거주하는 장소였다.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관동파(館洞派)’, ‘동촌파(東村派)’도 형성되어 동촌에 거주하던 여러 문인이 함께 교유(交遊)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32)</sup>

경모궁지는 성문 중에서 혜화문(惠化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혜화문은 동소문(東小門)으로도 불렸다. 양주와 포천으로 연결되는 관문이고,<sup>133)</sup> 강원도와 함경도로 가는 길과 연

128) 월근문을 세우고 이에 대한 관리 방법을 하교하다. 『정조실록』 8권, 정조 3년(1779) 10월 10일 경신 2번째 기사 : 하교하기를, "월근문(月觀門)을 새로 세워 이 길로 전배(展拜)하는 까닭은 하나는 편근(便近)을 취한 것이고 하나는 의위(儀衛)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경비(經費)를 덜기 위한 것이다. 편근한 것은 본디 그렇거니와, 의위할 즈음에 혹 크게 벌이는 일이 많으니, 보마(寶馬) 따위의 긴요하지 않은 것을 대령하는 것은 모두 마련하지 말고 한결 같이 편전(便殿)에서 전좌(殿座)할 때의 예(例)에 따라 거행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정조실록』 9권, 정조 4년(1780) 1월 20일 기해 1번째 기사.

129) 「궁로와 교량」, 『경모궁의궤』 4 © 한국고전번역원 박헌순 오세욱 역, 2013.

130) 本宮動駕時，路由於義洞洞口，則朝陽橋爲第一，長慶橋爲第二．路由館峴則觀旂橋爲第一，廣禮橋爲第二，凝鑾橋爲第三．「궁로와 교량」, 위의 책.

131) 오세현, “조선 후기 한양 동부 관동의 인문지리와 연안이씨 관동파”(서울학연구 61, 2015), 40-41.

132) 오세현, 위의 논문, 47 ; 안순태, “영조조(英祖朝) 동촌파의 교유양상과 교유시 -오원, 남유용, 이천보, 황경원을 중심으로”(한국한시연구 21, 2013), 211-213.

133) 서울역사박물관 편, 『동소문 별곡』(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4), 145.



결된다. 혜화문 밖으로 나가면 도성 근처 행락지로 가장 유명한 북저동(北渚洞)이 가까이 있어, 봄철 북저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혜화문을 통해 방문하곤 했다. 또한, 정릉(貞陵), 봉국사(奉國寺), 조계(槽溪) 폭포는 혜화문을 통해 찾아가는 근교의 명소였다.

그 외 주요 지물로는 성균관, 석양루가 있다. 경모궁지는 성균관으로 이동하는 남북 가로변에 위치했고 성균관과 가까운 거리이다. 석양루는 앞의 어의동지에서 설명하였다.

대한제국기 경모궁 일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제사는 1895년 「갑오개혁안」을 확정하면서 대·중·소사를 간결하게 하고 일부는 폐지하였다. 경모궁에서 치르던 제사도 이 시기 없어졌다. 그 이후 1899년 경모궁에 있던 신주를 종묘로 옮겨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경모궁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영희전(永禧殿)을 옮겨 세웠다.<sup>134)</sup>

영희전 남쪽으로는 함춘원과 마등산이 있었는데, 이곳은 대한의원 부지로 선정된다. 병원 부지를 정하고 부족한 필지를 민간에게서 매입해, 대한의원은 1908년 개원하였다.<sup>135)</sup> 지적원도에서는 영희전과 병원 부지가 하나의 국유 필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의원 부지는 영희전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계획하였고, 영희전과 경모궁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흥덕동천 맞은편에는 1908년 공업전습소도 조성하였다. 대한제국기 기존에 밭으로 운영되던 일대 지역에 여러 근대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경모궁지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 분지 지형에는 천이 길게 흘러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명승도 많았다. 민가가 많지는 않았으나 궁, 왕가의 저택, 성균관 등 주요 시설이 있었다. 이들 시설은 조선시대에는 어의동로과 흥덕동천을 중심으로 입지하였다. 대한제국기 여러 근대 시설이 자리 잡은 이후 동촌은 학교, 교회, 전습소, 병원, 영희전, 성균관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길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또한, 경모궁 기능이 소멸하면서 과거 왕실의 사당 공간으로 가졌던 지역적 위상이 낮아지고, 경모궁 주변 산림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며 공간 영역도 점차 축소되었다.

## 2. 경모궁지의 위치와 형태

고지도에서 경모궁지는 대부분 경모궁 동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진다.(그림 3-37 참조) 경모궁의 궁지이지만 경모궁 담장 밖에 조성되었다. 연지는 성균관을 감싸고 있는 반

134) 이옥,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정신문화연구 27(2), 2004), 78-79, 82.

135) 병원 부지를 정하기 위해 마등산 일대를 측량한 도면으로 「마등산 실형도(馬登山實形圖)」(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가 있다. 일대의 토지이용, 소유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이규철, “대한의원 본관의 건축 과정과 건축 계획적 특성”(의사학 25(1), 2016), 12-13.

수(泮水)가 흥덕동천으로 합류하는 지점 가까이 있다.

경모궁지의 위치는 1913년 당시 지적원도에도 필지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그림 3-40 참조) 경성부 동부 송사동 97번지 필지로, 지목은 연못이고 국유지였다. 지적원도를 보면, 고지도보다 흥덕동천에 더 가까이 있으며, 흥덕동천이 반수와 합류하는 지점인 광례교와는 오히려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경모궁지는 지형상 표고 25~30m로 마등산 계곡부에 있었다.(그림 3-38 참조) 경모궁 일대의 지형은 경모궁 조성 시 정지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형태로 보인다. 마등산에 경모궁을 조성하면서 경모궁 북쪽으로 명당수처럼 궁 주변을 둘러 나오게 한 것이다. 실제로 『경모궁의궤』에서는 응란교에 대해 “궁원에서 흘러나온 도랑이 반천(泮川)에 유입되는 곳에 설치했다”고 기록했다.<sup>136)</sup> 즉 지적원도에는 마등산에서 나오는 수계가 표시되지 않지만, 경모궁 조성 시에는 경모궁 북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내려오는 구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모궁지는 흥덕동천과 매우 인접해있다. 가로로 사이에 두고 흥덕동천 바로 옆에 위치했다. 그렇기에 경모궁지의 운영은 흥덕동천의 수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모궁지는 서지와 남지와 마찬가지로 가로변에 인접해있었다. 그렇기에 길에서 연지를 조망하기 좋으며, 길에서 경모궁에 진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경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경모궁지의 형태에 대해서는 『경모궁의궤』 「궁지도설」에 “못은 궁 담장 북쪽에 있다. 동서로 길이가 52보이고, 남북으로 너비가 28보이며, 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다[池在宮牆北. 東西長五十二步, 南北廣二十八步, 中有小島]”고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연지의 크기는 동서 62m, 남북 33m로 면적은 약 620평 정도로 환산된다.<sup>137)</sup>(그림 3-39 참조) 지적원도에 나타난 필지 크기는 712평 정도이고,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696평으로 기재되었다. 『흙영』에서는 “발걸음으로 연못[경모궁지]의 면적을 재어 보았더니 100보가



그림 3-37. 「수선전도」에서의 경모궁지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36) 卽宮苑流渠入泮川處. 「궁로와 교량」, 앞의 책.

137) 『경모궁의궤』 「척도도설」에 의거해 1보를 1.1958m로 계산했다. 양상현 외 3인, 앞의 논문, 15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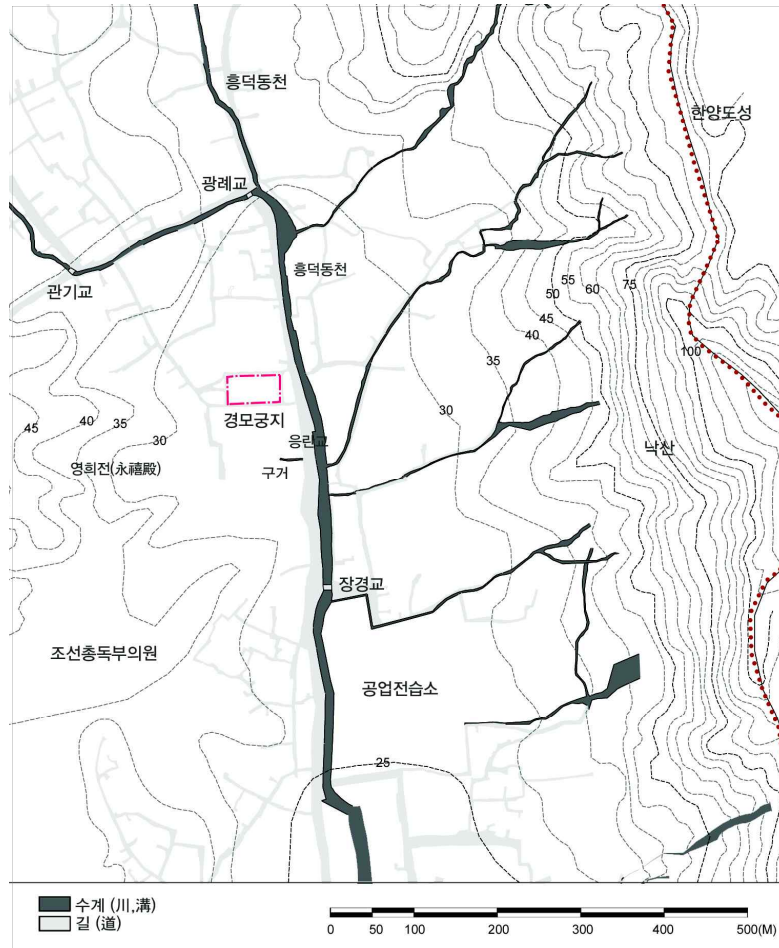


그림 3-38. 경모궁지 일대의 지형과 수계  
 자료: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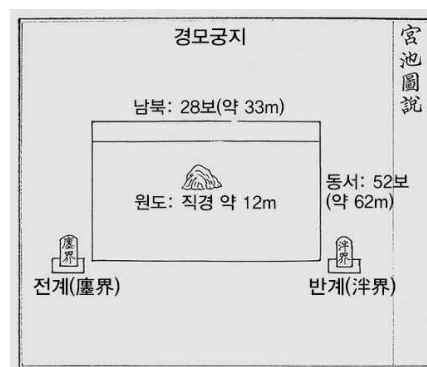


그림 3-39. 『경모궁의궤』의 경모궁지 도설  
 자료: <http://db.itkc.or.kr> (검색일: 2015.6.1.)

채 못 된다. 역시 매우 좁다”<sup>138)</sup>고 했다. 사방둘레[方]에 대한 언급을 기준으로 연지의 비례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해보면 경모궁지 면적은 813평 이하로 나온다. 자료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적원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경모궁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지의 형태가 「궁지도설」과 같이 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1913년 측량한 수치이기에 비교적 오류 없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지적원도에 의거 경모궁지의 면적은 712평, 동서 길이는 66.9m, 남북 길이는 36.3m로 정리하였다.

경모궁지의 주요 시설로는 표석(標石)과 원도(圓島)가 있다. 먼저 표석은 경모궁지 동쪽 가로변에 세워졌다. 반계(泮界)와 전계(廛界)라고 표기되었다. 윤기는 「반중잡영(泮中雜泳)」<sup>139)</sup>에 경모궁지를 언급하며, “옛날의 반촌은 관현에서 혜화문에 이르는 길을 경계로 삼았는데, 정조에 경모궁 앞 연지 가에 돌을 세우고 반촌의 경계로 삼았다. 연지 이북이 모두 반촌이다”고 했다.<sup>140)</sup> 길가에 세워진 이들 경계석은 반촌과 시장 영역을 구분하였다. 즉 경모궁지는 지역 경계를 구분하는 주요 지물로 기능했으며, 시전 입지로 인한 번잡함을 경모궁과 반촌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이공간 역할을 했다.

경모궁지 가운데에는 원도가 있었다. 「궁지도설」에도 원도가 나타나 연지를 조성할 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경모궁지 자리에 있는 학생회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연지 영역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도 석축 유구가 발견되었다. 발굴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경모궁지는 현재 지표에서 약 1.5m 깊이에 있었다. 원도는 원형으로 지름이 약 11.8m이다. 원도의 석축은 먼저 판석과 잡석으로 지정석으로 놓고, 그 위에 장대석을 곡선으로 다듬어 올려놓았다. 장대석의 크기는 길이 70~114cm, 폭 27~35cm, 높이 27~33cm로 다르게 나타났다. 지정석과 장대석 사이에는 고임석을 이용해 높이를 조절하였고, 원도 석축의 안쪽 면에는 잡석을 사용해 뒤채움하였다.(그림 3-42, 43 참조)<sup>141)</sup> 원도의 석축을 원형으로 깎아 장대석으로 올릴 정도로 궁지의 위상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138) 유만주, 앞의 책, 2: 200.

139) 성균관 일대의 명소들을 220수의 시로 기록하였다.

140) 舊時泮村. 以自館峴至惠北門之路爲界. 當寧朝立石於景慕宮前蓮池邊. 以爲泮界. 而蓮池以北. 皆爲泮村云. 윤기, 앞의 책, 2: 370.

141)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경모궁 궁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수원: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1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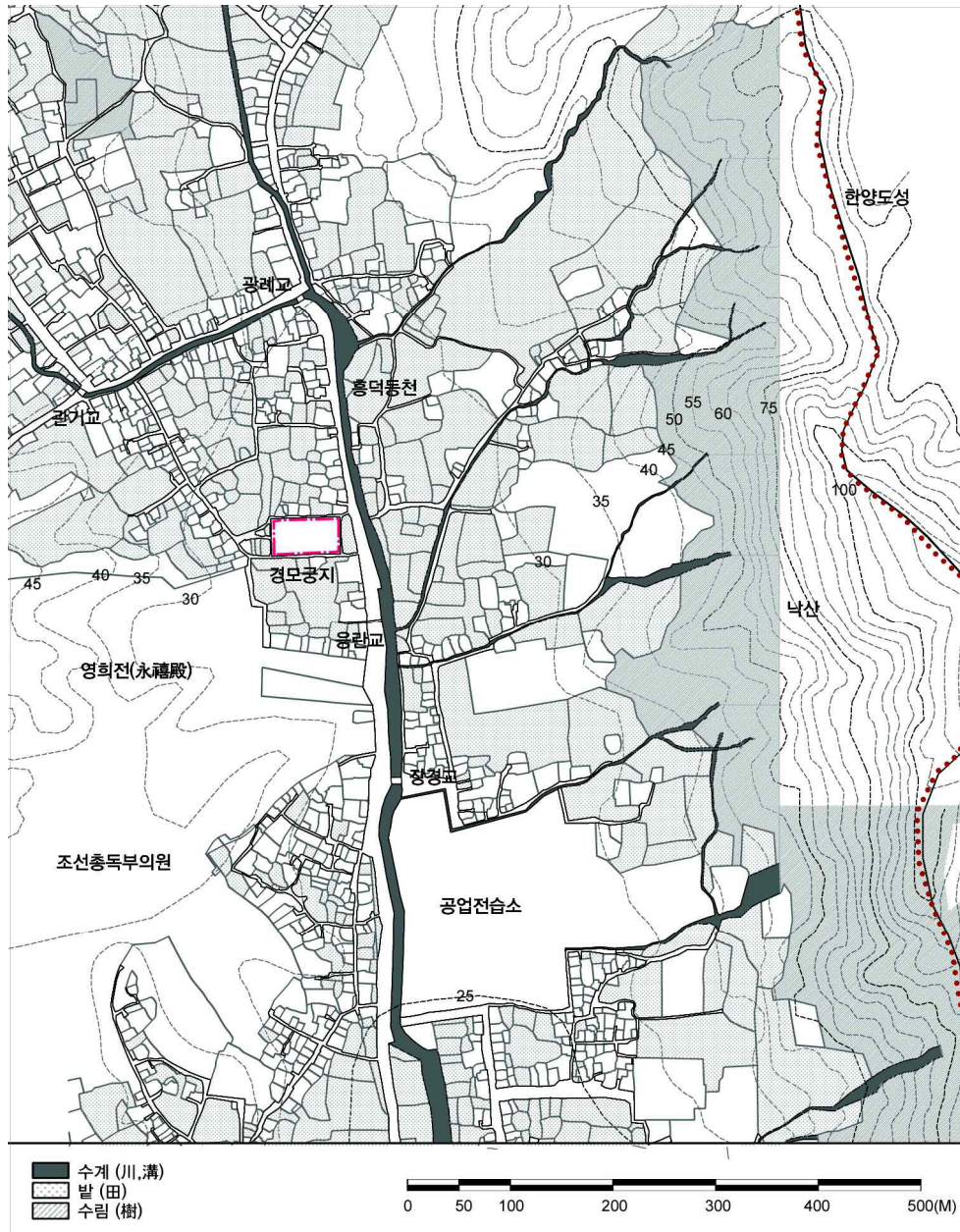


그림 3-40. 1913년 지적원도에서의 경모공지와 주변 환경

\* 낙산 일부 부분은 지적원도 도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목 표기에서 제외함

출처: 1913년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1912년 토지조사부에 근거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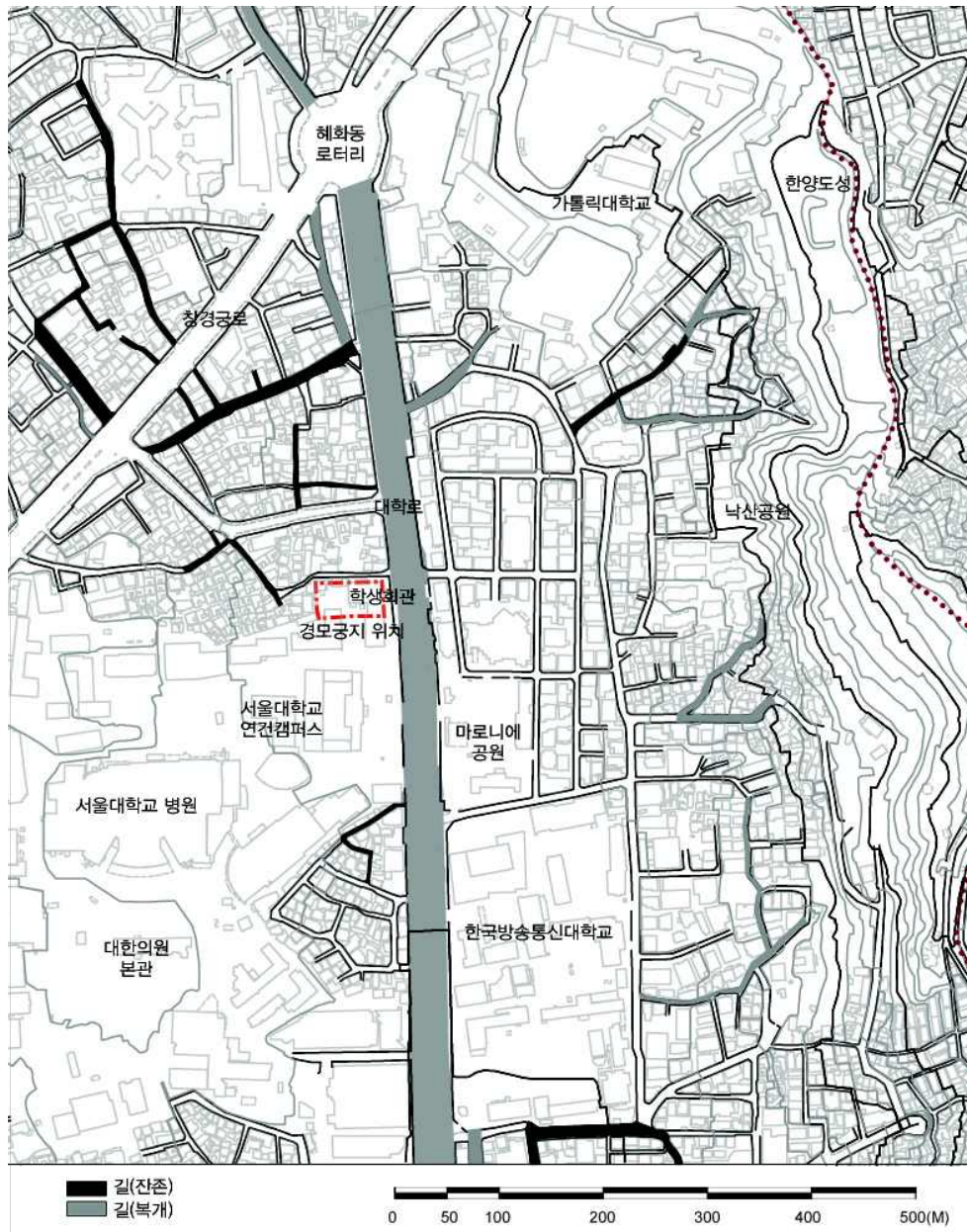


그림 3-41. 경모공지 일대의 현재 현황

자료: 2015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3-42. 경모궁지 발굴 부지  
자료: 한울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124; 필자 재작성



그림 3-43. 발굴된 경모궁지 원도 유구  
자료: 한울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121

경모궁지는 경모궁 밖에 조성되었는데 경모궁보다 오히려 길과 더 가까이 있다. 궁지이지만 궁 밖에 있어 많은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연지였고, 길과 가까워 도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경모궁지는 경모궁의 진입경관으로의 가치도 있었지만, 반촌과 시전을 구분하는 공간환경에서 경계물로의 기능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마등산에서 내려오는 도랑과 흥덕동천 사이에 있어 토질이 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지의 규모는 서지나 어의동지보다 작은 크기였다.

### 3. 경모궁지의 현재 위치와 환경 변화

경모궁지 터의 현 위치는 종로구 명륜4가 97번지로, 지적도상 필지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지목은 학교 부지이고 면적은 867평이다.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내 부지로, 교내이어서 필지 형태에 상관없이 개발되어 현재 학생회관과 교육관 일부에 걸쳐 있다.(그림 3-41 참조)

최근 학생회관 옆 공터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도 유구가 발굴되었으나 매립하고 건물이 신설되었다. 대신 근처에 원도 모습을 재현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하였다.(그림 3-44,45 참조) 교내 바로 옆에서는 경모궁을 복원하기 위한 발굴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모궁지는 과거 경모궁과 관련한 시설이었으나, 경모궁 복원 계획과는 분리되어 있다.(그림 3-46 참조)

경모궁지 일대의 환경을 보면, 병원과 학교와 같은 근대기 대형시설들은 여러 곳에 있지만 옛길과 필지는 많은 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성균관으로 연결되는 경모궁지 북쪽 지역과 낙산 자락에 가까운 골목길에서만 옛길과 옛 물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학로는 과거 흥덕동천을 복개하여 만든 길이지만, 길폭이 확장되어 과거의 수계 형태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흥덕동천에 대한 많은 기억이 남아 있기에, 그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2009년에는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사거리 1.03km 구간 인도 변에 실개천을 재현하기도 했다.

경모궁지 일대는 도시형태적으로는 공간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설은 그대로 지속한 경우가 많다. 대한제국기 조성된 대한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확장되고, 공업전 습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백동수도원은 가톨릭대학교로 변화하는 등 일부 건물이 보존되기도 하고 기능이 비슷하게 유지되기도 하면서 지역의 근대기 공간특성이 많이 보전되고 있다.

경모궁과 경모궁지, 함춘원 등 조선시대의 주요 장소들은 물리적으로 보존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함춘회관, 함춘시계탑과 같은 명칭에 의미를 부여하며 현대까지 사용하고 있고, 최근 발간된 서울대학교 병원사 자료집에서도 영희전과 함춘원에 대한 많은 사진을 수록하고 있어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기억하려는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보전계획은 경모궁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었던 경모궁지나 마등산, 흥덕동천과 같은 일대의 경관 차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그림 3-44. 과거 경모궁지가 있었던 부지  
자료: 학생회관 앞 도로에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12.27.)





그림 3-45. 경모궁지 터 인근에 재현한 원도  
자료: 학생회관 앞 가로에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6.22.)



그림 3-46. 캠퍼스 내 경모궁 복원 공사 현장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뒤편에서 필자 촬영 (촬영일: 2016.6.22.)

## 6절 소결

지형과 공간환경 측면에서 5개 연지를 고찰하였을 때, 공통으로 나타난 특성은 모두 길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었다. 동지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다른 연지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지와 길의 조성 순서는 선후 관계가 연지별로 다르게 나타났겠지만, 길과 가까이 조성함으로써 세 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었다. 첫째, 연지는 관에서 관리하고 수확물을 진상해야 하기에, 길옆이 관리 측면에서 편리했을 것이다. 둘째, 연지를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물의 입수와 출수 확보가 중요했는데 가로 옆에 조성함으로써 가로변 측구 같은 배수체계와 연관하여 수계를 연결할 수 있었다. 셋째, 과거 연지는 경계를 구분하는 지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때 길가에 있는 연지는 경계지물로서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는 상징적 역할을 했다.

또한, 한성부 연지는 국가 소유의 부지로 유지되어 식민지기까지도 국유지로 남아있었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한성부 연지 일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도 연지가 지속할 수 있었다. 국가 소유이지만 운영은 공유지와 같이 이루어졌다. 연지를 구분하는 특별한 경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길에서 접근성도 좋아 누구나 가까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연지 조성 당시에는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 조선시대에 일종의 공공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

5개 연지는 각기 자리 잡은 지형과 공간환경에 차이가 있기에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많았다. 먼저 입지조건을 본다면 서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산자락 계곡부에 있고 수계와도 가까워 연못을 운영하기 좋은 여건이었다. 동지는 여러 수계가 합류하는 저지대에 조성하여 땅 자체는 습지였지만 잦은 범람으로 연지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지

는 지형이 낮아지는 가운데 있었고 수계와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었다. 지리적 여건보다 송례문과 연계하여 풍수적 비보, 성문과의 관계를 따라 입지를 정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연지 일대의 공간환경 특성을 보면, 서지와 남지는 매우 복잡한 도시지역에 있었다.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했고 여러 공해시설도 많아, 거주민뿐 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었다. 그에 반해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개발이 어려운 저습지에 있었다. 연지 주변으로 농지가 많았고, 주변에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인구를 유입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식민지기까지도 밭으로 남아있는 부지가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개발되지 않은 넓은 가용지가 있어, 대한제국기 이 지역에 여러 근대 기능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공간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연지의 형태 측면에서는 서지, 남지, 경모궁지는 방죽이 있어 비교적 형태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지와 어의동지는 연못 부지는 정해져 있지만, 부지 안에서 수축 공사 여부나 수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크기 면에서는 서지와 어의동지가 가장 넓은 면적이었다. 서지, 남지, 어의동지에 대해서는 연지 설계에 관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었다. 서지는 낮은 담과 원도를 조성하고 이후 누정을 설치하였고, 남지는 석축 공사로 방죽을 공고히 하였다. 경모궁지도 석축으로 조성되었고, 원도를 설치하고 연지 가에는 표석을 배치하였다. 연지 방죽을 조성하는데 석축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조성에 있어 연지별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도시환경에서 과거 연지가 있었던 장소의 변화를 살펴볼 때, 서지와 경모궁지는 필지 형태가 보존되고 있으며, 어의동지는 과거 연지 북쪽에 있었던 학교가 연지 부지까지 확장하면서 필지가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동지와 남지는 필지가 나누어 졌다. 또한, 과거 연지와 연계되었던 수계는 사라졌지만, 많은 부분 복개되어 과거의 수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어의동지는 과거 연지가 있었다는 기록을 주변 시설에서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장소적 기억이 높게 나타났다. 서지, 남지, 경모궁지는 표석으로 과거 연지 터였음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연지별 지형과 공간환경 특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연지별 입지 및 환경 특성 비교

구분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고 20m 이하 저지대</li> <li>넓게 평탄한 지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산, 둥그재, 인왕산으로 위요</li> <li>표고 40~45m로 주변보다 저지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례문에서 무악천 방향으로 낮아짐</li> <li>인접가로부터 지대가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쪽으로 기수에 인접, 낮지만 숲으로 잘 보전됨</li> <li>흥덕동천 방향으로 지대가 낮아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등산 기슭 계곡부</li> <li>울창한 송림대</li> </ul>
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미정동천 지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지 앞 우물에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악천과 30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흥덕동천으로 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흥덕동천과 매우</li> </ul>

	와 인접	서지로 연결, 이후 무악천으로 배수	정도 거리 ◦ 남산 서쪽 물길, 남대문로 측구와 연결	결되는 구거와 인접	인접
길	◦ 흥인문로 가까이 위치	◦ 북쪽으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인 의주로와 인접	◦ 삼남대로, 시용간로, 제4로로 나뉘는 지점, 교통의 요지	◦ 동촌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어의동로와 인접	◦ 어의동로, 이현대로, 관현로와 인접
주변 지역	◦ 발이 넓게 펼쳐진 전원지역 ◦ 버드나무 경관으로 유명 ◦ 습지로 채소밭으로 사용 ◦ 범람에 쉽게 노출	◦ 주변 산은 행락공간으로 유명 ◦ 거주환경이 좋아 주거지 밀집 ◦ 상업점포 발달	◦ 복잡한 도시지역 ◦ 거주민, 유동인구 많음 ◦ 상업발달	◦ 발이 많고 수목이 울창한 전원지역 ◦ 왕실가족, 귀족층이 선호하는 주거지 ◦ 일반 민가 유입에는 어려움	◦ 큰길가나 천변을 제외한 발 지역 ◦ 낙산을 중심으로 양반층이 선호하는 주거지
주변 주요 시설	◦ 흥인문: 귀향, 귀양시 송별, 만사, 도성 밖 유람 ◦ 오간수문: 버드나무 경관 ◦ 관양묘: 1601년 설치, 사신 모임, 송별 모임 ◦ 영도교: 통행량 많음	◦ 반송정: 국초 국가 행사용으로 사용(기로회, 군대 사열, 군진 연습) ◦ 모화관: 사신 연회, 시사(試射), 시방(試放), 군사 사열, 임시 과거→독립관으로 사용 ◦ 경각감영 ◦ 중군영: 서지 옆 산자락 위치→일본 공사관→학교 ◦ 천연정: 서지 조망 장소 ◦ 서지서쪽 산기슭→학교로 개발	◦ 숭례문: 도성의 정문으로 상징성 ◦ 남관왕묘: 제사, 사신연, 송별모임 ◦ 칠패시장: 유통량 많은 주요 시장	◦ 어의궁: 17세기부터 왕실가례장소로 이용, 300m 거리 ◦ 석양루: 700m 거리 ◦ 대한제국기 학교, 병원, 교회 등으로 개발	◦ 혜화문: 도성 근처 행락지와 연결 ◦ 석양루 ◦ 어의궁(조양루) ◦ 경모궁: 19세기말까지 유지 ◦ 성균관: 성균관 가는 길목에 경모궁지 위치 ◦ 대한제국기 병원, 학교 조성
지적 원도 위치	◦ 동부 창신동 330 일대(추정), 영미정 동천 서쪽 지류와 인접	◦ 서부 천연동 13 ◦ 1913년 당시 국유 연지로 기록	◦ 서부 남대문동5정목 1 일대 ◦ 1913년 일부 국유지로 남아있음	◦ 동부 효제동 252, 255 ◦ 1913년 국유 잡종지, 채소밭 기록	◦ 동부 송사동 97 ◦ 1913년 국유 못으로 기록
지리적 특성	◦ 개천과 제방으로 분리 ◦ 영미정동천의 개천 합류 완화 ◦ 습하고 질척한 진흙으로 된 저습지, 민가 입지의 어려움	◦ 안산 산기슭 계곡부 입지 ◦ 물이 흘러내려와 모이는 장소 ◦ 도시와 자연지역의 경계	◦ 도성에 진출입하는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공간	◦ 도성에서 비교적 발달이 느린 지역 ◦ 숲과 함께 자연경관으로 지속 ◦ 종로 범람에 대비하는 기능	◦ 흥덕동천과 가로에 인접 ◦ 마등산에서 흘러 내려 오는 구거 연결
규모/ 형태	◦ 공사 상황, 수위 변화에 따라 형태가 달라짐 ◦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매몰	◦ 면적 축소(3000→2000평), 일부 면적이 의주로로 편입 ◦ 방형 ◦ 조선 전기: 주변 넓은 오픈스페이스	◦ 약 650평 정도의 면적으로 추정 ◦ 필지형태를 따라 형태 형성	◦ 약 2000평 부지 내에서 수위에 따라 연지 형태 변화	◦ 약 700평의 면적 ◦ 방형
관련 시설		◦ 전기: 낮은 담으로 경계 설정, 연산대 모화관과 분리하고자 울타리 설치 논의	◦ 누각: 옛글에서 일부 언급 ◦ 원도: 식민지기 기록에서 언급		◦ 표석: 반계와 전계를 구분하는 지물 ◦ 원도: 지름 12m 정도로 장대석이 곡선으로 다듬어진 형

		◦ 원도: 조선후기 기록에 표기, 초화 목식재			상
현재 위치	◦ 종로구 창신1동 완구거리 일대	◦ 서대문구 천연동 13, 31-1 일부	◦ 중구 남대문로 5가 1-1, 봉래동 1가 104-1 일대	◦ 종로구 효제동 255-4, 255-22 일부	◦ 종로구 명륜4가 97
필지 변화	◦ 필지 분할	◦ 필지가 분할되지 않고 비교적 잘 유지됨	◦ 필지 분할	◦ 필지 합필(학교가 연지 부지로 확장)	◦ 필지 유지 ◦ 학교 부지로 되어 시설로 개발
주변 환경 변화	◦ 영미정동천 지류가 복개되어 형태 지속 ◦ 상습침수구역	◦ 일부 이면가로 형태 보존 ◦ 지형 일부 개발	◦ 시흥간로, 일부 이면가로 형태 보존	◦ 가로 형태 많은 부분 보존 ◦ 홍덕동천이 복개되어 형태 지속 ◦ 일부 수목 보존	◦ 도시형태 측면에 서는 잔존요소 미비 ◦ 근대기적 장소성 보존
남아 있는 요소	◦ 흥인지문, 동관왕묘, 청계천	◦ 천연정과 관련한 일부 지명 전래	◦ 표석으로만 기념	◦ 지명 전래 ◦ 주변 시설에서 연지 관련 기록 다수	◦ 경모궁 복원사업 진행 중



## 4장 연지의 조성 및 관리와 소멸

## 1절 동지

### 1. 동지의 구성과 관리

동지는 서지, 남지와 함께 도읍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다고 언급되지만, 정확히 조성 시기가 기록된 것은 서지이고 동지와 남지는 후대에 국초 조성되었다고 써진 내용만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동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1467년(세조 13) 과거 경도의 곤방(서남방)이 낮고 수구가 관활하여 송례문과 흥인문 두 곳의 문밖에다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였다고<sup>1)</sup> 언급된 데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546년(명종 1)에는 국도를 개설할 때 동서남북의 못을 만든 데는 의미가 있다고<sup>2)</sup> 동지를 포함해 얘기하였다. 1547년(명종 2) 기록에서는 개국 초 도읍의 터를 잡았을 때 계획한 내용이 관상감에서 관리하는 『등록』과 왕실에 전해지는 문서 두 곳에 남겨져 있으며,<sup>3)</sup> 지속해서 도읍 운영에 문서를 참고해왔음을 말해준다. 문서는 도시계획도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그중 연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양의 산천 형세를 고려해 일련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고, 연지를 조성하는 일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경도의 곤방이 낮고, 또 수구가 관활한 까닭으로 송인문(崇仁門)·흥례문(興禮門) 두 문밖에다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였으나, 근자에 일찍이 수축하지 못하여 혹 매워져서 막혀 물이 얇고, 혹은 막혀서 매몰되어 터가 없으니, 원컨대 깊이 파서 저수하고, 제안에 식목을 하여 기맥을 기르소서.”하니,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觀象監啓: “京都坤方低卑, 又水口寬闊, 故於崇仁、興禮二門之外, 皆鑿池貯水. 近者, 不曾修築, 或填塞水淺, 或堙沒無址. 願深鑿貯水, 植木堤岸, 以畜氣脈.”上不納.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1467) 6월 20일 6번째 기사.

원문에도 송인, 흥례문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서남방이라는 방위표기와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였을 때 송례, 흥인문을 의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조 6년 10월 10일 기록에서도 ‘흥인문(興仁門)’을 ‘송인문(崇仁門)’으로 기록하는 오자를 찾아낸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2) 수구문 안의 동지가 황폐되었다 하니 수리하도록 하라. 대저 국도를 개설하는 처음에 동서남북의 못을 만든 데는 반드시 그 의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이를 절수한 자가 있다 하니, 빠짐없이 조사하여 전대로 못을 만들라. 則水口門內東池陳荒云, 修正可也. 大抵國都開設之初, 鑿東西南北之池, 必有意也, 今有折受者云, 無遺推之, 依舊爲池.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1546) 8월 23일 3번째 기사.

3)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조종조의 서울터를 잡았을 때 적은 문서를 관상감 제조와 영사에게 내리면서 일렀다. “풍수설이 비록 정론(正論)은 아니지만 서울의 산천 형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번에 민가를 철거하고 나무를 심어 다시 짓지 못하게 하고 동지를 다시 알맞게 파고 조산도 수축하라고 하였더니, 회계하기를 ‘조종조에서나 역대 제왕들은 서울의 산천 형세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신중히 살폈으니 지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관상감에 비록 《등록(謄錄)》이 있기는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상고할 수 없다.’하였다. 이 문서들을 보고 상고한 후에 되돌려 안에 들여놓도록 하라.” 『명종실록』 5권, 명종 2년(1547) 5월 18일 무진 3번째 기사.

문서의 내용에서 동지를 조영한 가장 큰 목적은, 도성 동쪽이 수구가 되는 지역인데 위요하는 지형이 없어 지세가 ‘관할’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타난다. 한양은 지형·지세와 관련해 여러 산맥이 들어와 지세는 좋으나 수구가 관할하다는 평이 많았다.<sup>4)</sup> 도성 밖 동쪽 지역에 동지를 조성하는 것도 비보풍수의 한 가지 방법이었고, 그 외에 연못과 함께 가산(假山)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인구를 계속 유입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연지 조성을 한성부의 지세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성곽과 못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었다. 성곽과 못은 ‘성지(城池)’라는 이름으로 여러 고문헌이나 지리지에서 함께 일컬어진다. 성지는 일반적으로 해자를 지칭했다. 『역경(易經)』에서 “성의 흙이 해자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땅을 파서 호를 만들면 흙은 성이 되고, 호는 해자가 된다고 여겼다. 나중에 성이 파괴되면 흙이 해자로 돌아가기에, 마땅히 호를 파서 거기에서 나온 흙을 취하여 성을 쌓는 데 써야 한다고 한 것이다.<sup>5)</sup> 그렇기에 성과 해자는 가까이에 흙을 서로 교환하여 실리적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성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해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성곽에도 해자를 활용했고, 이 같은 흐름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왔다.<sup>6)</sup>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 지형의 특수함은 축성 시 성지로 해자가 아닌 연못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게 했다. 지형과 성곽 조성에 대한 인식은 『화성성역의궤』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의궤에서는 성 자체가 산을 의지하기에 못을 사방에 두르는 어렵다는 점과 못을 판 흙은 성 쌓는 데 이용한다는 것을 얘기한다.<sup>7)</sup> 조선 후기 화성의 축성도 먼저

4) 음양학 훈도(陰陽學訓導) 전수온은 “우리나라 국도에 나성(羅星)이 공결(空缺)되고 수구가 관할하게 되었은즉, 나성과 수구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하오나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어 보결(補缺)하려면 성공하기가 어려우니,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어 가로막게 하면 작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1448) 3월 8일 계사 1번째 기사 ; 풍수학 문맹검은 “명당의 수구에는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나무를 심어서 수구를 진압하고 막게 하는 것이 곧 옛날 사람의 법입니다. 지금 국도 수구의 안에 옛날 사람이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소나무를 심었지마는, 그러나 이 작은 산이 수구에 있지 않고서 도리어 수구의 안에 있고, 또 산이 무너져서 낮으며 소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 보제원의 남쪽과 왕십역의 북쪽에 작은 산을 혹은 3개나 7개를 만들어 소나무와 왜나무·버드나무를 심어서 수구를 좁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수구에 인가가 뽀뽀하게 많이 있고, 창림이 많이 쌓여 있어야만 산수의 기운이 유박하는 것은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지금 수구문 밖의 예성방은 인구가 희소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인민으로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나누어 주소서.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1452) 3월 3일 병신 5번째 기사.

5) 경기문화재단, 『수정국역 화성성역의궤』(수원: 경기문화재단, 2001), 146.

6) 정용조·심우경, “동·서양 해자의 역사와 문화적 해석”(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2011), 117-118.

7) 경기문화재단, 위의 책, 34.



도랑을 깨끗이 정비하고 못을 판 다음 성을 쌓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곽을 쌓다가 성곽시설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성곽과 못의 관계가 유래가 깊은 점을 고려해보면, 한양도성의 축성에서도 못을 파는 것이 기능과 방어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도성 동쪽과 남쪽의 경우 비보 풍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성곽의 방비 차원에서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조성된 못의 형태나 크기로 본다면 실제적인 방어 기능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성을 쌓는 공사 과정에서 연못에서 파낸 흙은 축성 자재로 사용가치가 높아 공사는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동지의 경우 문헌에 정확한 조영 시기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1467년(세조 13) 기사와 1546년(명종 1) 기사<sup>8)</sup>의 내용에서도 언급되듯이 도읍 개설시 조영한 것이고, 공사순서는 못, 성곽, 성문의 순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곽은 1396년(태조 5) 완공되었고, 흥인문과 웅성은 1397년(태조 6)에 준공되어, 이 시기에 동지도 함께 조영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성 내·외의 동쪽 지역은 물이 집중되는 지형이어서 범람도 잦고 토질도 습하다. 개천의 수계가 도성에서 범람하지 않도록 하려면 동지는 도성 안에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도성 내 동지에 관한 얘기는 몇몇 문헌 자료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1470년(성종 1) “수구문 안팎의 못[水口門內外池]”<sup>9)</sup>이 모두 메워졌다는 기사와 1546년(명종 1) “수구문 안의 동지를 수리하라[水口門內東池陳荒云]”<sup>10)</sup>는 기사에서 수구문 안에 동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성 내 동쪽 지역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지류들도 상당했다. 총무로 2가에 해당하는 진고개[泥峴]는 땅이 항상 질퍽한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범람하고 급류가 토사며 가옥까지 쓸어내렸다고 한다.<sup>11)</sup> 수구문 내 동지는 도성 내에서 개천 범람에 대응하기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구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동지는, 앞의 환경 특성에서 연구한 것처럼, 기능상 도성 밖에서 개천에 합류하는 영미정동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동지는 국초 조성되었지만, 1467년(세조 13)에는 이미 매몰되어 사라진 상태였다.<sup>12)</sup> 매

8) 『세조실록』 42권, 앞의 기사 ; 『명종실록』 4권, 앞의 기사 참조.

9) 하동군(河東君) 정인지 등이 와서 아뢰기를, (중략) 송례문 밖의 못과 수구문 안팎의 못이 지금 모두 메워졌고, 흥인문 안의 조산 세 곳이 또한 무너졌으니, 청컨대 수축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복궁 청룡은 아뢰는 것에 의하여 시행하되, 못과 조산은 지금 국휼의 일이 많으니, 아직 정지하라."하였다.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1470) 2월 12일 5번째 기사.

10) 『명종실록』 4권, 앞의 기사.

11) 가와무라 미나토,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요시카와 나기 역(인천: 다인아트, 2004), 64.

12) 동지, 남지와 관련한 내용인데 메워져 물이 얇은 연지는 남지를, 매몰되어 터가 없는 연

몰린 동지를 다시 깊이 파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는 시행되지 못했다. 1470년(성종 1)에도 수구문 안팎의 못이 모두 메워지고 흥인문 안 조산 세 곳도 무너졌으니 수축하자고 논의되었으나 미뤄지게 되었다.<sup>13)</sup> 박상(朴祥, 1474~1530)의 시문에도 동지가 가뭄으로 마르게 되어 물억새와 갈대로 무성하다고 묘사되었다.<sup>14)</sup> 환경적으로 동지는 관리에 소홀하면 쉽게 황폐해지고, 다시 수축 공사를 한다면 주변에 가산을 조성하는 일과 함께 시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조대와 성종대에는 동지 수축 사업은 일종의 지리설에 따른 것으로 분류되고, 그 외 다른 현안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었다. 그에 반해 명종대에는 동지 수축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 명종의 다양한 정책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려는 측면이 높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15)</sup> 명종은 즉위한 이듬해인 1546년(명종 1) 국도(國都)에 동서남북 연못을 만든 것은 의의가 있는데 없어졌으니, 부지를 절수한 자를 찾아 예전처럼 다시 조성하라고 명했다.<sup>16)</sup> 1547년(명종 2) 5월에는 동지를 다시 알맞게 파고 조산도 수축하기 위해 도성 계획과 관련한 왕실문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과거 1542년 동지가 성균관에 밭[菜田]으로 절수 되었다고 밝히며 다시 되찾도록 했다.<sup>17)</sup> 명종대에는 국초 수립한 도성의 풍수적 사안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기울여 흥인문 밖 금산(禁山)의 인가를 철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시기에 동지도 다시 수축하였다.

또한, 1601년에는 인근에 관왕묘가 설립된다. 관왕묘를 건설할 때 도성 동쪽의 지세를 비보 하기 위해 건물을 세우면서 못을 깊이 파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관왕묘 건설과 흥인문 밖 가산 유지에 있어 동지가 유용했기에, 이 시기 동지도 함께 관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후 동지는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17세기 초 '비우당팔영(庇雨堂

지는 동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조실록』 42권, 앞의 기사.

13) “(중략) 청컨대 금하고 옛날같이 나무를 심어서 산맥을 복돋우소서. 승례문 밖의 못과 수구문 안팎의 못이 지금 모두 메워졌고, 흥인문 안의 조산 세 곳이 또한 무너졌으니, 청컨대 수축하소서.”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복궁 청룡은 아뢰는 것에 의하여 시행하되, 못과 조산은 지금 국恤(國恤)의 일이 많으니, 아직 정지하라.”하였다. 請禁之, 依舊種木, 以培山脈. 且崇禮門外池及水口門內外池, 今皆禋塞; 興仁門內造山三處, 亦頽毀. 請修之. 傳曰: “景福宮靑龍, 依所啓施行. 池及造山, 今國恤事多, 姑停之.”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1470) 2월 12일 5번째 기사.

14) 「동지인한취고(東池因旱就枯) (중략)」, 『눌재집(訥齋集)』 속집 2.

15) 허준, “조선 명종대의 국정운영관”(한국사상사학 38, 2011), 123.

16) 『명종실록』 4권, 앞의 기사.

17) 『명종실록』 5권, 앞의 기사 ; 지난 임인년에 동대문 밖의 동지·마지·토랑포는 성균관에게 채전으로 절수하였고, (중략). 去壬寅年東大門外東池及馬池、土卵浦, 則成均館以菜田折受.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1547) 8월 2일 2번째 기사.

八詠)’ 중 하나로 동지 경관을 꼽을 정도로 연못이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1678년(숙종 4)에는 동지가 그 시기 화전(火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다시 기록되었다. 이때도 동지 터를 밭으로 사용하는 것은 풍수지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한성부 흥인문 내·외에 조산을 만들고 연못을 다시 파야 한다고 했다.<sup>18)</sup> 이후 1692년(숙종 18) 연지의 수축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 지금 흙이 메워져 물이 얇아진 상태이니 수축 공사를 해야 한다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한성부를 책망하며 공사할 것을 명하였다.<sup>19)</sup> 이 때 공사가 잘 끝난 것으로 보여, 1746년(영조 22)에 그려진 「동문조도(東門祖道)」(그림 3-6 참조)에서 흥인문로 남측으로 동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동지는 물이 가득 차고 정돈된 형태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1794년(정조 18)에 간행된 『장원서등록(掌苑署臚錄)』에 관리하는 네 곳의 연지 중 동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 시기에도 동지는 잘 운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동지를 운영하는 목적은 연꽃을 키우는 못으로의 역할에도 있다. 동지를 연꽃 경관으로 즐긴 이면에는 동지에서 나는 연의 부산물을 왕실용으로 진상해야 하는 실용적 기능이 있었다. 『장원서등록』에서 연지에서 나온 연 수확물을 진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 곳 연지(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의 푸른 연방은 결실에 따라 각 못지기로 하여금 따서 납품하게 한다. 각 전각[殿] 각기 50방, 세자궁에 40방, 승정원에 30방을 진상한다. 그리고 왕실 약용으로 연방 50방, 연잎 700엽을 네 못지기가 일 년씩 돌아가면서 내의원에 직접 납품하도록 한다. 연근은 이용에 따라 진배하도록 한다.”<sup>20)</sup> 즉 연지의 연방, 연잎, 연근을 내의원, 세자궁, 승정원 등 여러 기관에 진상하게 한 것이다. 또한, 진상하고 남은 네 곳 연지의 연방은 많고 적음에 따라 밀봉하여 이후 제출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sup>21)</sup> 연지에서의 수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환경 특성에서도 보았듯이, 동지 일대는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저지대여서 수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매몰되어 밭이 되었다. 기록에서는 1542~1547년,<sup>22)</sup> 1678~1692

18) 所謂興仁門內外造山鑿池事，風水之理，本來茫昧，此等誕說，不可擇施，禁地十里內龍虎山麓，果有冒占耕墾之弊，各別申飭之意，令漢城府舉行。『승정원일기』 13책, 숙종 4년(1678) 1월 27일 기해 15/15 기사.

19) 南門外之蓮池，東門外之蓮池，當初開鑿。(중략) 申飭漢城府，使之修築，可也。『승정원일기』 18책, 숙종 18년(1692) 7월 3일 경술 20/21 기사.

20) 靑蓮房東大門外池於義洞池南大門外池盤松池各隨其結實使各其池直摘納。各殿各伍拾房世子宮肆拾房進上而又以參拾房納于政院。御藥所用蓮房伍拾房及蓮葉柒百葉四池直一年式輪回直納于內醫院蓮根則隨用進排事。『장원서등록(掌苑署臚錄)』 供上式.

21) 四處蓮池靑蓮房進上後封餘隨其多少堂上郎廳宅分兒。『장원서등록(掌苑署臚錄)』 果園色.

22) 『명종실록』 5권, 앞의 기사.

년,<sup>23)</sup> 1908년 이후(그림 4-1 참조)<sup>24)</sup> 동지 일대가 밭으로 이용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동지를 지속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계속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지로 운영되던 시기에도 강우량에 따라 수위 차가 커서 연지의 경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여러 변화 속에서도 고지도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동지를 기록한 위치는 동일하다. 그만큼 동지가 잘 유지되지 않더라도 국유지에 해당했기에 동지가 위치한 장소는 기록으로 보존되었고, 공사가 가능한 시기에는 다시 수축 공사를 통해 회복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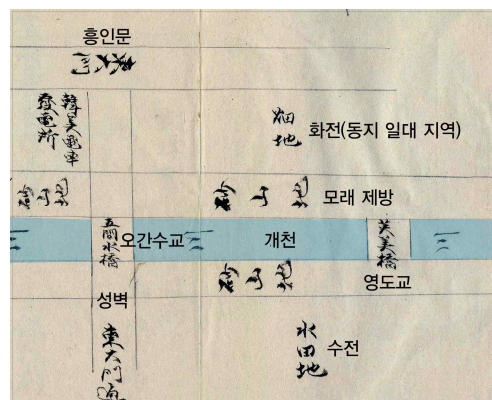


그림 4-1. 1908년 수구문 밖 일대 지역  
자료: 전봉희 외 2인,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327.

## 2. 동지의 소멸과정

동지가 소멸한 시기에 관해 명확히 기술한 문헌은 없다. 20세기 초 발행된 도성도<sup>25)</sup>까 지도 동지는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1908년 지도(그림 4-1 참조)를 보면 당시 동지가 이미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동지 자리가 화전(畑地)으로 기록되었다. 이후에도 동지 일대는 밭으로 유지되었다. 1921년 지형도에도 흥인문로 도로변에 여러 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도시 개발이 진행됐지만, 개천과 흥인문로 사이 동지 일대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개천 남쪽으로는 산업무역회사가 설립되고 훈련원 공원이 조성된 것과 대조된다.(그림 4-2 참조) 이는 동지 일대 지역이 저습지이고 범람이 자주 일어나, 땅은 비어있지만 시

23) 『승정원일기』 13책, 앞의 기사 ; 『승정원일기』 18책, 위의 기사.

24) 『토지불허차에관한문서』 76, 「경성동대문남측천변매사산지도(京城東大門南側川邊埋砂山地圖)」에서 1908년 동지 일대가 화전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봉희 외 2인,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327.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설을 조성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동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연못 부지를 매립하였다기보다는, 지형 특성으로 인해 매몰된 상태가 계속되다가 수축 공사를 할 여력이 없어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잊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1921년 동지 터 일대 지역

자료: 柏書房 編, 『(朝鮮總督府作製) 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 43.

## 2절 서지

### 1. 서지의 조성과 관리

서지는 1408년(태종 8) 4월 22일 돈의문 밖 서북쪽에 있는 모화루<sup>26)</sup> 남쪽에 연못을 파게 했다는 기록<sup>27)</sup>에서 조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하고 5월 19일에 서지를 완성해 개성 숭교사의 연꽃을 옮겨 심었다.<sup>28)</sup> 서지는 초기에는 모화지(慕華池)라 기록될 정도로 모화관과 연결되어 불렸으며, 태종도 서지 조성의 목적을 “상국의 사명(使命)을 위한 것”이라며 사신의 영접 기능이라고 단언한다.<sup>29)</sup> 태종은 1413년(태종 13) 도성 서문의

26) 모화루와 모화관은 동일 시설로, 모화루를 1430년 개축하면서 이름을 모화관으로 변경하였다.

27) 명하여 모화루의 남지를 파게 하였다. 命鑿慕華樓南池.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4월 22일 3번째 기사.

모화루의 남지가 서지와 같은 연못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태종 8년 5월 7일 기사에서 나온 모화루 남지의 규모가 서지와 동일해 같은 연못이라고 판단했다.

28) 모화루의 남지가 이루어지니, 부역한 대장·대부 4백 명에게 쌀 1석씩을 내려 주고, 구경(舊京)에 있는 숭교사 못의 연을 배로 실어다 심었다. 慕華樓南池成. 賜赴役隊長隊副四百米各一石, 船載舊京崇教寺池蓮種之.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5월 19일 3번째 기사.

위치를 모화관과 가까운 위치로 변경해 서전문을 설치할 정도로 도성과 모화관, 서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서전문은 1422년 돈의문을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면서 폐쇄되었지만, 서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도성 밖 서쪽 지역을 도성과 연결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지와 남지 조성이 후대에 비보풍수 차원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반면, 서지는 표면상 조성 목적을 사신의 영접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반면 1482년(성종 13)에는 한명회가 국도(國都)의 주산이 오행의 화산에 해당하므로 처음 도읍을 정할 때 모화관과 송례문 밖에 못을 파서 화재 위험을 진압해왔다고 말하면서<sup>30)</sup> 서지를 언급했다. 또한, 1546년(명종 1)에는 국초 조영한 동서남북의 못 중 하나로 서지를 분류하고 있다.<sup>31)</sup> 이들 문헌은 국초 비보풍수 차원에서 서지를 조성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서지에 대해 화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일컬은 내용은 한명회의 언급이 유일하고, 이후 대부분의 사료에서 지세를 보완하기 위한 못으로 언급한 것은 동지와 남지였다. 동지, 서지, 남지 모두 국초에 조성한 연지들이기에 함께 엮어져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서지는 조성 초기 모화지 또는 모화루의 남지로 칭했지만, 도성 밖 서쪽에 위치하기에 동지, 남지와 함께 서지로도 불렸고 조성 목적에서도 함께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서지는 연지를 조성할 초기 단계에는 수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sup>32)</sup> 앞의 내용

29) 내가 못을 파게 한 까닭은 조수(鳥獸)나 어벌(魚鼈)의 구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상국의 사명을 위해서 한 것이다. 予所以使鑿池者, 非爲鳥獸魚鼈之玩, 但爲上國使命而爲之也.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5월 7일 을묘 1번째 기사.

30)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우리 서울의 주산이 화산의 형국이기 때문에 당초 도읍을 정할 때 모화관 앞과 송례문 밖에 못을 파서 진압하게 하였는데, 신이 직접 본 바로는 병오년(세종 8년, 1426)부터 화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전자에 이중으로 하여금 요령을 가지고 길에 돌아다니면서 서로 경계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이 법을 회복하게 하소서.” 韓明澮啓曰: “臣聞‘我國都主山, 乃火山.’故當初定都時, 慕華館前及崇禮門外, 皆鑿池以鎮之. 以臣所目覩, 自丙午年, 火災不絕, 前者令里中, 持搖鈴徇道路, 使相警戒. 請復此法.” 『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1482) 11월 9일 2번째 기사.

31) 수구문 안의 동지가 황폐되었다 하니 수리하도록 하라. 대저 국도를 개설하는 처음에 동서남북의 못을 만든 데는 반드시 그 의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이를 절수한 자가 있다 하니, 빠짐없이 조사하여 전대로 못을 만들라. 則水口門內東池陳荒云, 修正可也. 大抵國都開設之初, 鑿東西南北之池, 必有意也, 今有折受者云, 無遺推之, 依舊爲池.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1546) 8월 23일 3번째 기사.

32) 모화루 남지의 역사를 감독하여 열흘이 넘어도 성취하지 못하고, 역도들은 피로하여 지쳤다. ... (사헌부에서) 못의 깊이와 넓이, 수맥의 유무를 살피었다. 홍이가 이를 알고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못이 모화루까지 1백 50여 보이고, 길이는 3백 80척, 넓이는 3백 척, 깊이는 두세 길[丈]이고, 수맥의 유무는 자네가 보는 바대로이다.” ... (종과 별균을) 더 징발하여 그 역사를 돕게 하였다. 못을 파기를 깊게 파니 그제서야 물이 나왔다. 監督慕華樓南池之役, 旬日未就, 役徒勞困. ... 密度池之深廣與水脈有無, 理知之, 謂二人曰: “池距樓一百五十餘步, 長三百八十尺, 廣三百尺, 深二三丈. 水之有無, 則在汝所見.” ... 助其役. 鑿池

을 정리하면, 1408년 4월 22일 연못 공사를 시작하고 길이와 너비를 정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나도 수맥이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못을 더 깊이 파 5월 7일 즈음에는 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이미 완공되어 개성에서 연까지 옮겨다 심었음을 알 수 있다. 수맥이 연결되기 전에 땅을 판 깊이가 2~3장(6.2~9.3m) 정도라고 하니 실제로는 깊이가 더 깊었던 셈이다.

서지 운영 초기에는 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공사 이후 서지는 도성 인근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연못이었다. 1424년(세종 6)에는 오히려 수심이 깊어 인명피해가 있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sup>33)</sup> 연못의 수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1546년(명종 1)에는 도성 인근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연못으로, 이곳에서 수차(水車)를 시험해보기도 했다.<sup>34)</sup>

서지는 1595년(선조 28) 임진왜란으로 연못이 시체로 가득했다고 언급되는 시기도 있었지만,<sup>35)</sup> 그 이후 1608년(광해 즉위년)에는 과거 인근 거주민이 반송지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sup>36)</sup> 내용이 있어 연못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32년(영조 8)과 1743년(영조 19)에는 일대의 우물과 서지의 수원이 말랐다고 기록되었는데, 여름철 비가 오기를 기다려보자고 한 내용도 있다.<sup>37)</sup>

1793년(정조 17)에는 서지와 바로 인접한 경기감영 중군영 내에 천연정(天然亭)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 서지가 도성 인근에서 연꽃을 감상하기 좋은 행락공간으로 유명했던 만큼 서지가 잘 조망되는 위치에 누정을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1836년(헌종 2)에는 천연정이 허물어지고 못도 많은 부분 매워진 상태였다고 한다. 경기관찰사가 재정과 역부 이전 명을 동원해 세 달간 천연정을 중수(重修)하고 연못 경계를 원래의 경계에 맞춰 확장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sup>38)</sup> 여기서 원래의 경계는 국초 조성 당시의 것이기보다는 주변 환경 개발로

既深，乃得水焉.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1408) 5월 7일 1번째 기사.

33) 모화루의 못 물이 깊어서 매년 사람이 빠져 죽으니, 그 동리 사람을 시켜 메우고 그 가운데 연을 심기를 청합니다. 慕華樓池水深，每年人物溺死。請令坊人填之，種蓮其中.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1424) 4월 24일 4번째 기사.

34) 호조가 반송지의 수량이 풍부하니 수차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청했다. 水車大小已成，京中無水可試，欲試於盤松池水.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1546) 4월 27일 계축 1번째 기사.

35) 변란이 있은 이후 모화관 못 속에는 시체가 가득 차서 더럽기 그지없으니 이곳에서 분향,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非徒此也，經變之後，慕華館池中，屍骸填滿，污穢已極，焚香祈禱，恐不可於此地行之.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1595) 4월 27일 기사 3번째 기사.

36) 임인년(1602) 3월 임해가 반송지(盤松池)에서 물고기를 잡다가...(중략) 壬寅三月，臨海捉魚於盤松池. 『광해군일기[정초본]』 1권, 광해 즉위년(1608) 2월 19일 병자 8번째 기사.

37) 『승정원일기』 41책, 영조 8년(1732) 3월 22일 기묘 19/19 기사 ; 『승정원일기』 52책, 영조 19년(1743) 5월 19일 신축 15/15 기사.

38) 정자는 정종(正宗) 계축년에 창건되어 사십여 년의 사이에 가끔 수리를 가하여 이제까지

일부 축소된 것에 가까워보인다. 그리고 1877년 『조선귀호여록』에는 서지의 당시 상태를 해엄치기에는 수심이 얇고 토축이 허물어졌다고[淺遊壤圯]<sup>39)</sup> 기록되었다. 이후 1886년(고종 23)에 서지의 토사를 파내 수축한 내용<sup>40)</sup>을 경기감영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지도 장원서에 속한 연지 중 하나로 동지와 같은 규정으로 연방, 연잎, 연근을 진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못에 물고기를 키워[養魚]<sup>41)</sup> 궁궐의 손님 접대와 연향(宴享) 행사를 담당하는 예빈시(禮賓寺)에 진상했다. 연못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왕실용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 주체로 볼 때 국초 연지의 조성 공사는 공조(工曹) 선공감(繕工監)에서 수행했다. 선공감은 도성 내 건축·토목 관련 신축 및 보수공사를 담당하기에 그 뒤로도 서지를 선공감에서 관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천연정중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후기에는 서지의 수축 관련 업무가 경기감영으로 이관되어 기영에서 서지의 운영을 담당했다.

대한제국기 1897년에는 독립협회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천연정을 수리했다.<sup>42)</sup> 여기서 독립협회는 천연정을 “독립관 기지(基址)”로 여기고 있었으며, 수리를 요청한 주체는 한성부였다. 협회에서 약 280m 정도 떨어진 천연정까지도 독립관의 영역으로 여겼다면, 당시 독립관 일대에 함께 계획하던 독립공원의 부지는 서지를 포함한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차츰 오래되어 기둥이 기울고 주초가 허물어지며 못도 메워지고 묵어 혹은 침범해 들어와 구전(區廛)을 만들기도 하니 눈에 가득 쓸쓸만 하여 지나는 자가 슬퍼하고 탄식하곤 하였다. 나는 부임하여 기보를 다스린 이듬해 병신(丙申)에 재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여 비로소 경영에 착수했는데 정실(亭室)의 위치는 하나도 더 늘린 바 없고 못을 파서 일천경(一千頃)을 만들어 다 이전 경계대로 돌려놓음과 동시에 제방을 빙 둘러 버드나무를 심었다. 무릇 재정은 천여 금을 들이고 역부는 이전 명을 사용하여 사월에 시작해서 유월에 가서야 공역(工役)이 완성되었으니 대개 정자나 못은 전규(前規)를 회복하고 구관(舊觀)을 폐함이 없게 하기에 힘썼을 뿐이다. 「천연정중수기」, 앞의 책.

39)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58의 원문 참조.

40)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광서 12년(1886) 5월일.

41) 모화루의 남쪽 못에서 양어(養魚)하는 진미(陳米: 묵은쌀)를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예빈시에서 진미를 가지고 연못의 고기를 기른다는 말을 듣고, 장무(掌務)를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였다. "한 달에 열 말을 소비합니다." 임금이, "쌀이 비록 묵어서 썩더라도 채소(菜蔬)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사람이 굶주리는데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고기에게 먹이는가?" 命輟慕華樓南池養魚陳米. 上聞禮賓寺以陳米養池魚, 召掌務問之, 對曰: "月費十斗." 上曰: "米雖陳腐, 不猶愈於蔬菜乎? 人有飢饉而不能救, 何以魚爲!" 『대종실록』 25권, 태종 13년(1413) 6월 20일 정묘 1번째 기사.

42) 1897년 6월 초5일 “천연정이 독립관 기지에 들어왔기에 한성부윤 이변연에게 알려(公札) 수리하는 일을 청하였더니 그 회답내용에 본 회(會)에서 수축보호하는 것이 좋겠다더라. 수리하여 보호하기를 요한다고 하였더라”는 내용이 있다. “會事記”,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4 ; 실제로 다음 달 회의록에서 천연정 수리비로 136원 23전 2리를 사용하였다는 집행내용이 있다. “本會 補助金 及 會報價收入表”,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6.



그리고 그 해는 그동안 서지를 담당해오던 경기감영이 이주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관리주체가 경기감영에서 한성부로 변화하였던 시기였고, 당시 한성부에서 공사를 독립협회에서 맡아주기를 언급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한편 1899년 신문 기사에서는 천연정 연못이 가뭄으로 물 한 점 없이 육지가 되었는데 이를 고치지 않는다고 지역민의 게으름을 탓하는 기사도 있었다.<sup>43)</sup> 이 당시 어떠한 경위로 복원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09년 신문기사에 천연정에 백련과 홍련이 개화한 모습이 묘사되어<sup>44)</sup> 다시 연못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매일신보 1914년 6월 5일, 1916년 8월 2일, 1917년 8월 3일, 1918년 8월 8일, 1919년 8월 6일, 1921년 4월 29일의 기사에서 여름철이면 서지의 연꽃과 천연정이 명승고적으로 소개되고, 『경성부사』에도 1927년 촬영한 사진(그림 4-3)이 전할 정도로 20세기 초까지도 서지는 잘 보존되어왔다.



그림 4-3. 1927년에 촬영한 서지의 연꽃

자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경성부사』 1, 82.

천연정 수리를 독립협회에서 담당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제국기 국가재정이 약화되면서 국가에서 담당하는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서지는 1908년경 기존에 왕실이 보유

43) 당시 천연정에 모여 복권 추첨을 기다리고 노름을 즐긴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중략) 일전에 새문밖 천연정 연못 압해서 그 계를 흐논디 한지가 텅심 흐야 연못은 물 혼덤이 업서 룯디가 되엿논디 여러 만명이 모히여 열식 다섯식 잡기판을 버리고 노름들을 하며 종일토록 각기 주그 일흠 불으기몬 눈이 썩지게 기다리고, (중략).” 『독립신문』 1899년 6월 22일 1,2면.

44) 新門外天然亭下蓮池는 自來紅蓮만 有흐디 今年은 無種白蓮三莖이 亭然開花흐얏더라. “紅白相咲”,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22일 2면.

하던 서지의 연근과 물고기에 대한 권리를 일본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토지허차·불허차 문서에서 1908년 3월 26일에는 하야시 이치로[林茂一郎] 등이 연근 배양을 위해, 1908년 4월 21일에는 홍종규가 양어를 위해 허차를 신청하였으나, 다른 이에게 먼저 허가되었다는 이유로 불허차한 기록이 있다.<sup>45)</sup> “연못을 팔아” 제목의 한 기사에서도 “새문(돈의문) 밖 냉동 연못을 이전부터 일인이 역부 수십 명을 파송해 그 땅을 파고 연근을 몰수해 갔는데 그 못을 어떤 사람이 일인에게 팔았다는 말이 있더라”<sup>46)</sup>는 내용이 있다.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구분하여 연지 내 연근과 물고기는 이용권을 허가할 정도로 유용한 소득원이었고, 대한제국기 그 이용권을 개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서지 부지는 소멸하기 전까지 국유지로 유지되었고, 식민지기에도 서지의 연꽃이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연근을 수확할 수 있다는 실용적 기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 2. 서지의 소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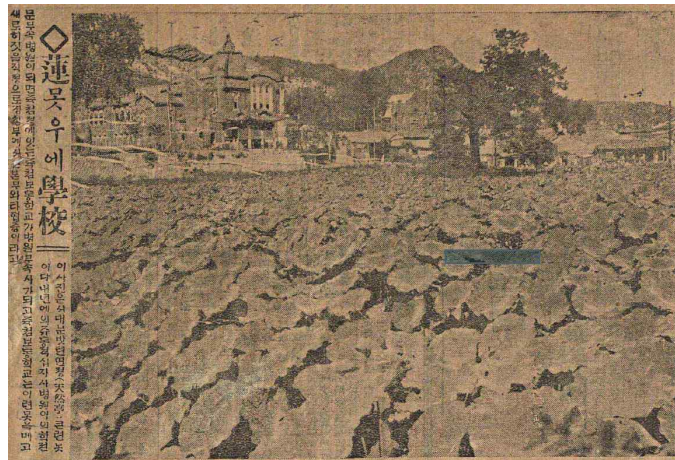


그림 4-4. 1918년 서지 연꽃 그림 4-5. 매몰 전 서지 연꽃 관련 기사

관련 기사

자료: 매일신보 1927.9.10.

자료: 매일신보 1918.8.8.

“연못우에 학교” 서지를 메우고 죽점보통학교를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설

“청풍에 흔들리는 연남” 신문발 명하고 있다.

턴연명에서

서지는 1927년까지도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행락공간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45) 홍종규가 양어를 위해 허차 신청하였으나, 타인에게 허차되었다는 이유로 불허차되었다. 「토지불허차에관한문서」 29-1 ; 하야시 이치로 등이 연근 배양을 위해 허차 신청하였으나 타인에게 허차되었다는 이유로 불허차 되었다. 「토지불허차에관한문서」 29-3; 전봉희 외 2인, 앞의 책, 275, 277.

46) “연못을 팔아”,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8일 3면.

1920년대 후반 「경성유람안내도」에도 명소로 표기되고 여름철 명승으로 신문에 자주 수록되었는데도,(그림 4-4,5 참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매립되었다.

그 이유는 학교의 이전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죽점공립보통학교는 학교를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원래 옮기고자 한 부지는 도수장(屠獸場) 부지로 서대문형무소 남쪽에 있는 땅이었다.(그림 4-6 참조) 학교 측은 도수장 부지가 약 2,800평으로 면적이 넓고, 무료로 땅을 사용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부지로 판단했다. 반면 경성부는 형무소 옆에 학교가 옮겨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학교 교육위원과 학부형들은 형무소 위치에 상관없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다.<sup>47)</sup> 1년간의 논의 끝에 1928년 경성부에서는 학교에서 요청한 땅을 주지 않는 대신 천연정 연못 약 이천 평을 메워 신축지로 주겠다고 했다. 그 이후 서지는 인근 하수도 공사에서 나온 흙을 사용하여 매립하기로 했고, 바로 공사가 시작하여 1929년에는 죽점공립보통학교가 이전하였다.<sup>48)</sup> 그리고 비어있던 도수장 부지는 1931년 서대문형무소에 매각되어 형무소 부지로 확장되었다. 죽점공립보통학교가 현재의 금화초등학교에 해당한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는 대경성 도시계획에 따라 경성의 범위를 확장해가던 시기였다. 서대문 밖 지역도 마포 등지까지 택지를 넓히고자 했다. 그중 서지 일대는 더욱 개발압력이 높았을 것이다. 서대문 밖 현저동, 천연동, 송월동이 신흥 주택지로 선호되기 시작하면서 1928년에는 버스노선도 형성되고,<sup>49)</sup> 1935년에는 확장된 서대문형무소 앞까지 전

47) “竹添公普校 新築問題로”, 『동아일보』 1928년 3월 24일 2면.

48) 시내죽점공립보통학교 이던 문대는 지급히 해결할 문대로 이전부터 학교비평의원은 서대문밖에 있는 이전경성부 도수장자리로 잇든 땅을 신축 용지로 사용하얏스면 조켓다고 결의 하고 대표로 박준호, 임흥순랑씨를 뽑아 일년을 남겨두고 경성부와 도청과 총독부에 자주 교섭하야 오든바 그간당국에서는 그위치가 형무소 부근에 잇다하야 지금까지 결말을 짓지 못하고 내려오든터이더니 지난 토요일 경성부원이 학교비평의원 임흥순씨를 청하야 그 땅은 총독부에서 주지못하겠다고하며 그대신으로 천연정연못 약이천평을 메워 신축디로 주겠다고 하얏슴으로 오래 끌든 이문데도 간신히 곳이나서 명춘해빙후부터 기공하야 십팔학급의 교사를 신축하리라 하며 연못을 메울흙은 그부근에 설시하기로 되어잇든 하수도공사를 닥어서 실시하야 거긔서 나는 흙을 사용하리라는데 이에 대하여 교섭의 책임을 지고잇든 임흥순씨는 흔연히 “오래동안 해결을 짓지 못하고 끄러만오든 죽점학교의 신축디를 천연덩으로 덩하게 되었스니 어찌반가운지 모르겠소이다 지금이라도 곳기공하얏으면 조켓습니다마는 땅을 메워야되겠슴으로 약반년간 연기를 면치 못하겠슴으로 기공은 래춘에나 되겠습니다 기공이연기되는 것은 유감이나 십팔학급의 큰학교가 서게될것이 하여간 반갑소이다”라고 하더라. “죽점공보교 신축지결정” 『동아일보』 1928년 9월 11일 4면 ; 시내죽점공립보통학교는 三十日부터 天然洞에 新築落成된 新校舍로 移轉開校하얏다더라. “죽점공보이전”, 『매일신보』 1929년 8월 31일 4면.

49) 최인영,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론, 2014), 112.

차선로도 연장되었다.<sup>50)</sup> 또한, 당시 신축가옥의 증가는 개발 정도의 척도가 되었는데 일대에 새로 짓는 가옥들도 많았다고 한다.<sup>51)</sup> 서지의 매립은 이와 같은 성곽 밖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계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택용지, 형무소 부지, 학교 부지의 확보라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서지 부지가 학교 부지로 결정되고, 또 그 당시 하수구 공사도 함께 진행중이어서 공사도 빠르게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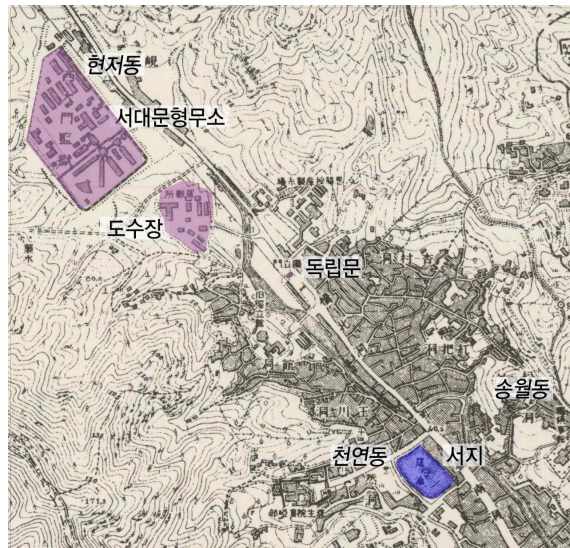


그림 4-6. 1920년대 서대문 밖 일대 지역  
자료: 柏書房 編, 『一萬分一 朝鮮地形圖集成』, 49.

### 3절 남지

#### 1. 남지의 조성과 관리

남지 조성은 성곽과 못의 관계나 여러 사료의 글을 볼 때 동지와 같이 성곽 조영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성곽은 1396년(태조 5)에, 송례문은 1398년(태조 7)에 완공되었다.

문헌상 남지 조성의 목적을 찾아보면, 남지에 대해 처음 언급한 기록은 1433년(세종 15) “과거 남대문 밖에 못을 파고 문안에 지천사(支天寺)를 두어 경복궁의 산세를 보완하고자 하였다”<sup>52)</sup>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국초 남서쪽으로 지세가 낮은 송례문 일대의 지형을 비

50) “西大門刑務所 앞까지 電車線路를 延長”, 『동아일보』 1935년 2월 28일 2면.

51) “市內에만 八個月間 新築家屋三千七百”, 『동아일보』 1935년 12월 18일 2면 ; “激增하는 大京城의 新家屋 九個月間 二千八百戶”, 『동아일보』 1935년 10월 12일 2면.

보 하기 위해 도성 내에는 시설을 배치하고 도성 밖에는 연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세종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송례문의 지대를 더 높이고 그 위에 다시 문을 설치하고자 하였다.<sup>53)</sup> 이후 1467년(세조 13), 1482년(성종 13), 1485년(성종 16), 1546년(명종 1)의 기록에서도 남지 조성의도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송례문 밖에 못을 판 것은 화기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기술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도성 남서쪽의 지세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54)</sup> 동지와 비슷하게 “기는 물에 임하면 머문대[氣界水即止]”는 지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도록 비보 연못을 조성하는<sup>55)</sup> 풍수적 전개를 도성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동지처럼 가산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세가 있으므로 주변 산림에 소나무를 조림하여 울창하게 가꾸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도성 남서 방향으로도 위요된 형상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남지가 자리한 위치는 성곽과의 관계나 수계와의 관계 측면에서 특수함이 있다.

52) 경복궁의 오른 팔은 대체로 모두 산세가 낮고 미약하여 널리 헤벌어지게 트이어 품에 안는 판국이 없으므로, 남대문 밖에다 못을 파고 문안에다가 지천사를 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남대문이 이렇게 낮고 평평한 것은 필시 당초에 땅을 파서 평평하게 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높이 쌓아 올려서 그 산맥과 연하게 하고 그 위에다 문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청파역에서부터 남산에까지 잇닿은 산맥의 여러 산봉우리들과 흥천사 북쪽 봉우리 등처에 소나무를 심어 가꿔서 무성하게 우거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景福宮右臂，大抵皆山勢低微，廣闊通望，無有抱局，故於南大門外鑿池，於門內置支天寺，爲此也。予以爲南大門如此低平者，必初掘土平之也。今欲高築，連其山脈，置門於上，如何？且自靑坡驛以至南山連脈諸峯及興天寺北峰等處，栽植松木，使之茂翳，如何？『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7월 21일 2번째 기사.

53) (중략) 남대문의 흙을 고쳐 쌓는 일과, (중략) 남대문 밖의 못에 돌 쌓는 일 등으로 요즘에 역군을 징발하게 하여, 경기·충청도는 이제 8월에 선군(船軍) 1천 5백 명을 영솔하고 와서 부역하게 되어 있사옵나이다. 南大門改築土, (중략) 南大門外池築石等項役人, 令調發京畿, 忠淸道今八月當領船軍一千五百名來赴.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7월 26일 정축 2번째 기사.

54) 『세조실록』 42권, 앞의 기사 ; 『성종실록』 148권, 앞의 기사 ; 최호원(崔灝元)이 상소하기를, “(중략) 국초에 정승 하윤은 사문의 종장으로서 나라의 원훈이 되었으며, 겸하여 술수학에 능통하여 여러 학의 임무를 맡아서 산천의 높고 낮은 데를 오르내리며 답사하여 드디어 한양에 도읍을 정하였고, 송례문 밖에 못을 파고 송인문 안에 산을 만들었는데, 모두 도선의 비보술을 썼으나 당시에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후세에도 다른 의논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건대 술수의 말을 역대에서는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괴이히 여기고, 술수의 선비를 역대에서는 모두 배척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논박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중략)” 崔灝元上疏曰: “國初政丞河崙, 以斯文宗匠, 爲國元勳, 兼通術數之學, 掌諸學之任, 陟降山川之高下, 遂定都漢陽, 鑑池於崇禮門外, 造山於崇仁門內, 皆用道說裨補之術, 當時以不爲怪, 後世更無異議. 臣愚以謂: ‘術數之說, 歷代不以爲怪, 而今則以爲怪, 術數之士, 歷代皆不見斥, 而今則論駁,’ 何哉?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1485) 1월 8일 2번째 기사: 이 문서에도 ‘송인문(崇仁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흥인문(興仁門)’으로 판단했다 ; 『명종실록』 4권, 앞의 기사.

55) 최원석, “한국의 전통적 경관보완론”, 『한국의 전통생태학』, 이도원 편(서울: 사이언스북스, 2004), 101.

흔히 성지라 하면 성곽 밖에 조성한 못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다른 읍성의 경우 성곽 밖보다 성곽 내부에 위치한 못이 5배 정도 더 많았다.<sup>56)</sup> 그리고 성곽 밖에 위치하더라도 성문과 인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못들이 많았다.<sup>57)</sup> 그렇기에 성곽 밖에 그리고 성문과 인접해 못이 조성된 것은 다른 읍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성부 남지의 고유 특성이다. 성곽과 못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성 내부에 못이 위치하는 것이 기능이나 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많지만, 한성부에서는 성문 밖에 조성한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 특성에서도 남지는 남산과 가깝기는 하지만 물이 흘러내려 오는 산자락과는 거리가 있으며, 무악천 수계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물이 쉽게 고이는 위치로 보기는 어렵고, 무악천과도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수계와 연결하기도 먼 거리였다.

여러 문헌에서 남지와 동지가 함께 일컬어지듯이 남지의 조성 목적은 동지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지가 수체계를 보완하는 실용적 기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면, 남지는 그보다는 도성의 상징적 못으로서의 가치가 조영에 있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곽 조영에 있어 못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만큼 성문중 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에는 못을 조성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동지는 흥인문 밖 동지로 불리기도 하지만 수구문 밖 동지로 불리는 경우도 많았고, 서지는 모화관의 남지로 말해져 이들은 연지 조성에 있어 성문과의 연관성보다는 일종의 기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반면 남지는 조성 단계에서 숭례문과의 연관관계가 주로 강조되고 있다. 그렇기에 수원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성문 앞에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지가 조성된 이후 관리된 과정을 살펴보면, 1433년(세종 15)에는 석축 공사를 하고자 계획하였다.<sup>58)</sup> 그러나 같은 시기 개축이 논의되었던 숭례문이 부역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미루어졌고 1447년에서야 공사가 시행되었던 것처럼, 남지의 석축 공사도 함께 늦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의 속성상 숭례문 개축공사가 흙을 쌓아 높이는 지형 공사였던 만큼 남지에서 파낸 흙과도 교환하기 유리했을 것이다. 즉 남지가 조성되고 50년이 지나 다시 수축하면서 방죽을 돌로 견고하게 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1467년(세조 13)에 벌써 연못물이 얇아진 상태로 기록된다. 동지도 비슷

56) 1757년(영조 33)~1765년(영조 41)에 전국 313개 지리지와 함께 편찬된 『여지도서』에 기록된 못들을 분류해보았다. 모두 130개소의 못이 기록되었고, 그중 성곽 내부에 위치한 못이 108개소, 약 83%에 이른다. 문용식 외 5인 역, 『여지도서』 총 50책(전주: 디자인하름, 2009)을 참고하여 정리함.

57) 성곽 외부에 위치한 22개소의 못 중 성문과 인접해 조성된 경우는 4개소에 불과하다. 문용식 외 5인 역, 위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함.

58) 남대문 밖의 못에 돌 쌓는 일 등으로 요즘에 역군을 징발하게 하여. 南大門外池築石等項役人. 『세종실록』 61권, 15년(1433) 7월 26일 2번째 기사.



한 상태여서 못을 깊이 파기를 제안하였다.<sup>59)</sup> 1470년(성종 1)에도 남지가 모두 메워져 수축 공사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우선순위에서 미뤄지게 되었다.<sup>60)</sup> 남지의 매몰 정도가 그 시기 수심이 낮아진 정도였는지, 그해 성현이 남지를 방문해 감상한 시문이 남아 있다.<sup>61)</sup> 1482년(성종 13)에도 한명회를 중심으로 화재가 계속되니 화산의 형국을 보완하기 위해 남지를 회복하자고 제안했으나 지리설에 불과하다고 허가하지 않았다.<sup>62)</sup> 그 이후 수축 시기가 언제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1498년 성현이 남지를 방문한 시문이 있으며 『용재총화』에서도 송례문 밖에 나가 연지에 방문한 내용이 있다.<sup>63)</sup> 또, 『한경지략』에서는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사사(賜死) 후 그의 집터에 연못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는데,<sup>64)</sup> 남지가 또다시 매몰되어 김안로의 집터로 사용되다가 1537년 즈음 다시 수축하였거나 김안로의 집이 경관이 수려한 남지 앞에 있었는데 집터를 매몰하여 그를 포함하는 범위로 남지 영역을 확장했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692년(숙종 18)에도 다시 남지는 흙이 메워져 물이 얕아진 상태였다고 한다. 왕이 남교(南郊)에 원행을 갔다가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남지를 보고, 비가와도 물을 저수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완전히 매몰되기 전에 수축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흙으로 메워지면 국가에 진상하는 연이 없어질 것을 걱정했다. 또한, 한성부에서는 못가가 평편해져 일부 부지에 민가가 들어섰다고 얘기하며, 이를 철거하고 연지를 수축하고 다시 연을 심기로 했다.<sup>65)</sup>

59) 『세조실록』 42권, 앞의 기사.

60) 『성종실록』 3권, 앞의 기사.

61) 시집의 시문이 시대순으로 작성된 데서 미루어볼 때 「남지의 연을 읊다[南池蓮]」 시문은 1470~1471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허백당시집(虛白堂時集)』 2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2008.

62) 『성종실록』 148권, 앞의 기사.

63) 밤에 남산, 송례문, 도로가 보이는 연못가에 앉아 감상한 시문이 있다. 작성 시기는 1498년으로 추정된다. 「여회, 유본과 함께 달밤에 연못가에서 술을 마시다[與如晦有本月夜臨蓮池飲]」, 『허백당보집(虛白堂補集)』 3 © 한국고전번역원 조순희 역, 2011 ; 송례문 밖으로 나가 연지 속에 태발(苔髮)이 물 위에 어지럽게 떠 있는 것을 보고 조리로 떠내어 구워놓고 하인을 보내 상사를 불러오게 하니, 상사가 이 말을 듣고 곧 왔다. 『용재총화(慵齋叢話)』 8 © 한국고전번역원 권오돈 김용국 이지형 역, 1971.

64) 유본예, 『한경지략』, 1쇄, 권태익 역(서울: 탐구당, 2016), 195.

65) 上曰, 南門外之蓮池, 東門外之蓮池, 當初開鑿, 意蓋有在, 而向於南郊舉動時見之, 則土填水淺, 有若陸池, 所植之蓮, 亦且不茂, 而雖得雨, 儲水必難矣. 申飭漢城府, 使之修築, 可也. 左議政曰, 南門外蓮池, 本屬於掌苑署, 故本署, 例爲移文京兆, 使之修築. 且其蓮實, 用於國用, 而今則久不修築, 土填池中, 所種之蓮, 絕無僅有, 令該府修築, 可矣. 判尹鄭維岳曰, 池邊公基, 閭民作家, 此亦可駭. 向因陵幸, 修治道路時, 欲爲撤去, 而報備局則不許, 故不得撤去矣. 今將修築蓮池, 則其冒入之家, 亦不可不撤去矣. 上曰, 蓮池幾至填塞, 所植之蓮, 甚爲稀疏, 速爲修改, 儲水, 可也. 池邊冒入之家, 亦爲撤去, 可也. 『승정원일기』 18책,

당시 풍문으로 전해지기로는 “허목(許穆, 1595~1682)이 대각(臺閣)에 들어갈 때 이 못을 뚫고(1657년으로 추정) 지금 또 이 못을 뚫는데 이 못을 파던 날에 정승(政丞)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복작(復爵) 되었다(1786년 또는 1792년으로 추정)”<sup>66)</sup>고 남인과 연관해 남지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했다. 남지가 실제로 매몰된 상태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토사를 제거하여 못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연지 운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지는 19세기 초 또다시 매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준흠(姜浚欽, 1768~1833)이 묘사한 남지의 상황도 매몰된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강준흠은 남지에 대해 “연꽃은 이미 다 죽고, 물의 흐름은 어염시장으로 어지럽혀진 상태[世久池中蓮已死. 流惡狼藉魚塭市]<sup>67)</sup>로 묘사했다. 남지기로회가 열릴 때의 남지의 모습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허망함을 말했다. 그리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어느 때에 그 못을 폐기하여 말려 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 터만 남아서 항상 습지(濕地)로 되어 있을 뿐이다. 계미년(순조 23, 1823년) 늦봄에 숭례문 밖에 사는 백성들이 돈과 곡물을 서로 거두어 이 말라붙은 못을 다시 파내고 물을 채워 한결같이 예전 모습대로 만들어 놓았다.”<sup>68)</sup>고 전하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공사하고 다시 물을 채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공역 사업의 주체에 있어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한성부의 여러 공역 사업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도성 내 하천의 경우도 대천이나 세천을 군영이나 군문에서 담당해 관리한다는 기본방침이 있지만, 천류가 민가 앞이면 민간이 수리·보수하기로 지정한 내용이 함께 언급된다.<sup>69)</sup> 남지의 경우도 숙종대 공사까지는 한성부에서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남지 일대가 민가로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남지의 관리주체도 민간이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수축 공사를 한 이후 남지는 소멸하기 전까지 잘 유지되었다.

남지도 장원서에서 관리하여 연꽃과 여러 부산물을 왕실에 진상하였다. 또한, 동지와 마찬가지로 쉽게 토사가 쌓이는 지형이어서 지속해서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지는 숭례문 앞에 자리 잡기에 공공의 감시하에 있는 연못이었다. 그렇기에 연지 운영이 잘 안 되면 빨리 파악할 수 있어 수축 공사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또한, 남지 수축과 관련

숙종 18년(1692) 7월 3일 경술.

66) 「이문과 흥인문에 대한 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논서류 1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1981.

67) 「한경잡영(漢京雜詠)」, 『삼명시집(三溟詩集)』 6.

68) 「이문과 흥인문에 대한 변증설」, 앞의 책.

69) 홍계희, 『국역 준천사실·주교지남』, 원영환 역(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 47-52 ; 『준천사실(濬川事實)』, 이왕가도서지장.



해서는 조선 중기까지는 공사를 한성부가 담당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인근에 민가가 조밀 해지며 인근 지역에서 남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 2. 남지의 소멸과정

매몰과 수축 과정을 반복하며 유지되어온 남지는 1907년 매립되어 소멸한다. 이의 배경으로는 1898년 전차가 도입된 것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전차가 성곽 내·외부를 연결하면서 초기에는 성곽이 그대로 유지된 채 성문을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여닫는 제도만 폐지 되었다. 그러나 점차 유동인구가 늘면서 성문 일대가 혼잡해지자 성곽 훼손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05년부터 190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성벽을 허물고 전차가 드나들 선로를 만들자는 여러 압력이 가해졌다.<sup>70)</sup> 고종대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한지 10일 만인 1907년 7월 30일자로 성벽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성벽 훼손이 시작되게 된다.<sup>71)</sup>

통감부에서는 1907년 10월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훗날의 다이쇼)의 서울 방문을 이유로 우선적으로 숭례문을 철거하는 작업에 중점을 기울였다. 9월 9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sup>72)</sup> 10월 5일에는 숭례문 북쪽 성곽을 철거하고 철거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남지도 매몰했다.<sup>73)</sup> 성곽이 없어지면 해자로 돌아간다는 말대로, 1907년 9, 10월경 성곽 훼손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 남지를 메우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후 남지가 있었던 자리는 일부는 도로로, 일부는 건물 필지로 나뉘어졌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 남대문통 5정목 1번지가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1번지 필지뿐 아니라 인접한 가로와 인접한 필지들도 남지 영역이었던 것이다. 1번지 필지는 191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서 필지가 1-1과 1-2로 더 나뉘는 등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당시 1-1번지는 소유가 남대문빌딩[株式會社南大門ビルデング], 1-2번지는 야치요생명보험주식회사[八千代生命保險株式會社]로,

70) 최인영, 앞의 논문, 30 ; 東南兩大門, 係是皇城通衢, 人肩相摩, 車馬輻湊. 況又電車貫通中間, 有難回避, 每多抵觸. ... 門樓左右城堞各八間毀撤, 俾爲電車出入之線路, 元定門一任人民來往, 恐無紛挐雜沓之弊.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1907) 3월 30일 양력 1번째 기사.

71) 城壁處理委員會에 關한 件. 第一條 城壁處理委員會는 內部 度支部 軍部 三大臣의 指揮監督을 受하야 城壁의 毀撤其他 此에 關聯한 一切 事業을 處理함.(중략) “閣令”, 『황성신문』 1907년 8월 8일 4면.

72) 『황성신문』 1907년 9월 9일 2면.

73) 東南兩大門城堞을 毀撤作路하야 人民來往을 便利케 한다 흙은 既報하얏거니와 南門北便城堞은 已爲着手起工하얏고 該門外蓮池도 取土填塞하얏더라. “毀城填池”, 『황성신문』 1907년 10월 5일 2면.

남지 위치에 대형 업무시설이 위치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식민지기 승례문에서 남지 터 방향으로 조망  
 자료: 「경성대관(京城大觀)」; 이경민, 『경성, 카메라 산책』, 174.  
 \* 「경성대관」은 히노데상행(日之出商行)에서 발행한 우편엽서 시리즈 중 하나이다.

## 4절 어의동지

### 1. 어의동지의 조성과 관리

연화방 연지동의 지명은 그 지역에 큰 연못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연지동이 실록에 처음 언급된 것은 1418년(태종 18) 조선조 문신이자 외척인 김한로가 연지동에 집이 있음<sup>74)</sup>을 애기한 데서 볼 수 있다. 이후 1446년(세종 28) 효령대군이 연지동 민가 10여 호를 매입해 집을 짓는다는 기록<sup>75)</sup>도 있다. 1493년(성종 24)에도 연지동에 왕자의 집이 있었고, 집의 간격에 대한 내용이 있다.<sup>76)</sup> 이를 통해 연지동 지명이 국초부터 사용됐고, 왕가나 주요 관리들이 선호하는 거주 지역이어서 궁궐과 가까운 현재의 연지동을 언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연지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기록은 1505년(연산 11) 궁궐 근처 인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종묘 “동측으로 연지의 예전 큰길[東則蓮池舊大路]”을 경계로 삼았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sup>77)</sup> 즉 1505년 이전부터 연지가 있었으며, 연지가 종묘 동쪽 지역에서 주

74)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1418) 5월 10일 기미 1번째 기사.

75)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1446) 3월 7일 갑술 2번째 기사.

76)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1493) 10월 7일 무진 2번째 기사.

77) 종묘의 3면에 있는 인가도 또한 마땅히 철거해야 하니, 동으로는 연지(蓮池)의 예전 큰길까지, 서로는 창덕궁 동행랑(東行廊)까지, 남으로는 큰길까지 한계를 지어 철거하고 담을 쌓아라. 且宗廟三面人家, 亦宜撤去, 東則蓮池舊大路, 西則昌德宮東行廊, 南則大路爲限撤去築牆. 『연산군일기』 60권, 연산 11년(1505) 11월 18일 기해 4번째 기사.

요 지물로 역할 했음을 알 수 있다.

연지동의 유래에서 어의동지가 1418년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면, 어의동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가정해볼 수 있다. 하나는 개국 초 도성의 수공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지를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국초 한양도성에는 동지, 서지, 남지와 경회루지가 조성되었다. 그중 동지와 남지는 국초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서지는 1408년(태종 8), 경회루지는 1412년(태종 12)에 만들어졌다. 도성 내 개천의 개착(開鑿) 공사는 1406년(태종 6)과 1412년에 이루어지고,<sup>78)</sup> 경복궁 안 수계는 1411년(태종 11)에 개통되었다. 태종대 비슷한 시기에 못을 조성하고 개천을 정비하는, 도성의 수체계를 조절하는 공사가 함께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의동지도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물웅덩이 같은 연못을 이후 도성의 수공간으로 정비하면서 ‘지(池)’로 정비<sup>79)</sup>한 것을 들 수 있다. 연지동이라는 지명이 국초부터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을 보면, 과거 연지가 해당 지역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전부터 연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앞의 환경 특성에서도 어의동지가 기수 산자락 계곡부에 있어 물이 모이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어의동지가 있는 동촌 지역은 조선 후기 한성부의 인구밀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지로 사용된 필지가 많았다. 상업적 농업이 이윤이 높다는 사회경제적 원인<sup>80)</sup>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택지로 쓰기에 지반이 습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이 지역에 정책적으로 지역주민에 특혜를 주며 민가를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식민지기 초반까지도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는 많은 필지가 밭으로 남아있었다. 낙산과 기수 사이는 좁은 면적으로 물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흥덕동천으로 흘러내리는 수계가 많은 데서 범람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종로 가까운 남쪽까지 길게 내려온 구릉은 종로로 갑자기 물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대 종로 행랑 뒤편으로 구거를 파 종로 북쪽과 남쪽에서 직접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듯이, 어의동지도 구릉 자락 아래에서 물을 저류하는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못과 개천의 공사는 국가의 주요 공역 사업으로 여겨져 연대기자료에 간략히라도

78)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3월 28일 무오 1번째 기사 ;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1412) 2월 15일 경오 1번째 기사.

79) 전주 덕진연못은 고려시대까지는 덕진연(德津淵)으로 불리다 조선대 제방을 다시 쌓으며 덕진지(德津池)라 불리게 되었다.

80) 동촌에 농업이 발달한 원인으로 상업적 근교 농업(채소 농업)이 벼농사보다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3쇄(파주: 태학사, 2013), 176.

언급되는데, 어의동지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록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어의동지는 당시 연지동 일대에 자연적으로 커다란 못이 있었고, 태종대나 세종대 도성의 수체계를 정비하면서 연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의동지 관련해서는 연지 수축에 관련한 기록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의동지가 국초에는 연지동 연지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1794년(정조 18)에는 『장원서등록』에 어의동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조선 후기 발행된 지리지에서 한양의 동지로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경지략』에서는 “동지는 창경궁 동편 연동에 있다”고 했고, 『대동지지』에서는 “동연지는 연화방에 있다”고 기록했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 밖 동지보다 어의동지가 더 잘 관리되었다고 판단되며, 연지동에 있는 연못의 이름도 어의동 지명을 바탕으로 변화했다.

조선 후기 연지동 연지가 어의동지로 자리 잡게 되고 한성부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배경으로는 어의궁 구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1631년(인조 9) 봉림대군 저택이 조성되고, 그와 마주한 위치에 1641년(인조 19) 인평대군방(麟平大君房)이 건설되었다. 이후 어의동지 구성에 대해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이 거주할 때 별당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sup>81)</sup>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지는 동촌 일대가 왕가 가족의 거주지로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다시 정비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봉림대군 저택은 어의궁<sup>82)</sup>으로 왕실 별궁으로 활용되었고, 1638년(인조 16)부터 1851년(철종 2)까지 2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차례나 왕실의 가례 장소로 사용되면서<sup>83)</sup> 중요성이 높아졌다. 동촌에서 어의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연지 이름도 어의동지로 일컫게 된 것이고, 또한, 어의동지는 종로에서 어의궁으로 이동하는 길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연지도 함께 잘 관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어의동지의 소멸과정

어의동지는 남고(南阜, 1807~1879)가 19세기 후반 방문하고는 “연은 없고 연못도 폐기되었다[蓮亡塘亦廢]”고 해 이 시기 연못이 잘 유지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당시 어의동지 부지는 구 연지 터로 연지 영역은 기억되고 있었지만 이미 쓰레기 수거지[오

81) 지금의 동지는 역적인 복창군 이정과 복선군 이남의 옛 집터에 만든 것이라 한다. 아마도 조양루와 석양루 두 누각을 가까이 이어놓고, 왕실의 지친(至親)이 내려와서는 바깥 별당으로 삼은 것이다. 유만주, 『일기를 쓰다』, 김하라 편역(파주: 돌베개), 2: 189.

82) 봉림대군 저택이 어의궁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인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1670년(현종 11) 어의동별궁(於義洞別宮)으로 불린 기록이 있어, 이 이전 시기에 어의궁으로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1670) 12월 26일 기유 1번째 기사.

83) 송인호·조은주, “조선 별궁 어의궁(용흥궁)의 도시 위상과 영조의 친영”(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5), 2011), 146-147.

예장, 汚穢場]로 사용되고 있었다.(그림 3-28,29 참조) 따라서 어의동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매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08년 도면에서 연지 터로 그 형태와 규모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었고 1913년까지도 국유지로 지속하였기 때문에, 연지 영역은 주변 다른 필지와는 구분되어 기억되었고, 연지가 소멸하고도 본격적으로 다른 용도로 개발되기 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901년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에서는 동대문 내 한성부 동서(東署) 창선방<sup>84)</sup>의 대연지(大蓮池)와 소연지(小蓮池)를 다시 수축하자는 내용이 있다. 비용 문제로 공사는 못 하지만 표석을 세워 연못 경계를 표시해놓기로 했다.<sup>85)</sup> 규모를 볼 때 이 중 창선방의 대연지는 어의동지에 관한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연지 수축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연지 복원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연지 터를 기억하기 위해 표석을 설치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서지 옆 천연정 수축 공사는 한성부에서 직접 부담하지 않은 한편 어의동지에 대해서는 관리한 데서 보이듯이, 한성부에서는 관리대상으로서 도성 내 연지를 더욱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5절 경모궁지

### 1. 경모궁지의 조성과 관리

경모궁은 정조대 개축하면서 궁의 규모를 증설할 뿐 아니라 주변의 경관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모궁 안팎으로 매년 많은 나무를 심고 수목을 지속해서 관리하였다. 원래 있던 꽃과 과실나무, 잡목의 수를 조사했고, 그 이후 매년 봄·가을 나무를 심었다. 심은 뒤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두어 ‘식목안(植木案)’에 수목의 상태를 기록하며 관리를 한다. 궁 내부뿐 아니라 궁 밖 오른쪽 산록, 외안산, 함춘원, 유근문 밖에도 함께 나무를 심었다. 1777년(정조 1) 궁 안부터 심기 시작하여 『경모궁의궤』의 편찬 시기인 1784년 이전까지 심은 나무 수가 16,800여 그루에 달한다고 한다.<sup>86)</sup> 또한, 궁문 좌우에 직방을 설치하고 교

84) 이 시기에는 행정구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재의 지역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어의동지를 표기한 토지불허차·허차 문서에서도 이 지역을 연화방, 정선방, 창선방으로 혼동하여 기록하였다.

85)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 18책 중 “서울 東署 昌善坊 대·소 蓮池와 朝陽樓·栗木亭에 표석을 세우는 비용에 대한 예산외 지출 청의서”, “1901년 3월 22일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陸軍副將 閔丙奭→議政府參政 趙秉式 발수신 문서” ; 『황성신문』 1901년 1월 23일 4면 2단 ; 『황성신문』 1901년 4월 5일 2면 3단 참조.

86) “나무 심은 데 대한 설명[植木說]”, 『경모궁의궤』 4 © 한국고전번역원 박헌순·오세옥 역, 2013.

량도 새로 정비하였다.

경모궁지는 경모궁을 조성한 후 6년 뒤 경모궁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다. 『경모궁의궤』에는 “임인년(1782, 정조6) 봄에 밭을 파서 못을 만들고 연을 심었다. 그리고 밭 주인 천만중을 연지기로 정하였다. 훈련대장 구선복이 명을 받들어 못을 팠다 [壬寅春鑿田爲池而種蓮, 以田主[千萬重], 仍定蓮直. 訓將具善復承命疏鑿]”<sup>87)</sup>고 기록되어 있다.

구선복(具善復, 1718~1786)이 연못 공사를 한 내용은 승정원일기에도 기록되었다. 1782년(정조 6) 2월 22일에 “경모궁 청룡 변이 지세가 지저분하고 낮다. 흙이 두터워 진 흙탕과 같아 연못을 파 물을 저수하고자 한다”고 제안하였고, 정조는 시행하도록 허가했다.<sup>88)</sup> 그리고 4월 10일 연못을 파기 시작했다.<sup>89)</sup> 즉 경모궁지는 경모궁 조성과 함께 계획되었다기보다는, 경모궁 일대를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습지를 못으로 파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모궁지는 조성 후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는 연지의 제방을 석축으로 다시 만드는 데 대한 의견이 지속해서 대두하였다. 1798년(정조 22)에는 경모궁지의 훼손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법식에 따라 제방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연못이 큰 빗물에 자주 넘쳐 무너지고 침식되니 석축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90)</sup> 정조는 공사를 허가하였으나 실제로 작업이 시행되지 못했는지, 그 이후 1801년(순조 1)에도 삼영(三營)에 분부해 경모궁 남쪽 산기슭을 보토했으면서 함께 경모궁지의 석축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왔다.<sup>91)</sup> 1806년(순조 6)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sup>92)</sup> 실제로 공사가 완료된 것은 1806

87) 「궁지도설」, 『경모궁의궤』 1 © 앞의 역자.

88) 善復曰, 景慕宮靑龍邊, 地勢汚下, 土甚泥濘, 鑿池貯水, 亦甚宜矣. 上曰, 言甚便好, 卿其看審爲之, 可也. 『승정원일기』 82책, 정조 6년(1782) 2월 22일 기축 27/29 기사.

89) 鑿池看役牌將旗牌官張光郁·劉漢相. 『승정원일기』 82책, 정조 6년(1782) 4월 10일 병자 23/35 기사.

90) 民始曰, 景慕宮蓮池隨毀隨補事, 曾有定式, 自該營, 以編結隄防, 隨其潦水之泛濫潰嚙, 或一二年或四三年一次爲之, 而非但物力之難支, 亦恐有難防之慮. 今若一番筵稟後, 以石築代行, 則容入物力, 不過四千兩, 而此可當十年編結之費矣. 上曰, 事近張大, 姑當商量爲之, 而今年則雖不爲編結, 足可挨過耶? 民始曰, 若不爲之, 則來頭土解潰決之時, 實有難遏之慮, 編結則不可不爲之矣. 今初八日, 自該營欲爲始役, 而姑待秋展謁後爲之, 故今姑停止云矣. 上曰, 秋展謁後始役事, 分付, 可也. 『승정원일기』 95책, 정조 22년(1798) 7월 11일 계유 24/25 기사.

91) 行恁曰, 景慕宮南麓補土及北池石築, 曾有成命矣, 見今土脈融解, 政合肇役, 分付三營, 使之擇日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승정원일기』 97책, 순조 1년(1801) 2월 16일 임술 25/25 기사.

92) 文淳進前曰, 辛酉以景慕宮南麓補土及北池石築事, 因本宮提調所奏, 復有成命, 南麓則已爲補土, 而北池則未及石築矣. 見今土脈融解, 正合始役, 分付三營門, 使之擇日舉行, 何如?

년 4월 17일로, 연못의 석축 공사를 마쳤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다.<sup>93)</sup> 연못을 판 흙으로 경모궁 산기슭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함께 공사가 이루어져[景慕宮南麓補土及北池石築] 흙의 이동을 최소화해 공사 효율을 높였다.

경모궁지는 다른 네 곳의 연지들과는 달리 경모궁에 등록된 연지기[蓮直]가 관리하고, 궁지의 연실(蓮實)도 경모궁으로 진상하였다. 경모궁은 진상 받는 별도의 밭[景慕宮田]이 있을 정도로 왕실 재정과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연지기는 경모궁지 조성 전 원래의 밭 주인으로 정하였다. 연지기는 경모궁에 1명 배정되었고, 본래의 싯[本料] 외에 3말을 더 지급받고 본역(本役)에서도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sup>94)</sup> 그런 만큼 새로운 공역 사업 시 원주민을 고용하여 보상과 혜택을 주는 정책을 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실을 진상하는 과정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복(守僕)과 동산지기(東山直)가 감독하여 따고 봉진한다. 진상할 때는 수복이 동산지기와 함께 나간대[陪進]. 철마다 익기를 기다려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봉진한다.<sup>95)</sup> 경모궁지는 제향의식에서 궁지가 별도의 기능을 하였다기보다, 연실을 수확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의 여러 부산물 중에서 연실을 기록한 것은 약용재로서 연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경모궁지 조성 후의 보수공사들은 삼군영(三軍營: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서 담당하였다. 삼영이 공사를 담당했던 것은 경모궁지를 중요하게 관리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조대 준천 공사와 비교해볼 때, 대천은 삼영이 협력해 수리/개축하고 세천은 관할 구역의 군문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실록에서 삼군영이 담당했다고 기록된 공사는 창덕궁, 창경궁, 개천, 도성, 북한산성 정도에 불과하다.<sup>96)</sup>

## 2. 경모궁지의 소멸과정

조선 후기 조성되어 유지되어온 경모궁지는 식민지기 초반까지는 국유지 연못으로 그대

上曰, 依爲之. 『승정원일기』 101책, 순조 6년(1806) 2월 15일 계사 39/39 기사.

93) 以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言啓曰, 景慕宮北池石築, 今已畢役之意, 敢啓. 『승정원일기』 101책, 순조 6년(1806) 4월 17일 을미[갑오] 20/22 기사.

94) 「술속, 노비(率屬, 奴婢)」, 『경모궁의궤』 4.

95) 宮內外各種果實進上時, 宮內則宮司監摘, 宮外右麓及越邊空堡, 則守僕及東山直眼同監摘, 宮司看審封進. 宮案山植木中果實及宮池蓮實, 亦爲進上.[監摘, 封進如右麓例. 進上時, 守僕與東山直陪進.] 櫻桃. 黃杏. 丹杏. 六月桃. 林檎. 李實. 生梨. 七月桃. 棗. 生栗. 蓮實.[隨時待熟, 不拘多寡封進.] 「사전(祀典)」, 『경모궁의궤』 2.

96)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1746) 12월 6일 정묘 3번째 기사 ;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1876) 11월 9일 병인 1번째 기사 ;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1879) 11월 21일 경인 1번째 기사 참조.

로 계승되었다. 1912년 토지조사부와 1913년 지적원도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191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 의하면, 지목은 연못[池沼]으로 같지만 소유자가 개인(아카하기 요사부로, 赤萩與三郎)으로 되어 있어 이 시기부터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년 뒤 1927년 지적목록에는 밭으로 표기되어 그 사이 기간에 연지가 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연못이 유지된 것은 한구동(韓龜東, 1908~2000, 조선약학교 본과 7회 졸업) 교수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이 7~8세(1914~1915년경) 되던 어린 시절 지금의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글방(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에 가면서 연실을 따먹은 추억이 있다고 글을 남겼다.<sup>9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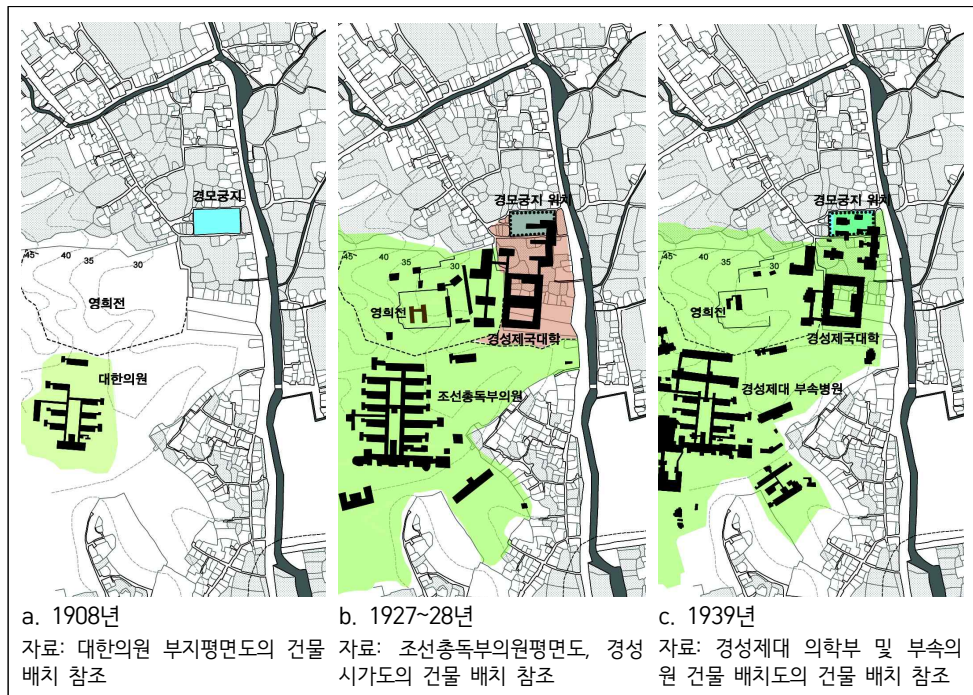


그림 4-8. 병원 입지로 인한 경모궁과 경모궁지 일대의 변화  
자료: 1913년 지적원도를 기본 도면으로 사용하여 필자 작성

경모궁지의 현재 위치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내부여서, 학교 부지의 확장과정을 살펴

97) 내 나이 7~8세 되던 어린 시절 이 근방(지금의 의대 구내 보일러실이 있는 자리)에 있던 글방(서당)에 다니다가 10살 때 지금의 효제국민학교(그 당시 於義洞公立普通學校)에 들어 갔기 때문에 소년 시절을 거의 이곳에서 보냈으며 대학교수가 되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 온 지 어언 20여 년, 글방에 다닐 때(의과대학 보일러실이 있는 곳은 연못이었음) 연밥(蓮實) 따먹다 선생님에게 종아리 맞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서울 대학과 함께(관악으로 이전하니까) 또다시 이곳을 떠나게 되니 그 감회를 무엇이라 형언할 길이 없다.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164, 『경향신문』 1974년 4월 9일 4면.



보면 언제 연지가 소멸한 것인지 좀 더 확인할 수 있다. 설립 당시 대한의원은 영희전과 떨어져 조성되었지만, 1910년 조선총독부위원으로 개칭되고 이후 병원의 규모도 점차 확장되면서 영희전 부지도 변하기 시작했다. 1911년 영희전 및 부속건물이 의원에 이관되었고 영희전 영역 내에도 병원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 개교하였다. 일부는 기존 총독부병원 부지를 대학교지로 전환하였고, 일부는 땅을 매수하였다고 한다. 경성제국대학이 매입한 부지 중에 경모궁지 부지가 포함되었다. 매입 전에 연지가 소멸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경모궁지 위치가 학교 부지가 된 것은 분명하다. 동아일보 1936년 3월 21일 기사에서도 최근까지 있던 연못이 경성제대 의학부 마당이 되어 없어졌다고 언급하였다.<sup>98)</sup> 이후 경모궁지 부지에는 의화학(医化學, 생화학) 교실, 동물사(動物舍), 기계실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그림 4-8 참조)

## 6절 소결

5개 연지 중 가장 먼저 조성된 연지는 동지와 남지로, 국초 성곽과 함께 조성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태종대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수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서지가 조성되고 어의동지가 정비되었다. 그중 동지와 남지는 매몰되기 쉬운 환경 특성으로 세조대와 성종대 물이 얕아지거나 매몰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수축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명종대 국초 조성한 이 연지들에 대해 재조명하며 다시 못 경계를 명확히 하고 수축 공사를 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 인조대 도성 내 동촌 지역에 왕가 저택이 건축되고 왕실 별궁으로 사용되면서 인근 어의동지도 함께 관리되었다. 그리고 숙종대에는 다시 동지와 남지 수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정조대에는 도성 내에서 다소 발전이 지연된 동촌 지역에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경모궁지가 조성되었다. 이때가 5개 연지가 모두 운영되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각기 자리 잡은 위치 특성에 따라 다른 원인으로 소멸하기 시작하였다.(그림 4-9 참조)

98) 『동아일보』 1936년 3월 21일 2면 기사에서는 “연지동 연못이 하도 조아서 연못풀이라 이르든 곳으로 이 연못은 근년까지 있던 것이 지금은 경성제대 의학부 마당이 되어버려 그 자취도 없어 졌다”고 기록했다. 연지동 연못과 이 연못을 연관하는 것은 어의동지가 사라진 후 동명의 유래가 혼재되어 잘못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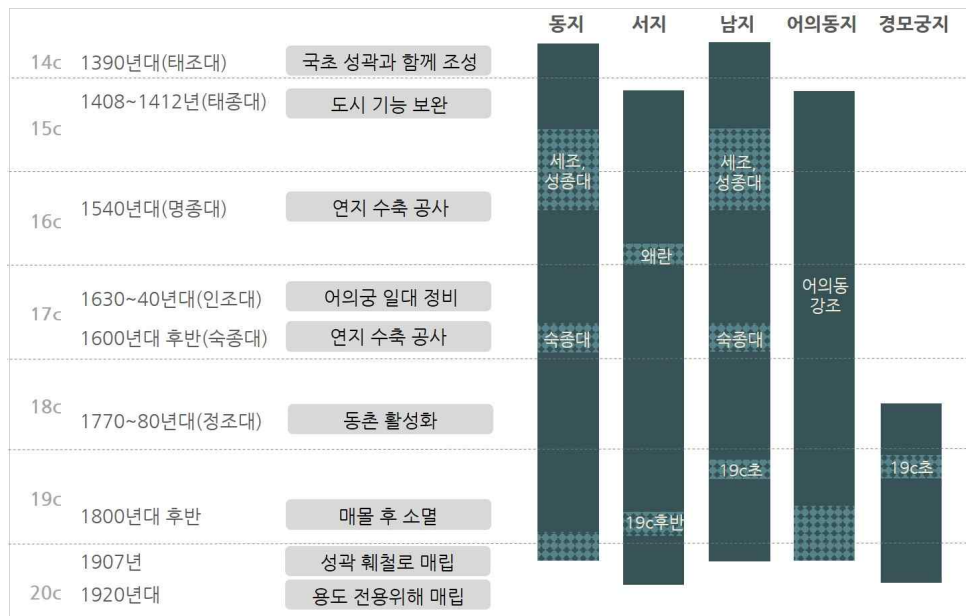


그림 4-9. 5개 연지의 주요 변화

이들 연지의 조성과 관리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특성은 연지는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자주 매몰되었으며, 그 터는 공유지로 되어 있어 언제라도 공사를 하면 다시 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연지 터라고 공유되는 인식이 있었다. 그렇기에 소멸한 시기가 길어도 해당 장소에 다시 연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연지의 수축 공사에서는 흙의 이동을 중요시하였다. 연지를 조성하거나 다시 파는 공사를 할 때, 연지 공사와 다른 공사를 함께 하였다. 조성 당시 동지와 남지는 연못 공사와 성곽 조영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의 수축 공사 과정에서 동지는 연못 공사와 함께 가산을 조성했고, 서지는 천연정 공사를 같이 시행했다. 남지는 승례문 지대를 높였으며, 경모궁지는 궁의 안산을 성토하면서 산세를 보완했다. 필요한 공사를 함께 진행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개천, 거리, 교량, 조림 등의 공사와 마찬가지로, 연지 공사는 공역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공사 기관은 연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백성들의 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 만큼 공사는 신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지 조성에 있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갖추어 공사하기 보다는, 처음에는 흙으로 못을 파고 이후 연지가 훼손되면 다시 석축으로 공사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역 가중이 높을 때는 공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공역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도 주변에 민가들이 많이 들어서면 지역 거주민이 공사를 담당하게 되어, 공역 공사의 부담을 낮추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연지의 관리를 담당한 기관은 다르지만, 연지를 운영하여 연방, 연실, 연잎, 연근을 수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과원에 유실수를 키워 과실을 수확하는 것처럼, 연의 부산물을 수확하여 전각, 궁, 승정원, 내의원에 진상하는 것이 연지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연 수확물은 특히 약재로서의 효용이 강조되었다.

연지들은 조성 목적에서는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동지와 남지는 도성의 형세를 비보 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그중 동지는 수계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유수지 기능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했다면, 남지는 그보다는 도성의 연지로서의 상징성을 더욱 염두에 두고 승례문 바로 앞에 조성되었다. 서지는 사신을 영접하는 기능으로, 어의동지는 물을 저류하는 유수지 기능으로 조성했으며, 경모궁지는 습지를 못으로 조성하여 환경을 정비하였다.

조선시대 매몰과 수축 과정을 반복하며 계속 유지됐던 연지들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소멸의 원인도 연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서지와 남지는 특정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매립했다. 동지와 어의동지는 토사가 쌓이면서 연지가 폐기되었고, 이를 다시 수축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모궁지는 토사로 매몰되었거나 학교 부지로 활용키 위해 매립하였을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볼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들 연지는 가로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평탄한 지형에 넓은 면적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쉽게 매립을 결정하는 대상이 되었다. 근대기 과정에서 더는 수축 공사를 진행하지 않든지, 또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몰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해오던 연지 터는 소멸하게 되었다.

연지별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연지별 조성 및 관리와 소멸과정 비교

구분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조성 시기	◦ 국초 성곽조성과 정에서 조성	◦ 1408년(태종8)	◦ 국초 성곽조성과 정에서 조성	◦ 국초 물이 고여 있던 지역을 ‘池’로 정비했을 가능성	◦ 1782년(정조6)
조성 목적	◦ 관활한 수구 비보 ◦ 성지로서 조성 ◦ 영미정동천의 개천 합류를 지연	◦ 사신 영접의 기능 ◦ 도성 밖 서쪽 지역의 비보	◦ 지세가 낮은 도성 남서쪽 지형 비보 ◦ 도성의 상징적 못으로의 가치 부여	◦ 저습지 활용 ◦ 물을 저류하는 유수지 기능	◦ 경모궁 청룡변 지세 보완 ◦ 습지를 못으로 활용
조성 공사 내용		◦ 초기에 수원 확보에 어려움 ◦ 공사기간 한 달 정도 소요			◦ 진흥당과 같은 부지에 조성
매몰	◦ 1467년(세조13)	◦ 1836년(헌종2):	◦ 1467년(세조13)		◦ 1798년(정조22):

상황	~1547년(명종2): 매몰되어 밭으로 전용 ◦ 1678년(숙종4)~1692년(숙종18): 화전으로 전용 ◦ 20세기 초: 화전	못이 메워진 상태 ◦ 1877년(고종14): 수심 얇고 방죽 허물어진 상태 ◦ 1899년(고종36): 서지가 육지화 됨	~1470년(성종1): 수심이 얇아짐 ◦ 1482년(성종13): 매몰 상태 ◦ 1692년(숙종18): 물이 얇아짐 ◦ 19세기 초: 매몰된 상태		연못 훼손
수축 공사 내용	◦ 1547년(명종2): 밭을 되찾아 수축 공사 계획 ◦ 1692년(숙종18): 한성부가 수축	◦ 1793년(정조17): 천연정 신설 ◦ 1836년(헌종2): 천연정 중수, 서지 경계 원래대로 확장 ◦ 1886년(고종23): 서지 토사 수축 ◦ 1897년(고종34): 천연정 수리 ◦ 1908년 이전 수축	◦ 1447년(세종29): 승례문 개축과 함께 석축 공사 ◦ 1692년(숙종18): 민가 철거, 연못 수축, 연 식재 ◦ 1823년(순조23): 지역주민이 공사	◦ 1901년 수축 공사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 1806년(순조6): 석축 공사, 못의 흙으로 경모궁 산자락 성토
관리 주체	◦ 장원서, 동지 담당 연못지기 배치	◦ 장원서, 서지 담당 연못지기 배치 ◦ 1908년 양어, 연근 권리 매매	◦ 장원서, 남지 담당 연못지기 배치	◦ 장원서, 어의동지 담당 연못지기 배치	◦ 경모궁, 경모궁에 등록된 연지기
공사 주체	◦ 한성부	◦ 공조 선공감→경기감영→한성부	◦ 한성부→민간	◦ 한성부	◦ 삼군영
운영 목적	◦ 연방, 연잎, 연근을 전각, 세자궁, 승정원, 내의원 진상	◦ 연방, 연잎, 연근을 전각, 세자궁, 승정원, 내의원 진상 ◦ 양어 예빈시 진상	◦ 연방, 연잎, 연근을 전각, 세자궁, 승정원, 내의원 진상	◦ 연방, 연잎, 연근을 전각, 세자궁, 승정원, 내의원 진상	◦ 연방 경모궁으로 진상
소멸 시기	◦ 20세기 초로 추정	◦ 1928년	◦ 1907년	◦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추정	◦ 1917~1927의 시기
소멸 원인	◦ 토사가 계속 쌓이고 범람이 자주 일어나면서 지형상 매몰되었을 가능성	◦ 학교부지로 이용	◦ 성곽훼손과 함께 매립 ◦ 일부는 도로도, 일부는 업무시설로 변화	◦ 토사 매립 ◦ 이후 밭으로 사용되다가 학교부지로 편입	◦ 밭으로 매몰되었거나, 학교 부지에 편입되면서 개발



## 5장 연지의 이용과 경관 감상

## 1절 동지

### 1. 동지의 이용 양상

동지에 대해 묘사한 옛글에서 동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찾아보면, 동지 가에 가까이 접근하기보다는 멀리서 조망하며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지 일대는 평탄한 지형이 넓게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낙산, 상산, 안암의 산들이 있어 동지를 조망하기 좋았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낙산 자락에 자리 잡은 비우당(庇雨堂) 자택에서 동지를 조망하며 팔경 중 하나로 꼽았다. 비우당의 위치는 그의 다른 글 「동원비우당기(東園庇雨堂記)」에서 언급되었다. 글에서는 “흥인문 밖 낙봉(駱峯) 동쪽 구석진 곳에 산이 있는데 상산이라고 불리며, 이 상산의 한 자락이 구불구불 남쪽으로 뻗어 나와 마치 읍(揖)을 하고 있는 형상을 한 곳이 지봉(芝峯)으로, 깊고 아늑한 데다 넓어서 숨어 살기 좋다”<sup>1)</sup>고 비우당이 상산에서도 더 내려와 지봉이란 곳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비우당에서 여러 경관을 조망하며 「비우당팔영(庇雨堂八詠)」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로 ‘동지세류(東池細柳)’로 동지의 버드나무 경관을 꼽았다. 또한, 허목(許穆, 1595~1682)도 「오사구동교별업기」<sup>2)</sup>에서 전 형조참판 오공(吳公)이 동쪽 교외에 새로 지은 별장인 귀래당(歸來堂)에서 바라본 동교 일대의 전경을 묘사했다. 귀래당은 동쪽 성문 밖 적전(籍田) 서쪽 안암(安巖)에 위치했다. 안암에서 내려다본 경관 중 동지도 함께 묘사되었다. 정선(鄭澈, 1676~1759)의 「동문조도(東門祖道)」도 도성 내 산자락에서 흥인문과 동지 일대를 조망하는 방향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흥인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흥인문로를 이동하는 중에 길에서 동지를 감상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동지는 흥인문로보다 표고가 낮았기에 조망하기 좋았다.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은 「동교상산(東郊商山)」 시문에서 수레를 타고 동교를 지나며 비탈길을 올라 상산, 관왕묘, 동지에 닿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동지를 목적지로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대를 지나다 잠시 멈춰 조망하는 방식으로 동지를 자연스럽게 감상하였다.

수레를 몰아 비탈길을 지나가니, 驅車向晚陟陂陀  
어젯밤 푸른 산에 비가 댕댕이를 씻어놓았네 昨夜青山雨洗蘿  
관우의 사당 앞에 가을 뜻이 일고, 關羽祠前秋意早  
흥인문 밖에 석양이 많으네 興仁門外夕陽多

1) 「동원비우당기(東園庇雨堂記)」, 『지봉집(芝峯集)』 21.

2) 「오사구동교별업기(吳司寇東郊別業記)」, 『기언(記言)』 15(중편) © 한국고전번역원 김민선 역, 2006.

동쪽 못에 물이 가득하니 붉은 연꽃이 곱고, 東池水滿紅蕖艷  
 남한에 구름이 열리니 분칠한 성가퀴가 높으네 南漢雲開粉堞峨<sup>3)</sup>

동지도 성문 밖에 위치한 연지여서 송별의 장소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연지 변보다는 주변 관왕묘나 흥인문로 북쪽 산자락에 위치한 저택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지는 모임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지 일대의 환경이 진흙탕에 가까웠던 점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서 연지를 즐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흥인문의 경우 도성을 나와 전원으로 유람을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흥인문 밖 일대의 경관을 감상하며 빠르게 이동하곤 했다. 또한, 다른 연지들과 달리 동지의 입지는 주요 가로에서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동지에 정류하며 연지를 이용하기보다는 멀리서 경관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지를 감상하는 주요 조망점과 이동하는 경로를 표기한 내용은 그림 5-2와 같다.

앞에서 연구한 내용과 동지를 이용한 옛글을 함께 통합해보면, 세조대, 성종대 동지가 매몰되었던 시기에는 박상(朴祥, 1474~1530)이 「동지인한취고(東池因旱就枯)」에서 가뭄으로 연못에 역새와 갈대가 무성해진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담고 있다. 비가 온 뒤 동지에 물이 찼으나 연꽃이 드러나지 않아 관노에게 역새와 갈대를 베게 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명종대 수축 공사 이후로 「비우당팔영」, 「오사구동교별업기」가 쓰였으며, 숙종대의 공사 이후로는 「동교상산」의 시문이나 「동문조도」 그림이 남겨졌다. 17, 18세기가 비교적 동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감상한 글이 많았던 시기로 판단된다. 앞의 연지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개인이 이용한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내용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동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3) 「동교상산(東郊商山)」, 오도일, 『국역 서파집』 上, 이민수 역(서울: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1992),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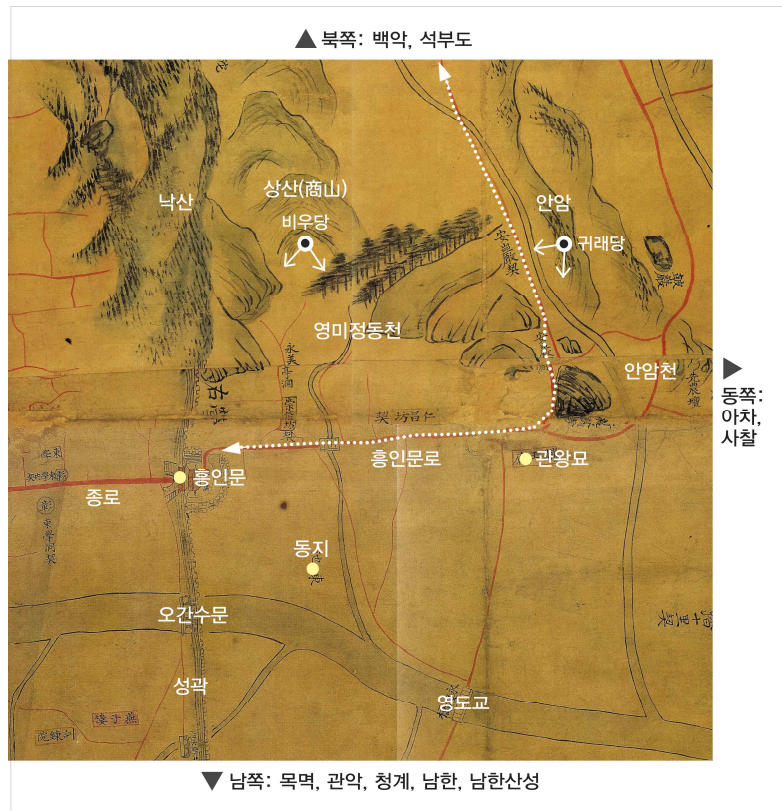


그림 5-2. 동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자료: 「도성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2. 동지 경관 감상의 방식

동지와 일대의 공간환경에 대해 묘사한 내용은 당시 선인들이 인상 깊게 느꼈던 실제적 경관을 알 수 있게 한다.

동지는 인근 언덕이나 가로에서 조망하기 좋은 환경적 여건이었다. 언덕에서 동지를 아래로 내려다볼 때 동지와 함께 보이는 주변 경관을 「비우당팔영」에서는 북악, 타락, 아차, 영미정동천을 팔경으로 꼽았다. 북악의 소나무와 타락에 걸쳐있는 구름, 아차산까지 이르는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영미정동천<sup>4)</sup>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개울이라 했다. 「오사 구동교별업기」는 안암 귀래당에서 일대를 바라본 전경을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4) 시문에는 앞 시내[前溪]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영미정동천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별장은 동쪽 성문 밖 적전(籍田) 서쪽 안암(安巖)에 있는데, 산자락이 울퉁불퉁 고르지 않고 솔 숲이 울창하다. 앞으로는 잔잔히 흐르는 시내와 백사장이 있고, 그 너머 큰길에는 관왕사(關王祠)의 뾰족한 용마루와 흰 담이 보이고, 또 그 너머에는 **동지(東池)에 연꽃이 깔려 있고 넓은 농토가 펼쳐져 있다.** 동강(東岡)에는 사찰이 있고 북산(北山)에는 석부도(石浮圖)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종남(終南), 관악(冠嶽), 청계(淸溪) 등이 죽 늘어서 있다. 산성(山城)의 성가퀴는 구름에 닿아 있는데, 도시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 언제나 청량한 밤에 인적은 없고 종소리만 은은히 저 멀리서 들려온다. 이 모두는 별장의 그윽한 정취와 뛰어난 경관이므로 아울러 기록한다.<sup>5)</sup>

소나무가 울창한 안암, 백사장이 있는 안암천, 큰길 흥인문로, 뾰족한 용마루와 흰 담이 있는 관왕묘, 동지, 동지 주변의 넓은 농토 순으로 가까이에서 멀리 보이는 경관을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특히 남쪽으로는 목역, 관악, 청계가 첩첩이 보인다고 했다. 도시 가까이에 산성의 성가퀴가 보이고, 구름에 닿아있는 모습이 조망된다고 묘사했다. 인적 없는 밤이 되면 은은히 종소리가 들려 아늑하다고 표현했다. 또한, 흥인문로를 올라오면서는 「동교상산」에서는 상산과 관왕묘, 동지, 남한산을 손꼽았다. 비 온 뒤 해질녘 상산이 푸르게 쏘오로 가득했고, 관왕묘는 가을 느낌이 나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지 자체의 경관으로는 「비우당팔영」에서는 연못가 버드나무를, 「오사구동교별업기」나 「동교상산」에서는 연꽃을 동지의 아름다움으로 들었다. 「비우당팔영」은 봄철 새잎이 돋기 시작하는 버드나무를 “세류(細柳)”, “동풍에 날리는 솜”, “푸른 실처럼 휘날리는 가지”로 세밀하게 묘사했다.<sup>6)</sup> 동지에서 들리는 피꼬리 소리는 버드나무와 얹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동교상산」은 동지는 비 온 뒤 “물이 가득해 연꽃이 더 아름답다”<sup>7)</sup>고 했다. 「동지인한취고」에서도 역새와 갈대로 무성했던 못을 정비한 뒤 연꽃이 연못에 다시 드러난 경관을 “붉은 꽃 가늘게 모여 일천 방에 드러나고, 푸른 잎 만 자루에 퍼진다”고 묘사했고, 관리 이후 “도량도 자연히 암암히 깊어졌다”<sup>8)</sup>고 했다.

동지는 주변이 넓게 트여 있어 주변에서 조망하기 좋고, 근경에서 원경까지 깊이감 있는 경관을 갖고 있었다. 다른 연지의 경우 동지처럼 멀리 보이는 산까지 묘사한 글은 없었다. 또한, 가까이에서 즐기기도하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시 들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관왕묘가 일대의 주요 지물이었던 만큼 관왕묘와 동지는 매우 인접해 두 시설이 함께

5) 「오사구동교별업기」, 앞의 책.

6) 楊柳滿池渚。東風初罷絮。枝枝麗碧絲。絆得流鶯語。 「비우당팔영」, 『지봉집(芝峯集)』 1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최병준 역, 2015.

7) 驅車向晚陟陂陀。昨夜青山雨洗蘿。(중략) 東池水滿紅蕖艷。 오도일, 앞의 책, 584.

8) 紅英簇簇千房露。綠葉披披萬柄敷。(중략) 渠也自然難黯黯。 「동지인한취고(東池因早就枯(중략))」, 『눌재집(訥齋集)』 속집 2.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지와 경관 감상과 관련한 주요 장소들과의 관계는 그림 5-3과 같다.

그리고 동지는 보통 가문 편이어서 비가 오면 물이 가득해 보기 좋다고 언급된다. 동지가 물이 부족했기에 수량은 감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동지에 물이 적을 때도 버드나무와 연꽃이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정원으로 생각되기는 하였지만, 비가 온 뒤가 동지를 즐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

동지를 다룬 옛글에서 경관을 묘사한 내용을 토대로 경관요소를 분석한 세부 내용은 다음 표 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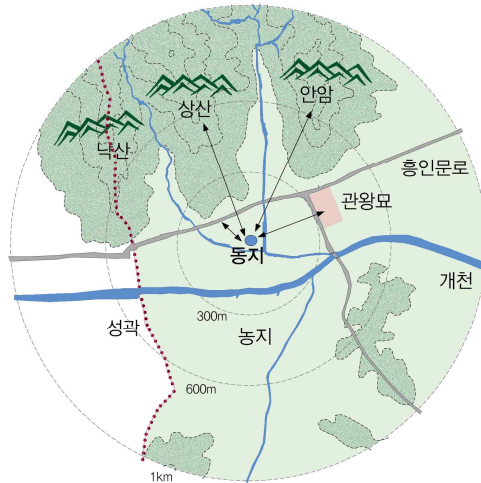


그림 5-3. 동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자료: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참조

표 5-1. 동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옛글	주요 행태	경관요소		요소별 묘사 및 감정
동지인한취고(東池因旱就枯)	- 비온 뒤 관노를 시켜 연지를 손질하고, 연꽃이 드러난 동지 감상	연지	물억새[蓆], 갈대군[葦之類]	가뭄으로 무성해짐. 이들로 연꽃이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움
			연(蓮)	붉은 꽃[紅英簇簇], 푸른 잎[綠葉披披]이 드러나 아름다움
			도랑[渠]	연지 관리 후 도랑도 같이 깊어짐
비우당팔영(庇雨堂八詠)	- 초봄에 상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지를 내려다 보며 감상	주변 환경	북악(北嶺)	성긴 소나무
			타락(駝駱)	맑은 구름, 한가한 구름으로 가리어짐
			아차(峨嵋)	벌판을 지나 불어오는 저녁비
			영미정동천(前溪)	비가 오고 나면 개울에 나가 발을 씻고 누워 즐김
		연지	버드나무[楊柳]	동풍에 날리는 솜[東風初罷絮], 푸른 실처럼 휘날리는 가지[枝枝麗碧絲], 세류(細柳)로 봄철 버드나무의 아름다움을 묘사
			피꼬리 소리[鶯語]	소리가 버드나무와 얹히는 느낌

오사구동교 별업기(吳 司寇東郊 別業記)	- 안암에 위치한 별장에 서 동교 일대를 내려다 보며 근경에서 원경에 이르는 경관을 기록함	주변 환경	안암(安巖)	산자락이 울퉁불퉁하고 솔숲이 울창
			안암천[平川]	잔잔히 흐르고 백사장이 있음
			흥인문로[廣路]	큰길임
			관왕묘[關王祠]	뾰족한 용마루와 흰 담이 보임
			농토[溝塋千井]	동지 일대에 넓은 농토가 펼쳐짐
			동쪽 원경[東岡]	사찰이 있음
			북쪽 원경[北山]	석부도가 있음
			남쪽 원경[南望]	남산, 관악, 청계가 늘어섬
			산성 성가퀴[雉堞]	구름에 닿아있음. 도시와 인접함
동교상산 (東郊商山)	- 가을철 해질녘, 비온 뒤 수레를 타고 지나가 며 일대 경관 묘사 - 이동: 비탈길→상산→ 관왕묘→동지	주변 환경	종소리[鍾聲]	인적없는 밤에 은은히 멀리서 들려오는 종 소리
			연지	연꽃[荷葉]
			연꽃[荷葉]	연지를 덮고 있음
			흥인문로	오르막 비탈길[陟陂陀]
			상산(商山)	푸른 산. 비온 뒤 쑥[蘿]이 깨끗이 씻겨 펴 쳐짐
			관왕묘[關羽祠]	가을 느낌이 남
		주변 환경	성가퀴[堞]	남한산에 구름이 열려 분칠한 성곽이 높게 보임
			연꽃[紅蕖]	붉은 연꽃이 고움
			연못물[水滿]	물이 가득해 붉은 연꽃이 더 아름답음

## 2절 서지

### 1. 서지의 이용 양상

서지는 도성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어 중국 사행(使行)을 떠날 때나 중국에서 사신이 들어올 때 송별하고 영접하는 장소였다. 조선 전기 명나라 사신[明使]이 도성에 도착하면 모화관에서 조서(詔書)를 맞는 의식을 치르고 경복궁 근정전에서 의례를 행했다.<sup>9)</sup> 이 때 서지(慕華池)에는 천막(幄帳)을 설치해 사신을 대접하고,<sup>10)</sup> 본국에 돌아가기 전 전별연을 행하며 전송하였다. 또한, 사신들은 모화관에서 쉬면서 서지에서 물고기를 잡는<sup>11)</sup> 여가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천연정중수기(天然亭重修記)」에서도 “순안사(巡按使)가 빈료(賓僚)들을 이끌고 잔치 놀이를 하자면 반드시 이 정(천연정)에서 한다”<sup>12)</sup>고 기록되어, 사신

9)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서울: 사회평론, 2012), 39-40.

10) 모화루는 본래 임금의 사신을 대접하는 곳인데, 이제 위에서는 나오지 아니하고 사신이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미안한 일인 듯싶사오니, 별달리 모화지(慕華池) 가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접하게 하소서. 慕華樓本上待使臣之所也. 今上不往, 而使臣與本朝群臣坐於其上, 似爲未便. 謂 請 設幄帳於慕華池邊待之.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1425) 5월 18일 2번째 기사.

11) 두 사신이 반송정에 나가 놀면서 못에 고기를 잡게 하고 그것을 구경하니. 兩使臣出遊盤松亭, 令捕池魚觀戲.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 10월 16일 계미 2번째 기사.

12) 「천연정중수기」, 『완당전집(阮堂全集)』 6 © 한국고전번역원 신호열 역, 1988.

영접과 관련한 행사가 자주 이루어졌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사행을 가는 경우에도 송별연을 가졌다. 공식 송별연으로는 1656년(효종 7) 인평대군이 청나라 사신으로 갈 때 서지[盤松池]에 장막을 크게 치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두 모여 사대례(查對禮) 의식을 치른<sup>13)</sup> 기록이 있다.

국가적 송별 행사 외에도 서지는 북쪽 지역이나 중국으로 떠날 때 이별하는 장소로 상징성이 있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한도십영(漢都十詠)에서 「반송송객(盤松送客)」을 언급한 뒤로, 많은 팔경시에 「반송송객」 시문이 계속 차운되며 여러 편 전해지게 되었다. 많은 옛글에 남겨질 정도로 돈의문을 나와 반송 일대에서 지인을 전송하는 것은 도성을 떠나는 송별의식이 되었다. 또한, 이 글들로 인해 반송에서의 송별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반송에서의 송별은 반송 언덕[原]부터 반송정, 길가, 서지(반송지) 등 일대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서지에서의 송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글로는 강석(姜穰, 1669~1718)의 「한도팔경시(漢都八景詩)」와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의 「반송지에서 평안도 관찰사 허공신을 송별하다[盤松池上. 送關西伯許公愼]」가 있다. 강석의 팔경시 중 「반송송객」에서는 “반송지 옆 다리 주변에 자리를 깔고 풀에 앉아 깃발을 세워 두고, 물가에서 잔치 열어 술잔을 권한다네”<sup>14)</sup>라고 해 혁교[革橋, 石橋] 옆에서 서지를 바라보며 송별모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호민의 시에서는 모임의 정경이 묘사되지는 않지만, 서지 변에서 국화와 기러기를 보며 이별의 아쉬움을 읊은 내용이 있었다. 이 시기는 천연정이 조영되기 전이어서, 서지 옆 풀밭에 자리를 펴고 앉아 모임을 했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조선 전기까지 서지에 대해 ‘송객’과 관련한 글이 많이 남겨졌다면, 조선 후기에는 연을 감상하는 ‘상련(賞蓮)’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sup>15)</sup> 서지의 연꽃은 연못 조성 당시부터 심어진 것이지만, 서지에서 연을 감상하였다는 옛글은 주로 조선 후기의 시기로 한정된다. 이는 서지의 연꽃이 이 시기 안정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조선 후기 반송방 지역이 도성 밖 지

「천연정증수기」는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육촌형이었던 당시의 경기관찰사 김도희(金道喜, 1783~1860)를 대신하여 1836년에 남긴 글로, 천연정을 수리하고 연못 경계를 확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13) 송례문을 나서서 반송에 다다르니 못가에 크게 장막을 치고 공경(公卿: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에 들어가 사대례에 참석하고 예가 끝난 다음 사차(私次)에 나와 쉬었다. 효종 7년(1656) 8월 3일 『연도기행』 上 © 한국고전번역원 이민수 역, 1976.

14) 橋頭藉草留征旆. 水面開筵勸酒盃.

15) 김지현, “18세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반송방”(서울학연구소 서울학 정례발표회, 2016), 1의 내용 참조.

역 중 거주하기 좋아 여러 양반층이 거주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반송방 냉동에는 이윤영(李胤永, 1714~1759)이 살았고, 서지 서쪽 구릉에는 이해중(李海重, 1727~?)의 서재가 있었다. 또한, 서지 북쪽 골짜기에는 조선 후기 문인 화가였던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집도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대부가 일대 지역에 거주하고 모임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을 중심으로 연을 감상한 시문과 서화가 나타나면서 서지 일대가 연을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성시전도(城市全圖)」에서 돈의문 밖 대표적 경관으로 서지를 꼽고 있으며, 정조도 세손시절 「국도팔영(國都八詠)」 중 하나로 「반지상련(盤池賞蓮)」을 언급했다. 그리고 1793년(정조 17)에는 이해중의 서재 위치에 천연정도 설치하게 된다. 그 이후 서지는 한성부에서 연꽃을 감상하는 대표적 명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처럼 서지가 연꽃 감상의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서지에서는 기영과 관련한 관 모임이 이루어지고, 죽란시사(竹欄詩社), 노론계, 남인계 문인들의 문화(文會)와 시회(詩會), 그리고 친교 모임도 많이 나타났다. 이윤영, 정범조(丁範祖, 1723~1801), 이가환(李家煥, 1742~1801) 등 20여 명의 남인들은 함께 모여 연을 감상하고 「서지상하기(西池賞荷記)」, 「상련서지(賞蓮西池)」,<sup>16)</sup> 「서지상하(西池賞荷)」<sup>17)</sup> 등을 남겼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1796년 ‘죽란시사’라는 시 모임을 만들고 연 7회 정기 모임을 정했는데, 그 중 “막 서늘해지면 서지에서 연꽃 구경하러 모인다”<sup>18)</sup>고 했다. 실제로 서지에서 모임을 했던 시문은 전해지지 않지만, 정약용은 전체 문집에서 「서지에서 노닐며」, 「서지에서 다시 노닐며」, 「여름날 흥풀이」,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일」 등 서지와 관련한 여섯 편의 시를 남길 정도로 자주 방문해 즐겼다. 또한, 1803년 경기관찰사로 부임했던 서영보(徐榮輔, 1759~1816)는 기영과 인접한 천연정에서 지인들과 시모임을 갖고 「묘군이 옥류·자하·소음과 천연정에서 모일 적에」라는 차운시를 남겼고, 경기관찰사 민태호<sup>19)</sup>의 초청으로 천연정에 모인 내용을 남긴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7월 14일 관찰사 민표정이 천연정으로 초청해 술마시며 연꽃 구경을 하다」란 시문도 있다. 김정희도 「천연정중수기」에서 주객(酒客)과 시인들이 모여 경치를 감상하며 천연정에서 모임을 한다고 했다.

서지를 연을 감상하는 모임 장소로 활용하면서, 서지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차

16) 「偕權台叔紀, 李台孺文, 蔡台士述, 李台廷藻, 李台公會暨長少二十餘人. 賞蓮西池. 時蓮花向謝. 猶點綴葉間可愛. 拈韻共賦」, 『해좌문집(海左文集)』 12.

17) 「秋日, 同諸君, 西池賞荷, 拈風字共賦」, 『금대시문초(錦帶詩文抄)』.

18) 新涼西池賞蓮一會. 「죽란시사첩서(竹欄詩社帖書)」, 『여유당전서[定本 與猶堂全書]』 13.

19) 1874~1876년의 기간 동안 경기관찰사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경기도박물관, 『경기관찰사』(경기도: 경기도박물관, 2010), 204.

운시를 나누고, 음악을 즐기고, 연향(蓮香)을 음미하고, 벽통음(碧筒飲)<sup>20)</sup>을 즐기는 등 다양한 행태가 나타났다. 경기관찰사 서영보의 글에는 지인들이 여름철 휴가일에 천연정에 모여 운을 나누어 서로 시를 짓고 술을 즐겼던 내용이 있다.<sup>21)</sup> 김운식의 시문에도 천연정에 20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연을 감상했는데, 경치가 너무 훌륭해 습가지(習家池)<sup>22)</sup>에서 연꽃을 감상하는 것 같다고 했다.<sup>23)</sup> 정약용도 한여름 연꽃이 향기로워 “오얏 담그고 외뺨우고 웃으며 즐기다가 언제든지 석양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sup>24)</sup>고 함께 즐겁게 보낸 내용을 말했다. 이운영의 「서지상하기」에서는 여름철 보름날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걸어 마을 어귀를 나와 서지에 간 얘기를 담고 있다. 밤새 서지에서 연을 감상하고, 벽통음을 즐기고, 밤 모임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차운시를 나누고, 같이 담소를 나누었다. 다음날 정오까지 계속 연꽃을 구경하고, 헤어지는 지인에게는 연꽃과 연잎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까지 다시 연을 감상했다.<sup>25)</sup>

글에서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지는 연못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까지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청개화성(聽開花聲)’ 또는 ‘개화성(開花聲)’이라 불리는 연을 감상하는 풍류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를 띄우고 새벽녘을 기다리다 연꽃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겼다는 것으로, 고사로 전해져온 풍류를 새벽까지 기다려 함께 누렸을 것이다.

모임이 아니더라도, 서지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감상하기도 했다. 윤기(尹愔, 1741~1826)는 1802년(순조 2) 서대문 밖 만경재 자택에서 서교 일대를 조망하며 「만경재기(萬景齋記)」를 남겼으며, 이후 인근의 천연정에 가 서지를 감상하며 「천연정상련」 시를 남겼다. 황오(黃五, 1816~?)도 여름밤 더위를 피해 홀로 천연정에 가 밤새 연을 감상했고,<sup>26)</sup> 이기(李沂, 1848~1909)도 초가을 해질녘 성 밖을 나와 천연정에서 의주로변에서 연을 감상했다.<sup>27)</sup>

20) 큰 연잎에 술 서 되를 담고 연의 잎과 줄기 사이를 비녀로 뚫어 술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게 하여 줄기를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구부려 줄기 끝에 입을 대고 술을 빨아 마셨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 한다. 강희안, 『양화소록』, 이종묵 역(서울: 아카넷, 2012), 234-236.

21) 「묘군이 옥류·자하·소음과 천연정에서 모임 적에」,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1 ©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2013.

22) 습가지는 좋은 연못을 일컬을 때 자주 비유되며 언급된다.

23) 「7월 14일 관찰사 민표정이 천연정으로 초청해 술 마시며 연꽃 구경을 하다」, 『운양집(雲養集)』 2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기태완 역, 2013.

24) 沈李浮瓜欣笑傲. 常時歸影遍斜陽. 「여름날 흥풀이」,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4 © 한국고전번역원 양홍렬 역, 1994.

25) 「서지상하기」, 『단릉유고(丹陵遺稿)』 12; 김지현, 앞의 논문, 9-10 재인용.

26) 天然亭子辟炎蒸. 夜賞芰荷宿上層 ... 靑山鷄唱酒如氷. 「천연정」, 『녹차집(綠此集)』 1; 황오, 『국역 황녹차집』, 이숙희 역(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252.

서지는 왕이 상언(上言)<sup>28)</sup>을 받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주로 남지 변에서 상언을 했다는 기록이 많지만, 서지 변으로 행사가 확대되어 상언이 치러졌다는 기록이 있다.<sup>29)</sup> 연지 변 공간은 임금과 백성이 상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극심하면 여러 장소에서 기우제를 행했다. 그중 하나로 서지에서 석척기우제<sup>30)</sup>를 지냈다는 내용도 『기우제등록(祈雨祭臚錄)』에 기록되어 있다. 「천연정중수기」에도 기존에 천연정 아래 기우 제단이 있었는데 형체가 사라져 1836년 서지를 수축하면서 다시 설치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sup>31)</sup>

위의 내용을 통해 서지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사행과 사신 영접과 관련한 행사, 기우제 의식, 상언 행사 용도로 활용하였고, 개인들은 송별 장소, 연꽃을 감상하며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그 가운데 그림 그리기, 차운시 쓰기, 담소 나누기, 술 마시기, 연잎을 이용해 벽통을 즐기기, 새벽녘 청개화성 기다리기 등 연지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의 행태들이 나타났다.

그중 이동 경로가 나타난 행태를 중심으로 서지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해보면, 도성에서는 돈의문을 나와 서지를 방문했다. 의주로를 지나 북쪽으로 떠날 때 송별 장소로 들리기도 했다. 서지 남쪽 냉동은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아 살기 좋은 거주지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근 경기감영과 모화관에서는 서지를 공적인 모임공간으로 사용했다. 또한, 서대문 밖 여러 유적지를 함께 유람하기도 해,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고양에 있는 경릉, 연희궁, 봉원사, 모화관 뒷산을 지나 서지에 이르기도 했다. 어린이들에게 서지와 인근 무악천은 가까이에서 오가며 놀기 좋은 수공간이기도 했다. 지도에 표기한 내용은 그림 5-4와 같다.

서지 관련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지는 조선시대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온 연지이기

27) 「천연정상련」, 『이해학유서(李海鶴遺書)』 12;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15.11.1.)

28) 백성이 임금에게 글월을 올림, 또는 그 글월. “상언”, 『문화원형 용어사전』, <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 2016.10.20.)

29) 『승정원일기』 29책, 경종 2년(1722) 2월 9일 갑자 20/26 기사; 傳于權始經曰, 自盤松蓮池邊, 至南門外蓮池邊, 捧上言事. 『승정원일기』 39책, 영조 7년(1731) 4월 27일 기미 13/26 기사.

30) 석척기우는 도마뱀을 용(龍)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지내는 기우제로, 도마뱀 10마리를 잡아 독 안에 넣고 나뭇잎으로 덮은 뒤 동자(童子) 수십 명이 푸른 옷을 입고 손과 발을 푸르게 염색한 뒤에 버들가지를 물에 적셔 도마뱀이 들어 있는 독을 두드리면서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게 하고 비가 오도록 하라. 그러면 너를 놓아준다.”고 외치며 독을 돌고, 행사가 끝나면 놓아 보내는 형식의 기우제라고 한다.

31) 정자 아래 기우의 제단이 있어 지금 비록 황폐하였으나 또 대략만 수축하였으니 이 역시 구관을 폐기함이 없게 하였을 따름이다. 亭下有所雨祭壇. 今雖廢. 又略從而修築之. 亦無廢舊觀而已. 「천연정중수기」, 앞의 책.



에 여러 국가기록이나 개인이 남긴 옛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국가기록은 조선 전기와 중기의 내용이 많고, 개인의 글은 조선 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차이는 관리 주체가 공조에서 경기감영으로 변화한 데서도 나타나고, 연지의 명칭도 모화지, 반송지에서 천연지로 바뀌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지 이용의 성격도 조선 전기에는 국가 행사가 중심이고 개인의 이용은 일상적 활동이 주로 나타났다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유형의 여가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나타나면서 개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정리한 내용은 그림 5-5와 같다.



그림 5-4. 서지 일대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자료: 「도성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5-5. 서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2. 서지 경관 감상의 방식

서지의 주변 경관을 묘사한 글을 찾아보면, 의주로, 서쪽 도성, 숲, 주변 가옥, 사대(射臺), 사현(沙峴), 안산, 남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의주로는 옛글에서 길을 떠나는 수레와 말들로 북적이는 분위기로 묘사된다. 「반송송객」에서는 “도성 밖 큰길 옆 반송지에는 전별하는 수레와 말들 날마다 머물러있네”<sup>32)</sup>라고 했고, 「만경재기」에서는 “수레와 말들이 큰 소리를 내며 변화가를 누빈다”<sup>33)</sup>고 말했다. 이기의 「천연정상련」도 “성중의 오가는 거마”<sup>34)</sup>를 언급하는 등 변화한 의주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서쪽 도성에 대해서는 길고 세세하게 인상적으로 묘사한 글들이 있었다. 「만경재기」에서는 서교 일대를 조망하며 가장 인상적인 경관으로 “목역에서 인왕을 가로지르는 성가퀴”<sup>35)</sup>를 손꼽았다. 길게 하얀 성곽과 기와가 이어지고 그 위로 나무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묘사했다. 세밀히 묘사한 내용은 아랫 글과 같으며, 계절, 날씨, 상황에 따른 변화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 줄기의 하얀 성가퀴가 남쪽 목역(木覓)에서 북쪽 인왕(仁王)까지 눈앞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데, 성 위로 모습을 드러낸 나무들이 밑동은 가려진 채 제멋대로 늘어서 형형색색 갖가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어떤 것은 구름이 쌓인 것처럼 울창하고, 어떤 것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곧추서 있고, 어떤 것은 앙상한 줄기의 꼭대기에만 잎이 퍼진 모습이 일산(日傘) 같고, 어떤 것은 창을 세운 듯이 우뚝 솟았고, 어떤 것은 나뭇가지가 마치 조각해 놓은 것처럼 기묘한 모습이고, 어떤 것은 머리카락처럼 치렁치렁 늘어져 있다.

까치 동지가 점점 보이고 새들이 나뭇가지를 희롱하며 놀고 있는데, 연초록 잎사귀들이 진초록의 숲 위에서 아름다움을 다투고 붉은 꽃들이 성가퀴의 검푸른 기와 사이로 자태를 뽐낸다. 저녁노을 물들 때면 숲도 함께 붉어지고, 눈 내리는 겨울이면 숲도 희게 변한다. 안개 끼면 취하여 꿈꾸는 듯하고, 날이 개면 빗질하고 세수한 듯하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굵은 나무, 곧은 나무 할 것 없이 제각기 특이한 모양이고 성긴 나무, 뽕뽕한 나무, 짙지어 선 나무, 홀로 선 나무 할 것 없이 모두가 절묘한 모습이다.

이는 흡사 커다란 그림 병풍을 공중에 둘러쳐 놓은 것 같으니, 나는 늘 문을 열고 한가로운 마음으로 멀리 바라보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곤 한다.<sup>36)</sup>

32) 城外陰池大道隈. 送行車馬日遲廻. 「강석(姜檉)이 지은 서울의 팔경시」, 강준흠, 『삼명시화(三溟詩話)』,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역(서울: 소명, 2006)

33) 車怒馬呵擁康莊. 「만경재기(萬景齋記)」, 『무명자집(無名子集)』 문고(文稿) 5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강민정 역, 2013.

34) 城中車馬誰相顧. 「천연정상련」, 앞의 책.

35) 一帶粉堞. 南自木覓. 北跨仁王. 「만경재기」, 위의 책.

36) 「만경재기」, 앞의 책.

「만경재기」뿐 아니라 「천연정중수기」에서도 아래 내용과 같이 안산과 자각봉 사이로 서쪽 도성이 하얗게 두르고 있는데, 성곽 위로 드러난 백악이 아름다워 이를 천연정의 명승으로 꼽을 수 있다고 평했다.

화현(華峴)이 특별히 빼어나 자각봉(紫閣峯)과 더불어 먼 형세를 끌어당겨 좌우로 다투어 일어났으며, 서성(西城)은 하얗게 앞을 두르고 백악의 머리는 반만 살짝이 성 위에 드러나 마치 부처의 곱슬머리라도 같아서 모두 정자로 향해 쏠리어 끼고 어울리며 상량(爽朗)하고 수미(秀媚)하여 그림과 같으니 천연정의 승경(勝景)이 또 반드시 못으로써 이룬다고만 못하겠다.<sup>37)</sup>

이처럼 한양도성이 남산부터 인왕산까지 길게 이어지는 형상은 그 자체로도 독특한데 성곽 뒤 수목과 산들과 함께 색다른 경관을 만들어, 이는 한성부 서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경관으로 여겨졌다.

또한, 서지는 숲에 있다고도 일컬어졌다. 「여름날 흥풀이」에서는 “사통오달 덩그런 집(천연정) 깊은 골에 열려 있고”<sup>38)</sup>로, 「7월 14일 (중략)」에서는 모임으로 인해 숲이 시끄러워졌다고 언급했다. 의주로의 복잡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서지가 위치한 지역은 고요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주변 가옥에 대해서는 「만경재기」에서 “도성 밖의 수많은 집을 굽어볼 수 있고, 정자와 누대가 꽃과 버들과 어우러진다”<sup>39)</sup>고 했고, 「천연정」에서는 “종소리에 버드나무 마을만 호가 등을 밝힌다”<sup>40)</sup>고 했다. 「7월 14일 (중략)」에는 “집집마다 성가퀴 높아 경계가 이어졌네”<sup>41)</sup>의 문구가 있다. 이들 글은 서지 주변에 민가들이 밀집하였다고 말해준다. 서지는 한편으로는 성곽, 변화한 의주로, 주변 가옥들로 도시적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반대쪽으로는 산 가까이에 있어 자연적 경관을 갖춘 곳으로 그려진다.

그 외 사대(射臺)에 대해서는 「여름날 흥풀이」에서 “사대에 날 따스워 잔디 짙이 푸르고”<sup>42)</sup>라고 했고, 사현(沙峴)은 「서지상하기」에서 “눈처럼 하얀 모래 언덕”<sup>43)</sup>으로 묘사되었다. 서지 감상에 있어 직접 연관된 주변 주요 장소와 거리상 위치는 그림 5-6과 같다.

37) 「천연정중수기」, 앞의 책.

38) 四達軒檻開僻巷. 「여름날 흥풀이」, 『다산시문집』 4 © 한국고전번역원 양홍렬 역, 1994.

39) 俯瞰城外萬家. 疊榭層樓掩映花柳澤. 「만경재기」, 앞의 책.

40) 鐘上楊州萬戶燈. 「천연정」, 황오, 『국역 황록차집』, 이숙희 역(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41) 千家危堞境中連. 『운양집』 2 © 한국고전번역원 기태완 역, 2013.

42) 射臺日煖莎苗綠. 「여름날 흥풀이」, 앞의 책.

43) 沙岸如雪. 「서지상하기」,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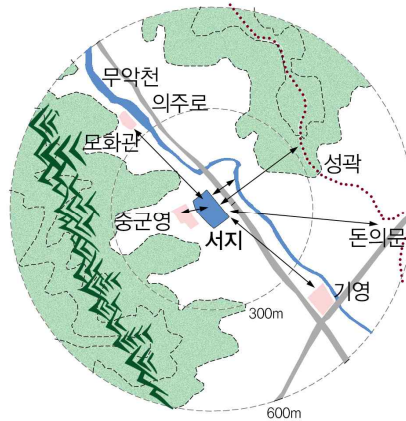


그림 5-6. 서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자료: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참조

서지는 연지 자체를 묘사한 글도 많다. 연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본 글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연지의 물과 주변을 둘러싼 수목에 대해 언급한 글이 있다.

연을 감상한 옛글 중 여름철 연꽃이 한창 피었을 때 쓰인 글을 먼저 살펴보면, 「서지상하기」에서는 “만여 송이의 연꽃은 달빛을 받아 빛났고 이슬은 옥구슬처럼 둥그렇게 매쳐 있어 영롱하고 향기로웠다”<sup>44)</sup>고 묘사하며 그 경관에 감탄하였다. 또한, 연지를 떠날 때는 연꽃 송이와 연잎 줄기를 가져가 연과 그 향을 계속 가까이하고자 했다. 「국도팔영」에서는 연꽃이 무성하게 펼쳐져 있으며, 향기가 널리 퍼지고, 이슬방울에 반사된 연꽃의 모습과 실에 영긴 것 같은 꽃받침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꼽았다. 「묘군이 (중략)」는 “푸른 잎 붉은 꽃이 잔물결에 비치는 모습”<sup>45)</sup>을 말했다. 「여름날 흥풀이」는 미풍에 불어오는 연꽃 향기를 얘기하고,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일」에서는 “부용의 자태가 사람을 머뭇거리게 한다”<sup>46)</sup>고 했다. 여름 더위에 지쳐 서지에 갔는데 바람을 느끼고는 연이 지게 될 것을 벌써 아쉬워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연을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늘이 주신 선물로 비유하며 “아름다운 물건[娉婷物]”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서지는 연꽃 감상을 주요 목적으로 방문한 선인들이 많았다. 오랜 시간 머물며 연을 세밀히 바라보며 시를 쓰다 보니, 연꽃의 푸른 연잎[蓮葉], 붉은 꽃[蓮花], 연꽃의 꽃받침[蒂], 연밥[蓮子], 연꽃 봉오리[菡萏]처럼 세부적 부분<sup>47)</sup>들을 관찰하여 묘사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연향에 대해서도 감탄하여 바람에 전해지

44) 荷花萬餘柄。得月發彩。而露泫珠凝。玲瓏芬郁。『서지상하기』, 앞의 책.

45) 此池荷花一國聞。膩碧粉紅寫漪縠。『묘군이 (중략)』, 『죽석관유집』 1 ©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2013.

46) 芙蓉顏色使人遲。『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일』, 『다산시문집』 6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1994.

는 향기에 감흥을 받았고 서지에서 돌아올 때는 연을 꺾어와 가까이에 두고자 했다.

연이 조금씩 시들어가는 가을철에 서지를 감상한 시문도 많았다. 윤기의 「천연정상련」에서는 날이 추워져 서리가 내리니 하루 사이에 연잎이 지고 향기도 약해지는 변화를 세밀히 관찰했다. 연잎이 지니 개구리밥[萍]이 연못에 드러났다고 했다. 「서지에서 노닐며」는 연잎이 시퍼렇고 연밥이 여문 모습을 보고 가을이 오고 있음을 체감하였고, 고향에서 추수해 올벼 밥<sup>48)</sup>을 짓고 있을 시기라고 함께 연상하였다. 이후 다시 서지를 방문한 정약용은 「서지에서 다시 노닐며」에서 가을빛이 가득한 연못가에서 연꽃이 오히려 담박해서 곱다고 묘사하였고 맑은 향기를 조금 더 맡고자 했다. 연꽃의 화려함을 볼 수 있었던 여름과 달리 초가을에는 연꽃의 담박한 아름다움을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시기였다. 또한, 가을철 연꽃 부분들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큰 요소가 되어 감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지는 수심이 깊어 연지의 물 자체도 감상의 대상이 되었다. 「성시전도」에서 “물이 푸르러 물들일 것 같은 빛”<sup>49)</sup>으로 묘사했고, 「국도팔영」에서는 “굵은 연못의 물이 깊게 고여 아름답다”<sup>50)</sup>고 했다. 「묘군이 (중략)」는 “몇천 섬의 맑은 물로 가득한 초록빛 방죽”<sup>51)</sup>이라고 표현했다.

주변 수목 중에서는 반송(盤松)과 버드나무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반송송객」에서는 이별할 때 나뭇가지를 꺾어주는 풍습이 있어, 반송이 매해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무가 많이 상했다고 언급했다. 「서지에서 노닐며」에는 “버들 끝에 매미 우는 소리”<sup>52)</sup> 부분이 있고,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일」에서는 “수양버들 비 뒤의 바람이 푸른 못에 불어라”<sup>53)</sup>고 했다. 반송은 서지의 상징적 수목으로 함께 언급되며, 버드나무는 바람과 함께 서지의 풍

47) 『이아(爾雅)』에는 연꽃에서 ‘줄기는 가(茄)이고 잎은 하(蓆)이고 밑동은 밀(蓊)이고 꽃은 함담(菡萏)이고 열매는 연(蓮)이고 뿌리는 우(藕)이고 씨는 적(的)이며 적의 가운데가 의(薏)이다’라고 기술되었다. 연과 관련해 다양한 세부 명칭이 있어, 관심을 갖고 자세히 관찰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희안, 앞의 책, 213-214.

48) 덜 여문 벼의 나락을 솥에 찌서 말린 후 절구에 찧어 나온 쌀로 지은 밥이다. 찧갱이밥이라고도 한다. 벼가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 추석이 돌아오면 조상에게 드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덜 여문 벼를 베어다가 찌서 말린 다음 찧어 밥을 해서 차례를 지냈는데, 이 쌀을 충남과 전북에서는 ‘오리쌀’이라고도 한다. “올벼밥”, 농촌진흥청,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파주: 교문사, 2010).

49) 蟠松池水綠可染. 「성시전도」, 『청장관전서』 20 © 한국고전번역원 이식 역, 1979.

50) 曲塘滢瀟一泓然. 「국도팔영」, 『홍재전서』 2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1998.

51) 盤松亭子無暑氣. 綠陂清水千千斛. 「묘군이 (중략)」, 앞의 책.

52) 蟬吟高柳秋聲早. 「서지에서 노닐며」, 『다산시문집』 2 © 한국고전번역원 송기채 역, 1994.

53) 垂柳光風轉碧池.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일」, 앞의 책.

취를 더욱 잘 느낄 수 있게 했다.

이상의 글에서 여름철은 서지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서지에 찾아가 더위도 피하고 그 시기에만 즐길 수 있었던 연을 만끽하며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연을 즐기는 시간은 낮이 되기도 했지만, 달빛에 비친 연을 보고자 보름날을 기다려 찾아가기도 했으며, 밤에 가서 다음 날 오전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서지에서 풍류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엿볼 수 있어, 당대의 경관을 연상케 해준다.

서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요소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5-2와 같다.

Table 5-2. 서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제목	주요 행태	경관요소	요소별 묘사 및 감정
반송송객 (盤松送客)	- 풀섶에 앉아 서지에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심	주변 환경 연지	큰길[大道隈] 반송(盤松) 큰길 옆에 수레와 말들이 매일 머물고 있음 매해 꺾어서 나무가 많이 상함
서지상하기 (西池賞荷記)	- 여름철 지인들과 모여 보름달이 뜬 밤에 서지를 찾아가 다음 날 정오까지 연을 감상 - 그림그리기, 차운 작시, 담소, 연 감상, 벽통음 - 이동: 냉동 저택→마을어귀→서지→헤어짐	주변 환경 연지	모래언덕[沙岸] 나무그림자[樹影] 연꽃 눈처럼 하얗다 바람에 하늘거림 달빛을 받아 빛남. 이슬이 구슬같이 영롱하고 향기로움
관독일기 (觀讀日記)	- 가을철 지인의 아들을 초청해 서교 일대의 역사유적을 유람하고 서지 북쪽 골짜기를 올라가 지인의 처소 방문 - 이동: 서대문→경릉→연희궁→봉원사→모화관 뒷산→반송지 북쪽 골짜기		
성시전도 (城市全圖)	- 돈의문 밖 대표경관으로 꼽음	연지	연[荷] 구릿대[白芷] 물[水] 물에 흔들리는 푸른 연잎 연잎과 섞여있음 푸르러 물들일 것 같은 빛깔
해인사창수시서 (海印寺唱酬詩序)	- 과거 친구들과 서지 일대에서 놀던 기억을 추억함 - 이동: 평계↔반지	주변 환경	무악천[平溪] 잔잔한 계류로 표현
국도팔영 (國都八詠)	- 한양의 팔영 중 하나로 서지를 꼽음	연지	못[塘] 연(蓮) 굽은 형태[曲塘], 깊게 물이 고여 한결 같이 맑음 만 본의 연꽃처럼 무성함. 십리 멀리 향기가 풍김. 이슬방울에 반사된 붉은 빛이 구슬 같음. 실에 얹힌 듯한 꽃받침이 푸른 잎과 대비됨
만경재기 (萬景齋記)	- 서지 남서쪽 언덕에 위치한 자택에서 서교 일대를 내려다보며 경관을 기술함	주변 환경 길	만경재(萬景齋) 서대문[西門] 성밖 마을[萬家] 정자/누대[榭層樓] 길 서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지대가 높은 한강 서쪽 기슭 서쪽 망루가 보임 도성 밖 수많은 집들이 굽어보임 정자와 누대가 꽃과 버들과 어우러짐 매끈한 수레와 건장한 말들이 큰 소리

			성가퀴[堞]	를 내며 변화가를 누빔 목역에서 인왕 사이에 성곽이 하얗게 길게 이어지고, 성 위로 보이는 나무들이 갖가지 모습으로 보임. 커다란 그림 병풍을 공중에 두른 것 같음
			목역(木覓)	성곽 끝자락에 보임
			인왕(仁王)	성곽 끝자락에 보임
천연정상련 [天然亭賞蓮.時花已盡], 윤기	- 가을철 천연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연을 감상	연지	연(蓮)	연잎이 푸르게 남아있었는데 가을 서리 이후 잎이 지고 향기도 쇠해짐
			개구리밥[萍]	연잎이 지니 개구리밥이 연못에 드러남
묘군이... (卯君與玉流紫霞篠飲會天然亭)	- 늦여름 휴가일에 서영보를 찾아 서지로 옴(서영보는 바쁜 공무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함) - 천연정에 4명이 모여 운을 나눠 작시, 음주	연지	정재[盤松亭]	흥에 겨워 시를 쓰니 서늘바람이 일어나는 느낌으로 더운 기운이 사라짐
			방죽[陂]	초록빛 방죽 안이 몇 천 섬의 맑은 물로 가득함
			연(蓮)	푸른 잎 붉은 꽃이 잔물결에 비침
서지에서 노닐며[游西池]	- 초가를 해질녘 서지에서 연과 주변을 감상하며 고향 생각을 함	주변 환경	성(城)	높은 성에 새가 내려앉고 석양빛이 내림
		연지	연(蓮)	연꽃은 시들고 연잎이 시퍼렇게 연밭은 여물음
			버들[柳]	높은 버드나무. 매미 울음소리가 들림
			제방의 풀[塢草]	서늘한 느낌. 산기운에 젖음.
서지에서 다시 노닐며[重游西池]	- 가을 해질녘 말을 정자에 매 두고 서지에서 연을 감상, 음주	연지	정재[林亭]	숲속 정자에 말을 매어둠
			버드나무가[柳傍]	바람을 느낌
			연(蓮)	석양빛이 가득한 연잎. 담박해서 고운 연꽃. 맑은 향기
			못[池塘]	가을빛이 가득한 연못
여름날 흥 풀이[夏日遣興]	- 한여름 지인들과 천연정에서 연을 감상 - 이동: 서교길→천연정	주변 환경	서교길[西郊馳道]	성을 끼고 길게 뻗은 길
			사대[射臺]	날이 따뜻해 잔디밭이 푸르름
		연지	정재[軒]	사방이 열린 덩그러ん 느낌으로 깊은 골짜기에 열려 있음
			못[塘]	한 무리 말 탄 사람들이 비침.
			연(蓮)	미풍에 불어오는 연꽃 향기가 좋음
더위를 없애는 여덟가지 일[消暑八事]	- 여름철 비온 뒤 더위를 피해 연을 감상하러 옴. 연잎을 이용한 벽통음[象鼻] 즐김	연지	수양버들[垂柳]	수양버들이 드리운 바람이 봄
			못[池]	푸른 못이라 표현함
			연(蓮)	부용의 자태가 연못에 더 머물게 함
천연정중수기 (天然亭重修記)	- 천연정과 서지를 중수 - 서지가 순안사 잔치, 경사대 부들의 송별연, 주객과 시인들의 작시 대결과 음주, 음악을 즐기는 풍류 장소임을 강조 - 여름철 천연정에서 서지와 주변 환경을 조망하며 경관 기술	주변 환경	사현[華峴]	특별히 빼어나 먼 형세를 끌어당기는 형상임
			자각봉[紫閣]	먼 형세를 끌어당기는 형상임
			서성[西城]	하얗게 둘러짐. 백악이 반만 성 위로 드러나 부처의 곱슬머리처럼 보임
			경기감영[畿輔布政營治]	천연정과 한 마장도 못되는 가까운 거리
		연지	못[池]	도성 근지에서 가장 크고 부용이 많음. 예전 경계를 회복하도록 공사함
			능수버들[檉柳]	제방에 빙 둘러 버드나무를 심음
			정재[亭]	40년 동안 기둥이 기울고 주초가 허물어져 중수함

천연정(天然亭)	- 여름밤 더위를 피해 천연정에 가서 밤새 연을 구경함	주변 환경	종소리 주변 가옥	종소리가 멀리 들림 만호장안의 등불이 밝음
		연지	연 못	넓적한 큰 잎이 우뚝 솟아있음. 맑은 향기가 만연. 꽃봉을 등불에 비유 넓은 바다와 같음
7월 14일 ... [七月十四日 閑杓庭 觀察邀 飲天然亭 賞荷花]	- 여름철 경기관찰사(민태호)가 초청해 천연정에서 20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연을 즐김	주변 환경	숲[林] 주변 가옥[千家]	종일 이 모임 때문에 떠들썩함 집집마다 성가귀가 높아 경계가 연결된 것으로 보임
		연지	연[荷花]	수면에 시원하게 열린 비단 동천이라 표현. 맑은 바람 환한 달빛 아래 외로이 핀 연꽃을 함께 감상함
			당[堂]	통소 북소리로 가득함
			못[池]	이별했던 물가로 상징. 제일의 꽃구경으로 습가지에 비교함
천연정상련(天然亭賞蓮), 이기	- 초가를 해질녘 성곽을 나와 천연정에 가서 연을 감상 - 이동: 서대문→의주로	주변 환경	성곽[西郭] 의주로	석양이 비침 오가는 거마들로 북적임. 멀리 보이는 연꽃이 술잔보다 크게 보임
		연지	연[蓮]	잔처럼 큰 연꽃이 활짝 펴. 들판 연못 가운데 향기를 풍김

### 3절 남지

#### 1. 남지의 이용 양상

서지가 국가 행사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다면, 그보다 남지는 사적인 친교 모임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었다.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에 남아있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모화관에서의 기로연(耆老宴)이 왕이 주관하는 공식적 모임이었다면,<sup>54)</sup> 그림에 그려진 기로회는 남지 옆 홍사효(洪思孝, 1555~?)의 저택<sup>55)</sup>에서 개인적 초대에 이루어진 친교 모임이다. 기로회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이유간(李惟侃, 1550~1634)의 일기에서는 그 당시 모임에서의 행태를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유간의 집은 서대문 쪽 근동(芹洞)으로 남지와 가까운 편이었다. 그중 1629년 6월 5일과 8일의 일기문은 아래와 같다.

1629년 6월 5일

지난해 학반(홍사효)의 집에서 지연(池蓮)을 감상하였다. 이달 초 3일에 승지와 여러 벗들이 또 한 가서 감상하고 돌아왔다. 초 4일에는 학반이 서간을 보내어 연을 함께 감상하자고 하였다. 나는 지금 이질을 만나 갈 수 없다고 답하였다. 5일 아침에 또 글을 보내어 오라고 하였으나 여제와 같은 글로 답하였다. 오후에 이호민이 왔다는 것을 들으니 비로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54) 윤진영, “李惟侃(1550~1634)의 「蓮池會始終事實」과 南池耆老會圖의 傳承來歷”(장서각 8, 2002), 14.

55) 홍사효의 집은 「남지기로회도」의 배경이 되었던 저택이다.



비록 옛날 향산(香山)과 낙양의 모임을 여기에 비길 수 있겠는가. 나는 병으로 참여하기를 사양하였으나 가지 않았다면 평생의 한이 될 뻔했다.<sup>56)</sup>

1629년 6월 8일

인경의 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학반의 집으로 내려갔다. ... 좌중은 15인이었다. ... 우리 일행은 술 한 잔을 마시고 또 약봉(서성)에게 한 잔을 권하였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마치고 돌아왔는데...<sup>57)</sup>

기록된 일기의 내용에서 1629년 6월 3일, 4일, 5일, 8일에 몇몇 지인의 모임이 있었고, 그중 6월 5일 모임이 「남지기로회도」로 그려진 것이다. 홍사효의 저택 누정은 남지를 감상하기 좋은 위치여서, 여름철 연을 감상하자고 지인들을 초대해 여러 차례 모임을 했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다. 모임에서 연향을 음미하며 벽통음<sup>58)</sup>을 즐겼고, 모임의 풍경을 그림으로 여러 점 제작하여 한 본씩 소장하였다. 이후 후손들은 꾸준히 모사(摹寫)를 진행하여 그림을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했다.<sup>59)</sup>

남지는 약현(藥峴), 근동, 남산 등 인근에 양반들이 거주했던 주거지가 있어 연꽃이 만발한 시기에는 자택에서 여러 차례 왕래하며 연을 감상하였다는 글이 많이 보인다. 먼저 성현(成俔, 1439~1504)은 승례문 밖 서쪽 약전현(藥田峴)<sup>60)</sup>에 살았는데, 집이 승례문과 가까이 남지를 자주 방문하였다. 6월 연꽃이 한창 피었을 때 “서산의 게으른 손이 날로 왕래하노라니”<sup>61)</sup>라고 하여 남지에 자주 왕래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여회, 유본과 함께 달밤에 연못가에서 술을 마시다」에서 밤 시간에 연지를 방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

승례문엔 고기 모양 자물쇠가 채워지고 崇禮門中下魚鑰

장안의 도로에는 행인들이 끊겼어라 長安道上無行人

향기로운 연못가에 자리 펴고 앉았더니 呼兒展席臨芳沼

밤이 깊자 달빛이 더욱 밝게 비치누나 夜深月色晴逾皎<sup>62)</sup>

56) 「연지회시종사실(蓮池會始終事實)」 1629년 6월 5일, 『동추공관계자료(同樞公關係資料)』; 윤진영, 앞의 논문, 9-10.

57) 「연지회시종사실」 1629년 6월 8일, 『동추공관계자료』; 윤진영, 앞의 논문, 11-12.

58) 코끼리 코를 기울여 술을 잔뜩 따르누나[淥酒傾筒象鼻偏]. 「남지기로회도에 제한 시[題耆老諸公南池賞蓮會圖]」, 『계곡집(谿谷集)』 ©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1997.

59) 윤진영, 앞의 논문, 24.

60) 성현의 자택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지명이 명칭에 남아있는 중구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남지까지의 직선거리를 보면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61) 西山倦客日往來. 「남지의 연을 읊다[南池蓮]」,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2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2008.

62) 「여회, 유본과 함께 달밤에 연못가에서 술을 마시다[與如晦有本月夜臨蓮池飲]」, 『허백당보집(虛白堂補集)』 3 © 한국고전번역원 조순희 역, 2011.

...

송례문 바깥 지역은 낮에는 사람들과 말과 수레로 북작이는데 인정(人定) 시간 이후 성문이 닫히면서 인적이 끊기고 고요해져, 이 시간에 한가히 자리에 앉아 연꽃과 그 향기를 만끽했음을 전해준다. 성현은 다른 문헌에서도 남지의 이끼를 태발로 떠와 벗에게 장난을 걸기도 하는<sup>63)</sup> 등 남지에 자주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항복(李恒福, 1556~1618)도 「남문연정(南門蓮亭)」에서 “남문의 연정에서 달빛 아래 산보하며 연을 감상하였다”<sup>64)</sup>고 하여 밤 시간이 한가롭게 산책하며 연을 감상하기 좋은 시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지는 송례문 밖 도성의 경계지역에 있어 송별의 장소로도 의미 있었다.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은 「송례문 연지에서 이백필을 전송하다」의 시문을 남겼다. 송준길(宋浚吉, 1606~1672)도 65세 되던 해에 고향으로 떠나는데 궁에 하직 인사를 하고 “도성 남쪽의 연지에 잠시 머물러 재신(宰臣)들과 작별하였다. 여러 재신이 연지 가에 장막을 치고 술을 가지고 와서 송별하였다. 또 동작 나루까지 따라온 자가 많았다”<sup>65)</sup>고 기록했다. 남지는 송례문 바로 앞으로 공공에 개방된 상징적 장소였기에, 지위가 높은 사대부들이 나이가 들어 귀향하고자 할 때 송별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다. 1597년(선조 30)에는 “왕이 송례문 밖 남지 가에 가서 심부사에게 전별연을 베풀었다”<sup>66)</sup>는 내용이 있다. 다른 사신 영접 행사가 모화관과 서지에서 이루어졌지만 심부사의 전별연이 남지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임진왜란으로 서지가 황폐해진 후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든지, 부사의 다음 목적지가 남쪽의 수원이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남지에서의 사신 영접은 자주 일어나던 행사는 아니었지만, 필요하면 남지 가에서 연회를 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적으로 남지는 오히려 왕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을 주목받았다. 1667년(현종 8)에는 환궁할 때 남지 가에서 잠시 멈춰 말을 타고 들어오는 의식을 가졌다.<sup>67)</sup> 또한, 현종대, 숙종대 여러 문서에서 남지 개[蓮池邊]에서 백성들의 상언(上言)을 듣겠다는 내용이 언급된다.<sup>68)</sup> 왕이 원행 이후 환궁할 때 남지 옆 넓은 공터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63) 송례문 밖으로 나가 연지(蓮池) 속에 태발(苔髮)이 물 위에 어지럽게 떠 있는 것을 보고 조리로 떠내어 구워놓고 지인에게 장난을 친 내용을 담고 있다. 『용재총화(慵齋叢話)』 8 © 한국고전번역원 권오돈·김용국·이지형 역, 1971.

64) 南門蓮亭. 步月賞蓮. 「남문연정 (중략)」, 『백사집』 1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1998.

65) 「연보(年譜)」, 『동춘당집 속집(同春堂集 續集)』 10권 © 한국고전번역원 정태현 역, 2007.

66) 上幸崇禮門外南池畔, 錢宴沈副使.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1597) 2월 8일 2번째 기사.

67) 明日還宮時, 乘馬, 排設崇禮門外蓮池邊, 爲之事, 分付. 『승정원일기』 10책, 현종 8년(1667) 윤 4월 12일 병술.

68) 『승정원일기』 11책, 현종 8년(1667) 9월 19일 경신 ; 『승정원일기』 19책, 숙종 23년(1697) 5월 6일 을유 ; 『승정원일기』 22책, 숙종 29년(1703) 6월 9일 계미 ; 『승정원일기』

들으며 실제 생활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임금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중간 지대의 성격으로 남지 변이 상징성도 있고 위치적으로도 적합했다고 보인다. 이 같은 연못가에서 가졌던 상언 의식은 점차 확대되어 영조대에는 서지와 남지 두 곳에서 상언을 받기도 한다.<sup>69)</sup> 또한, 「불살경우변(不殺耕牛辨)」을 보면 여가 시간에 잠시 도성을 나와 남지 인근의 마을을 둘러<sup>70)</sup> 백성들의 생활상을 보며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남지 일대는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다.

앞에서 연지의 운영과정을 보았을 때 남지는 19세기 초 매몰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강준함의 「한경잡영」에서 남지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 3백 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인조대 「남지기로회도」가 그려진 당시의 남지의 명승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작성 배경이나 전승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남지의 역사를 회고한 한편, 그 당시에는 주변에 시장이 들어서고 남지 자체가 황폐해진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지기로회도」는 후손들에 의해 계속 모사되며 보존되어 전해졌기 때문에 일종의 사료로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당대의 지식인들이 남지에 대해 기억하는 전형적 경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23년 인근 주민들에 의해 남지 수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공사 이후의 기록에서는 양반층보다는 일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 내용이 많았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사대부들이 남지에 찾아간 글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남지 일대의 공간환경 특성이 변화하면서, 이용의 성격도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1896년 기사에서 남지에 고니를 사서 풀어놓고 계속 구경하였다는 기사<sup>71)</sup>가 있으며, 같은 해 다른 기사에서는 6세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순경이 구해줬다는 기사도 있었다.<sup>72)</sup> 남지에서 일어나는 일화 하나하나가 기사화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편하

기』 24책, 숙종 35년(1709) 5월 19일 기축.

69) 『승정원일기』 39책, 영조 7년(1731) 4월 27일 기미.

70) 余適出崇禮門. 見池邊閭舍. 『수곡집(壽谷集)』 1.

71) 남문밖 칠피 아츰 저즈에 곤이라호는 큰시를 었던 사름이 팔느 완논디 그동리 스름이 열량을 주고 사다가 남문밖 옛몫세 너흐니 이시가 옛몫세물과 그고기를 깃버호야 날아가지 아니호고 쥬야로 거그서 놀더니 몇날전에 돌기 나눈거슬 보고 날아 가다가 도로혀 그옛몫스로 도로와노니 그 유적헌 청취가 범쵸 보다 다라고 이시가 여그서 논제가 혼돌이 근하더라. 『독립신문』 1896년 4월 14일 3면 ; 남대문밖 연못가에 곤이가 놀고 가지안는 일은 저거번 신문에 기록호였거니와 일전에 일본 사름이 강으로 산양 가는길에 곤이를 총으로 노호라 호거늘 그 근처 순검이 팔을 붓들고 못늦게 호엿다더라. 『독립신문』 1896년 4월 23일 3면.

72) 이돌 오일 남문밖 옛몫 가에서 김순홍의 쥬 여섯살 된 계집 오히가 옛몫세 빠진거슬 서서 순검 죠경선이가 공복 남은 차 물에 뛰여 드러가 그 오히를 건져 죽기를 면 호엿다더라. 『독립신문』 1896년 6월 11일 3면.

게 접근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98년 12월에는 만민공동회에서 주관하여 남지 변에서 김덕구 의사(義士)의 장례가 치러졌는데, 남지 한편에 차일을 높이 쳐 정구소(停柩所)를 조성하고 한 시간 동안 노제를 지내고 장지로 향했다고 한다.<sup>73)</sup> 이는 남지가 계속 남아있었다라면 근대기 남지 주변의 넓은 공터가 일종의 공론장 기능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sup>74)</sup>

남지를 이용하는 동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도성을 나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송별 장소로 사용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변 약전현, 근동, 남지 옆 마을 등 인근 지역에서 남지를 감상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옛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동선을 표기한 내용은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남지 일대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출처: 「도성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73) (중략) 남대문밖 런곳 가을 당도 하니 차일을 높이 치고 정구소(停柩所)를 비설 하였는디 처음에 영어 학교 퇴학한 학원들이 데물을 성비 하였 데문 지여 로데 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회 부인 회원들이 쏘한 데물을 성비 하였 로데 하고 그 다음에 샤립 흥화 학교 교원들이 데물을 성비 하였 데문 지여 로데 하고 그 다음에 리화 학당 교 하는 부인들이 찬미가를 하였 비록 목석이라도 충의 두 글자를 감동치 아니치 못 할너라 로데를 다 한 후에 덩구쇼에서 떠나 남단 압 갈월리 산디로 향 하였는디 (중략) 『독립신문』 1898년 12월 2일 4면.

74) 김덕구는 신을 잡는 신기로 장수로 황국협회와의 투쟁 중에 사망하였다. 김덕구는 충군에 국하다 죽음을 맞이한 한반도 최초의 열사로 구분된다. 김덕구의 장례식은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철폐된 근대적 의미를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 <http://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 2016.6.30.)

남지는 성종대 수축한 이후 시기적으로 16~17세기에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이용되었다. 이 시기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대부들이 방문해 남긴 여러 옛글이 전해지고 있다. 18세기에는 남지 일대도 시장과 거주지로 점차 밀집해가는 과정에서 남지 옆 공터는 남지라는 지물을 중심으로 상언 장소가 되는 등 여러 행사가 이루어졌다. 19세기 이후 복원된 이후로는 더욱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공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 그림 5-8과 같다.



그림 5-8. 남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2. 남지 경관 감상의 방식

남지의 경우 옛글에서의 시선이 주로 송례문과 길에 맞춰져 있어 주변 지역에 대한 묘사가 적은 편이다. 주로 남산, 송례문, 성곽, 길, 어염시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회, 유본과 함께 (중략)」에서는 남산에 대해 “푸르디푸른 남산이 우뚝 솟아있고”<sup>75)</sup>라 했고, 송례문이 인정 시간 이후 자물쇠가 채워지면 길에 인적이 끊겨 고요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남문연정」에서는 밤에 송례문 연정 주변을 산책하며, 성곽에 비친 나무그림자, 성벽에 달빛이 비친 모습을 함께 묘사했다. 그리고 「한경잡영」에서는 주변이 어염시장으로 어지러워진 분위기를 언급했다.

연지에서는 연과 못 수면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이었다. 연에 대해 남겨진 글로, 「남지의 연을 읊다」에서는 6월에 연꽃이 한창 피기 시작했을 때 씻은 듯 깨끗한 모습이라 말하며, “만 그루가 푸른 산처럼 보이고, 붉은 꽃은 곱게 반짝이며, 맑은 향은 십 리를 풍긴다”<sup>76)</sup>고 묘사했다. 연꽃은 청초한 자태라며 군자에 비유했다. 「여회, 유본과 함께」에서는 연의 “꽃꽂이 선 푸른 잎이 붉은 꽃을 둘러싼 모습”과 “바람 타고 느껴지는 맑은 향기”<sup>77)</sup>를 인

75) 南山蒼翠高嶠岫. 「여회, 유본과 함께 (중략)」, 앞의 책.

76) 萬柄亭亭翠傾蓋. 繁英灼灼紅初膩. 淩波仙襪步群仙. 浥露清香聞十里. 「남지의 연을 읊다」, 앞의 책.

상 깊게 기록했다. 「남지기로회도 서문」에서는 “연꽃 향기가 좌중에 스며들며, 잔잔한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준다”<sup>78)</sup>고 했고, 「남지기로회도 제화시」는 “연꽃 향기 솔솔 용연인 듯 애애하고”<sup>79)</sup>라 했다. 연꽃이 만개했을 때 연잎과 연꽃의 대조되는 색깔과 입체감 있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렸으며, 연향이 멀리서도 느껴져 공감각적으로 남지를 체험하였던 모습을 말했다.

또한, 못 수면에 대해서는 「남지기로회도 서문」에서 비가 내린 후 맑은 물이 연못에 가득한 모습이라고 했다. 「남문연정」에서는 밤 시간 남지의 모습을 “침침한 연못물”<sup>80)</sup>이라며 깊이 가득 찬 물에 관해 얘기했다.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표 5-3과 같다.

남지는 인근에 사대부들이 선호하는 거주지가 있어, 그들이 남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지에서 경관을 감상할 때는 연지 자체가 중심이 되었고, 주변 환경으로는 성곽, 송례문과 같은 남지와 인접한 근경(近景)을 함께 감상했다.(그림 5-9 참조) 특히 밤에는 연지와 이들 지물 사이에 경계가 없이 마치 하나의 장소처럼 느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소를 차례차례 이동하며 산책하곤 했는데, 가로에서 연향이 계속 느껴져 이들 공간이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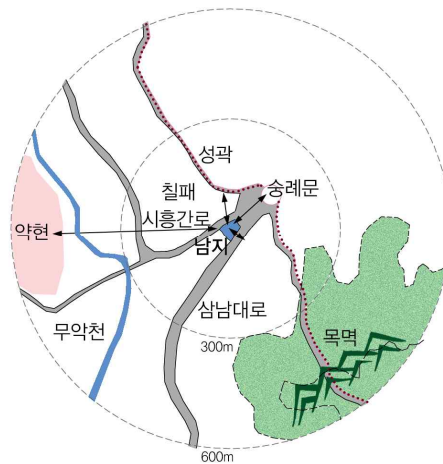


그림 5-9. 남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자료: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참조

77) 亭亭翠蓋擁紅粧。香遠益清風嫋嫋。『여회, 유본과 함께 (중략)』, 앞의 책.

78) 是日也 喜雨新晴 清水滿塘 荷香襲座 微風借涼。『남지기로회도』 서문.

79) 香風入座龍涎暖。『남지기로회도 제화시』, 『계곡집』 31 ©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1997.

80) 池面沈沈壁月昏。『남문연정』, 앞의 책.

Table 5-3. 남지에서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옛글	주요 행태	경관요소		요소별 묘사 및 감정
남지의 연을 읊다[南池蓮]	- 6월 연꽃이 만발했을 때 자택에서 남지로 매일 왕래하며 연을 감상 - 이동: 약전현[西山] 자택→남지	연지	연[蓮, 藕花]	연꽃이 한창 피어 씻은 듯이 깨끗함. 만그루가 푸른 산처럼 보이고 붉은 꽃은 곱게 반짝임. 이슬 젖은 맑은 향이 십리를 풍김. 청초한 자태가 군자와 같음
여희, 유본과 함께 달밤에 연못가에서 술을 마시다[與如晦有本月夜臨蓮池飲]	- 달밤에 벗 3인과 남지에 가서 남지 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술을 마시며 연을 감상	주변 환경	남산(南山) 송례문(崇禮門) 장안 도로[長安道]	푸르디푸른[蒼翠] 남산이 우뚝 솟아있음 인정 시간 이후 문에 물고기 모양의 자물쇠가 채워짐 인적이 끊겨 고요함
송례문연지에서 이백필을 전별하다[崇禮門蓮池上. 錢李伯弼]	- 남지가에서 지인을 전별	연지	연[蓮]	꽃꽂이 선 푸른 잎이 붉은 꽃을 둘러쌌. 바람 타고 맑은 향기가 풍김. 밤이 깊어지면서 달빛이 더욱 밝게 비침
연지회시종사실(蓮池會始終事實) 1629.6.5.	- 6월초 남지 인근 홍사효 저택에서 3일 동안 여럿이 계속 모여 연을 감상. 홍사효가 아침에 서찰을 보내 초대함 - 이동: 근동 자택→남지	연지	연[池蓮]	낙양 향산(香山)의 구로(九老) 모임에 비교
연지회시종사실 1629.6.8.	- 6월초 지인들의 집에 들리며 술을 마심. 연을 감상하기 좋은 홍사효 저택에는 15인이 모여 있음 - 이동: 근동→인경 저택→남지→서성 저택			
남지기회도 서문	- 6월초 남지기회회의 분위기를 묘사	연지	못[塘] 연[荷]	비가 내려 맑은 물이 연못에 가득함 연꽃 향기가 스며들며 잔잔한 바람에 날아옴
남지기회도 제화시	- 6월초 연꽃을 감상하며 벽통음을 즐김	연지	연[蓮]	곡강지(曲江池)의 연꽃모임에 비유. 연꽃 향기가 용연처럼 애애함
남문연정[南門蓮亭. 步月賞蓮. 聞城上歌聲寥亮]	- 밤에 송례문 연정과 남지, 성곽 일대를 산책 - 이동: 연정→성곽	주변 환경	성[堞/壁]	맑고 낭랑한 노랫소리가 성 너머 들림. 성곽에 비친 나무그림자가 기이함. 성벽의 달빛이 희미함
		연지	연[蓮] 물[池面]	푸른 연의 향풍이 봄. 연못물이 침침함
연보(年譜)	- 봄철 남지에 장막을 치고 술을 가지고 와서 송별모임 - 이동: 궁→남지→동작진			
불살경우변(不殺耕牛辨)	- 여가시간에 송례문을 나가 남지 일대 마을을 둘러봄 - 이동: 송례문→남지 일대			
한경잡영(漢京雜詠)	- 인조대 기로회가 화려하게 열렸던 남지와 현재 매몰된 남지를 비교하며 사유	주변 환경	어염시장	남지 일대가 시장으로 분위기가 어지러워짐
		연지	남지(南池)	폐기되어 자취만 남아있음. 기로회에 대한 기억이 확실

## 4절 어의동지

### 1. 어의동지의 이용 양상

어의동지는 국초부터 있었던 못이지만 이를 감상한 글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웠다. 주변 흥덕동천이나 조양루, 석양루, 낙산에서 경관을 조망하며 남긴 글들은 있지만 어의동지 자체를 자세히 기술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어의동지가 자리한 연지동은 연꽃으로 유명해,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었다.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은 연꽃을 보러 연지동에 찾아간 내용을 「상화연지동(賞花蓮池洞)」 시문으로 남겼다. 남고(南皐, 1807~1879)도 「연지동」에서 연꽃으로 유명한 연지동을 방문한 내용을 글로 남겼다.

어의동지는 멀리서 조망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동촌에 가서 경모궁에 들렀다 석양루에 들어가 영파정에 오르고, 쇄춘문 밖으로 나가 층대(層臺)에 올라 다시 석양루를 조망했다.<sup>81)</sup> 쇄춘문 밖 층대는 낙산에 위치한 대(臺)로, 거기서 동촌 일대를 조망하며 어의동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동촌이 평탄한 지형이었기에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어의동지를 포함해 전체 전경이 조망되었다.

동촌 일대에서 석양루와 조양루는 행락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였다.(그림 5-10 참조) 이곳에 가려면 어의동지를 지나야 해, 세 장소를 함께 돌아보는 경우가 많았다. 유만주의 글에서 어의동지를 목적지로 두고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동촌의 석양루, 조양루 일대를 돌아보는 가운데 어의동지에 들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유만주는 석양루를 중국에 견줄만한 정원(園坵)이라 생각해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석양루를 구경하러 갔다가 조양루로 이동하고, 조양루 밖에 가서 어의동지를 살펴보고 해가 저물어서 돌아왔다고 기록했다.<sup>82)</sup>

한편 유만주는 어의동지의 조성 목적에 대해 조양루, 석양루 두 누각을 가까이 이어놓고 왕실 가족이 내려와 살도록 바깥 별당을 만든 것과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sup>83)</sup> 어의동지는 국초부터 원래 있던 연지이기에 유만주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세 곳이 모두 가까이에 있어, 17세기 중반 조양루와 석양루가 조성되고 대군들이 머물던 시기와 이후 후손들이 거주하던 시기에는 어의동지를 함께 향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어의궁이 별궁이 되고 석양루가 쇠락해가면서, 어의동지는 별당과 같은 기능보다는 도성 내

81) 登鎖春門外層臺 以望夕陽樓 樓乃連延大屋子中南邊層閣是云. 聞今之東池. 『흙영(欽英)』 21, 1786년 4월 5일.

82) 逐偕之過朝陽樓, 外遊賞東池. 『흙영(欽英)』 23, 1787년 2월 21일.

83) 蓋近聯朝夕二樓 爲王室至親下坐外別堂. 『흙영(欽英)』 21, 1786년 4월 5일.



큰 연지로 유명했던 만큼 동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른 명소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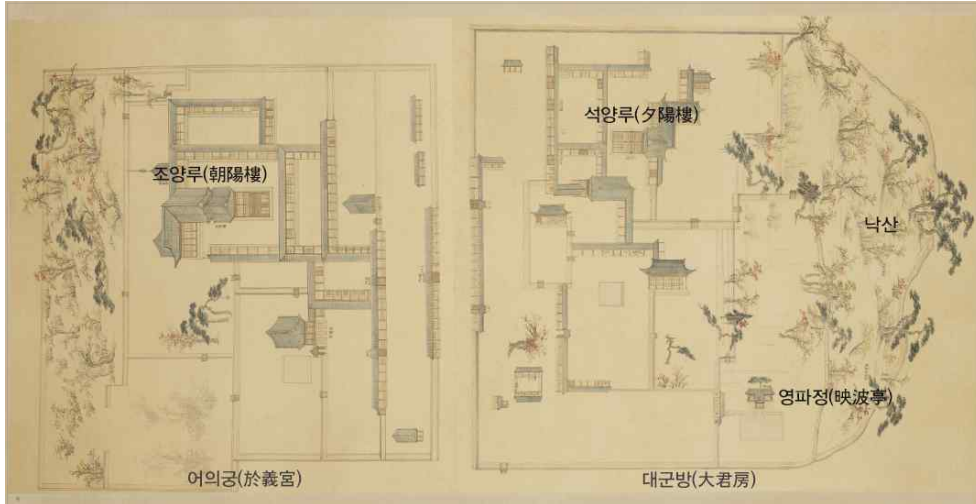


그림 5-10. 「인평대군방전도」에 나타난 조양루와 석양루  
자료: 규장각 소장

또한, 어의동지는 연지동 또는 어의동으로 불리는 지역의 입구[洞口]에 있었다. 그런 만큼 행정구역의 변화를 환기하는 역할과 함께 어의궁의 진입경관으로의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동궐에서 어의궁으로 왕이 행차할 때, 홍화문과 선인문 앞길, 신석교(新石橋), 이현(梨峴) 앞길, 판전 병문(板前屏門) 앞길, 이석교(二石橋), 연지동, 별궁 대문의 경로로 이동했다.<sup>84)</sup> 여기서 연지동에 진입하는 것은 어의동지와 인접한 어의동로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어의동지는 가로 바로 옆에서 동의 입구로서 경계 지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어의궁 공간으로 전이해주는 역할도 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어의동지를 이용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종로에서 어의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주요 길목으로 지나게 됐으며, 조양루와 석양루와 함께 오가며 구경을 하기도 했다. 또한, 북쪽에 경모궁이 새로 건립된 이후에는 경모궁과의 연계도 강화되었다. 지도에 표기한 내용은 그림 5-11과 같다.

84) 「도청의궤(都廳儀軌)」 내관질(來關秩),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嘉禮都監儀軌英祖貞純王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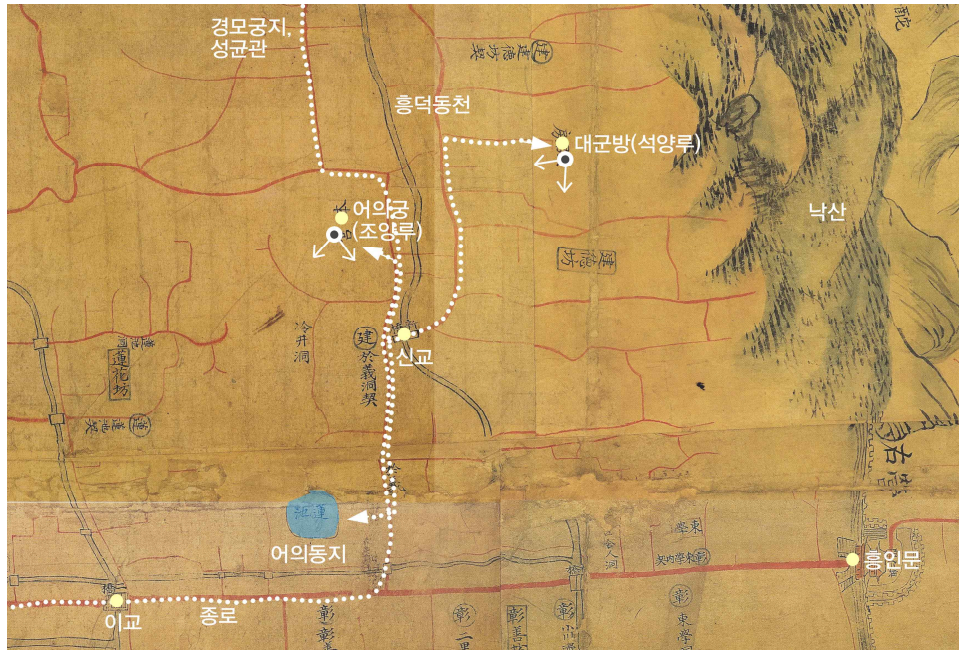


그림 5-11. 어의동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방문 동선

자료: 「도성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어의동지의 시기별 이용에 관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이 자료들과 지리지에서 어의동지를 언급한 내용은 모두 동촌 지역에 어의궁과 대군방을 조성한 이후 기록되었다. 국초부터 어의동지가 있었지만, 어의궁이 인접한 지역에 조성된 이후 연지의 관리도 더 잘 이루어지고 어의궁과의 연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그림 5-12 참조)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국초 조성			매물		
연지동의 유래를 볼 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못(淵)이 지(池)로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1418년(태종18) 연지동에 대한 언급 1421년(세종3) 중로 북쪽 시전 뒤 도랑 설치 1505년(연산11) 중로 동쪽 연지 예전 큰 길 언급	1631년(인조9):봉림대군 저택(어의궁) 조성 1641년(인조19):대군방 조성	(장원서등록에서 어의동지로 명명) (한경지략, 대동지지 등 지리지에서는 동지로 어의동지를 일컬음)		
			구 연지터로 기억 1901년 비움문제로 수축공사 무산 표석으로 경계만 표시하기로 함		

그림 5-12. 어의동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2. 어의동지 경관 감상의 방식

어의동지 주변인 흥덕동천 일대는 버드나무 경관으로 유명했다. 어의동지 주변 환경에

대해 묘사하기도 한 「상화연지동」에서는 연지 주위로 버드나무가 우거져 그늘이 드리워져 있으며, 주변은 밭이 넓게 펼쳐져 봄빛 색이 선명하다고 했다. 버드나무에 관해서는 윤기(尹愔, 1741~1826)는 “조양루 밖 버들은 안개가 낀 듯하네”<sup>85)</sup>라고 묘사했고 정조(正祖, 1752~1800)도 조양루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며 “산에 핀 꽃은 난간 앞에 고요하고 시내 버들은 주렴 가까이 떠 있어라”<sup>86)</sup>고 흥덕동천을 따라 버드나무가 있었던 경관을 인상적으로 묘사했다.

연지의 경관에 대해서는 “멀리서 볼 때는 푸른 잎이 뽀뽀하여 겹겹이 겹쳐져 보였는데, 가까이 가면 연꽃의 선홍색이 선명해 더욱 생생해 보인다”<sup>87)</sup>고 했다. 또한, 크기가 굉장히 넓다고[闊] 묘사한 내용도 있었다. 「연지동」에서는 연지동 연지의 연꽃을 기대하고 어의동지를 방문했는데 “연도 없고 연못도 매몰되어 매우 실망했다”<sup>88)</sup>고 말했다. 천 년은 지속할 것 같았던 연못이 그렇지 못한 데 대한 허무함을 전하고 있다. 연지동의 유래가 이 연못에서 전해졌고 큰 연못이라고 생각해 찾아왔는데, 이 시기 연지가 매몰된 상태여서 보지 못해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어의동지는 주변 농지와 가까이에 있는 산이 함께 조망되는 경관이었고, 조양루와 석양루도 함께 조망되었을 것이다.(그림 5-13 참조) 어의동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요소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5-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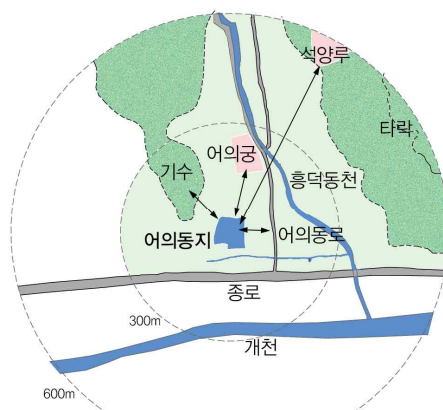


그림 5-13. 어의동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자료: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참조

85) 朝陽樓外柳橫煙. 「송동에서 노닐며[遊宋洞]」, 『무명자집(無名子集)』 시고 2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강민정 역, 2014.

86) 山花當檻靜. 溪柳近簾浮. 「조양루에 오르다」, 『홍재전서(弘齋全書)』 1 ©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역, 1998.

87) 遙看密翠重重覆. 差近鮮紅稍稍生. 「상화연지동」, 『귀록집(歸鹿集)』 1

88) 惆悵蓮池涸. 何人昔種蓮. 蓮亡塘亦廢. 容易一千年. 「연지동」, 『시암집』 2.

표 5-4. 어의동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내용

옛글	주요 행태	경관요소		요소별 묘사 및 감정
상화연지동 [賞花蓮池洞. 歸路口占]	- 한가한 날 연못을 찾아가 정자에 누워 휴식	연지	연꽃(蓮)	연잎이 푸르게 뻗뻗하고, 꽃이 붉게 점점이 드러남
			빛무리[斜暉暈]	빛이 비취 연못이 밝게 드러남
		주변 환경	버드나무[柳陰]	버드나무 그늘이 맑음
			밭이랑[千頃]	봄빛으로 밭이랑이 곱게 느껴짐
흙영(欽英) 21, 1786.4.5	- 동촌 일대를 산보 - 이동: 석양루→영파정→조양루 밖→어의동지	연지	못	경모궁지의 몇 배 될 정도로 광활함[池之闊幾倍於新池]
흙영 23, 1787.2.21	- 동촌 일대를 산보 - 이동: 성균관 벽송정→포동(浦洞)→광례교→경모궁지→석양루 영파정→어의동지			
연지 동(蓮池洞)	- 연못이 유명한 연지동을 찾아가봄	연지	연못	연도 없고 연못도 폐기되어 실망함

## 5절 경모궁지

### 1. 경모궁지의 이용 양상

경모궁지는 경모궁의 궁지로 연지에서 나온 여러 부산물은 궁에 진상했다. 그 외에 경모궁의 궁지로서 제례 행사에서 담당할 역할은 별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모궁 앞에 있어 경모궁 영역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했다.

경모궁지는 궁 밖에 위치한 연지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궁지 주변으로 공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궁 바로 앞에 있기에 경모궁지 앞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글은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경모궁지는 어의동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이현대로(관현로)와도 가까이 도성 동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연못이었다. 특히 18세기 말 경모궁과 경모궁지가 조영되던 시기, 새로 조성하는 이들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써진 여러 글이 있다.

1776년 경모궁이 조성되고 1782년 경모궁지가 수축한 시기에 유만주는 경모궁 일대를 방문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776년 9월 27일 성균관에서 과거를 치른 후 새로 조성된 경모궁 일대를 돌아보았다. 이때는 경모궁지 조성 전이다. 그러다 1784년 윤삼월 1일에는 혜화문을 나가 신흥사, 정릉, 봉곡사를 본 뒤에 성문으로 들어와 다시 안개 낀 버들과 환하게 핀 꽃들을 보고, 경모궁지를 새로 만든 동쪽 연못이라 칭하며 둘러 보았다. 다음 해 1785년 4월 14일에도 동대문과 오간수문의 버들을 보고 석양루 앞을 지나 경모궁지에 도

달했다. 1786년 4월 5일에는 경모궁지를 거쳐 석양루를 보고 낙산 층대에 올라 동촌 일대를 조망하였다. 1787년 2월 21일에는 성균관에서 과거를 마치고 포동 정원을 보다, 광례교를 지나 경모궁지에 이르렀다. 연못을 한 바퀴 빙 둘러보며 감상을 한 뒤 다시 석양루에 갔다 어의동지를 보고 귀가한 내용이 있다. 경모궁지는 일대 주요 지물 중 하나로 여러 장소를 경유하며 함께 감상하였다. 동촌, 흥인문 일대, 혜화문 밖과 연계하여 많이 둘러보았다. 또한, 오랜 세월 성균관 유생 생활을 하던 윤기(尹愔, 1741~1826)도 자택이 연화방에 있었는데, 어의동로를 통해 성균관으로 매일 이동하는 가운데 경모궁지를 감상하곤 했다.<sup>89)</sup>

경모궁지는 이동 중에 잠시 들러 감상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용이 이루어졌다. 여러 지역을 함께 유람하면서 경로를 기록하였는데, 방문한 장소 뿐만 아니라 연지나 교량도 항상 함께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연지와 교량이 지역의 주요 지물로서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추한 경모궁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이동 경로를 표기한 내용은 그림 5-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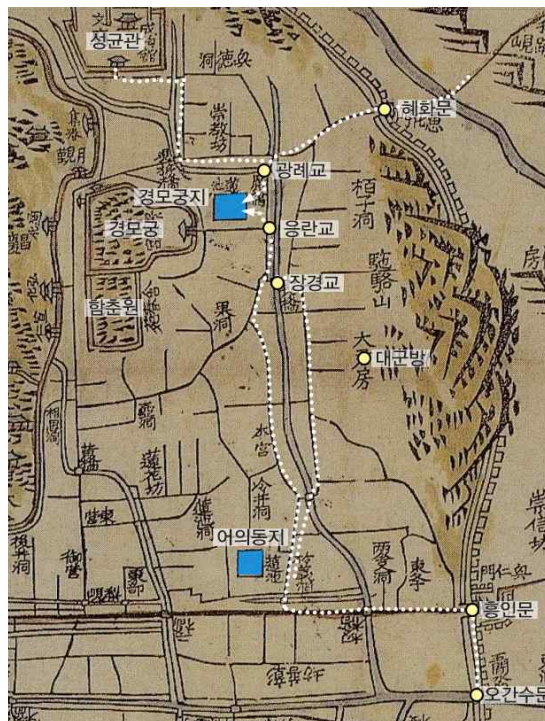


그림 5-14. 경모궁지 일대의 주요 장소와 이용 동선

자료: 「수선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89) 김하락, “자료 소개: 석양루라는 공간”(국문학연구 27, 2013), 283-294의 내용을 정리함.



경모궁지는 막 조성되었던 시기가 가장 활발히 이용된 시기였다. 경모궁지를 신지(新池)라 부르며, 애정을 갖고 연지 일대가 자리 잡는 모습을 지켜보았음을 알 수 있다. 가는 길에 잠시 멈추어 감상하고 가기도 했고, 잠시 정류하여 연지를 한 바퀴 돌아보고 또 경모궁 둘레를 돌아보기도 했다. 주요 길목에 위치하여 사적인 모임을 하기 어려웠지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했다. 특히 성균관과 가까워 유생들이 접근하기 좋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과거를 보러온 선비들도 둘러볼 수 있는 장소였다. 정리한 내용은 그림 5-15와 같다.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성종15(1484) 합춘원 조성	왜란 후(1598년 이후) 합춘원 방치	영조40(1764) 수은묘 조성	정조6(1782) 경모궁지 조성	순조6(1806) 석축공사 :연못 흙으로 경모궁 산기슭 성토	1920년대 매물
		정조즉위년 (1776) 경모궁 조성	교량, 수목 등 물리적 계획 여러 특권으로 募民 실시	(당대의 지식인층 경모궁 조성에 많은 관심)	

그림 5-15. 경모궁지의 운영과 이용의 시대적 변화

## 2. 경모궁지 경관 감상의 방식

경모궁지 주변 환경에서 인상적으로 여겨졌던 경관요소로는 경모궁의 안산(마등산), 경모궁, 응란교, 석양루가 있었다. 유만주는 마등산은 키 큰 소나무가 즐비하고 소나무와 삼나무 사이로 동결의 용마루와 그림으로 장식한 벽이 비친다고<sup>90)</sup> 묘사했다. 경모궁 대문은 규모가 크고 색을 붉게 칠했고, 경모궁 담장은 하얗게 회칠해 문의 붉은 빛이 비친다고 했다. 응란교는 석축 공사를 하고 있었다. 경모궁 앞길은 경모궁 삼거리라고도 불렀는데, 버드나무가 열식되어 여리고 고운 가지가 푸르게 흔들리는 모습이 “장저소년(張渚少年)”과 같다고 했다. 경모궁 앞에서는 길 건너편 석양루가 올려다 보이기도 했다. 석양루의 초화류가 시든 것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조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모궁지는 분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경모궁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대가 높은 주변 시설을 함께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5-16 참조)

연지 경관과 관련해서 연못 주변에는 버드나무와 개나리를 새로 심었다고 언급한다. 수양버들이 연못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나리도 연못을 에워싸도록 식재했다.

90) 김하라, 『일기를 쓰다』(파주: 돌베개, 2015), 2: 167.

봄철 붉은 꽃이 많은 가운데서 노란 개나리가 줄지어 핀 모습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못 가운데에는 원도가 있고, 원도에는 작은 꽃나무들이 식재되었다. 푸른 잎 가운데 붉은 꽃이 점철되는 광경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연못은 연꽃으로 가득 차 향기가 미풍 따라 퍼지고 소나기가 내릴 때 맑은 구슬이 꽃빛을 더 화려하게 해준다고 했다. 연꽃은 잘 관리되어 정조대 이후의 시문에서도 경모궁지의 연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연못물에 관해서도 얘기해, 못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며 “눈 같은 물보라, 옥 같은 물소리”<sup>91)</sup>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언급한 것을 보아 물이 정제된 연못이 아니라 수계와 연결되어 물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연못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5-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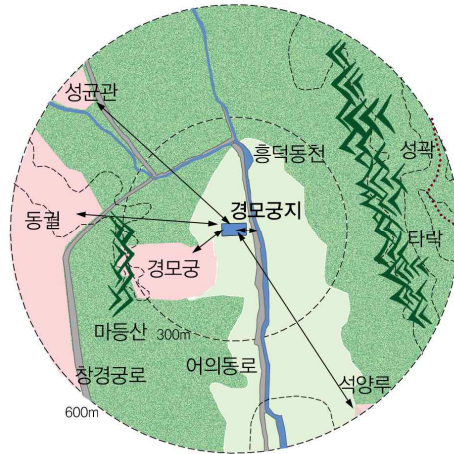


그림 5-16. 경모궁지 일대 주요 장소와의 관계  
자료: 지적원도, 1921년 지형도 참조

표 5-5. 경모궁지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감상 내용

옛글	주요 행태	경관요소	요소별 묘사 및 감정
『흙영(欽英)』 2, 1776.9.27	- 성균관 과거 후 경모궁 일대 관찰 - 이동: 성균관→함춘원→경모궁→경모궁 연도(輦道), 후문→응란교	주변 환경 안산, 동결, 문, 담장, 응란교	키 큰 소나무가 즐비. 소나무와 삼나무 사이로 용마루와 그림 장식벽이 보임 붉게 칠한 커다란 문 하얗게 희칠한 담장에 문의 붉은 빛이 비침 양 끝에 석축
『흙영』 17, 1784.윤3.1	- 동촌 일대 유람 후 경모궁지 감상 - 이동: 혜화문→정릉→봉국사→손가장→흥인문→경모궁지	연못 버드나무, 개나리	독 위에 새로 심어 아직 어림 흐드러지게 피어 멋진 광경임
『흙영』 19, 1785.4.14	- 동촌 일대 유람 후 경모궁지 감상	주변 환경 경모궁 앞	새잎 돋은 푸른 빛이 연못 주변을 두르고 있음. 여러고 고운 가지가 푸르게 흔들려 장저

91) 可憐景慕宮前水. 雪碎玉鳴爽我心. 「잠깐 쉬며」, 『무명자집』 시고 2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강민정 역, 2014.

	- 이동: 흥인문→오간수문→석양루→장경교→경모궁지	연못	원도 개나리	소년(張渚少年)과 같음 푸른 잎 사이에 붉은 꽃이 점철됨[點綴爲景] 노랑게 연못을 에워싸고 있음
『흙영』 21, 1786.4.5	- 석양루로 유람 - 이동: 경모궁지→석양루→영파정	주변 환경	경모궁	경모궁 앞에 버드나무가 보임
『흙영』 23, 1787.2.21	- 동촌 일대 관람 중 경모 궁지 관찰 - 이동: 성균관 벽송정→포 동(浦洞)→광례교→경모궁지 →석양루 영파정→어의동지	연못	물 수양버들 원도 못 돌레	연못물이 가득 차 있음 사방을 둘러 씌 제철 작은 꽃나무가 붉게 꽃을 펴 발걸음으로 100보가 채 못 됨
경모궁지 [景慕宮池 蓮花盛開]	- 경모궁지 감상	연못	연꽃 소나기	푸른 잎 사이 연꽃이 펴. 맑은 물에 노을처럼 어리비춤. 향기가 미풍따라 퍼짐 맑은 구슬이 꽃빛에 화려함을 더함
잠깐 쉬며 [小憩]	- 성균관 가는 길에 경모 궁지 감상 - 이동: 자택→경모궁지→성 균관	연못	그늘 못물	길가의 그늘이 설만함 눈 같은 물보라, 옥 같은 물소리에 마음이 상쾌해짐
경모궁연지 운(景慕宮 蓮池韻)	- 경모궁지에서 옛 왕을 그리워하며 사색	연못 주변 환경	꽃 초목 응란교	오래 되어도 새로움. 향기가 있음. 잘 관리 되어 옴[培養] 밝은 빛을 입음 옛 왕을 생각하며 눈물이 남

## 6절 소결

연지를 이용하는데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5개 연지가 길가 또는 길과 인접한 곳에 있어 지역 성격이 변하는 지점에서 전이 공간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다. 접근성이 좋고 전이공간으로 유동인구도 많아, 연지에 대한 인지도도 높으며 다른 명소와의 연계도 좋았다.

다만 입지한 지역 특성에 따라 이용 양상에는 연지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지와 남지는 주요 행사 시 원행을 가는 성문과 가깝고 연지 주변에 공터가 있어 국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개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했다. 국가에서는 사신 영접 연회, 사대례 의식, 상언 의식, 기우제 의식, 관에서 주관하는 모임을 치르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개개인에게는 송별 모임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했고, 연꽃을 감상하기 위한 문회, 시회와 같은 모임, 친교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나타나는 공간이었다. 반면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여럿이 찾아 모임을 하기 보다는 개인이 찾아가 완상하거나 멀리서 조망하며 즐기는 성격을 보였다. 또한, 이동할 때 잠시 거쳐 가며 감상하기도 했다.

연지별로 활발히 이용된 시기를 보면,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연지가 잘 운영되었던 시기에 이용도 활발히 나타났다. 서지는 국초에는 국가적 이용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개인의 이용도 점차 증가해, 한성부에서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락공간으



로 성격이 변화했다. 남지는 국초 인근에 거주하는 사대부들 중심으로 많은 이용이 있었으나, 조선 후기 주변에 시장과 민가가 밀집해가면서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공장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동지, 서지, 남지는 조선 당시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비보풍수나 사신영접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으나, 실제 이용양상은 시간이 흐르며 주변 환경 특성에 맞추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관을 감상할 때 감흥을 받았던 요소로는 공통으로 연과 연못물이 나타난다. 연을 재배한 목적은 왕실에 진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적은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로 인해 넓은 면적으로 연으로 가득 찬 연지의 경관은 여름철 한성부에서 대표적인 문화경관이 되었다. 연을 묘사한 내용에서는 5개 연지가 비슷하지만, 연지 경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주변 경관의 영향이 컸다. 서지와 남지가 주변에 성곽, 성문, 길 등 도시형 경관요소가 많아 도시적 경관을 보였다면, 다른 연지들은 주변이 농지, 산으로 묘사되어 전원적 경관을 보인다.

연지별로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 연지별 이용 양상과 경관 감상방식 비교

구분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주요 이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멀리 위치한 산에서 조망하며 감상</li> <li>◦ 흥인문 진출입시 길에서 조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행, 사신 영접/송별</li> <li>◦ 북쪽이나 중국으로 떠날 때 송별</li> <li>◦ 연꽃 감상</li> <li>◦ 관 모임, 문화, 사회, 친교모임 등</li> <li>◦ 작시, 작화, 차운시, 청음, 연향 음미, 벽동음 등</li> <li>◦ 개인적 완상</li> <li>◦ 기우제</li> <li>◦ 상연 의식</li> <li>◦ 밤, 새벽 등 이용 시간 다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친교모임</li> <li>◦ 인근 사대부 거주민들이 잦은 왕래</li> <li>◦ 귀향시 송별회</li> <li>◦ 특정한 경우 사신전별</li> <li>◦ 상연 의식</li> <li>◦ 승례문의 진출입경관</li> <li>◦ 승례문 밖 마을의 진입경관</li> <li>◦ 19세기 마을 주민의 일상적 이용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꽃 감상</li> <li>◦ 주변 산자락에서 조망</li> <li>◦ 석양루, 조양루 등과 함께 동춘 일대 유람</li> <li>◦ 왕실가족이 거주할 때는 바깥 별당과 같은 성격</li> <li>◦ 연지동의 입구이자 어의궁의 진입경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모궁 영역의 전이공간</li> <li>◦ 도성 동북쪽 이동시 경유</li> <li>◦ 이동 중에 잠시 들려 감상</li> </ul>
이용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암→흥인문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의문→의주로→서지</li> <li>◦ 냉동↔서지</li> <li>◦ 서대문 밖 유적지→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성→남지→한강</li> <li>◦ 약전, 근동, 근처 마을↔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연지동 입구→어의동지→조양루↔석양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춘, 흥인문 일대, 혜화문 밖과 연계해 유람</li> <li>◦ 성균관 진출입시 방문</li> </ul>
시대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종대: 비우당팔영, 오사구동교별업기</li> <li>◦ 숙종대: 동교상산, 동문조도</li> <li>◦ 17,18c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이용은 조선 전기/중기 내용이 많고, 개인적 이용은 조선 후기의 내용이 많음</li> <li>◦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여가, 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17c 비교적 잘 운영, 사대부들이 많이 방문</li> <li>◦ 18c 시장과 거주지로 밀집해가며 상연 장소 등으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의궁 조성 후 궁과의 관계성이 높아지고 관리 측면에서 유리</li> <li>◦ 18,19c 연지로 뚜렷하게 인지됨</li> <li>◦ 19세기 후반: 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19c 조성 당시의 시기에 가장 활발히 이용</li> <li>◦ 신지라 부르며 애정을 갖고 지켜봄</li> </ul>

		회적 활동이 나타나며 적극적 공간으로 변화	◦ 19c 백성이 관리하며 일상적 이용	못이 폐기되어 실망	
주변 경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망묘: 뽕죽한 용마루와 흰 담</li> <li>◦ 안암: 소나무가 울창함</li> <li>◦ 흥인문로: 큰 길</li> <li>◦ 농토: 동지 주변에 넓은 농토</li> <li>◦ 남쪽으로 목역, 관악, 청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주로: 수레와 말로 복잡함</li> <li>◦ 서쪽 도성: 길게 하안 성곽, 그 위 나무와 산</li> <li>◦ 서지 서쪽: 고요한 골짜기</li> <li>◦ 주변 가옥: 민가 밀집</li> <li>◦ 사대: 푸른 잔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산: 푸른빛</li> <li>◦ 송례문</li> <li>◦ 성곽</li> <li>◦ 길</li> <li>◦ 어염시장: 어지러운 분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드나무</li> <li>◦ 발이랑: 넓은 농지, 봄빛</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등산: 키 큰 소나무, 동결이 사이로 비침</li> <li>◦ 경모궁: 하얗게 회칠, 문은 붉음</li> <li>◦ 응란교: 석축</li> <li>◦ 석양루: 길 건너로 조망됨. 자세히 보임</li> </ul>
연지의 경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드나무: 세류, 동풍에 날리는 숨, 푸른 실 같은 가지</li> <li>◦ 연: 붉은 꽃, 푸른 잎</li> <li>◦ 연못물: 비온 뒤 더 아름다움</li> <li>◦ 도랑: 관리 후 깊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연향, 달빛을 받아 빛남, 연의 세부 요소를 관찰묘사, 계절변화 체감</li> <li>◦ 연못물: 수심이 깊어 빛이 푸름, 맑은 물</li> <li>◦ 반송: 송별의 상징적 의미</li> <li>◦ 버드나무: 서지 주변 수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맑은 향, 붉은 꽃, 푸른 잎</li> <li>◦ 연못물: 비가 내린 후 맑은 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푸른 잎, 붉은 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드나무: 경모궁지 사방을 둘러쌈</li> <li>◦ 개나리: 연지를 에워쌘</li> <li>◦ 원도: 작은 꽃나무 식재</li> <li>◦ 연못물: 가득 찬 물, 흐르는 물소리</li> </ul>



## 6장 결론

본 논문은 고지도에 표기된 한성부 내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즉 5개 연지에 대해 입지 및 환경 특성을 명확히 하고, 조성 및 관리와 소멸, 이용과 경관 감상의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입지 및 환경 특성에서는 연지 일대의 공간환경과 연지 자체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현재의 도시 현황을 함께 고찰하였다. 공통 사항으로, 이들 연지는 모두 길과 인접하도록 계획하였다. 여기에는 관에서 관리하기 편리하며, 수계를 연결하는 데 유용하며, 연지의 경계지물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합리적 방안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지 공간을 접근성이 좋고 경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토지 자체는 국가 소유의 공유지로 운영되었다. 이들 연지는 입지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다. 서지, 어의동지, 경모궁지가 산자락 계곡부로 연못 운영에 좋은 지점에 조성됐지만, 동지는 땅은 습지였으나 잦은 범람으로 연못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지는 지형이 낮아지는 지점에 있었으나 수계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공간환경에서는 서지와 남지는 도시지역에,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개발이 어려운 저습지에 있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위치와 형태가 규명되지 않았던 연지들의 물리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지 형태에서 서지, 남지, 경모궁지는 방죽이 있어 형태가 뚜렷했지만 동지와 어의동지는 연못 부지 범위 안에서 수위 변화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했다. 크기 면에서는 서지와 어의동지가 넓은 편이었다. 조성 당시에는 토축으로 공사를 하여 연지 격식에 있어 궁내 궁지보다는 자유롭게 운용하였다. 현재 이들 연지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서지와 경모궁지는 필지 형태가 보존되었고, 어의동지는 필지가 더 확장되었다. 동지와 남지는 필지가 나누어졌다. 그중 어의동지가 지역 차원에 잔존한 많은 장소적 요소가 있었으며, 서지, 남지, 경모궁지는 표석으로 연지 터를 표시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장소를 기억하는 장치로 부족함이 있다.

둘째, 연지의 공간변화 측면에서 연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나타난 특성을 고찰하고, 소멸 원인도 파악하였다. 5개 연지 중 동지와 남지는 국초 성곽과 함께 먼저 만들어졌다. 이후 태종대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수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서지가 조성되고 어의동지가 정비되었다. 경모궁지는 정조대 조영되었다. 모든 연지는 여러 차례 매몰과 수축 과정을 거치며 운영되었고, 19세기 말부터 각기 다른 원인으로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연지들은 자주 매몰되었는데, 그 터는 공유지여서 언제라도 공사를 하면 다시 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축 공사에서는 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시했다. 동지와 남지는 축성과 함께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동지는 가산 조성, 서지는 천연정 개축, 남지는 숭례문 지대 성토, 경모궁지는 궁의 안산 성토와 함께 연못 공사를 시행했다. 이러한 공사는 공역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공사 부역은 무리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에 민가가 많이 들어서면 거주민이 공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각 연지에는 담당 관리인이 1명씩 배치되어 있었고, 연의 수확물을 수확해 전각, 궁, 승정원, 내의원 등에 진상하였다. 연지들은 조성 목적에서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동지와 남지는 도성의 형세를 비보 하는 목적이 컸으며, 서지는 사신을 영접하는 목적으로, 어의동지는 물을 저류하는 유수지로, 경모궁지는 습지를 못으로 조성하며 환경을 정비했다. 전통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연지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모두 소멸하였다. 서지와 남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바로 매립하였고, 동지와 어의동지는 토사가 쌓이면서 폐기되고 이를 다시 수축하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소멸하였다. 경모궁지는 전용하기 위해 매립하거나 토사로 매몰되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연지는 가로와 인접한 위치이고 평탄한 지형에 넓은 면적으로 있어, 필요하면 쉽게 매립을 결정하는 대상이 되었다.

셋째, 연지 이용에 있어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지에 대한 감상 내용을 통해 연못에서 인상 깊었던 경관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지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서지와 남지는 성격이 비슷해, 국가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의 다양한 행태가 나타났다. 국가에서는 사신 영접 연회, 사대례 의식, 상언 의식, 기우제 의식, 관 주관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개개인에게는 송별 모임의 상징적 장소이자 연꽃 감상을 위한 문회, 시회와 같은 모임, 친교 모임 등 다양한 여가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모임에서는 그림 그리기, 차운시 쓰기, 담소 나누기, 술 마시기, 연잎을 이용해 벽통음 즐기기, 음악 듣기, 달밤의 연 감상하기, 새벽녘 연꽃이 열리는 소리 듣기 등 연지를 즐기는 다양한 행태가 나타났다. 반면 동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개인이 완상하며 잠시 들리거나, 멀리서 조망하고, 이동할 때 거쳐 가며 감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연지를 이용해 향유하기보다는 자연경관의 일부로 연지를 감상하였다. 경관을 감상할 때는 공통으로 연과 연못물에 대한 감흥을 묘사했다. 연을 재배한 목적은 실용적 차원이었지만, 여름철 연못에 연이 가득한 경관은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높았다. 연지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는 각 글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서지와 남지가 자연적이면서도 주변 도시형 경관요소들을 감상한 내용이 많았다면, 다른 연지들은 농지, 산과 같은 전원적 분위기로 언급해 각기 다른 경관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지, 서지,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 다섯 곳 연지들은 각기 위치한 지역에서 모두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높았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연지가 자리 잡은 환경 특성에 따라 그 성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먼저 성문 밖에 위치한 동지, 서지, 남지는 도성을 진입하거나 출입할 때 접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읍치의 못과는 구분되는 한양도성 연지만의 고유한 입지 특성이었다. 다른 읍성의 못들이 대부분 성 내부에 위치했지만, 동지, 서지, 남지는 성문에서 나와 연결되는 길에 인접하도록 또는 길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도성을 진·출입할 때 명확히 인지되게끔 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도성의 진·출입 경관으로서 연지를 상징적 의미를 갖게 했다. 특히 길과 연결되어 연지 변에 인접한 넓은 공터는 길 가운데에서 주요 거점이 되어, 성문 앞 만남과 송별의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었다.

또한, 남지, 어의동지, 경모궁지는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 지물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지는 남지 변 마을로 진입하는 경계가 되었고, 어의동지는 연지동의 입구이자 어의궁의 진입공간으로 의미 있었다. 경모궁지는 남북으로는 반촌과 시전 영역을 구분하고, 동서로는 길과 경모궁 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마을숲에서 마을 단위의 못이 마을 입구의 경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였다면, 한성부 연지들은 동(洞), 궁(宮), 토지이용 등 도시 내 다양한 요소나 영역을 구분해주는 복합적인 기능을 했다. 주로 가로나 수계가 행정구역의 경계가 되었다고 알려져 왔는데, 연지도 명확하게 인지되는 요소인 만큼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을 했다.

국가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연지는 서지와 남지였다. 이들 연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기록이 많았다. 서지와 남지는 궁궐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고, 주변 거주민이 많으며, 연지 변에 넓은 공터가 있어 이곳을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했다. 특히 서지 일대는 오픈스페이스가 많고 주요 관청 시설들이 있어, 도성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국가적 기능을 도성 인근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다.

수체계 측면에서는 동지가 우수지로의 기능이 강했다. 서지와 어의동지도 산자락에 입지해 물을 저류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동지는 특히 집중호우 시 개천으로 합류하는 지류의 물을 가두어 물이 흘러내려 가는 속도를 지연시켜줘, 도성의 수체계에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 동지는 입지적으로도 저지대 범람이 잦은 곳에 있었고, 범람에 자주 노출되어 쉽게 매몰되는 특성상 적극적인 연지 조영과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형상 습지에 가깝고, 자연형 못에 더욱 가까운 형태로 파악된다. 동지 부지는 국가 소유로 민간 부지와 구분해 지정되어 있어 동지 터는 지속하였다. 해당 부지가 보존되었으므로, 습지와 같은 땅을 필요에 따라 못을 제대로 파 연지로 잘 관리한 시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동지가 위치한 부지는 정해져 있었으나, 연지의 명확한 형태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소멸한 시기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성부 연지는 도성의 행락공간으로서도 의미 있었다. 연을 식재하고 잘 관리하여

여름철이면 멀리 가지 않아도 도성 가까이에서 연꽃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그중 주변에 주거지가 발달하고 성문 밖에 있어 이용 시간도 자유로웠던 서지와 남지는 연꽃 감상으로 유명한 행락공간으로 전해진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 연지 경관을 감상하였고, 양반층의 커뮤니티도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대부들은 시문과 서화를 함께 공유하였는데, 여기서 시문과 서화는 당대 좋은 장소를 알리는 일종의 매체로 작용했다. 매체를 통해 내용을 전승하면서 이들 연지는 행락공간으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옛글은 특정한 시기에 글이 집중되어 남겨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연지를 가장 활발히 이용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통해 한성부에서 이들 연지가 갖는 의미를 해석해본다면, 먼저 조선 당시에는 비보풍수, 성지 조성이나 사신을 영접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는 연지 관리를 통해 국용 연 수확물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도성에서 가까운 과원(果園)으로 연지를 유지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수확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연지의 실용적 가치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지는 도시환경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평적 랜드마크로서 기능하였다. 넓은 면적이기에 경계부에서 전이 공간의 기능을 하였고, 연지 주변의 오픈스페이스는 다양한 일상적 활동과 함께, 여가와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각적 인지면에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자원이 주는 청각적 환기, 연꽃 향을 통한 후각적 자극이 있어 공간 전이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 도시구성요소였다.

그리고 한성부 지역민에게 연지는 공공적 가치가 높은 장소였다. 연과 관련한 수확물을 진상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적 행사로 이용되는 시기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장소였다. 또한, 입지적으로 접근성도 높았다. 특히 도성 밖에 위치한 연지들은 밤새 모임을 하고 연지를 감상하는 등 시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로웠다. 그렇기에 개인 저택 내 연지나 궁궐, 관아 내 연지와 달리 공공에 개방되어 있으며, 마을 연지보다 익명성이 높아 보다 공공적 성격을 가진 연지였다.

이처럼 연지는 환경적으로는 넓은 면적의 오픈스페이스였으며,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도시 속 장소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이들 연지가 지속해서 관리되어 현대까지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었다. 연지는 조선시대 동안 매몰과 수축의 과정을 반복하며 이어왔는데, 그 가운데서 연지를 다시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연지 터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연지를 매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



한제국기나 식민지기 다시 수축 공사를 하였다면 연지는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성부 동, 서, 남쪽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연지 공간이 계속되었더라면, 현대사회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녹지공간으로 전승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연지는 공간적으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공간이었다. 특히 이제 구도심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한성부에서 이들 연지는 규모나 위치 면에서 좋은 부지였다.

또한, 한성부 연지와 그 주변 환경을 함께 고찰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역사적 자원을 기억하는 대상이 주로 물리적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송례문과 연결되어 일컬어졌던 남지는 송례문 복구사업이나 광장 조성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서지의 경우도 천연정의 조성 의미가 서지를 감상하기 위한 데 있었고 서지 자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대상에 있어 서지보다 천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모궁지도 마찬가지다. 바로 옆에서 경모궁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모궁지는 학교시설 증축공사와 관련한 발굴조사에서 원도 유적이 나왔지만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 다시 매립되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단일 건조물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건조물을 넘어서 더욱 넓은 차원의 옛 경관이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성부 연지를 실제의 도시환경 측면에서 고찰하였다는 데 있다. 여러 문헌의 내용을 공간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회화작품에 나타난 연지의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성부의 연지 환경을 객관적으로 밝혀냈으며, 연지의 조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환경 특성과 함께 재검토하였다. 또한, 연지가 단순히 행락공간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도시구성요소로서 연지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사료와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성부의 연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 시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불가피했다. 연지의 명칭이 일반 명사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 직접 관계된 사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찾은 사료가 연구대상인 연지에 해당하는 것이라 짐작되면서도 이를 연구 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활용한 지도와 도면자료들이 조선 후기로 한정되어 더 이전의 모습까지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료들도 일부시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시기적으로 고르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은 연지의 운영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지가 가장 활발히 이용되었던 시기에 글들도 집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양반층의 기록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나 민인들의 자료는 부족하여 연지 공간 이용의 한 측면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 미시사와 관련한 서적을 참고하며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최근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역사자료들이 정리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문헌]

-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嘉禮都監儀軌英祖貞純王后)』.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  
『견한잡록(遣閑雜錄)』.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광서12월5월일(光緒十二年五月日).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계곡집(谿谷集)』 3,29,31.  
『고봉속집(高峯續集)』 1.  
『귀록집(歸鹿集)』 1.  
『금대시문초(錦帶詩文鈔)』.  
『기언(記言)』 15, 별집 15.  
『농암집(農巖集)』 23.  
『눌재집(訥齋集)』 속집 2.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1,2,4,6,13.  
『단릉유고(丹陵遺稿)』 12.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1.  
『동주집(東州集)』 9.  
『동춘당집(同春堂集)』 속집 10.  
『매천야록(梅泉野錄)』 6.  
『무명자집(無名子集)』 문고 1,5, 시고 2,4.  
『사가집(四佳集)』 21,29.  
『삼명시집(三溟詩集)』 6.  
『석천시집(石川詩集)』 4.  
『수곡집(壽谷集)』 1.  
『시암집(時庵集)』 2.  
『식우집(拭疣集)』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3.  
『양촌집(陽村集)』 8.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3.  
『여헌집(旅軒集)』 9.  
『연도기행(燕途紀行)』 上.  
『연암집(燕巖集)』 1.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용천집(容軒集)』.  
『완당전집(阮堂全集)』 6.  
『용재총화(慵齋叢話)』 1,8.  
『운양집(雲養集)』 2.  
『월사집(月沙集)』 37.  
『율곡전서(栗谷全書)』 25.  
『이해학유서(李海鶴遺書)』 12.  
『장원서등록(掌苑署謄錄)』.  
『점필재집(佔畢齋集)』 시집 18, 문집 1.  
『존재집(存齋集)』 5.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1.  
『준천사실(濬川事實)』.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24.  
『지봉집(芝奉集)』 1.  
『청음집(淸陰集)』 13.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6,20.  
『추강집(秋江集)』 2.  
『택당선생속집(澤堂先生續集)』 4.  
『하려집(下廬集)』.  
『학봉집(鶴峯集)』 1.  
『한경사(漢京詞)』.  
『해좌문집(海左文集)』 12.  
『허백당보집(虛白堂補集)』 1,3.  
『허백당시집(虛白堂時集)』 2.  
『홍재전서(弘齋全書)』 1,2,172,176.  
『흙영(欽英)』 2,17,19,21,23.

Rhodes, Harry A.(2004).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서울: 경인문화사.

岡田貢(1989). 『京城史話』. 서울: 경인문화사(2000 printing).

白寬洙(1929). 『京城便覽』. 京城: 弘文社.

#### [국역 고문헌]

Avison, Oliver R.(2006). *Memories of Life in Korea*. 황용수 역. 장의식 편.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Landor, A.H. Savage(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신복룡·장우영 역. 서울: 집문당.

강명관(2008). 『한양가』. 성남: 신구문화사.

강준흠(2006). 『삼명시화』.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서울: 소명.

강희안(2012). 『양화소록』. 이종목 역. 서울: 아카넷.

경기문화재단(2001). 『수정국역 화성성역의궤』. 수원: 경기문화재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역(1971). 『국역 만기요람』 재용편 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권영경(2007). 『(독일인 겐테가 본)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서울: 책과함께.

김건곤 외 3인(2014). 『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진』.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정호(2004). 『대동지지』 1. 임승표 역. 서울: 이화문화사.

문용식 외 5인 역(2009). 『여지도서』 1-50. 전주: 디자인하름.

박시원(2004). 『국역 일포집』. 안정 역. 서울: 토우.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2012). 『국역 경성부사(京城府史)』 1-3.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성현(2014). 『용재총화』. 홍순석 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서유구(2013). 『산수간에 집을 짓고』. 안대회 엮어옮김. 파주: 돌베개.

안대회 편역(2008). 『고전산문산책』. 서울: 휴머니스트.

오도일(1992). 『국역 서파집』 上. 이민수 역. 서울: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유득공(2007). 「경도잡지(京都雜志)」. 『조선대세시기』 Ⅲ. 이창희·최순권 역.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유만주(2015a). 『일기를 쓰다』 1. 김하라 편역. 파주: 돌베개.

----- (2015b). 『일기를 쓰다』 2. 김하라 편역. 파주: 돌베개.

유본예(2016). 『한경지략』 1쇄. 권태익 역. 서울: 탐구당.

윤기(2013). 『무명자집』 2. 강민정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덕무 외(2015). 『성시전도시로 읽는 18세기 서울』. 박현욱 편역. 서울: 보고사.

이항복(1998). 『국역 백사집』 1. 임정기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이희(2012). 『국역 지재유집』. 안대회 역.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임형택 편(1991). 『(이조후기) 여향문학총서』. 서울: 다른생각, 1991.

정명현 외 역(2012). 『임원경제지-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

정민·이홍식(2013). 『안대화·이종묵·정민의 매일 읽는 우리 옛글 20 : 집은 비만 가리면 된다』. 민음 디지털 클래식.

정약용(2012). 『목민심서』. 박일봉 역. 서울: 육문사.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2007). 『조선의 임수』.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역. 서울: 지오북.

홍계희(2001). 『국역 준천사실·주교지남』. 원영환 역.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홍석모(2007).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대세시기』 III. 이창희·최순권 역.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황오(2007). 『국역 황녹차집: 녹비 황오의 문학 연구』. 이숙희 역.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 [단행본]

Allen, Sarah. 오만종 역(2005).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예문서원.

Duncan, James. "Representing Power: The Politics and Poetics of Urban Form in the Kandyen Kingdom", J. Duncan, 1993, *Place/Culture/Representation*, Routledge.

Gehl, Jan(c1987). *Life between Buildings*. trans. Koch, Jo. NY: Van Nostrand Reinhold.

Norton, William(1984).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 NY: Longman Group Limited.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1982). 『中文大辭典』 5. 臺北: 中國文化大學.

中華書局編輯部 編(1956). 『辭海』 上. 臺北: 中華書局.

가와무라 미나토(2004).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요시카와 나기 역. 인천: 다인아트.

강병수 외(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강영조(2005). 『풍경의 발견』. 파주: 효형출판.

고동환(2013).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3쇄. 파주: 태학사.

김현옥(2007). 『한양의 비보풍수와 녹지보전정책』. 파주: KSI.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2-1996). 『한국한자어사전』 1.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문화재청(2005). 『동궐도 읽기』. 서울: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박현옥(2006). 『서울의 옛물길 옛다리』. 서울: 시월.

성종상(2012). 『고산 윤선도 원림을 읽다』. 고양: 나무도시.

손영식(2011). 『한국의 성곽』. 서울: 주류성.

손정목(1984).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슐롬봄, 위르겐(2003). 『미시사의 즐거움 : 17~19세기 유럽의 일상세계』. 백승종·장현숙 공편역. 서울: 돌베개.

역사지리 연구모임 안팎너머(2011). 『역사지리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연동교회(2015). 『연동교회 12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회.

- 유병림(1994). 「물과 경관」. 『물과 한국인의 삶』. 최정호 편. 서울: 나남출판.
- 유병림·황기원·박종화(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 계획연구소.
- 윤재민(2007). 「성시(城市)와 산수(山水)」.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이화한문학연구회 편. 서울: 소명.
- 이도원(2004). 「생태학은 옛 사람의 삶 안에 있었다」. 『한국의 전통생태학』. 이도원 편. 서울: 사이언스북스.
- 이재근(1994). 『서울의 전래동명』. 서울: 백산출판사.
- 이혜순(2005). 「천년 승지 서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국내편 1. 김태준 외 편. 서울: 논형.
- 장명조(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 전영옥(2003). 『조선시대 도시조경론』. 서울: 일지사.
- 전우용(2008). 『서울은 깊다』. 파주: 돌베개.
- 전종한(2008). 「한국 도시의 원형 ‘읍성」. 『인문지리학의 시선』. 전종한 외 3인 편. 서울: 논형.
- 정순우 외(2016).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식 비교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정신여자중학교(1962). 『정신 75년사』. 계문출판사.
- 정은주(2012).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서울: 사회평론.
- 정재훈(2005). 『한국전통의 원』. 서울: 도서출판 조경.
- 정창권 편역(2003).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서울: 사계절출판사.
- 종로구(1994). 『종로구지』 下. 서울: 종로구.
- 주남철(2009). 『한국의 정원』.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최열(2012). 『옛 그림 따라 걷는 서울길』. 파주: 서해문집.
- 최원석(2004). 「한국의 전통적 경관보완론」. 『한국의 전통생태학』. 이도원 편. 서울: 사이언스북스.
-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파주: 한길사.
- 최종현·김창희(2013). 『오래된 서울』. 서울: 동하.
- 황기원(1995). 『책같은도시 도시같은책』. 서울: 열화당.
- (2009a). 『도시락 맛보기』. 서울: 다빈치.
- (2009b).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2011). 『경관의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2013). 『자벌레의 세상보기』. 서울: 학교재.
- 『환경설계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업교재(미간행).

#### [지도 및 회화]

- 柏書房 編(1985). 『(朝鮮總督府作製)一万分一 朝鮮地形圖集成』. 日本: 柏書房株式會社.

陳內六助(1982). 『京城府管内地籍目錄: 1917年』 영인본. 서울: 大林圖書出版社.

陳內六助(1982). 『京城府管内地籍目錄: 1927年』 영인본. 서울: 大林圖書出版社.

국가기록원(2008-2014).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7책. 대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안동대학교 박물관(1997). 『(사진으로 보는)조선 1892년』. 안동시: 안동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편(2013). 『조선시대 지도와 회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편(2004). 『도성대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2006).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2015). 『한성부 지적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이찬·양보경(1995). 『서울의 옛지도』. 서울학연구소.

장서각(2009). 『근대건축도면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봉희·이규철·서영희(2012).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 측량도와 건축도 1861~1910』.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허영환(1994). 『정도 600년 서울지도』. 서울: 범우사.

#### [연구보고서]

경기도박물관(2010). 『경기관찰사』.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편(2011). 『송례문: 송례문 발굴조사 보고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농업진흥청(2010).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 파주: 교문사.

서울역사박물관 편(2011). 『도성발굴의 기록 I』.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2014). 『동소문별곡』.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2014). 『사연있는 나무이야기』. 서울특별시.

종로구(2012). 『서울 경모궁지 종합정비계획』. 서울: 종로구.

한울문화재연구원(2016). 『서울 경모궁 궁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수원: 한울문화재연구원.

#### [학술논문]

Goodsell, Charles T.(2003). *The Concept of Public Space and Its Democratic Manifestation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4):

Jang, D. S.(2005). *A Study on BiBo Fengshui Techniques of Traditional Urban Landscape in the case of the Grove of Chosan and Pool Bank*.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 41-49.

Kim, H. W.(2005). *Hanyang's Forest Composition by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 75-82.

吉田光男(1993). 戸籍から見た20世紀初頭ソウルの「人」と「家」. 朝鮮學報 147



- 강서연(2006). “경기감영도로 본 한국건축도법의 특징”.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논.
- 강인애(2011). “수체계로 본 수원화성 건설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137-146.
- 고동환(2006).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 1-48.
- (2010). “한국 도시사 연구동향 - 고려 개경과 조선 한양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7: 355-379.
- (2013). “조선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 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52: 149-175.
- (2015). “조선후기 서울 삼문(三門) 밖 지역의 특성”. 서울학연구 60: 163-187.
- 구본현(2012). “한시문에 나타난 한양 성문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47: 37-65.
- 권선정(2011). “한국의 전통지리 풍수의 재현물로서 고지도”. 문화역사지리 23(3): 36-49.
- 권영상(2009).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 주요시설과 도로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논.
- 권차경·강영조(2000). “조선시대 민간정원 지당형태의 통시적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28(3): 61-71.
- 기호철·배재훈·신동훈(2013). “조선후기 한양 도성 내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 원인에 대한 역사 문헌학적 고찰”. 의사학 22(1): 89-132.
- 길지혜·손용훈·황기원(2015). “조선시대 한양도성 연지(蓮池)의 입지 및 공간적 특성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4): 38-51.
- (2016). “조선시대 옛길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蓮池)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1): 1-17.
- 길지혜·황기원·손용훈(2015). “역사적 도시환경의 보존형태 분석을 통한 유산적 가치 고찰-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2): 67-77.
- 김고운(2013). “돈의문 밖 교남동의 도시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철(2001). “18세기말 경모궁 모민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5-43.
- 김동현·최종희(2015). “시, 서, 화를 통해 본 18, 19세기 한양의 원림 향유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2): 36-48.
- 김묘정·정기호(2006). “수선전도의 축적지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4): 1-8.
- 김명희·홍형순(2011). “고전 시문과 회화를 통해 본 연(Nelumbonucifera)의 활용과 애호 행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1-13.
- 김봉남(2012). “죽란시사(竹欄詩社)의 재조명”. 한문학보 26: 33-72.
- 김영수·송인호(2012). “동아시아 성곽유산의 특성 분류와 세계유산 등재경향분석 -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 동아시아 성곽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81-92.
- 김원모(1964). “함춘원고”. 향토서울 22: 45-72.
- 김재호(2008). “식수문화의 변화과정-우물에서 상수도까지”. 한국민속학 47(1): 235-265.
- 김정동(2010). “심의석이 세운 독립문과 독립관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9-126.

- 김종태(2015). “『인평대군방전도』와 어제제문을 통해 본 조선왕실의 우애 선양”. 민족문화 45: 313-353.
- 김지영(2008). “조선후기 국왕 행차와 거동길”. 서울학연구 30: 33-69.
- 김지현(2016). “18세기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반송방”. 서울학연구소 서울학 정례발표회: 1-18.
- 김채현·배현미(2007). “풍속화에서 살펴 본 공공공간의 형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2): 59-71.
- 김추윤(2008). “무형의 전통문화 속에서 찾아본 물문화”. 하천과 문화 4(2): 60-75.
- 김하라(2013). “자료소개: 석양루라는 공간”. 국문학연구 227: 281-297.
- 김한배·이승희(2014). “서울 서촌지역 조선조 원림의 위치추적을 통한 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168-182.
- 김현욱(2003). “『조선왕조실록』에 의한 한양의 입지와 도성관리”.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박논.
- 김현욱·김두규·김용기(200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양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3): 68-77.
- 다나카유키야·Yukinori Matsukura·김태호(2003). “화강암 및 편마암 유역의 토양구조와 강우유출특성”.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89-92.
- 류경희(1990). “서울의 하계변화과정 연구-도성지역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49: 143-173.
- 문다미·이재근(2000). “궁궐공간의 배수체계에 관한 연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2): 1-12.
- 박기석(2009). “한양 도시문화의 공간적 배경과 문학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7: 287-307.
- 박수자·김한배·이승희(2014).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 분포와 인식의 비교연구”. 국토연구 82: 17-35.
- 배현미(1995). “조선후기의 복원도 작성을 통한 서울도시의 원형 재발견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5: 279-329.
- 성종상(2005). “고산 윤선도 원림의 생태적 수경연출기법”. 환경논총 43: 269-280.
- 손용훈·함광민(2011). “창덕궁 후원의 시문분석에 의한 의경과 경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3): 124-133.
- 손용훈·이규철(2014). “좋은 도시를 위한 하천의 위상과 기능”. GSES Conference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 44-50.
- 송인호·조은주(2011). “조선 별궁 어의궁(용흥궁)의 도시 위상과 영조의 친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5): 145-154.
- 송화섭·김경미(2013). “1930년대 전주 덕진연못의 단오물맞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16(1): 165-197.
- 송희경(2004). “조선 후기 아회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연못이 있는 정원 - 조선후기 원자·원림학의 유형과 그 함의”. 논지논총 22: 389-426.
- 신상섭·김현욱·박영관(2014). “‘숙천제야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 문화재 47(3): 42-59.
- 신용하(1999).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의 건립과 변천”. 향토서울 59: 75-105.

- 안대회(2009). “성시전도시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고전문학연구 35: 213-249.
- (2013). “18세기 시사의 현황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44: 421-450.
- 안순태(2013). “영조조 동촌파의 교유양상과 교유시”. 한국한시연구 21: 185-217.
- 양보경(1997). “18세기 지리지, 지도의 국가대력과 국가의 지방”. 응용지리 20: 21-42.
- 양상현·김명선·김진균·심우갑(1999). “조선시대의 척도 변천 연구 : 규장각 소장 문헌의 실측을 통한 척도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4): 155-162.
- 오경섭·양재혁·조현(2011). “한국 하천 모래톱의 지형학적 의미와 효능”. 한국지형학회지 18(2): 1-14.
- 오세현(2015). “조선 후기 한양 동부 관동(館洞)의 인문지리와 연안이씨 관동파”. 서울학연구 61: 31-72.
- 오수미(2002). “조선 상류주택의 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옥한석(2007). “서울의 기후·지형 요소와 경관풍수에 의한 왕궁터의 평가”. 문화역사지리 19(1): 79-90.
- 위순선(2003). “朝鮮時代 南池耆老會圖 研究”. 문물연구 7: 103-140.
- 유가현(2012). “조선시대 사대부 원림으로서 洞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순진(2013). “한국의 전통적인 공유지 관리 방식을 통해서 본 전통사회 자연관과 그 함의”.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3-34.
- 윤영환 외(1990).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민가정원양식”. 한국조경학회지 18(2): 95-110
- 윤장섭(1975). “한국의 영조척도”. 대한건축학회지 19(63): 2-10.
- 윤진영(2002). “李惟侃(1550~1634)의 「蓮池會始終事實」과 南池耆老會圖의 傳承來歷”. 장서각 8: 55-91.
- 윤천근(2011). “물의 사상, 물의 문화”. 동서철학연구 59: 387-416.
- 윤희진(2010). “정원을 통해 본 영남선비의 사유양식과 가치지향-연못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159-211.
- 이규목·김한배(1994). “서울 도시경관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2: 1-56.
- 이규철(2016). “대한의원 본관의 건축 과정과 건축계획적 특성”. 의사학 25(1): 1-39.
- 이기봉(2009). “수도 한양의 조선적 국도숲 이해”. 문화역사지리 21(1): 223-242.
- 이상구(2008). “조선의 궁궐 도시와 만나다-궁궐의 앞과 뒤”. 서울학연구 33: 41-74.
- 이상태(1998). “고지도를 이용한 18-19세기 서울 모습의 재현”. 서울학연구 11: 145-196.
- 이상필·이재근(2005). “도상 자료에 나타난 한국 전통원지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2): 73-89.
- 이상필·강철현·이재근(2006). “한국 전통 원지 조영(造營)에 관한 연구 - 발굴조사된 원지(園池)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3): 51-66.
- 이상해(1992). “한양도성 경관의 원형”. 대한건축학회지 36(1): 36-44.
- 이상협(2012).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81: 79-118.
- 이선희(2011). “조선후기 한성부 내 경기감영의 입지 연구”. 서울학연구 45: 143-178.
- 이육(2004).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정신문화연구 27(2): 59-94.
- (2014). “18, 19세기 조선유학자의 정원 조영과 성격”. 남도문화연구 26: 243-267.

- 이원교(1993).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논.
- 이은숙(2010). “지리학 탐구대상으로서의 문학작품과 지리학 연구수단으로서의 문학작품”. 문화역사지리 22(3): 146-153.
- 이현진(2013). “조선후기 京·鄕 분기와 수도 집중”. 서울학연구 52: 67-90.
- (2015). “조선시대 ‘상경(上京)’을 통해 본 수도 한양의 성격”. 서울학연구 60: 63-91.
- 임의제(1994). “조선시대 서울 누정의 조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3: 233-269.
- 장재천(2011). “조선후기 성균관의 반촌과 반촌인”. 향토서울 77: 83-116.
- 장지연(2009). “권력관계 변화에 따른 동교 관묘의 의미 변화”. 서울학연구 36: 39-76.
- (2010). “고려, 조선초 국도풍수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논.
- 전상인(2014). “21세기를 위한 물의 환경계획학”. GSES Conference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 44-50.
- 전영옥·이상문(2008). “전통도시 화성이 수로 조영에 나타난 생태적 계획원리 연구”. 국토계획 43(5): 123-135.
- 전영옥·양병이(1994).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관영(官營) 연지(蓮池)에 관한 연구- 동지, 서지, 남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2(2): 53-63.
- 정동오(1978). “한국정원의 지당형태 및 구성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6(1): 1-16.
- (1982). “한 일 전통정원양식의 비교연구 - 지당정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1(1): 41-62.
- 정봉구·한동수(2007). “조선후기 한양의 원림에 관한 연구- 경화사족의 원림기문과 원림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3(10): 81-92.
- 정송이(2014). “경모궁 입지와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논.
- 정용조·박주성·심우경(2010). “경주 월성의 해자(壕字)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3): 37-44.
- 정용조·심우경(2011). “동,서양 해자의 역사와 문화적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105-120.
- 정우진(2015).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체제와 전용 양상”.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논.
- 정운익 외 4인(2004). “조선시대 민간 전통연못의 입·배수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1): 49-60.
- 정정남(2009). “장용영의 한성부 내 입지와 관사의 건축적 특성- 본영도형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21: 39-75.
- 조규희(2012). “조선후기 한양의 명승명소도와 국도 명승의 재인식”. 한국문학과 예술 10: 147-194.
- 조성윤(2013). “조선 후기 서울의 주민 구성과 성곽의 의미”. 향토서울 83: 115-150.
- 조영훈·이찬희(2015). “한양도성 석재공급지 추정을 위한 고문헌 분석 및 암석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암석학회지 24(3): 193-207.
- 조은주(2012). “근대기 한양도성 안 궁묘와 궁실의 변용”.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박논.
- 주영재(2003).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조선후기 돈의문 밖 도시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석논.

- 주윤(1987). “한양 도읍을 관류하는 청계천과 교량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44: 61-82.
- 진용미(2014). “창덕궁 후원의 배수체계 특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병두(2012).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정체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42: 92-135.
- 최성환(2012). “사도세자 추모공간의 위상 변화와 영우원 천장”. 조선시대사학보 60: 139-181.
- 최영준(1989) “조선시대 한양의 교(郊) 지역 연구”. 문화역사지리 1: 3-22.
- 최원석(2010). “한국의 수경관에 대한 전통적 상징 및 지식체계”. 역사민속학 32: 273-297.
- 최은숙(2012). “<한양가>에 나타난 한양 경관과 장소애착성”. 한국문학과 예술 10: 5-31.
- 최인영(2014). “서울지역 전차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논.
- 최창조(1992). “풍수사상에서의 水”. 건축 36(2): 27-30.
- 한동환(1992). “조선전기 한양 금산의 범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20: 17-31.
- 허준(2011). “조선 명종대의 국정운영관”. 한국사상사학 38: 89-129.
- 홍경모(1936). “연지동의 추억”. 사해공론 2(7): 238-240.
- 홍금수(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황기원(1984). “문화경관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이론 및 기법”. 환경논총 15: 94-107.
- (1987). “조선시대 향읍의 공공공간”. 공간 1987.5: 119-129.

#### [정기간행물]

『경향신문』 ; 『독립신문』 ; 『동아일보』 ; 『대한매일신보』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 『매일경제』 ; 『매일신보』 ; 『서울대학교병원보 함춘시계탐』 ; 『아시아경제』 ; 『조선닷컴』 ; 『황성신문』 ;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 [웹사이트]

「고전의 향기」 이메일 서비스: [www.itkc.or.kr](http://www.itkc.or.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오픈 플랫폼: [map.vworld.kr](http://map.vworld.k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http://newslibrary.naver.com)

승정원일기: [sjw.history.go.kr](http://sjw.history.go.kr)

维基百科: [zh.wikipedia.org](http://zh.wikipedia.org)

이수광. 『지봉집(芝峯集)』 卷之一 「비우당팔영」 번역글: [tip.daum.net/question/82098767?q=](http://tip.daum.net/question/82098767?q=)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http://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사전: [encysillok.aks.ac.kr](http://encysillok.aks.ac.kr)

칼럼: 최열 그림의 뜻 76: [www.daljin.com](http://www.daljin.com)

한국고전번역원 종합DB: [db.itkc.or.kr](http://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http://db.history.go.kr)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서서비스 DB: [www.mediagaon.or.kr](http://www.mediagaon.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http://www.koreanhistory.or.kr)

문화원형백과, 문화원형 라이브러리: [www.culturecontent.com](http://www.culturecontent.com)

## Abstract

### A Study on Lotus Ponds(蓮池) in Hanseong-bu(漢城府)

-About Dongji(東池), Seoji(西池), Namji(南池), Eouidongji(於義洞池),  
Gyeongmogungji(景慕宮池)-

Ph. D. Dissertation

Ji-Hye Gil

Advised by Prof. Yong-Hoon Son

February 2017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historical maps of Hanseong-bu(漢城府) of the Joseon Dynasty, there are five ponds which are shown relatively frequently. These are called 'Lotus Ponds (蓮池)': Dongji(東池), Seoji(西池), Namji(南池), Eouidongji(於義洞池), and Gyeongmogungji(景慕宮池). Although these ponds are shown in historical maps and geographies, little is known about them except their names, compositional backgrounds, and their temporary landscape in paintings. This is due to the disappearance of ponds and the dearth of history record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onds. In this study, the place characteristics of the disappeared ponds can be gleaned from an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urban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istorical composition and management, urban use and perceived landscapes of users closed to the original form.

First, in the location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examines the spatial environment of the lotus pond areas and surroundings,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lotus pond area, and the contemporary conditions of the city. All of them were planned to be adjacent to roads, which was a prudent measure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pond, the connection of the water system, and the boundary of the area. Seoji, Eouidongji and Gyeongmogungji were located in the mountain valley, and Dongji was in flooded wetland. Namji was where the terrain was lowered, but somewhat distant from the water system. The locations of the ponds were comparatively accurately identified by the land registration map, except Dongji. The shape of Seoji, Namji and Gyeongmogungji was remarkable, but the shape of Dongji and Eouidongji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water level within the designated site range. At present, the urban lot form of Seoji, Eouidongji and Gyeongmogungji were preserved or expanded, and among them, Eouidongji left many place elements at the community level.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lotus ponds, and the reasons for their decline and eventual disappearance. Of the five ponds, Dongji and Namji were first built together with the castle. In the process of complementing urban functions, Seoji was formed and Eouidongji was improved. Gyeongmogungji was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Dongji and Namji made to supplement the topography called to *Bibo Pungsu*, Seoji was for receiving Chinese envoys, Eouidongji contributed to the city reservoirs, and Gyeongmogungji was simply to improv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ll the ponds were run through the burial and shrinking process several times. Even if these ponds were buried, it could be recovered after construction at any time because the lands themselves were owned by the state. Additionally, the use of soil was efficient in connection with other nearby construction projects. Although shrinking the lotus ponds was basically a public-sector project, the residents took care of the construction if a lot of private houses were built around it. And each pond had an obligation to devote the harvest of lotus of the year to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palace, the royal secretariat, the royal



medical office, etc. The ponds all disappeared during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Seoji and Namji were filled in for other purposes, and Dongji and Eouidongji have been unable to shrink the buried land and have naturally collapsed. There are two possibilities, as above, for Gyeongmogungji.

Third, this paper analyzed the usage patterns of the lotus pond, and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landscapes of the pond. In the case of using the pond, the use of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 was varied in both Seoji and Namji. The government used the pond area as a venue for banquet for envoys, religious rituals including petitions for rain, presenting documents to the king, meeting hosted by government offices, etc. It was also a space where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took place, such as farewell parties, literary meetings, poem contests, gatherings of friends, etc.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Dongji, Eouidongji and Gyeongmogungji, the people appreciated these ponds as part of the natural landscape by observing them from a distance rather than enjoying it more actively. In the surrounding landscape, Seoji and Namji were natural, but the others were situated in different landscapes such as farmland and mountains.

These five lotus ponds in Hanseong-bu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mark, Dongji, Seoji and Namji in front of the fortress gate were impressive when they entered and exited the city. This was a unique feature in Hanseong-bu,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ponds of other towns. This arrangement made the royal palace symbolic of the city's entrance and exit view, making it popular as a meeting place for greetings and farewells.

In addition, Namji, Eouidongji and Gyeongmogungji played a role as boundary artifacts. It is known that the mountain, the road and the water system became the boundary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also these ponds function as a factor that distinguishes the district. In addition, it was a complex boundary to distinguish various elements and areas in the city

such as *Dong*(洞), palace area, and the land use in Hanseong-bu.

Seoji and Namji were highly utilized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there was vacant lot next to pond good to use. It also played a role in supporting many activities that were difficult to accommodate inside the city walls.

Dongji was close to a geographical wetland and buried in low-lying floodplains, making it difficult to actively control and manage the pond. However, because the pond site was preserved, it would have been necessary to shrink the pond in a wetland as needed. Therefore, it seemed to be a natural pond that was difficult to estimate the exact boundary of the lotus pond.

In addition, the lotus ponds were useful as recreational spaces for the city. It was a place where people could enjoy the scenery near the city without traveling far. Among them, Seoji and Namji were famous for lotus appreciation.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s left by illustrious officials made these ponds more famous as a recreational space.

The meaning of the lotus ponds in Hanseong-bu are as follows: although the ponds were considered to be functions of *Bibo Pungsu*, envoy reception and castle pond in early stage of Joseon Dynasty, as time passed, the emphasis was also on practical value on the lotus pond as an orchard where lotus crops could be stably maintained.

In addition, the lotus ponds functioned as an effective horizontal landmark in urban environment. A large area served as a transition space at the boundary. In addition, it was an urban component that enabled the spatial transition to a co-sensory experience through the audible ventilation of the resource of water and the olfactory stimulation through the lotus flavor.

The ponds were valuable as public space to the local residents in Hanseong-bu. Except for the period when it was used as a national use, the lotus ponds were open to the public. In particular, the ponds outside the fortress wall were even freely open during night. It was open to the public, which distinguished it from the ponds inside the residence, the palace, and the government office, and has a more public character due to its high

anonymity.

This study extended the recognition of cultural heritage in Hanseong-bu to the lotus ponds. Unlike buildings or facilities, the ponds were part of the whole urban environment and closely connected to the surrounding spatial environment. They were spaces with good connection with the city, high value of landscape and ecological value, and where nature could be enjoyed, so they were highly worthy of their place in urban environment of Hanseong-bu.

*Keywords : Bibo Pungsu, Cultural Landscape, Fortress Wall of Seoul, Historical Map, Traditional City, Public Construction Work, Waterspace*

*Student Number : 2005-31246*